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

2015. 08.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D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저자

책임연구원 이 재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별연구원

▸ 알제리:

박 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다 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튀니지: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Maher Gassab Université Hassan, 1er

▸ 모로코: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Driss Baakil L'école supérieur de commerce

▸ 세네갈: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 건 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 민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코트디부아르: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윤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신 혜 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서 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한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즉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겪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정세불안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식수 부족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등의 보건 문제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비중점 협력국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 향후 협력증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환경 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을 대상으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KDS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기본적인 전략틀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협력틀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파악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상기의 협력틀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흐름과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국제사회 여러 지원 기관과의 구체적 공조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가개발전략 및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 정부가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형태별·분야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주체별로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KOICA를 비롯한 한국 지원 기관들의 협력현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기본목표와 함께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과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며 실제적인 현지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수요와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KOICA의 지원경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중점지원 분야를 모색하되, 수원국의 실질적인 「니즈」와 KOICA의 공급능력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채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연구위원, 안동대 박찬용 교수, KDS 전홍민 연구위원 등 주 연구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또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황재상 KOICA 서아프리카팀장과 라갑채 과장, 송은의 과장, 김정민 대리, 이규홍 대리, 이지현 대리 등 서아프리카팀원을 비롯하여, 정회진 모로코 사무소장, 김상철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 송기정 세네갈 사무소장, 서호진 알제리 사무소장, 윤지현 튀니지 사무소장 등 KOICA 현지 사무소장과 사무소 직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S 최다연, 이은샘, 김민주, 이윤주, 신혜림 연구원 등 실무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KOICA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과의 향후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에 있어 생생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간 협력효과가 주변 국가들의 국가발전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5년 8월

연구책임자 이재훈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1. 연구의 방법 ---- 5
2. 연구의 구성 ---- 6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 7
1. 연구의 의의 ---- 7
2. 연구의 한계 ---- 8

제2장 세네갈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 11
제1절 일반현황 ---- 13
1. 개요 ---- 13
2. 정치 현황 ---- 19
3. 경제 현황 ---- 29
4. 사회·문화 현황 ---- 41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 48
1. 개발환경 ---- 48
2. 분야별 개발과제 ---- 85
제3절 국가개발정책 ---- 91
1. 국가개발전략(NDS) ---- 91
2. 분야별 전략 ---- 97

제3장 국제사회의 세네갈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 113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15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 115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31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43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 159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61
1. 한-세네갈 협력현황 ---- 161
2. KOICA의 지원현황 ---- 162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 169

제4장 KOICA의 세네갈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 173
제1절 기본방향 ---- 175
1. 세네갈 국가의 특징 ---- 175
2. 세네갈 지원 기본방향 ---- 178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 181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 181
2. 분석 결과 ---- 190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 193
1. 교육 ---- 193
2. 농림수산 ---- 206
3. 보건의료 ---- 213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 218

제5장 결론 ---- 221
제1절 연구의 결론 ---- 223
제2절 정책 제언 ---- 225

참고문헌 ---- 227

부록 ---- 235

표 목차

〈표 2-1〉 세네갈 개황 ---- 14
〈표 2-2〉 주요 지역별 연간 평균 강우량 ---- 16
〈표 2-3〉 세네갈 월별 주요 event ---- 18
〈표 2-4〉 세네갈 중앙부처체계 ---- 21
〈표 2-5〉 세네갈 행정구역 ---- 22
〈표 2-6〉 세네갈 정치환경 요약 ---- 24
〈표 2-7〉 ECOWAS의 주요활동 ---- 26
〈표 2-8〉 ECOWAS Vision 2020 최우선 과제 및 추진전략 ---- 26
〈표 2-9〉 UEMOA의 주요활동 ---- 28
〈표 2-10〉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 ---- 29
〈표 2-11〉 산업별 GDP 비중 ---- 32
〈표 2-12〉 주요 수출입 품목 ---- 36
〈표 2-13〉 세네갈 경제자유지수 변화 ---- 37
〈표 2-14〉 세네갈 Doing Business 순위 ---- 37
〈표 2-15〉 아프리카 역내 국가별 FDI 유입액 비교 ---- 40
〈표 2-16〉 노동시장 주요 지표 ---- 41
〈표 2-17〉 취업 연령층 활동 구분 ---- 43
〈표 2-18〉 공식부문 산업별 노동인구 ---- 44
〈표 2-19〉 비공식부문 산업별 노동인구 ---- 45
〈표 2-20〉 세네갈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추이 ---- 48
〈표 2-21〉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 비교한 세네갈의 빈곤 관련 지수 --- 49
〈표 2-22〉 빈곤 및 불평등 변화 ---- 51
〈표 2-23〉 세네갈 빈곤조사 ---- 51
〈표 2-24〉 세네갈 MDG 경과 추세 ---- 53
〈표 2-25〉 MDGs 목표 및 지역별 세부과제 ---- 54
〈표 2-26〉 세네갈 문해율 ---- 56
〈표 2-27〉 세네갈의 초등교육 등록률 ---- 57
〈표 2-28〉 세네갈의 중·고등 및 대학교육 등록률 ---- 57
〈표 2-29〉 교육수준별 초·중·고등학교 현황 ---- 58
〈표 2-30〉 교육수준별 노동인구 ---- 60

〈표 2-31〉 세네갈 국토 이용현황 ---- 61
〈표 2-32〉 주 농업상품 생산량 ---- 62
〈표 2-33〉 세네갈 농산물 무역 현황 ---- 63
〈표 2-34〉 세네갈 쌀 수출 동향 ---- 64
〈표 2-35〉 쌀 생산지 비교 ---- 66
〈표 2-36〉 세네갈 지역별 쌀 수확 후 손실률 ---- 67
〈표 2-37〉 세네갈 지역별 쌀 수확 후 손실규모 ---- 67
〈표 2-38〉 수산물 수출 현황 ---- 70
〈표 2-39〉 모성 사망률 ---- 71
〈표 2-40〉 사하라이남 대비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 72
〈표 2-41〉 사하라이남 대비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 73
〈표 2-42〉 식수 이용 현황 ---- 75
〈표 2-43〉 지역별 우물 및 ASUFOR 관리 ---- 78
〈표 2-44〉 세네갈 인프라 현황 ---- 79
〈표 2-45〉 서아프리카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 비교 ---- 80
〈표 2-46〉 서아프리카 지역 내 협력 및 경쟁국 ---- 81
〈표 2-47〉 세네갈의 세계거버넌스지수 ---- 82
〈표 2-48〉 세네갈 성불평등지수 비교 ---- 83
〈표 2-49〉 세네갈의 양성평등 관련 법 ---- 84
〈표 2-50〉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변화 ---- 87
〈표 2-51〉 산업부문별 노동인구 ---- 88
〈표 2-52〉 세네갈 도약계획 수립 배경 ---- 91
〈표 2-53〉 PSE 상의 발전 목표 ---- 94
〈표 2-54〉 PAP 핵심 프로젝트 ---- 96
〈표 2-55〉 PAP 주요 개혁과제 ---- 97
〈표 2-56〉 세네갈 섹터별 전략 개요 ---- 98
〈표 2-57〉 세네갈 농업발전국가전략 수립 배경 ---- 100
〈표 2-58〉 국가농업투자계획 예상효과 ---- 104
〈표 2-59〉 PRACAS 목표 및 기대효과 ---- 105
〈표 2-60〉 농업발전국가전략 우선실행계획 ---- 106
〈표 2-61〉 PRACAS의 직간접적 고용 기대효과 ---- 107
〈표 2-62〉 PNDS의 전략적 방향 ---- 109

〈표 3-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 수원 현황 ---------- 115
〈표 3-2〉 ODA 공여주체별 세네갈 지원 현황 ---------- 117
〈표 3-3〉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 부문 ---------- 118
〈표 3-4〉 對 세네갈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 119
〈표 3-5〉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對 세네갈 지원형태별 세부 지원현황
---------- 122
〈표 3-6〉 주요 원조기관별 對 세네갈 지원형태 변화추세 비교 ------- 123
〈표 3-7〉 효율성에 따른 분야별 작업그룹 분류 기준 ---------- 125
〈표 3-8〉 효율성에 따른 분야별 작업그룹 분류 ---------- 126
〈표 3-9〉 공여주체별 교육 분야 지원 ---------- 127
〈표 3-10〉 공여주체별 수산 분야 지원 ---------- 129
〈표 3-11〉 공여주체별 식수위생 사업 규모 및 수혜 인구 ---------- 130
〈표 3-12〉 주요 공여주체 PEPAM 사업 요약 ---------- 131
〈표 3-13〉 AFD의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 134
〈표 3-14〉 AFD 포도르 관개개발 및 농촌경제 지원사업 개요 ---------- 134
〈표 3-15〉 세네갈의 목표와 USAID 전략 일치 ---------- 135
〈표 3-16〉 USAID의 분야별 지원 내용 ---------- 136
〈표 3-17〉 USAID의 세네갈 지역 보건 서비스 지원 ---------- 137
〈표 3-18〉 J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인력양성사업 개요 ---------- 141
〈표 3-19〉 CTB의 세네갈 주요 지원분야 ---------- 142
〈표 3-20〉 World Bank CPS의 기대효과 ---------- 144
〈표 3-21〉 World Bank의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 145
〈표 3-22〉 World Bank의 PDIDAS 사업 개요 ---------- 147
〈표 3-23〉 World Bank의 TVET 사업 개요 ---------- 148
〈표 3-24〉 EU 예산 내 회원국의 분야별 기여 현황 ---------- 150
〈표 3-25〉 EU의 분야별 지원 내용 ---------- 151
〈표 3-26〉 EU의 예산 지원 선정 및 평가 기준 ---------- 152
〈표 3-27〉 AfDB의 분야별 지원 내용 ---------- 154
〈표 3-28〉 AfDB의 2014년 세네갈 지원 현황 ---------- 155
〈표 3-29〉 FAO의 세네갈 지원 현황 ---------- 158
〈표 3-30〉 주요 공여주체별 특징 ---------- 160
〈표 3-31〉 한국과의 관계 ---------- 161

〈표 3-32〉 KOICA의 2013년 세네갈 지원 현황 ---- 163
〈표 3-33〉 KOICA의 2014년 지원 대상 사업 ---- 163
〈표 3-34〉 KOICA 농업사업 평가 요약 ---- 166
〈표 3-35〉 KOICA의 향후 사업 계획 ---- 168
〈표 3-36〉 EDCF 해양인프라 구축사업 개요 ---- 169
〈표 3-37〉 한-세네갈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 개요 ---- 171
〈표 4-1〉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 183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 184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 184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187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 189
〈표 4-6〉 정량분석 결과 ---- 191
〈표 4-7〉 정성분석 결과 ---- 192
〈표 4-8〉 종합분석 결과 ---- 192
〈표 4-9〉 교육 관련 유관부처 ---- 193
〈표 4-10〉 UCAD 내 외국인 학생 비율 ---- 195
〈표 4-11〉 對 세네갈 유학생 출신지역 비중 ---- 195
〈표 4-12〉 세네갈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핵심 개혁과제 ---- 196
〈표 4-13〉 산업별 핵심 역량 ---- 198
〈표 4-14〉 KO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직업훈련 사업 ---- 200
〈표 4-15〉 지역별 중·고등학교 등록률 ---- 202
〈표 4-16〉 교육부의 STEM 관련 요청사업 개요 ---- 203
〈표 4-17〉 교육부의 STEM 요청 사업 평가 ---- 204
〈표 4-18〉 공여주체별 교육 분야 지원 ---- 204
〈표 4-19〉 농업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 ---- 206
〈표 4-20〉 쌀 생산지 비교 ---- 209
〈표 4-21〉 공여주체별 수산 분야 지원 ---- 212
〈표 4-22〉 보건의료 분야 주요 한계점 및 향후 도전과제 ---- 213
〈표 4-23〉 세네갈 지역·교육·소득별 영아사망률 ---- 216

그림 목차

[그림 2-1] 세네갈 지도 ---- 13
[그림 2-2] 세네갈의 인구 구조 ---- 15
[그림 2-3] 지역별 인구 규모 ---- 15
[그림 2-4] 사헬 지역의 강우량 ---- 16
[그림 2-5] 자연재해별 피해자 규모 ---- 17
[그림 2-6] 세네갈 지구 및 현 지도 ---- 22
[그림 2-7] 최근 10년간의 GDP 성장률 ---- 31
[그림 2-8] 아프리카 국가별 GDP 추세 비교 ---- 32
[그림 2-9] 산업별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 33
[그림 2-10] 세네갈 상품 무역 수지 ---- 35
[그림 2-11] 전 세계 대상 주 무역국가 ---- 36
[그림 2-12] 세네갈 지역별 민족 분포 ---- 47
[그림 2-13] 분야별 전체 MPI 기여도 ---- 50
[그림 2-14] 세네갈 빈곤율 지도 ---- 52
[그림 2-15] 세네갈 국가 교육훈련체계 ---- 60
[그림 2-16] 지역별 쌀 생산량 ---- 65
[그림 2-17] 지역별 땅콩 생산량 ---- 65
[그림 2-18] 세네갈 쌀 가치사슬 구조 ---- 68
[그림 2-19]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의 공평성 ---- 73
[그림 2-20] 지역별 안전한 식수 접근률 ---- 76
[그림 2-21] 안전한 식수 접근 불가 인구 ---- 76
[그림 2-22] 수자원 관리법 및 프로그램 개황 ---- 77
[그림 2-23] 수자원 관리제도 프레임워크 ---- 78
[그림 2-24] 세네갈 물류성과지수 ---- 81
[그림 2-25] 연간 GDP 성장률 ---- 85
[그림 2-26] 세네갈 쌍둥이 적자 추이 ---- 86
[그림 2-27] 세네갈 재정 현황 ---- 86
[그림 2-28] 지역별 의료 분야 예산 분배 ---- 89
[그림 2-29] 지역별 교육 분야 예산 분배 ---- 89

[그림 2-30] 세네갈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 지도 ---- 90
[그림 2-31] PSE의 구성 ---- 94
[그림 2-32] PSE 실행 체계 ---- 95
[그림 2-33] 세네갈 고등교육 10대 개혁 과제 실행 전후 비교 ---- 100
[그림 2-34] PNIA 예산 구성 ---- 103
[그림 2-35] PRACAS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 107
[그림 2-36] 세네갈 multi-village 구상 ---- 111
[그림 3-1] 세네갈의 ODA 수원 추이 ---- 116
[그림 3-2] ODA 분야별 지원 현황 ---- 118
[그림 3-3] 세네갈 Donor Coordination Framework ---- 125
[그림 3-4] 농업 관련 공여기관 협력 분야 ---- 128
[그림 3-5] 농업 및 농가공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 128
[그림 3-6] 세네갈의 목표와 JICA 전략 일치 ---- 139
[그림 3-7] JICA의 주요 프로젝트 대상지 ---- 140
[그림 3-8] World Bank의 세네갈 분야별 지원 현황 ---- 145
[그림 3-9] AfDB의 분야별 지원 현황 ---- 154
[그림 3-10] KOICA의 세네갈 분야별 지원 현황 ---- 162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 182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 186
[그림 4-3] 잠재적 고용수요에 따른 산업분야 ---- 197
[그림 4-4] KOICA 세네갈 농업부문 포트폴리오 ---- 208
[그림 4-5] 지역별 쌀 생산량 ---- 209
[그림 4-6] 농업 및 농가공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 210
[그림 4-7] 농업 관련 공여기관 협력 분야 ---- 210
[그림 4-8] KOICA 식수위생 사업 단계별 구성방안 ---- 215
[그림 4-9] KOICA 식수위생 사업 단계별 확장방안 ---- 215
[그림 4-10] 지역별 의료 인력 밀도 ---- 217
[그림 4-11] KOICA-세네갈 간 협력 프레임워크 ---- 218

글상자 목차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 185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 185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 190

주요 약어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佛개발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AIDEP	Appui à l'Agriculture Irriguée et au Développement Economique de Podor (포도르 관개개발 및 농촌경제 지원사업)
AIDI	Afric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지수)
ASUFOR	Association des Usagers des Forages Ruraux(농촌관정이용자협의회)
AU	African Union(아프리카연맹)
BOS	Bureau Opérationnel de Suivi du Plan Sénégal Emergent (PSE 모니터링 사무국)
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글로벌연수)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캐나다국제개발청)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부패인식지수)
CSP	Country Strategic Partnership(국가전략파트너십)
CTB	Coopération Technique Belge(벨기에개발협력청)
DAPSA	Direction de l'Analyse, de la Prévision et des Statistiques Agricoles (농업통계분석국)
DCT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Technique(기술협력국)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개발컨설팅프로젝트)
ENO	Espaces Numériques Ouverts(디지털 지역학습관)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Korea(대외경제협력기금)
EPI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환경수행지수)
EU	European Union(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G12	Comité de Concertation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공여기관 사무국 회의)
G50	Groupe Elargi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전체 공여주체 회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세계경쟁력지수)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II	Gender Inequality Index(성불평등지수)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獨국제개발본부)
HDI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HIPC	High Indebted Poor Countries(과다채무빈곤국)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국제식량정책연구소)
IIAG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이브라힘거버넌스지수)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SEP	Institut Supérieur d'Enseignement Professionnelle(직업전문대학)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日국제개발청)
KAFACI	Korea-A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물류성과지수)
LPS-PA	Lettre de Politique Sectorielle des Pêche et de l'Aquaculture (수산 및 양식분야 전략)
MAER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ement Rural(농업농촌기술부)
MEFP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경제재정기획부)
MEN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교육부)
MESR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고등교육부)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美새천년도전공사)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MHA	Ministère de l'Hydraulique et de l'Assainissement(수리위생부)
MIEP	Projet d'Infrastructures et d'Equipements Maritimes(해양인프라 구축사업)
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다차원적 빈곤지수)
MPEM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s(해양수산부)
MSAS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ction Sociale(보건사회부)
NAFSN	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신연맹)
NIP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유럽연합 국가지시프로그램)
NRI	Networked Readiness Index(네트워크 준비지수)
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지원조정국)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OFOR	Office des Forages Ruraux(농촌관정분과)
PAP	Plan d'Action Prioritaire(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
PAQUET	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략계획)
PEPAM	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밀레니엄 식수위생프로그램)
PDIDAS	Projet de Développement Inclusif et Durable de l'Agribusiness au Sénégal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개발 사업)
PNDS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보건개발국가계획)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PRACAS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농업발전국가전략)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빈곤완화전략)
PSE	Plan Sénégal Emergent(세네갈도약계획)
PTF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기술 및 재정 파트너)

UEMOA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Africaine(서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유엔인구기금)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유엔아동기금)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공업개발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美국제개발청)
UVS	Université Virtuelle du Sénégal(사이버대학)
WDI	World Development Index(세계개발지수)
WEF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지수)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요 약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리타니, 말리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와 유사한 국토면적(약 19만 km^2)에 1,300만 명의 다민족 인구, 90%에 달하는 이슬람교인 등 이색적인 문화와 함께 비교적 역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세네갈은 2009년과 2015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농업, 수산, 식수위생, 교육,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으며, 양국 간 경제외교 협력관계의 심화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2기 ODA 중점협력국 목록에 세네갈이 신규로 편입되었다. KOICA는 보다 체계적인 무상원조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지원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네갈의 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세네갈과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의 틀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분야별 핵심 지표와 벤치마킹 국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급능력을 정량화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수요와 개발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으려고 노력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네갈의 정치·사회·경제 일반현황 및 분야별 개발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국가적 개발과제를 도출하였다.

-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 서비스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 노동인구-산업구조 상의 불균형
- 식수·교육·보건 등 인간기본욕구 접근성 관련 지역적 편중
- 서아프리카 지역 내 ICT·교육·의료 허브 잠재성

세네갈은 땅콩, 수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의 수출구조와 공공투자 및 공무원 임금지출 과다로 인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6- 2013년 중 GDP 성장률이 3.3%에 머물러 역내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전체 GDP

중 서비스 부문(3차 산업)의 비중이 62%로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인력의 기능개발(skill development)이 국가적인 과제이다. 특히, 농업 부문은 전체 노동인구의 77.5%가 종사하는 데 반해 GDP 비중은 13.7%로 낮아서, 농업 분야 내 생산성 혁신과 농업 종사인구의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네갈은 인구분포, 경제활동, 사회 및 경제 인프라 등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Dakar와 중부 및 서부지역에 주요 경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식량문제와 빈곤도의 지역격차가 크다. 또한 사회 보건, 인적역량개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성불평등 또한 심각한데 특히 Dakar, Saint-Louis 등 도시지역과 Senegal 강 및 Guiers 호수 등 수자원 유역을 제외한 중부, 동부 및 남부 내륙지역은 식수공급, 기초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세네갈은 역내에서 ICT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기본적인 통신환경이 우수한 편이며, 전통적으로 역내에서 교육 및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세네갈은 수도 다카르에서 30km, 신공항 부지인 Diass에서 10km 거리에 있는 Diamniadio에 최첨단 Digital 교육의료 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네갈 정부는 2014년 2월에 2014-2023년 간 경제사회개발 청사진을 담은 '세네갈 도약계획(Plan Sénégal Emergent; PSE)'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PSE에 따라 현재 연 4.6%의 경제성장률을 4년 이내 연 7-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4%에 달하는 정부 재정적자를 2018년까지 3.9%로 낮출 계획이다. PSE는 2035년 신흥 경제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다.

Pillar I: 현재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개발 분야의 통합으로 경제의 구조적 개혁으로 부와 직업창출, 사회적 통합 이룩

Pillar II: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불균형 해소, 자원의 보존과 신생지역의 지원 등

Pillar III: 사회적 안녕과 발전 잠재력 구현을 위한 국가안보, 안정성 및 거버넌스 강화, 인권과 자유 보호

또한, 2014-2018년 5년 간 동 전략을 추진해 갈 구체적인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Plan d'Action Prioritaire; PAP)'을 수립하였다. PAP의 공공분야는 ①인프라, ②에너지, ③농업, ④교육 및 직업훈련, ⑤식수위생, ⑥보건 등 6개 핵심 분야 하에 27개의 핵심 프로젝트 및 17개의 주요 개혁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①거시경제적 안정성, ②경제 도약, ③사회적 보호, ④사회 서비스에의 접근성, ⑤공공행정 개혁, ⑥굿거버넌스, ⑦지역개발, 평화 및 안보, 분권화, 지역 통합 등의 세부 목표로 나뉜다. PAP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개발협력파트너(PTF)로부터 당초 목표했던 62억 달러를 초과하여 총 77억 달러(3조 729억 CFA)에 달하는 재정지원 서약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분야별 전략으로는 교육, 농업, 보건, 식수위생 분야 전략이 있다. 세네갈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취학률 98%, 이수 비율 96%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3-2025년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략계획(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QUET)을 수립하여 국가개발계획인 PSE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업발전국가전략(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PRACAS)을 수립하여 국가 농업개발 정책을 재공식화 하였다. PRACAS는 2014-2017년 동안 ①농민교육과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가족농 현대화, ②환경 친화적 농산업을 바탕으로 한 농업 기업가정신 도모, ③기술 및 장비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 도모, ④취약계층 복원력(resilience)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쌀·양파·땅콩·원예의 자급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2018년 보건개발국가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은 영아 예방접종률 80% 달성, 모성·영·유아 및 청소년의 사망률과 발병률 감소, HIV/AIDS 발병자 유지, 보건 분야 거버넌스 향상, 빈곤층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레니엄 식수위생프로그램(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PEPAM)은 세네갈 정부가 2005년에 수립한 식수위생 분야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세네갈 정부의 개발계획에 동참하여 꾸준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대 세네갈 ODA는 평균 10억 달러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총 32억 달러의 대규모 부채탕감 지원이 있었다. 세네갈의 분야별 ODA 지원 현황은 교육·보건·식수위생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44%를 차지하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16%, 이어 프로그램 지원(13%), 생산분야(12%), 범분야(9%), 인도적 지원(3%)등 다양한 분야로의 ODA가 지원되었다. 형태별로는, 예산지원이 18.32%, 프로젝트가 65.41%였다. 공여주체 중 프랑스, 스페인, EU, AfDB(AFDF)는 일반 예산지원을, 캐나다, 네덜란드, World Bank(IDA), EU는 섹터 예산지원을 하였다. 예산지원 상위국은 프랑스로서 전체 예산지원 금액 중 34.56%를 지원하였고, 프로젝트 사업은 미국이 비중이 26.79%를 차지하였다.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보면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이 상위 공여국으로 활동 중이며 다자 공여기구는 세계은행(IDA), EU, AfDB 순이며, 한국은 양자 공여국 기준으로 8위 수준이다. AFD는 세네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원국가로서 1946년부터 원조를 지속해왔다. 양국 간 협력문서(DCP)에 근거를 두어 지속가능한 개발(농업, 환경, 식수위생), 민주적 거버넌스, 인간개발(교육, 보건)을 우선 분야로 두고 있다. USAID는 국가협력전략(CDCS, 2012-2016)에 근거, 보건, 경제성장, 교육, 민주화 및 거버넌스 등에 총 5억불을 지원하고 있다. JICA 세네갈 사무소는 불어권 사무소 중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바,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세네갈의 경제적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기초 사회서비스 지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교육, 보건,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5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CTB는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극빈지역의 농촌인구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국가원조전략(CAS, 2013-2017)에 따라 거버넌스 강화, 성장 가속화 및 고용창출, 교육·의료·식수위생 등 서비스 제공 개선을 주요 축으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 11차 유럽개발기금(NIP, 2014-2020)의 일환으로 세네갈에 3.47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개발, 식수위생 등 세 가지 우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AfDB는 국가전략계획(CSP, 2010-2015)에 근거하여 인프라, 거버넌스, 식수위생, 농촌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UNDP는 국가전략문서(CPD, 2012-2016) 하에서 MDG 달성을 위한 거버

넌스 개선, 경제·사회개발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FAO는 국가전략(CPP, 2013-2017)에 따라 식량안보 거버넌스, 농산품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천연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식량 및 영양 위기에 대비한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한 복원력 생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KOICA는 2008년 개소 시 초청연수와 봉사단 파견에 주력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2건의 사업, 2014년 중 농업 사업 2건을 진행하였다. 2015년 중에는 직업훈련 학교 건립과 식수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협력분야는 농업농촌개발, 교육, 보건(식수위생), 수산 등이다. 기존 농업(관개) 및 식수위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후속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현지 수요가 높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타 EDCF에서는 정부 행정망 구축사업과 해양 인프라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KOPIA 및 KAFACI를 통한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연구협력, 해상감시 시스템 구축, 민간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이상에서의 세네갈 개발환경 및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특징과 한국의 지원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KOICA의 세네갈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지원 기본방향으로 세네갈의 경제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을 협력목표로 하여, 농수산 및 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도농 간 사회경제적 격차해소를 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네갈은 현재 마키 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다년 간 성장이 3-4% 수준에 머무르고 쌍둥이 적자 기조가 심해지며, 도농 간 격차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국가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PSE에서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농업 및 식품, 주택건설, 자원개발 및 관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KOICA에서는 농수산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와 관광, ICT,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농수산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GDP 비중이 60%에 달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Dakar와 Saint-Louis 등 대도시를 제외

하고는 동부 및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위생·교육·보건 등 기본인간욕구에 해당하는 주요 지표들에 있어서 상당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치인 빈곤도 역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OICA에서는 기초서비스에 대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친 빈곤적인 개발의 실현이 가능하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분야가 도출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점, 주무 부처인 고등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원태세, 향후 예정사업으로 직업전문대학 설립사업과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 지역 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수요 흡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되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농촌부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 및 협력의사, KOICA에서 최근 10년 내 그랑디그뗄렐, 포도르 등 다양한 관개개발 및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을 고려 중인 점, 사헬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와 함께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 현지 조사 과정에서 보건부 및 수리위생부 등 유관부처 고위급의 적극적인 자세, 기존 KOICA의 식수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후속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 및 염수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과 post 에볼라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역량강화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순위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세부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접근성 개선 및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1)직업교육훈련 강화사업, 2)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 3)중등교육 STEM 교육역량 강화사업, 4)여성 및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활성화사업을 제시하였고, 현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과의 협력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직업전문대학의 삼각협력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세네갈 북부지역의 종합 농업/농촌개발을 목표로 기존의 농지확보를 위한 관개개발, 쌀과 양파의 생산성 증대 및 농업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가치사슬 및 마케팅 개선, 농촌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agro-business 기반의 성장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 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EDCF 및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수산부의 기획평가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관련 인프라 및 기술수준 개선에 따라 해수양식 기술이전 사업 등을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농촌지역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1)지역공동체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 2)모자보건 및 기초 보건인력 양성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후속연계 사업의 경우 KOICA 단독의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되, 모자보건 및 보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공여기관 또는 NGO협력 사업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농촌지역 거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와 쌀, 채소 등 국가적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지원이 긴급히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수 공급을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농산물 수출가능성을 높여 해당 부문의 국가경제 기여도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기관설립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청년실업 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세네갈의 역내 교육거점 도시 구축을 지원, 지역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서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고급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KOICA의 대 세네갈 협력전략의 실행과 더 나아가 불어권 아프리카와의 협력성과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원역사 및 경험의 일천함, 내륙 지역의 각종 분쟁 및 치안불안 상황,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KOICA 차원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의 경우 세네갈 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언어권 주재원 사무소 혹은 신설 사무소에 대한 지원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지 인력을 관리자급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orld Bank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의 경우 현지 인력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경제전문가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JICA의 경우에는 불어권 아프리카 사무소 중 가장 역사가 긴 세네갈 사무소가 인근 신규 불어권 사무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삼각협력, 예산지원(Budget Support) 등 아직 KOICA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지 않은 협력방식(Modality)을 적용해 보는 시범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세네갈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원부처의 태세 및 적극성이 높은 바, 타 공여기관에서 추진하듯이 일부 분야에서 예산지원 또는 정부부처 직접 환급 프로그램(Direct Reimbursement) 방식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세네갈과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총괄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관련 수원총괄부처인 경제재정기획부(MEFP)와는 기존의 분기별 정례협의를 확대시켜 여타의 공여기관이 진행하듯 부처별 사업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프로젝트 경과보고회의(Project Progress Meeting) 개최를 제안한다. 또한, 연례적으로 재정부 장관을 카운터파트로 하는 성과평가회의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은 기술협력국(DCT)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봉사단/자문단/연수생 파견부처와 함께하는 경과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급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와 수원국 국민 일반에 대한 홍보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세네갈에서는 공여국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KOICA가 적극적으로 multi/bi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점지원 분야인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관련 분야별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아직 해당국 수요에 비해 분야별 작업그룹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World Bank, AfDB, AFD 등과 함께 동 그룹의 창설을 주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의 전문가 및 사업수행기관(개발 컨설팅업체 등)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JICA에서 추진하듯이 불어 및 현지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불어가 가능한 주니어 컨설턴트를 시니어 컨설턴트와 함께 파견하는 방안, 사업 추진 시 수원국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네갈 JICA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의 50% 이상이 세네갈 봉사단 출신이라는 점은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Abstract

Senegal is a gateway to West Africa that stretches over 190,000km² and borders five countries, including Mauritania and Mali. Renowned for its unique culture and sociopolitical stability, Senegal has a population of 1.3 million, which is multi-ethnic and predominantly Islam.

Senegal has strengthened economic and diplomatic ties with Korea through 2009 and 2015 summits, from which it extend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agriculture/fisheries, water and sanitation,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Further to this effort, Senegal has been newly selected as one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ICA has thus pursued this research project in order to reinforce bilateral relations through a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grant aid projects.

In pursuit of setting the course for KOICA's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enegal, the research project reviewed Senegal'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ssistance trends. In order to establish an overarching strategic framework and specific action plans, the research team utilized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experts, and field study. The research project holds great significance a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local demands that weaved in results from a field study and quantitative analysis. Senegal's development needs and Korea's capacity for ODA assistance were drawn from gaps between Senegal and benchmarking countries, as measured by key indicators in relevant sector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n Senegal'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as well as on sectoral development conditions, the research team has identified Senegal's national development challenges as follows:

- Chronic twin deficits
- Services-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 Labor supply and demand mismatch
- Regional disparity in basic human needs (i.e. water, education, health)
- Unmet potential as an ICT·Education·Medical Hub in West Africa

Senegal has persistently run a current account deficit and fiscal deficit on account of the primary industry-centered export structure (groundnuts and marine products being the main commodities) as well as high public investment and government wage bills. As a result, GDP growth rate during 2006-2013 remained considerably below the regional average at 3.3%. In addition, developing skill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in the service sector have been a part of the national agenda, as the tertiary sector's share of GDP remains high at 62%. Moreover, the need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ransfer agricultural workforce into other industries has widened due to the labor supply and demand mismatch, whereby 77.5% of the total labor force work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only contributes 13.7% to the GDP.

Regional disparity in population distribution, economic activity,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is another feature of Senegal. The regional disparity in food security and poverty worsened as most economic activity became centralized in Dakar and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Senegal. Moreover, gender inequality persists across the social sphere, such as health, human capacity development, and econom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regions outside urban cities and river basins like the Senegal River Valley and Lake Guiers (i.e.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inland regions) have been marginalized with respect to access to water supplies, basic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Notwithstanding these issues, Senegal has built a strong ICT infrastructure whilst taking advantage of its advanced communications environment. Senegal has also positioned itself as an education and medical hub in the region, which it can

further develop and leverage by advancing the ICT technolog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constructing a high-tech digital education and medical complex in Diamniadio, which is in the outskirts of Dakar, and near the new airport site, Diass.

In order to tackle the aforementioned challenges, the government of Senegal announced the 'Emerging Senegal Plan (Plan Sénégal Emergent; PSE)' in February 2014 and laid out blueprint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during 2014-2035. PSE aims to raise the annual growth rate from the current level of 4.6% to 7-8% within the next four years, and lower the budget deficit from 5.4% to 3.9% until 2018. Senegal founded PSE upon the following strategic axis in order to take-off as an emerging economy by 2035.

Pillar I: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growth
Pillar II: Human capital, soci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illar III: Governance, institutions, peace and security

The government of Senegal also devised a 'Priority Actions Plan (Plan d'Action Prioritaire; PAP)' for the first phase of PSE, which stems from 2014 to 2018. The public component of PAP comprises of six main sectors, including ①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rvices, ②energy, ③agriculture, ④education and training, ⑤water and sanitation, ⑥health, and pivots on 27 flagship projects and 17 reforms. These projects and reforms are also tied to the following objectives: ①macroeconomic stability, ②economic growth, ③social protection, ④accessibility to social services, ⑤public administration reform, ⑥good governance, ⑦local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an effort to secure finances for the PAP, Senegal has raised a total of 7.8 billion USD (372.9 billion CFA), above the initial goal of 6.2 billion USD.

Furthermore, Senegal has shaped sectoral strategies in education, agriculture, health, water and sanitation. Senegal has formulated a Program for Improving Quality, Equity and Transparency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2013-2025 (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QUET) in order to boost the primary enrolment rate to 98% and the completion rate to 96% by 2018. It has also reformulated the 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by establishing an Accelerated Program for Agriculture in Senegal for 2014-2017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PRACAS). The overall goal of PRACAS is to promote self-sufficiency and to increase exports of rice, onions, groundnuts and vegetables. Pursuant to this goal, the main objectives are ①modernization of family farming through training farmers, improving access to finance and mechanization, ②promotion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and environmentally-friendly agro-business, ③promotion of job creation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in agriculture through improving technology and equipment, ④building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The 2009-2018 National Health Plan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 aims to achieve 80% infant immunization rate, reduce maternal, infant and juvenile mortality, reduce HIV/AIDS rates, improve governance in the health sector, and introduce a universal healthcare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Lastly, the Millennium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PEPAM) was drafted in 2005 as a cooperation framework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joined Senegal's efforts towards achieving the development plan. The total ODA amount in the past ten years averaged 1 billion USD, and Senegal has also benefited from a debt relief of 3.2 billion USD in 2006. Further breakdown of Senegal's ODA by sector shows that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i.e. education, health, water and sanitation) accounts

for 44% of the total ODA, followed by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 (16%), program support (13%), production (12%), cross-cutting issues (9%), and humanitarian assistance (3%). In terms of types of ODA, budget support amounted to 18.32%, while projects amounted to 65.41% of the total ODA. Of the donors, France, Spain, EU and AfDB provided general budget support, while Canada, Netherlands, World Bank and EU provided sectoral budget support. 34.56% of the total budget support came from France while 26.79% of project support came from the U.S.

Franc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among the major donors, while the World Bank (IDA), EU, AfDB stand out from the multilateral agencies. Meanwhile, Korea ranked 8th among bilateral partners, with respect to the average amount of aid during 2011-2013. AFD is the largest donor agency which has been supporting Senegal since 1946. It is mainly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agriculture, environment, water and sanitation),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development (education and health), under the Partnership Framework Document (DCP). USAID supports 500 million USD for health, economic growth, education, democratization and governance, based on the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2012-2016). JICA Senegal Office is the oldest office in francophone Africa and therefore has ample experience and capacity. It aims to promote economic and sustainable growth and basic social services centered on education, health, agriculture, fisheries, and infrastructure. CTB focuses on health, water and sanitation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ural population in extreme poverty.

World Bank supports strengthening governance, acceleration of growth and job creation, improvement of education·health·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compliance with the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2013-2017). EU pledged 347 million Euros under the 11th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NIP, 2014-2020) in order to support democratic governanc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water and sanitation. AfDB follows the Country Strategy Papers (CSP, 2010-2015) and mainly supports infrastructure, governance, water and sanitation, and rural development. UNDP focuses on improving governance to achieve MDGs, combating poverty by creating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ies, adapting to climate chan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ountry Programme Document (CPD, 2012-2016). FAO operates under the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CPP, 2013-2017), which supports governance for food security, enha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and building resilience through establishing a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food and nutrition crises.

KOICA Senegal Office concentrated its efforts on invitational training and volunteer program upon opening in 2008, and has henceforth implemented two projects during 2010-2013 and two agricultural projects in 2014. KOICA plans on establishing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d implementing the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in 2015. Areas of cooperation includ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ducation, health (water and sanitation) and fisheries. Furthermore, KOICA plans to launch phase II projects of the irrigation project and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as well as a new project in higher education, a field where there has been a high demand from the recipient country. Aside from KOICA, EDCF has provided assistance through Government IC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Project and Marine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Project (MIEP), whil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perated through KOPIA and KAFACI.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cooperating with Senegal by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ts, building partnership in research, establishing sea surveillance system, and forg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fisheries sector.

The research further laid out KOICA's cooperation framework for Senegal based on the analyses on Senegal'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olicy, trends and trait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assistance, and Korea's ODA outcomes.

A new direction of KOICA's cooperation strategy in Senegal should be ①to establish the basi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②to reduce regional disparity. It is thereby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first strategic priority be to build a basis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growth, while the second strategic priority should be to solve the socioeconomic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Despite President Macky Sall's strong leadership, growth has remained at 3-4% in recent years and the twin deficit condition has exacerbated, while regional disparity worsened. As PSE puts forward agriculture and food, housing, resource development and tourism as key growth engines, it is advisable that KOICA supports enhancing productivity in the traditional industry (i.e.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 the service industry (i.e. tourism, ICT, medicine), as these could contribute for solidifying the base for economic development. Strong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increasing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hat has considerable labor force as well as on raising more professionals in the service sector, which accounts for 60% of GDP. Furthermore, greater attention should be drawn upon the eastern and southern areas that fall behind on key measures of basic human needs (water and sanitation, education, health) and show extremely severe poverty rates. Taking this into account, KOICA should provide assistance to solve regional disparity in basic services and to realize inclusive and pro-poor development.

Education, agriculture/fisheries and health have been identified as the priority sectors after a careful synthe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Education is not only KOICA's top priority sector, but also the nation's priority, especially as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higher education as a

means to tackle youth employment. Moreover, Senegal has a strong initiative to absorb demands for training a professional workforce in the region. The order of priority also stems from the fact that multiple projects (such as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Cyber University and digital open space) are placed in KOICA's pipeline and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griculture has also been selected as a top priority for KOICA along with education, due to its importance in national development and Korea-Senegal bilateral relations. The sector takes up the largest share in the economy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yet poses vulnerability, especial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in the Sahel region. KOICA's success in the projects on irrigation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Grande-Digue Tellel and Podor has been catalyz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Equipment's activeness and high willingness to cooperate. Future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of the rice value chain, will likely benefit from these settings.

Greater need of assistance has risen in the health sector in recent years, especially due to increasing demands to address water scarcity, which has been aggravating with climate change and salinization, and building capacity in the sector in order to combat challenges like the Ebola crisis. High-level officials at line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e Ministry of Water and Sanitation, have been keen on improving accessibility to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water and sanitation, especially for the rural area. Such agenda can be complemented by a second phase of KOICA's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which has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local stakeholders.

The sectoral cooperation program and plans are as follows.

With regards to education, the main goal is to improve accessibility in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resources. Projects that may fulfill these goals are ①project for vocational training, ②project for improving e-education, ③project for strengthening secondary education in STEM, ④project for promoting participation of women and underprivileged in education. These projects may benefit from partnering with multilateral or bilateral agencies that possess ample experience and capacity. In the mid- to long-term, KOICA could promote trilateral cooperation in vocational training.

In case of agriculture, the overarching goal should be to achieve integrated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Senegal River Valley. Along with existing projects (project for developing irrigation to secure agricultural land and the project for increasing productivity of rice and onions and training farmers), KOICA should pursue a new project in the northern region that applies an agro-business growth model to strengthen value chain and marketing in order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the fisheries sector, KOICA should build capacity for human resources and planning & evaluation functions to support EDCF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jects in the short term.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advisable to pursue a project for transferring mariculture technolog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levant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As for the health sector, the main goal is to improve access to health, water and sanitation,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As such, the following projects are recommended: ①community-driven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and ②trai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care professionals. Phase II project of the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may be pursued as a stand-alone project, while it may be preferable to implement the experts' training project in partnership with a donor agency or NGOs.

Senegal has urgent needs for widening accessibility to health, water and sanitation as well as securing national food security through producing rice and vegetables that may lead directly to survival of the rural population in the short term. In the mid- to long-term, KOICA should help widen the sector'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through providing water sources to increase rural households' income and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s. Moreover, KOICA should alleviate youth unemployment through establishing a regional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e short term. KOICA should also support Senegal in its efforts to build an education hub in the knowledge city and raise professional labor force in the West African region in the mid- to long-term.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support of KOICA's cooperation strategy for Senegal and in hopes to strengthen KOICA's cooperation with francophone Africa.

First and foremost, KOICA should establish a representative office for francophone Africa in order to address conflict and insecurity in the region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stem from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It is appropriate that KOICA Senegal Office takes up on that role in Sub-Saharan Africa. The representative office is designed to support newly-established office in francophone Africa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office, KOICA should place a wide range of field experts and raise local staffs to the managerial levels. For instance, local staffs at the World Bank Côte d'Ivoire Country Office carry out key functions as Portfolio Manager or Country Economist. JICA Senegal Office has been assisting neighboring and newly-established offices in francophone Africa as the oldest office. Futhermore, KOICA Senegal Office could also play the role as a model office for testing innovative modalities, such as trilateral cooperation and budget support. Upon considering the Senegalese government's readiness and activeness in using its

own financial and procurement system with other donors, KOICA should contemplate introducing budget support to certain sectors and/or make direct reimbursement to government agencies.

Secondly, KOICA should strengthen ti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that oversees ODA in order to deepe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enegal as a priority partner country. It is highly desirable that KOICA expands existing quarterly meetings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ning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 MEFP),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ODA projects, and hold quarterly project progress meetings, where, as in the case of other donor agencies, main stakeholders from government agencies come together to review projects. In addition, KOICA should hold annual evaluation workshop with MEFP. It is also advisable for KOICA to hold regular progress meetings and strengthen partnership with the agency in charge of technical cooperation, Direc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Technique; DCT), to share main outcomes with volunteers, experts, trainees and stakeholders at line ministries. Such meetings will be beneficial for sharing information at the higher ministerial level as well as for improving publicity to the general public.

Thirdly, KOICA should regularly participate in the thematic working groups on key sectors of cooperation (education, agriculture/fisheries and health) in order to expand multi/bi cooperation. While the donor coordination framework (PTF) is actively set in Senegal, the thematic working group for higher education has not yet been founded, despite high demands. KOICA could thus spearhead the sector by establishing the higher education working group in cooperation with the World Bank, AfDB, AFD, and other partners.

Lastly, KOICA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Korean experts and project implementation agencies (such as the development consultancy, etc.) in order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in francophone Africa. KOICA should make reference to JICA's program on providing French and local language classes, pairing French speaking junior and senior consultants, obliging cooperation with local experts and specialized agencies. It is worth noting that over half of the experts and staffs involved in JICA's Senegal projects are former volunteers in Senegal.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Résumé

Véritable porte d'entrée vers l'Afrique de l'Ouest, le Sénégal est un pays multi-ethnique et majoritairement Musulman. Il est peuplé par 13 millions d'habitants, bordé par la Mauritanie, le Mali, la Guinée Bissau, la Guinée et l'Océan Atlantique et s'étend sur 190,000km².

Les liens économiques et diplomatiques qui lient la Corée et le Sénégal se sont vus renforcés suite à deux sommets en 2009 et 2015 portant sur le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agriculture, de pêche, d'éducation, de fonctionnement du secteur public, et d'assainissement. Suite à ces initiatives, le Sénégal s'est hissé à la tête des pays prioritaires pour recevoir l'aide au développement de la Corée. Ainsi, la KOICA a commandité la présente recherche afin de renforcer d'avantage les relations bilatérales entre la Corée et le Sénégal et de restructurer son processus de distribution d'aide au développement.

Notre étude comprend donc une revue complète de l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du Sénégal et des critères de partenariat des autres PTF. Un travail d'analyse quantitative, une revue de la littérature, un benchmark des pays similaires, des entretiens avec les différentes parties prenantes ainsi que des visites de terrain ont également été réalisés afin d'élaborer un cadre de stratégie globale d'attribution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Enfin, cette étude nous a permis de tirer des conclusions sur les besoins du Sénégal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s et sur la capacité de la Corée de lui apporter une assistance technique et financière.

A travers l'étude sectorielle, socio-économique et politique que nous avons menée, nous avons identifiés les défis suivants pour le développement du Sénégal :

- Un double déficit chronique
- Une structure industrielle orientée vers les services

- Une inadéquation entre l'offre et la demande en main d'œuvre
- Une disparité régionale dans l'accès aux besoins fondamentaux (i.e. eau, éducation, santé)
- Tarde à atteindre son potentiel de hub régional dans les secteurs des TIC, de l'éducation et de la santé

Le Sénégal continue également à accuser un déficit extérieur et fiscal considérable dû essentiellement à des investissements publics couteux, aux effectifs pléthoriques de la fonction publique et à la structure de l'économie qui repose en grande partie sur les exportations centrée sur des matières premières à faible valeur ajoutée (arachide et produits de la mer). Ceci s'est traduit par un taux de croissance de l'économie de 3,3%, considérablement inférieur à la moyenne régionale.

Outre les difficultés évoquées plus haut, il faut également noter le poids disproportionné du secteur tertiaire, porté en majeure partie par les infrastructures et la formation des ressources humaines, s'élève à 62% du PIB. La productivité quant à elle a besoin d'un appui majeur compte tenu de la grande disparité entre l'offre et la demande de main d'œuvre. En effet, 77,5% de la main d'œuvre Sénégalaise est employée dans l'agriculture alors que sa contribution au PIB ne s'élève qu'à 13,7%.

Les disparités démographiques, régionales, économiques, sociales et en matière d'équipement du territoire sont également des caractéristiques du Sénégal. Il faut y ajouter que des écarts importants se sont creusés entre les différentes parties du pays en matière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pauvreté, avec une centralisation de l'activité économique et administrative à Dakar. De plus, les cas d'inégalités des sexes y sont assez fréquents, notamment dans les secteurs de la santé, du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de la participation économique. Le phénomène est encore plus fréquent dans les zones rurales et

dans certaines régions telles que la vallée du fleuve Sénégal et le lac de Guiers, où les femmes restent marginalisées. Malgré tout, le Sénégal a quand même considérablement développé ses TIC, favorisant ainsi le secteur de la communication. Des investissements supplémentaires dans le domaine devraient permettre au Sénégal de consolider son rôle de leader régional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et de la santé. Dans cette optique, le gouvernement Sénégalais est en train de construire une cité du savoir et un complexe médical près de la nouvelle ville de Diamniadio, devant permettre à terme d'asseoir la position du pays comme hub en services.

Afin de relever les défis mentionnés plus haut, le gouvernement sénégalais a élaboré le Plan Sénégal Emergent (PSE) en février 2014 qui donne au pays une orientation stratégique de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pour la période 2014-2035. Le PSE a donc pour objectif d'accroitre le PIB de 4,6% aujourd'hui à 7-8% dans quatre ans, de réduire le déficit budgétaire à 3,9% en 2018. Le PSE repose sur une stratégie déclinée en 3 axes :

Axe I: Transformation structurelle et croissance de l'économie
Axe II: Capital humain, protection sociale et développemnt durable
Axe III: Bonne gouvernance, institutions, paix et sécurité

Le gouvernement du Sénégal a également élaboré un plan d'action prioritaire (PAP) à mettre en œuvre entre 2014 et 2018 dans le cadre de la première phase du PSE. La composante publique du PAP s'étend sur 6 secteurs principaux: ① infrastructure et transports, ②énergie, ③agriculture, ④éducation et formation, ⑤ eau et assainissement, ⑥santé. Le PSE est également caractérisé par 27 projets et 17 reformes phares. Ces actions phares ont pour objectifs les points suivants : ①stabilité macroéconomique, ②croissance économique, ③protection sociale, ④ accès aux services sociaux, ⑤réform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⑥bonne gouvernance, ⑦développement local, paix et sécurité, décentralisation, et

intégration régionale. Le Sénégal a réussi à lever 7,8 milliards de dollars (372,9 milliards FCA), largement au-dessus des 6,2 milliards de Dollars visés au départ par le gouvernement Sénégalais.

En plus du PSE, le Sénégal a développé des stratégies sectorielles dans les domaines de l'éducation, l'agriculture, la santé, l'accès à l'eau et à l'assainissement qu'il entend bien mettre en œuvre concomitamment. En effet, le gouvernement a élaboré un 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en matière d'éducation et de formation pour la période 2013-2025 (PAQUET). L'objectif de ces initiatives est d'atteindre un taux d'inscription de 98% ainsi que 96% de diplômés pour 2018. L'état du Sénégal a également développé la politique agricole nationale qui est axée autour du plan PRACAS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L'objectif principal du PRACAS est d'atteindre l'autosuffisance et d'accroitre les exportations en riz, oignons, arachides et légumes. L'état a donc émit la promesse de ①moderniser l'agriculture familiale en formant les agriculteurs, améliorant l'accès au financement et à l'équipement, ② faire la promotion des entreprises agricoles et de l'agrobusiness écologique, ③ faire la promotion de la création d'emplois et d'accroitre la part des femmes et des jeunes dans l'agriculture en facilitant l'accès aux technologies et à l'équipement, ④Accroitre la capacité à se prendre en charge des couches les plus vulnérables de la population. Un autre exemple de stratégie qui a été développée est le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 2009-2018 qui vise un taux d'immunisation des enfants de 80%, une réduction considérable de la mortalité infantile et juvénile, une réduction du taux de prévalence du VIH, la bonne gouvernance dans le secteur de la santé, l'introduction du système de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Enfin, l'état Sénégalais a introduit en 2005, le plan PEPAM (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un document cadre de coopération dans le secteur de l'assainissement dans le but d'accroitre le taux d'accès à l'eau potable et aux installations sanitaires dans les zones rurales et urbaine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outient le Sénégal sans réserves pour la phase de mise en œuvre de son plan de développement. Le montant total des APE des dix dernières années s'élève à 1 milliard de dollars et le Sénégal a également bénéficié à hauteur de 3,2 milliards de dollars du programme d'allègement de la dette en 2006. Une étude détaillée des APE montre que les infrastructures sociales et les services (éducation, santé, assainissement) représentent 44% du montant total reçu par le Sénégal, suivi des infrastructures économiques (16%), du programme de soutien (13%), de la production (12%), des activités transversales (9%), et de l'aide humanitaire (3%). Pour ce qui est des différents types d'APE, le montant reçu dans le cadre du soutien budgétaire s'élève à 18,32%, alors que les projets récoltent 65,41% des fonds totaux. En ce qui concerne les pays donateurs, la France, l'Espagne, l'UE, et la BAD ont contribué en grande partie au soutien budgétaire d'ordre général alors que le Canada, les Pays Bas, la Banque Mondiale et l'UE ont plutôt mis l'accent sur le soutien budgétaire sectoriel. 34,56% du montant total provient de la France alors que 26,79% de l'aide budgétaire a été distribuée par les Etats-Unis.

La France, les US et le Japon comptent parmi les pays qui aident le plus le Sénégal tandis que la Banque Mondiale, l'UE et la BAD sont les agences multilatérales contribuant le plus. La Corée par contre pointe au 8eme rang des partenaires bilatéraux du pays du fait de sa contribution durant la période 2011-2013. L'AFD est l'agence qui a le plus aidé le Sénégal étant donné qu'elle opère sur le territoire depuis 1946. Son aide, parfaitement alignée avec le document cadre des partenariats (DCP), est très largement orientée sur le développement durable (agriculture, environnement, eau potable et assainissement), gouvernance démocratique et développement humain (éducation et santé). L'USAID quant à elle, soutient le Sénégal à hauteur de 500 millions de dollars dans le secteur de la santé, de la croissance économique, de l'éducation et de la bonne gouvernance suivant ainsi les instructions de la politique de coopération Américaine articulée dans le «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 (CDCS, 2012-2016). Le bureau de la JICA est le premier bureau de la coopération Japonaise à avoir ouvert en Afrique Francophone, ce qui lui donne une expérience considérable. Le Japon ambitionne de promouvoir une croissance économique forte et durable centrée sur l'éducation, la santé, l'agriculture, la pêche et les infrastructures. La coopération Belge, CTB, elle, se focalise sur la santé, l'accès à l'eau et à l'assainissement dans le but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vie des populations rurales vivant en situation d'extrême pauvreté.

La Banque Mondiale soutient la bonne gouvernance, l'accélération de la croissance et de la création d'emplois, l'amélioration du système éducatif, de la santé, de l'accès à l'eau potable et à l'assainissement conformément à la stratégie d'aide pays 2013-2017. L'UE a mis 347 millions d'euros à la disposition des pays récipiendaires dans le cadre du 11em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dont l'objectif est de soutenir la bonne gouvernance, l'agriculture durable et la sécurité alimentaire, l'accès à l'eau potable et à l'assainissement. La BAD opère selon son document de stratégie pays qui ambitionne de soutenir le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e la bonne gouvernance, de l'accès à l'eau et à l'assainissement, et au développement des zones rurales en Afrique. Le PNUD se focalise sur une amélioration de la bonne gouvernance, l'atteinte des ODM, la lutte contre la pauvreté, l'adaptation aux changements climatiques comme le préconise son document de stratégie pays. La FAO opère selon le cadre de programmation par pays 2013-2017 qui soutient la bonne gouvernance pour la sécurité alimentaire, l'accroissement de la productivité agricole, la ges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de l'environnement, et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 gestion des crises alimentaires.

Depuis son ouverture en 2008, le bureau du Sénégal de la KOICA a concentré ses efforts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sur la formation et les programmes de volontariat. Le bureau a aidé à la mise en œuvre de deux projets pour la période 2010-2013 et deux projets agricoles en 2014. La KOICA ambitionne de

mettre en place un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mettre en œuvre un projet d'accès à l'eau potable et à l'assainissement en 2015. Les domaines de coopération potentiels comprennent l'agriculture, l'éducation, la santé (l'eau et l'assainissement) et la pêche. De plus, la KOICA envisage de lancer la 2eme phase de ses projets d'irrigation et d'assainissement ainsi que des nouveaux projets dans le secteur de l'enseignement supérieur étant donné la forte demande du pays récipiendaire. Mis à part l'assistance de la KOICA, le Fonds corée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soutient également le Sénégal en développant des projets dans le domaine des infrastructures telles que les TIC de l'état, le MIEP (Marine Infrastructure Estabishment Project), tandis que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reçoit une assistance dans sa politique sectorielle grâce au programmes KOPIA et KAFACI. Le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Océan coopère avec le gouvernement Sénégalais par le biais d'experts qu'ils envoient appuyer le pays Africain et des partenariats de recherche, aboutissant sur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 surveillance maritime et de nombreux partenariats publics-privés dans le secteur de la pêche.

Notre étude a davantage mis l'accent sur le cadre de coopération de la KOICA avec le Sénégal compte tenu des analyses sur l'environnement Sénégalais ainsi que les critères d'allocation des APE des autres membres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t les expériences de la Corée.

La nouvelle stratégie de coopération de la KOICA avec l'état Sénégalais devrait ① définir selon elle, les bases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② tenter de réduire les disparités régionales. Nous recommandons donc que la KOICA fasse du développement de l'agriculture et des industries son principal cheval de bataille d'une part et d'autre part que la coopération coréenne se focalise sur la réduction massive des inégalités socioéconomiques en zones rurales et urbaines.

Malgré les efforts consentis par le gouvernement du Président Macky Sall, la croissance reste assez faibles à 3-4% ces dernières années, tandis que le double déficit et les disparités régionales ont continué de s'exacerber. Etant donné que le PSE met en avant l'agriculture et l'alimentation, le logement, le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le tourisme comme moteurs de croissance, il est souhaitable pour la KOICA de soutenir la productivité dans les industries traditionnelles (agriculture et pêche)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ans les services (tourisme, TIC et médecine). En effet, l'accent doit particulièrement être mis sur l'accroissement de la productivité dans le secteur de l'agriculture et la pêche qui sont des industries à forte intensité de main d'œuvre, et sur le renforc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dans les services qui comptabilisent plus de 60% du PIB Sénégalais. De plus, il conviendrait de prêter attention davantage aux régions sud et est qui prennent de plus en plus de retard en matière de besoins humains fondamentaux. Compte tenu du fait que a pauvreté y est de plus en plus extrême, la KOICA devrait également apporter une aide dans la lutte contre les disparités régionales et encourager ainsi un développement inclusif comme cela est stipulé dans le PSE.

L'éducation, l'agriculture/pêche et la santé ont été identifiés comme les secteurs prioritaires après une étude méthodique et systématisée des données qualitatives et quantitatives que nous avons glanées. L'éducation est non seulement la priorité de la KOICA, mais également celle du Sénégal, spécialement depuis que le pays Africain a identifié l'enseignement supérieur comme le remède contre le chômage des jeunes. De plus le Sénégal a développé de bonnes initiatives afin d'absorber la forte demand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ans la sous-région. Les nombreux projets tels que le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l'université virtuelle et la ville technologique) nous ont conforté dans notre choix de recommander une attention spéciale de la KOICA s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agriculture a également été identifiée comme secteur prioritaire, grâce à l'importance son importance dans le PSE et à l'historique des relations bilatérales entre le Sénégal et la Corée. En effet, l'agriculture, en plus d'occuper une place prépondérante dans la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st un secteur à risque du fait du changement climatique. Le succès du projet d'irrigation de la Grande Dique-Tellel et Podor a été en grande partie dû à l'engagement du ministère de l'agriculture. Les projets à venir, tels que le programme de renforcement de la chaine de valeur du riz peuvent ainsi bénéficier des expériences passées de coopération avec le ministère concerné.

De nombreux besoins d'aid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se sont fait sentir ces dernières années, à cause principalement, de la rareté de la ressource en eau et de la pression sur les ressources humaines imposée par les nombreuses crises telles que celle d'Ebola. Les haut-fonctionnaires des ministères de la santé et de l'hydraulique ont démontré l'envie d'accroitre l'accès à la santé et à l'eau potable dans les zones rurales. La KOICA peut donc complémenter leurs initiatives en lançant la seconde phase du projet d'eau et d'assainissement, d'autant plus que celui-ci a reçu l'avis favorable des différentes parties prenantes locales.

Le programme et plan de coopération sectorielle s'articulent comme suit:

En ce qui concerne l'éducation, l'objectif principal est d'améliorer l'accès à l'école et aux formations des ressources humaines. Les projets pouvant répondre aux attentes sont ①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② projets d'amélioration de l'enseignement virtuel, ③ projets de renforcement de l'école secondaire dans les STEM, ④ projets de promotion de l'accès des femmes et des plus démunis dans l'éducation. Ces initiatives peuvent bénéficier de partenariats avec les agences multilatérales ou bilatérales ayant plus d'expérience et de ressources que la KOICA. Il serait même souhaitable pour la KOICA de

promouvoir d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trilatéraux dans le domaine d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Pour ce qui est de l'agriculture, l'objectif global devrait être le développement agricole et rural intégrés dans la vallée du fleuve Sénégal. En plus des projets existants, la KOICA devrait mettre en place un nouveau projet structurant dans la région du nord, visant à mettre en place un modèle de développement agrobusiness pour renforcer la chaine de valeur et le marketing afin de permettre l'investissement privé. En ce qui concerne le secteur de la pêche, la KOICA devrait contribuer à accroitre la capacité des ressources humaines, de la planification et de l'évaluation afin de soutenir les projets du ministère de la pêche et du Fonds corée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à court terme. A long terme, il serait souhaitable de développer des projets visant à transférer des technologies maritimes qui prendront en compte le niveau des infrastructures et de la technologie locale.

Pour ce qui est du secteur de la santé, l'objectif principal est d'améliorer l'accès à la santé, à l'eau et à l'assainissement, particulièrement dans les zones rurales. Les projets suivants sont donc recommandés : ①Projet d'accès à l'eau et à l'assainissement mettant les populations locales au cœur de ses objectifs et ② La formation de professionnels de la santé, notamment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maternelle et infantile. La seconde phase du projet d'eau et d'assainissement peut être implémenté de manière autonome, par contre le projet il serait souhaitable de recourir à un partenariat avec un autre bailleur pour mettre en œuvre de formation des experts.

Le Sénégal a un besoin urgent d'accès à la santé, à l'eau potable et à l'assainissement mais également en matière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denrée pouvant assurer la survie des populations rurales dans le court terme. A plus long terme, la KOICA devrait aider son partenaire Sénégalais à accroitre la

contribution du secteur dans l'économie en facilitant l'accès à l'eau potable afin d'augmenter le revenu des ménages dans les zones rurales. D'ailleurs, la KOICA devrait aider à réduire le chômage des jeunes en mettant en place un centre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La KOICA devrait également soutenir le Sénégal dans sa mission de construire la cité du savoir.

Les recommandations suivantes ont été effectuées sur la base de la stratégie de coopération entre la KOICA et le Sénégal dans le but de renforcer sa coopération avec l'Afrique Francophone dans sa globalité.

Premièrement, la KOICA devrait mettre en place un bureau de représentation pour l'Afrique de l'ouest afin de contribuer à la résolution des conflits et insécurités dans la région. Il est donc souhaitable que le bureau du Sénégal joue ce rôle en Afrique sub-saharienne. Le rôle du bureau de représentation est de soutenir les bureaux nouvellement établis dans la sous-région. Dans ce cadre, la KOICA devrait mettre en place un grand nombre d'experts de terrain et promouvoir le personnel local à des positions de responsabilité. Par exemple, le personnel local de la Banque Mondiale en Côte d'Ivoire occupe des fonctions clés telles que celle de chef de programme et économiste pays. Le bureau de la JICA au Sénégal a également aidé à la mise en place et au développement des bureaux d'Afrique de Francophone. De plus, le bureau de la KOICA au Sénégal pourrait aussi jouer le rôle de pays modèle qui testerait les initiatives pilotes avant de les exporter ailleurs. La KOICA devrait également songer à mettre en place un système de soutien budgétaire sectoriel afin d'évaluer la capacité du gouvernement Sénégalais à utiliser son propre système financier et d'approvisionnent.

Deuxièmement, la KOICA devrait renforcer ses liens avec l'agence gouvernementale chargé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Il serait extrêmement souhaitable que la KOICA étende ses réunions trimestrielles pour y inclure le

Ministère des finances et du plan (MFEP), l'agence chargé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iscuter des progrès effectués à date. La KOICA devrait également y ajouter des séminaires d'évaluation des projets existants avec le MEFP. Il est aussi souhaitable que la KOICA renforce son partenariat avec la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Technique (DCT). Ceci permettra de partager les résultats des réunions avec les volontaires, les experts, les stagiaires et les parties prenantes dans les ministères qui pourront ensuite vulgariser les informations recueillies au profit des populations.

Troisièmement, la KOICA devrait régulièrement participer aux groupes de travail thématiques sur les secteurs clés de coopération (éducation, agriculture/pêche et santé) dans le but d'étendre la coopération multilatérale/bilatérale. Tandis que le cadre de coordination des PTF existe au Sénégal, le groupe de travail thématiq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n'a pas encore été créé malgré une très forte demande. La KOICA pourrait donc prendre les devants et créer le groupe de travail portant sur l'enseignement supérieur en coopération avec la Banque Mondiale, la BAD, l'AFD et d'autres partenaires.

Finalement, la KOICA devrait renforcer la capacité des experts Coréens et des agences chargées d'implémenter les projets dans l'objectif d'accroitre l'efficacité de l'aide en Afrique Francophone. La KOICA devrait s'inspirer du programme de la JICA qui dispense des cours de français et de langues nationales et met en place des cadres de coopérations entre les stagiaires et les consultants séniors tout en les obligeant à travailler avec les experts locaux et les agences spécialisées. Il est important de noter que plus de la moitié des experts et employés de la JICA sont des anciens du programme de volontaires.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어 서부 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리타니아, 말리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반도와 유사한 국토면적(약 19만 km^2)에 1,300만 명의 다민족 인구, 90%에 달하는 이슬람교인 등 이색적인 문화와 함께 2000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등 비교적 역내에서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땅콩, 수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의 수출구조 및 이로 인한 쌍둥이 적자문제, 교육·보건·식수위생 등 기초서비스 접근성에서의 도농 간 격차, 기후변화에 따른 북부 사헬(Sahel) 지역의 물 부족 문제,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세네갈에는 국가적인 개발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끼리의 귀환”으로 명명되는 코트디부아르 경제회복으로 인해 세네갈의 서아프리카 경제거점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네갈 정부는 2014년 중 “Emerging Senegal Plan”이라는 국가개발전략을 발표, 다양한 원조기관 및 다국적 민간기업들과 의욕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네갈은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09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농업, 수산, 식수위생, 교육,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으며, 세네갈은 우리나라 아프리카 협력대상국에서 최근 5년 원조액 기준으로 4위(무상 7위, 유상 4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과거 봉사단 파견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에서 이제는 교육, 농업,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과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까지 확대되어 진행 중이며, 세네갈 정부는 한국과의 전 방위적인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2기 ODA 중점협력국 목록에 세네갈이 신규로 편입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세네갈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국제사회·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세네갈과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앞서 도출된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행 방안의 수립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네갈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파악함으로, KOICA가 세네갈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 아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지원 사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하는 세네갈과의 협력 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연구의 초점이다. 더불어 세네갈 내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가능성 타진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KOICA의 향후 협력사업이 세네갈은 물론 세네갈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인근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려는 KOICA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는 각종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통계 데이터베이스, 신문·잡지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기관 전문가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특히 한국 주재 세네갈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KOICA 현지사무소 및 현지 컨설턴트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 과정에서 현장감이 넘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중점 협력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각 요소들을 어떤 비중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협력유망분야 선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것인데,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영호 외(2012)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문헌의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벤치마킹 기법은 해당 국가의 어떤 분야에서 발전정도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관측 가능한 지수들을 비교하여 부족한 크기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지조사에서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진의 평가에 따른 정성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와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총 4가지로서, 수원국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의 지표를 고려한 모형을 채용하여 앞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특히 세네갈의 경우, 사헬(Sahel) 지역의 기후변화,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서아프리카 역내 경제판도의 변화 등 3개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상이한 두 지표값을 표준화하여,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어진 지표값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였다. 중점 분야별 ODA 추진방안과 협력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및 현지조사, 현지 컨설턴트 및 해당분야 공무원 그룹과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네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네갈이 직면해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네갈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세네갈의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세네갈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세네갈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KOICA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발협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국이 아닌 세네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대외협력 공적기관(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주기적인 시장동향 및 신용등급 조사보고서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네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ODA 좌표를 설정하고 중점분야를 찾아 개발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는 KDS(2007)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차원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의 일환으로서 세네갈을 살펴보았기에 본 연구의 깊이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학계나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담론 수준에 머물러 정책적 함의는 높지 않다. 이들 연구는 개발협력보다는 문화인류학 또는 지역학 차원에서 연구된 것으로서 세네갈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외국문헌으로 개발협력 관점에서 세네갈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AfDB(2014), IMF(2015), UNECA(2012), World Bank(2014), World Bank(2015) 등이 있었지만 이들 보고서는 주로 분야별 현황을 고찰하고 총론 차원에서 개발협력 이슈를 다뤄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네갈 ODA는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신흥 중점협력국으로서 서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의 개발협력 중심 시지인 세네갈에 대해 큰 틀에서 우리의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세네갈에 대한 우리나라 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실하였다.

셋째,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일반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세네갈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세네갈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헌조사 이후 2014년 말 1차 현지조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에볼라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확산 등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본 연구의 전체 일정이 지연되어, 현지조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인 연구 일정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점이 본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채용한 모형은 동태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에 내생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의 모형은 “시간”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태적(情態的)인 모델로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정량분석 모형은 가까운 과거 한 시점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방문 면담을 통한 “현재”의 데이터로 보완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이에 따른 현지의 개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KOICA의 전략틀에 반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지표 등 주요 개발환경 지표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에 이러한 한계점이 일부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세네갈에 대한 전략 방향과 실행 분야는 “최근(up-to-date)” 수원국의 개발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한계점은 KOICA가 향후 일정한 시점에서,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제2장
세네갈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개요

세네갈 공화국(République du Sénégal)은 아프리카 최서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리타니아, 말리, 기니, 기니비사우, 남부에 감비아 등 5개국과 넓게 접경하고 있다.

[그림 2-1] 세네갈 지도

자료: Ezilon

세네갈에는 북부 사헬(Sahel) 지역의 사막성 기후와 기타 지역의 아열대성 기후가 공존한다. 그러나 국토 대부분이 불모지인 관계로 땅콩, 수산물 등 1차 산업과 인적자원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세네갈 개황

면적	196,722km²(한반도의 0.9배)	위치	서아프리카 북대서양 연안
인구	14,133,280명 (World Bank 2013년 예상수치)	접경국	말리,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감비아
정치 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단원제(2013년 상원제 폐지)	언어	공용어: 프랑스어, 월로프어, 풀라어, 졸라어, 만딩카어 등
수도	다카르	기후	열대성 기후
행정 구역	14개 주	주요 도시	티에스(Thiès), 카올락(Kaolack), 생루이(Saint-Louis)
건국일	1960년 4월 4일(프랑스)	통화 단위	서아프리카 CFA 프랑 1euro = 655.957FCFA
민족	월로프족(43.3%), 풀라르족(23.8%), 세레르족(14.7%) 등	종교	이슬람교(94%), 기독교(5%), 토착신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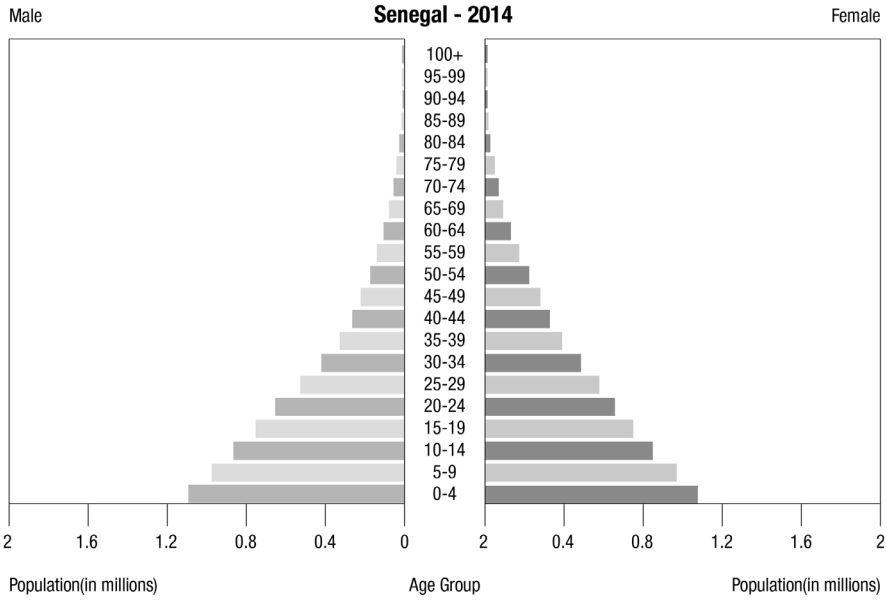
자료: CIA. World Factbook, World Bank 및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세네갈의 전체 국토면적은 196,722km²으로 이는 한반도 국토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은 수도 다카르(Dakar) 및 티에스(Thiès), 카올락(Kaolack) 및 생루이(Saint-Louis) 등 총 14개의 주(régions)단위로 구분된다. 또한 세네갈은 다민족 국가로서 월로프족이 가장 많으며, 인구의 94%가 이슬람교도인 관계로 이슬람식 공동체 문화가 전반적인 사회문화에 녹아있다. 국가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이 외에도 토착 민족어인 월로프어, 풀라르어, 졸라어, 만딩카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세네갈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약 1,400만 명으로 이는 한국 인구 대비 약 27%이며, 연간 2.5%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구조는 0-14세 인구가 전체의 42.5%, 15-24세가 20.5%로 유·소년 및 청년층이 두터운 피라미드형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기초사회 서비스와 고용기회 획득에 어려움이 많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공공정책 상에서 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2014년 기준 세네갈의 도시거주 인구는 전체의 53.5%이며, 매년 3.69%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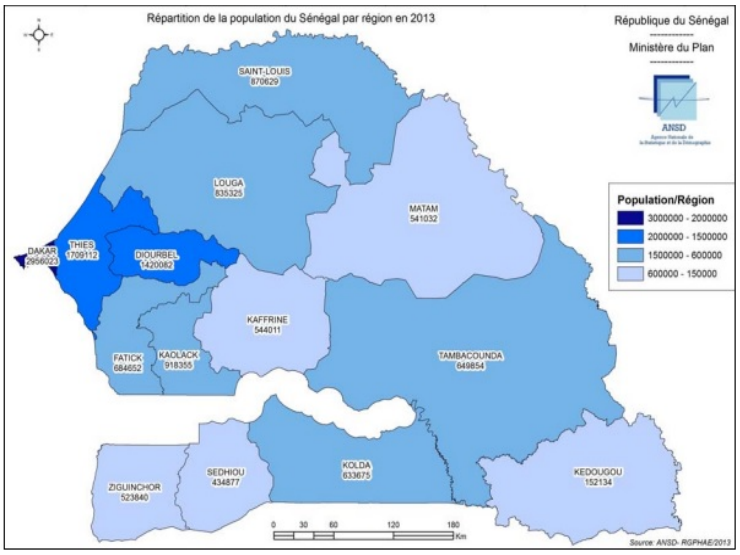
1) CIA. World Factbook

[그림 2-2] 세네갈의 인구 구조



자료: CIA. World Factbook

[그림 2-3] 지역별 인구 규모



자료: 세네갈 통계청(ANSD). 2014

세네갈은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 간 강수량차가 크다. 가장 습한 기간은 8월로 평균 강우량이 254mm이지만, 4-5월 평균 강우량은 1mm로 대기환경이 건조하다. 주요 지역별 연간 평균 강우량은 Ziguinchor 지역이 1,375mm로 가장 높으며, Dakar는 63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인다. 다른 사헬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네갈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968년부터 강우량이 감소하여 부족량이 20-40%에 달한다.[2)]

<표 2-2> 주요 지역별 연간 평균 강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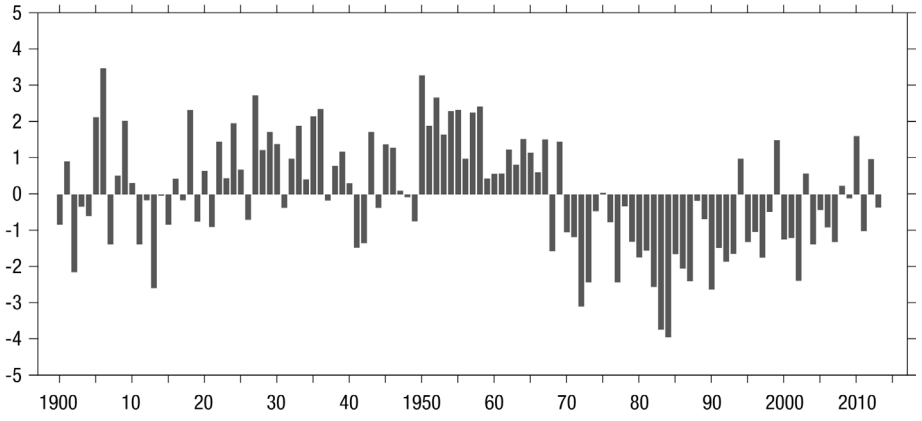
(단위: mm)

순위	지역	강우량	순위	지역	강우량
1	Ziguinchor	1,375	6	Dakar	630
2	Kolda	1,256	7	Diourbel	628
3	Tambacounda	990	8	Thiès	614
4	Kaolack	820	9	Matam	598
5	Fatick	810	10	Louga	490

자료: Havest Choice 홈페이지

[그림 2-4] 사헬 지역의 강우량

(단위: cm/월, 1900-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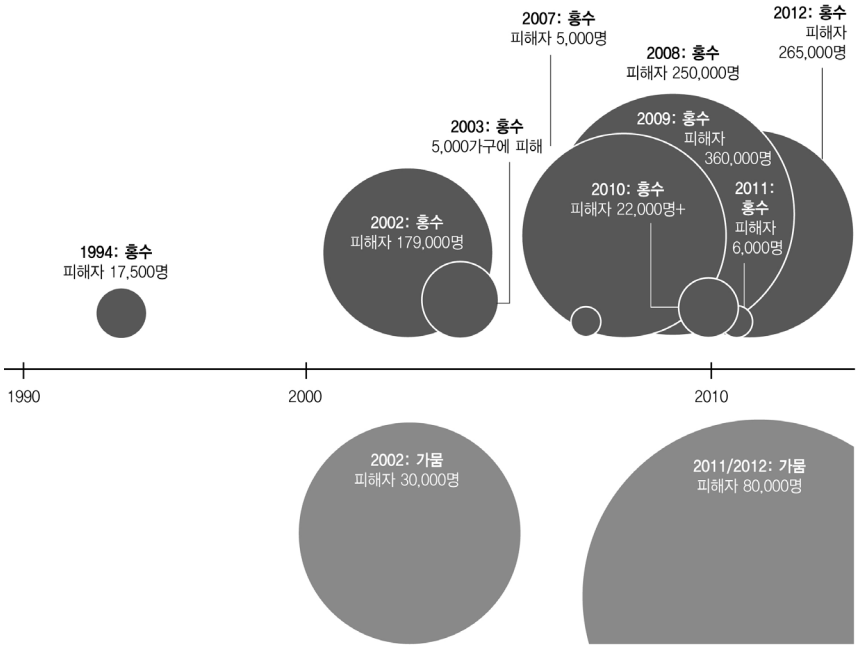


자료: Joi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tmosphere and Ocean, “Sahel Precipitation Anomalies 1900-2013,” Sahel Precipitation Index,(20-10N, 20W-10E), 1900-October 2013, 2013.11.(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10.6069/H5MW2F2Q); NOAA NCDC Global Historical Climatology Network, 2013. 재인용

2) Babacar Diouf et al., 2015

세네갈은 또한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하다. 가장 최근의 경우 2011년의 홍수로 Thiès 시민 5,214명을 포함하여 6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2년 홍수로는 287,384명의 수재민과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6,524개의 집이 파괴되고, 4,884개의 집이 손상을 입었으며 Dakar주와 Matam주 내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천 가구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또한 7,700개의 수원이 오염되었다.[3)]

[그림 2-5] 자연재해별 피해자 규모



자료: World Food Programme. 2013. Climate Risk and Food Security in Senegal: Analysis of Climate Impacts on Food Security and Livelihoods. 재구성

3) UN OCHA. 2012. Overview: Impact of Floods. West and Central Africa.

세네갈의 우기, 생장기 및 주요 농산물 수확기 등 월별 주요 event는 다음과 같다.

<표 2-3> 세네갈 월별 주요 event

Event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기												
말라리아 유행 시기												
용접 시기												
생장기작물*												
땅콩, 수수, 쌀 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바오밥 나무 채집												
대추 채집												
소금 추출												
이동 방목												
계절적 이동												
교육 학기												
일용노동자 고용												

주: 생장기 작물은 밀(Mil), 동부콩, 수박, 비쌉(Bissap)

자료: UN OCHA. 2014 Aperçu des Besoins Humanitaires. 연구진 재구성

2. 정치 현황

가. 정치 체제[4)]

1) 선거 제도

세네갈의 1945년 이전 선거제도는 프랑스 식민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반자치적 정치 체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동화(assimilation) 정책에 따라 Dakar, Gorée, Saint-Louis, Rufisque 등 4곳의 공동체(commune)에서 시의회 의원과 세네갈 대표 프랑스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5)] 이는 세네갈 지방 의회와 초기 세네갈 민주당의 창설로 이어져 추후 헌법 제정, 국회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발전하며 세네갈의 독립을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정치 체제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6)]

2) 주요 정당

세네갈의 주요 정당에는 사회당(Parti Socialiste; PS), 민주당(Parti Démocratique Sénégalais; PDS), 진보세력연합(Alliance des Forces du Progrès; AFP), 독립노동당(Parti de l'Indépendance et du Travail; PIT) 등이 있다. 이 중 사회당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하였으며, 세네갈 진보동맹(Union Progressiste Sénégalaise; UPS)이 1968년 2월 국민의회 총선거에서 80의석의 전부를 독점하고 이어 야당인 아프리카 재편당(Parti du Regroupement Africain; PRA)을 통합한 이래 세네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까지 실질적으로 1당제 국가였다.

3) 헌법 및 대통령

세네갈의 헌법은 독립에 앞선 1959년에 프랑스의 헌법을 기반으로 수립 되었으며 1963년에 개정되었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안이 2001년 1월 공표되었으며,

---

4)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홈페이지

5) Bertelsmann Stiftung. 2014. "BTI 2014 — Senegal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6) African Union. "Country Profile: Senegal". Addis Ababa: African Union.

2008년을 기점으로 다수 수정되었다. 세네갈은 1963년 3월에 공표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세네갈은 1960년 독립 이래 4명의 대통령을 두었다. 초기 대통령직을 맡은 레오폴드 세다 생고르(Léopold Sédar Senghor)은 20년(1960-1980년)동안 재임하였으며, 이후 압두 디우프(Abdou Diouf)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3선을 연임하였다(1981-2000년). 2000년 3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세네갈 민주당(Parti Démocratique Sénégalais; PDS)의 압둘라예 와드(Abdoulaye Wade)가 변화라는 뜻의 월로프어인 sopi 캠페인을 이끌며 4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당선되었다.

이후 와드 대통령은 12년간 집권하였는데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늘리는 등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 위헌적인 재임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발을 낳았다. 와드 대통령은 2기 집권 이래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세네갈의 경기악화, 전시 위주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고 낭비, 친인척 비리, 대통령 아들에 대한 권력 집중 및 후계구도 조성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3선 출마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기도 했다.

이 시위는 당초 Dakar의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에 중점을 두었으나, 곧 와드 대통령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선로를 바꿔 청년층의 투표를 장려하였다.[7] 특히 2011년 1월 세네갈의 유명 저널리스트와 래퍼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Y'en a Marre)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와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과거 자신의 최측근이던 마키 쌀(Macky Sall)에게 압도적인 차이(66%의 득표율)로 패배하였으며, 마키 쌀 대통령은 2012년 4월 취임하였다.

7) UNRIC. "The movement Y'en a marre - "we've had enough"". http://www.unric.org/en/right-to-participation/28099-the-movement-yen-a-marre%E2%80%94weve-had-enough.(2015-05-20)

나. 중앙 및 지방정부

<표 2-4> 세네갈 중앙부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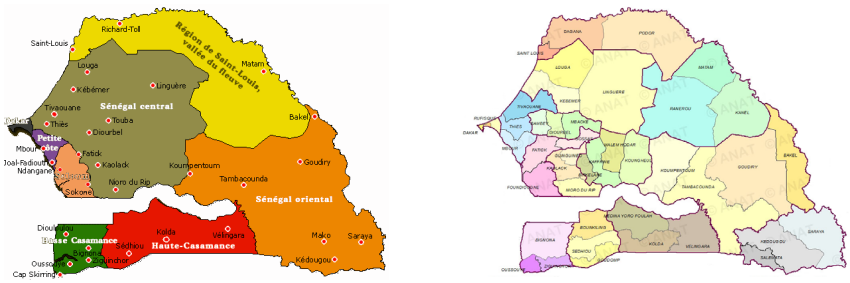
정부 부처 명칭
내무·공안부(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 la Sécurité publique)
국방부(Ministère des Forces armées)
외무·재외국민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s Sénégalais de l'extérieur)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경제재정기획부(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청년·고용·시민부(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Emploi et de la construction citoyenne)
농업·농촌기술부(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ement rural)
해양수산부(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s)
보건사회부(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ction sociale)
수리위생부(Ministère de l'Hydraulique et de l'Assainissement)
여성·가족·아동부(Ministère de la Femm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근로·전문기관부(Ministère du travail, du dialogue social, des organisations professionelles et des relations avec les institutions)
직업학습공예부(Ministè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 l'Apprentissage et de l'Artisanat)
산업·광물부(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s Mines)
가축·축산물부(Ministère de l'Elevage et des Productions animales)
도시재개발·주택·생활환경부(Ministère de renouveau urbain, de l'habitat et du cadre de vie)
인프라·육상교통개통부(Ministère des Infrastructures et des Transports terrestres et du désenclavement)
관광·항공교통부(Ministère du Tourisme et des Transports Aériens)
투자·협력진흥 및 통신서비스개발부(Ministère de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 des partenariats et du développement des Téléservices de l'Etat)
지방자치·개발·국토계획부(Ministère de Gouvernance Local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우정통신부(Ministère des Postes et des Télécommunications)
체육부(Ministère des Sports)
공무부(Ministère de la Fonction publique, de la rationalisation des effectifs et du Renouveau du Service public)

정부 부처 명칭
지역거버넌스·토지계획대표부(Ministère de la Gouvernance Locale, du Développement et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아프리카·NEPAD통합·거버넌스부(Ministère de l'intégration africaine, du NEPAD, et de la promotion de la bonne gouvernance)
재생에너지부(Ministère de l'Energie et du Développe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
환경·지속가능한발전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상업·비공식부문·지역중소기업상품소비촉진부(Ministère du Commerce, du Secteur informel, de la Consommation, de la promotion des produits locaux et des PME)

자료: France Diplomatie -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2014

세네갈의 국가정부는 대통령과 각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단위는 14개 주(région)로 나눠지고, 이는 45개 현(départements)과 103개 구(arrondissements)로 나뉜다.

[그림 2-6] 세네갈 지구 및 현 지도



자료: ANAT

<표 2-5> 세네갈 행정구역

행정구역	
다카르 주(Région de Dakar)	디우르벨 주(Région de Diourbel)
파틱 주(Région de Fatick)	카올락 주(Région de Kaolack)
콜다 주(Région de Kolda)	루가 주(Région de Louga)
마탐 주(Région de Matam)	생루이 주(Région de Saint-Louis)
탐바쿤다 주(Région de Tambacounda)	티에스 주(Région de Thiès)
지긴쇼르 주(Région de Ziguinchor)	카프린 주(Région de Kaffrine)
케두구 주(Région de Kédougou)	세디우 주(Région de Sédhiou)

자료: CIA World Factbook

세네갈의 법체계는 2001년 1월 제정된 헌법과 나폴레옹 법전(Napoleonic Code)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입법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150석에 대하여 보통선거로 국회의원을 5년 임기로 선출하며, 비교다수 득표주의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8] 세네갈 정부는 세속적, 민주적, 사회적인 공화국을 지향한다.[9] 또한 2012년 10월 부분 개각에 이어 2013년 기존 31개 부처 일부 개편 및 3개 부처 신설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하였다.[10]

다. 현 정치적 상황

세네갈에서는 201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마키 쌀(Macky Sall) 전 총리가 당선되었으며, 동년 7월 총선이 치러져 여성총리 아미나타 투레(Aminata Touré)가 9월 임명되었다. 다음 대선과 총선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쿠데타(Coup d'Etat)를 겪지 않은 나라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예시로 뽑히기도 한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의미 있는 정권교체가 한 번 이루어졌다는 점, 초대 대통령인 생고르(Senghor)와 디우프(Diouf)가 각각 20년간 장기집권한 점,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와드(Wade)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재임하려 하거나 신설 부처와 부통령직을 통해 아들에게 권력을 세속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와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6명의 총리를 선임하는 등 절대적인 통치를 하여, 마키 쌀 대통령의 향후 연립정부 운영과 청렴한 헌법 운용 등이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마키 쌀 대통령의 APR(공화당) 및 BBY(범여권연합)가 14개 주 중 8개 주에서 승리하며 다수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Dakar를 비롯해 Thiès, Diourbel, Ziguinchor 등 주요 도시 선거구에서 패배함에 따라 현 정부는 부분

8)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Country Profile: Senegal".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9) République du Sénégal
10)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개각을 단행하고 사실상 대통령 중심의 내각형태를 구성하는 등 와드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미나타 투레(Aminata Touré) 총리가 경질되었으며, 총 34명의 장관 중 9명이 해임되고 9명이 부처를 옮기는 등 세네갈 정부조직 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취임한 모하메드 디온(Mohammed Dionne) 총리는 쌀 정권 출범 후 세 번째 총리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아울러 새롭게 등용된 장관에는 대통령의 처남(수리부장관) 및 대통령 고향의 주지사(체육부, 공무부 장관)등 새로운 내각에 대통령 측근이 상당수 포함되었다.[11)]

<표 2-6> 세네갈 정치환경 요약

역사적 배경	정치 환경	최근의 정세
-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식민지 기간 65년)하고 첫 - 대선에서 사회당(PS) 승리 - 2000년 대선에서 세네갈 민주당(PDS)의 와드 당선 - 2012년 대선에서 와드 대통령이 헌법의 재임규정을 개정하여 3선을 시도하였으나 마키 쌀 당선	- 정부형태: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1960년 이래 집권여당인 사회당 장기 집권 체제 - 2000년 세네갈민주당 출신 압둘라예 와드가 당선되어 40년 만에 정권 교체	- 2012년 마키 쌀 대통령 취임 - 2017년 대선 및 총선 예정

자료: 연구진 분석

라. 외교 및 지역 협의체

세네갈은 비동맹 중립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세네갈은 1982년 2월 감비아를 합병, 세네감비아 국가연합(Senegambia Confederation)의 발족을 선포하였으나 양국은 1989년 해체에 합의하였다.[12)] 세네갈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이자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은 프랑스이다. 다수의 프랑스 기업이 세네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

11)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12)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며, 세네갈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세네갈은 최근 대외 관계를 다각화하여 2003년에는 산업 부문 기업의 90%가 프랑스 기업의 계열사였던 반면, 2012년에는 그 비율이 75-80%로 감소하였다.[13] 세네갈은 현재 역내 2개의 지역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는 1975년 5월 라고스 조약에 의해 서아프리카 제국의 교역·경제협력·경제자립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주된 목적은 공동시장의 확립 및 산업,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천연자원, 금융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통합과 역내 공동번영과 지역 안정이다. 가입국은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모리타니아, 베냉, 시에라리온, 토고 등 총 16개국이다. 본부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있다.

ECOWAS는 잦은 내전이 역내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역내 경제성장 및 경제통합 활성화를 위해 ECOWAS 평화유지군(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Monitoring Group; ECOMOG)을 창설하였다. 또한 1999년 분쟁방지기구 창설협약(A Protocol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을 통해 역내 안전보장과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에 따라 ECOWAS 평화유지군은 1990년 7월 라이베리아 내전과 1997년 5월 시에라리온 쿠데타, 1999년 2월 기니비사우 내전 등에 파병되기도 하였다.

13)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3. “Franco-Senegalese Relations 2000-2012”. South African Foreign Policy and African Drivers Programme. SAIIA Occasional Paper No. 133.

<표 2-7> ECOWAS의 주요활동

연도	주요 활동
1975년 5월	나이지리아를 포함 15개국이 ECOWAS 설립
1991년	무역·농업 및 공업자원, 수송, 사회문화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야별 협력 강화
1993년	공동시장의 창설과 단일통화의 제정, 법원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에 서명
2009년 6월	2020년까지 서아프리카 중앙은행 설립과 서아프리카 통일 화폐 발행을 결의

자료: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연구. 2011

ECOWAS는 정상회의, 각료회의, 재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정상회의가 최고기구로 연 1회 개최되고 의장은 호선 한다. 또한 역·관세·이민·통화결제, 공업·농업·천연자원, 수송·원격통신·에너지, 사회적·문화적 문제 등을 다루는 4개 특별위원회가 있으며,[14] EU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인적왕래 자유화, 역내 생산 제품 무관세 통관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2-8> ECOWAS Vision 2020 최우선 과제 및 추진전략

최우선 과제		추진 전략
1. 지역 자원 개발	천연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	- 천연자원 개발 시 지역·국제 협력 조약, 협정 및 지역 개발 원칙에 부합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 농업 및 광업의 현대화 - 생산 분배 시스템 다각화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 개발	- 인적자원, 특히 여성, 아동,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과 기회의 균등 제공 - 보건, 영양, 교육, 직업 기술 훈련, 윤리, 문화 가치 홍보 - 이중 언어 병용 교육(영어, 프랑스어) 강화 - 유아기 교육의 기초 강화 및 초등 교육에서의 기술 개발 - 교육 기관과 산업 연계 증진 -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프라 역량 확보 - 비즈니스, IT, 엔지니어링 기술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센터 설립 - 학생 및 교수진의 학문적 교류 확대 -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홍보 및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 확보
2. 평화와 안보		-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환경적 안정과 안보 보장 - 갈등관리 및 해결, 평화와 안보 유지 메커니즘에 대한 의정서 승인

14) KOTRA Global Window 홈페이지

최우선 과제	추진 전략
3. 거버넌스	- 국제 기준에 따르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 인권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준수 - 인신매매 근절 - 지역 통합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 - 공무원 윤리의식 고취(반부패)
4. 경제 및 통화 통합	- 무역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 CET 및 비관세 장벽 완전 제거 - CFA 프랑과 그 외 통화 통합 - 은행 규정, 감독, 지불 시스템 조화
5. 민간 부문 개발	- 국경 간 투자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파급 효과 활용 - 양국 간 비즈니스 기술, 협상 관리, 시장 조사, 계약 조성 활성화 - 자본시장, 주식거래, EBID 베이스 자본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SME 및 도시 비공식 부문 지원

자료: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연구』.서울: 지식경제부

ECOWAS 회원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나 금, 다이아몬드 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경제 전체 GDP의 4위를 차지하였으며 ECOWAS 회원국과의 무역 비중은 2005년부터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2) 서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UEMOA)

서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UEMOA)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불어권국가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UEMOA 회원 국가들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CFA 프랑 통화제도에 뿌리를 두어 경제, 금융, 외환, 무역제도 및 상거래 관행 등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며,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은 기니비사우를 제외하고 회원국 상호간 언어,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지녔다.

<표 2-9> UEMOA의 주요활동

연도	주요 활동
1945년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프랑화와 연계된 CFA 프랑 통화가 사용되어, 지금까지 프랑 통화권이 유지되고 있음
1962년	서아프리카통화동맹(UMOA)[15]과 서아프리카관세동맹(UDAO)[16]이 각각 설립됨
1962년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17]이 설립되어 세파 프랑(FCFA) 발행, 회원국의 제반 거시경제정책(금융, 통화, 외환)을 관리, 감독함
1994년 1월	UMOA와 UDAO가 통합되어 UEMOA 창립
1997년 5월	기니비사우가 UEMOA에 가입
1998년	FTA 출범을 통해 회원국 간 관세 완전 철폐
2000년	관세동맹 체결

자료: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연구』.서울: 지식경제부

UEMOA는 회원국 간의 인구, 물자, 자금의 이동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We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창설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가입국은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토고 등 총 8개국으로, 아프리카 연안 지역과 사헬 지역에 주로 위치해있다.

회원국들은 1945년 이후 세파 프랑(CFA Franc)을 단일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s Etats de l'Afrique de l'Ouest; BCEAO)에 의하여 발행·관리되고 있다. 2000년에는 관세동맹이 출범되었다.

UEMOA에는 서아프리카 중앙은행, 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지역 상공회의소, 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아프리카 개발은행(Banque Ouest Africaine de Développement)은 UEMOA 협정 하에서 독립적인 특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UEMOA 위원회는 대통령과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중 3명은 거시경제정책을 다루고 5명은 분야별 정책을 다룬다. 위원장직은 통상적으로 세네갈 대통령이 맡아왔다.

15) 서아프리카통화동맹(Union Monétaire Ouest-Africaine or West Africa Monetary Union: UEMOA)

16) 서아프리카관세동맹(Union Douanière d'Afrique de l'Ouest or West Africa Customs Union: UDAO)

17)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s États de l'Afrique de l'Ouest: BCEAO)

UEMOA 회원국 간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조세, 인프라, 환경,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진행 중이나 역내 교역이 부진하고 GDP와 총인구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경제규모의 큰 격차로 인해 경제통합체로서의 성장 잠재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협소한 시장규모, 열악한 인프라, 지역공동체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잔존해 있고, 역내 GDP의 55% 가량을 차지하는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만이 공업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로 회원국 대부분이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공동체와 세네갈 간 협력 상황을 살펴보면, 세네갈은 ECOWAS와 UEMOA 의 정서의 85%를 비준하고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자본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 신용 이용률 향상과 지역 금융시장 통합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또한 UEMOA 회원국으로써 공통 관세를 적용하여 역내 재화와 서비스, 인력 유동성을 도모하고 있다.

3. 경제 현황

<표 2-10>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경제	GDP	억 달러	144	140	148	159	169
	1인당 GDP	달러	1,078	1,023	1,048	1,092	1,126
	경제성장률	%	1.7	3.4	3.5	4.5	4.6
	재정수지/GDP	%	-6.3	-5.6	-5.5	-5.0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	3.4	1.4	0.7	-0.5	1.5
대외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CFA	471.9	510.5	494.0	491.2	-
	경상수지	백만달러	-1,139	-1,518	-1,540	-1,561	-1,590
	경상수지/GDP	%	-7.9	-10.8	-10.4	-9.8	-9.4
	상품수지	백만달러	-2,508	-2,877	-3,135	-3,019	-2,906
	수출	백만달러	2,621	2,746	2,563	2,462	2,448
	수입	백만달러	5,129	5,624	5,698	5,481	5,353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124	-68	-72	-73	-89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1,946	2,082	2,200	1,871	-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채현황	정부채무/GDP	%	40.5	43.4	46.8	50.0	50.3
	국내정부채무/GDP	%	11.3	12.4	14.4	14.4	14.2
	해외정부채무/GDP	%	29.2	31.0	32.4	35.6	36.1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7,325	9,036	10,494	11,959	13,397
	총외채잔액/GDP	%	53.5	63.1	68.7	73.6	75.5
	단기외채	백만달러	103	293	465	713	-
	외채상환액/총수출	%	12.9	7.4	6.6	8.8	6.0

주: 2014년 및 2015년은 예상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가. 대내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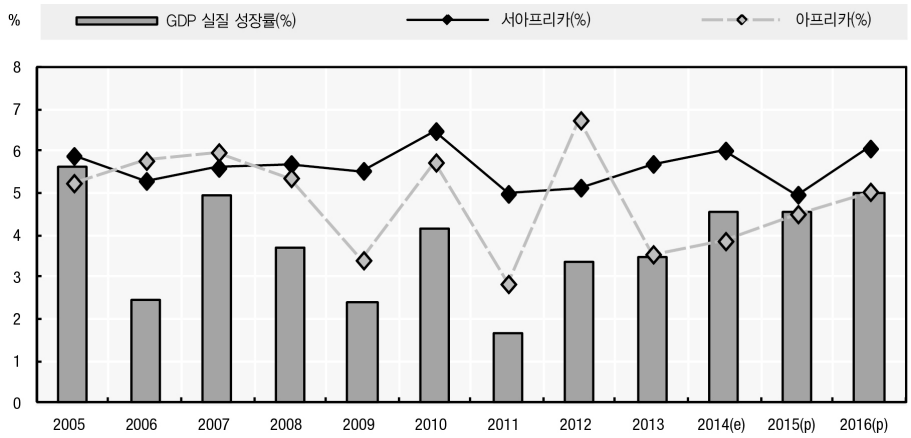
세네갈의 1990년대 초반 거시경제 환경은 지역화폐인 세파 프랑(CFA Franc)이 100% 평가절화 되면서 회복세를 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경제 성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평균 5%였던 성장률이 3.3%로 감소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기후변화 및 세계 상품시장에 민감한 산업구조로 인해 GDP의 변동 또한 잦았다.

2013년 보고된 세네갈의 GDP 성장률은 3.5%였으며 2014년 예상치는 4.5%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IMF는 농업 및 인프라 부문 성장 및 세네갈 도약계획(PSE) 이행에 따른 투자 증대로 인해 향후 GDP 성장률이 5%를 돌파하며 국가 경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8)]

또한 은행 및 통신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부문 성장 및 Dakar 기반의 항공 및 해상 운송산업 개발로 인한 수출 활성화 또한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비수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중국 및 걸프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로 외국인 투자규모 또한 확대될 전망이지만, 산업 부문은 열악한 전력보유량으로 인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8) IMF. 2015. “Senegal: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5/15”. Washington D.C.: IMF.

[그림 2-7] 최근 10년간의 GDP 성장률



주: 2014년, 2015년, 2016년은 예상치

자료: Houeninvo et al. 2015. “Senegal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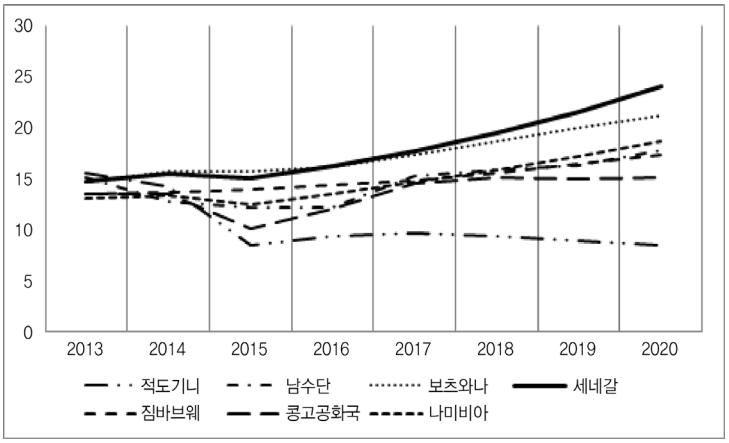
현재 국가 경제구조 상의 문제 및 대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연간 성장률 7-8%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의 투자 증대, 인프라, 농업, 관광업, 섬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관광업 등의 활성화로 인해 경제는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정제 부문의 개발 속도는 더디지만, 해저원유 시추 및 추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MF 및 EIU에서는 세네갈의 경제가 아프리카 내 타 국가 대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네갈의 GDP는 148억 달러로 아프리카 45개국 중 18위이나 2020년에는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240억 달러에 이르러 역내 14위 수준으로 4계단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당 전망치는 세네갈도약전략(PSE) 상의 개혁과제 및 우선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민간기업의 투자가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19)]

1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Country Profile: Senegal".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그림 2-8] 아프리카 국가별 GDP 추세 비교

(단위: 10억 달러, current price)



주: 201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별 GDP 순위 내에서 세네갈을 기준으로 상위·하위 3개국과 비교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연구진 재구성

세네갈의 산업 비중은 서비스업이 62%, 제조업이 22.1%, 농수산업이 15.9%로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부문	2009	2014
농수산업	17.3	15.9
농업, 임업, 수렵산업	15.4	13.7
수산업	1.9	2.2
광업	1.9	1.9
석유	0.0	0.0
석유 외	1.9	1.9
제조업	13.9	12.5
전기, 가스 및 수자원 산업	2.9	2.6
건설업	4.6	5.1
유통업	19.9	19.6
관광업	0.9	0.7
관광업 외	19.0	18.9
운송·통신업	12.1	13.1

산업 부문	2009	2014
금융·부동산업	12.7	13.1
공공행정	7.0	7.8
기타	7.8	8.4
총 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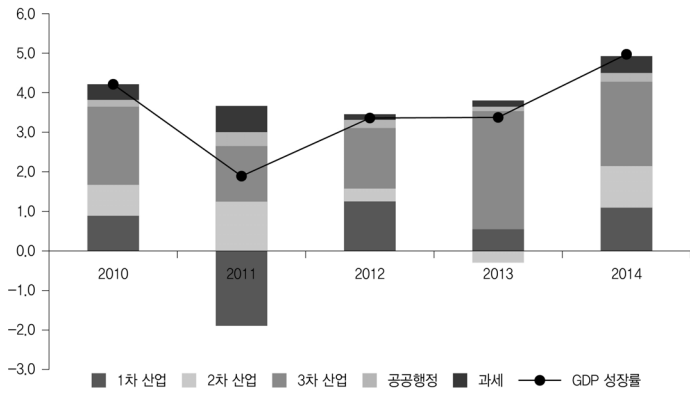
자료: Houeninvo et al. 2015. “Senegal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세네갈이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신동맹(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에 가입함에 따라 1차 산업으로의 민간투자가 확대가 기대되며 이에 6.1%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3차 산업은 대중교통수단 마련과 통신, 호텔업 등의 강세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특히 이동통신의 시장침투율(penetration rate)이 111.5%에 달하며 3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20]

그러나 세네갈 정부의 목표인 GDP 성장률 7% 달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하고 주력 산업이 없다는 것과 내수시장이 협소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산업별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2010-2014년)



자료: World Bank. 2014. Senegal Economic Update". Washington, DC: World Bank

20) 2014년 7월 기준. Houeninvo et al. 2015. “Senegal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2013년도 정부 예산은 총 1조 6,590억 CFA이며, 동 예산은 세수가 1조 4,330억 CFA으로 86%, ODA 무상지원 및 에너지 지원금이 2,259억 CFA으로 14%이다. 부채와 관련하여 공공부채는 3조 3,417억 CFA 규모로 GDP 대비 46.8%이며, 이 중 외채는 2조 3,677억 CFA로 약 69.2%를 차지한다.[21)]

나. 대외경제 현황

1) 경상수지

세네갈의 경상수지는 2010년에는 GDP 대비 -4.4%였으나 2011년에는 -7.9%, 2015년에는 -9.4%로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수입 식품가격 등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의 경상수지는 중기적으로 공공투자사업 관련 기자재 수입 증대에 따라 현재의 높은 적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으로는 GDP의 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22)]

2)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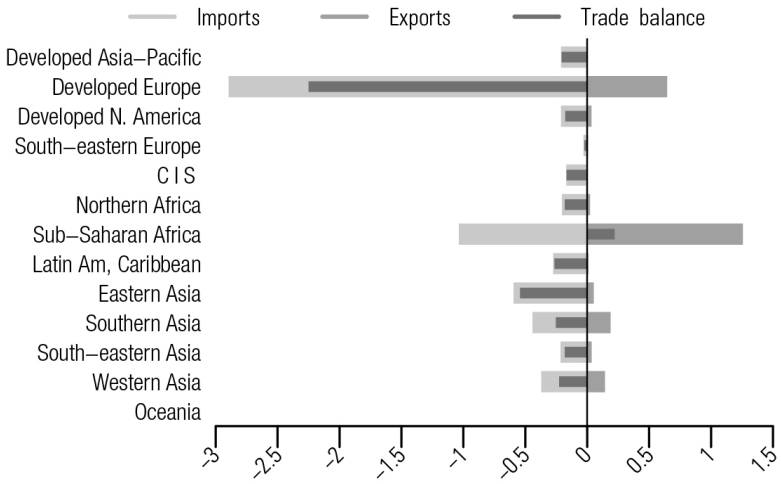
세네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말리,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프랑스, 나이지리아, 태국, 중국 및 스페인이다. 유럽과 세네갈 간 교역은 수입비중이 월등히 높아 무역수지 상 적자폭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1)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2) IMF. 2015. “Senegal: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5/15”. Washington D.C.: IMF.

[그림 2-10] 세네갈 상품 무역 수지

(단위: 백만 달러, 2013년 기준)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 2014. Vol.1 of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New York: UN

세네갈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ECOWAS와 UEMOA 등의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 통합과 활발할 교역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듯 2013년 세네갈의 대 UEMOA 회원국 간의 수출 활동은 전체 수출규모의 27%를 차지하였다.[23] 이 중 말리로의 수출이 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리를 포함한 주변 국가(기니,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간의 수출이 전체 규모대비 70.4%를 차지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수출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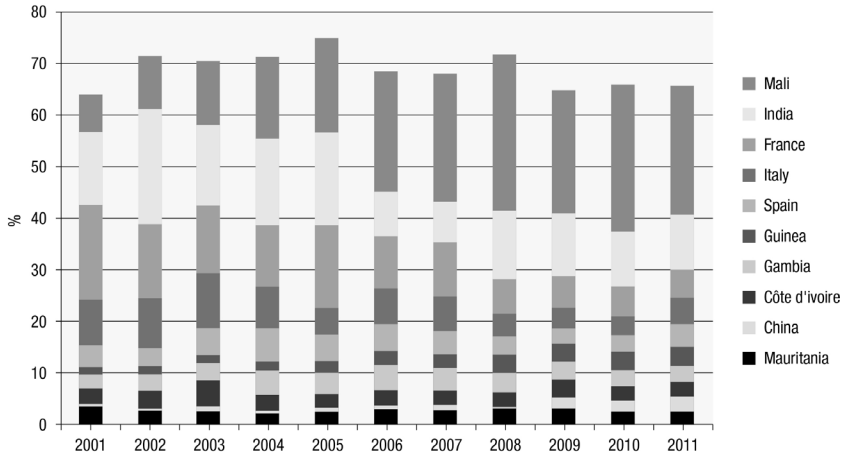
또한 전체 수입의 88.4%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튀니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등 세네갈은 역내 무역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아프리카 지역 내의 무역은 GDP 중 10%(1996-2000년), 13.5%(2001-2006년), 14.8%(2007-2011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24] 또한, 세네갈은 미국 및 EU와도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이들 국가로의 교역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23) Gassama, Khadidiatou. Toussaint Houeninvo. and Bakary Traoré. 2014. "Senegal 2014"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24) UNCTA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2013.

[그림 2-11] 전 세계 대상 주 무역국가

(총 교역 비중, 2001-2011년)



자료: Open Data for Africa 홈페이지

세네갈의 주요 수출품은 인산, 경유, 제트 연료유, 냉동 생선 및 선어, 땅콩기름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쌀, 경유, 소매용 약제, 밀 등이다.

<표 2-12>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2013	2014		2013	2014
전체	2,666	2,814	전체	6,659	6,657
석유, 역청유 조제품	431	446	석유, 역청유 조제품	1,071	1,213
금	329	346	석유, 역청유	700	522
냉동어류	151	213	쌀	462	415
시멘트	165	186	의약품	171	187
수프, 브로드	123	118	밀, 메슬린	192	177
오산화인 외 (HS code: 2809)	165	104	승용차	168	161
냉장어류	57	68	맥아추출물 및 가루	118	136
어패류	31	51	팜유 및 분획물	112	115
제조담배 (HS code: 2403)	48	50	석유가스 및 가스형태의 탄화수소	105	108
시가 외 (HS code: 2402)	51	49	전화기 및 음성영상기기	101	103

주: 품목 별 상세내역은 HS 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자료: UN comtrade statistics

3) 경제자유지수

세네갈의 2014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55.4점이며, 금융, 무역, 투자 등에서의 자유지수 상승은 기업 자유지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상쇄되었다. 세네갈의 전반적인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23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6개 국가 중 23위로써 대체로 경제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표 2-13> 세네갈 경제자유지수 변화

(1996-2014년)

법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열린 시장	
재산권	-30.0	재정 자율	+4.4	비즈니스의 자유	-7.5	무역의 자유	+28.2
부패로부터의 자유	-20.5	정부 지출	-11.6	노동시장의 자유	-2.3	투자의 자유	+10.0
				화폐정책의 자유	+26.0	금융의 자유	-10.0

자료: Miller, Terry. and Anthony B. Kim. 2015.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순위로 본 세네갈의 창업·사업 환경지수는 2015년 기준 49.37이며 세네갈은 전체 189개 대상국 중 161위로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 하였는데,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사업 개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순위의 대폭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4> 세네갈 Doing Business 순위

지표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화
	2014년	2015년	
창업·사업환경	171	161	▲ 10
사업개시	133	90	▲ 43
건설인가 획득	149	151	▼ 2
전력 이용	180	183	▼ 3
재산권 등록	181	167	▲ 14
신용 획득	125	131	▼ 6
투자자 보호	153	122	▲ 31

지표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화
	2014년	2015년	
조세 납부	181	183	▼ 2
대외 교역환경	79	79	-
계약 실행	146	142	▲ 4

자료: World Bank. 2014. “Doing Business 2015: Country Profile Senegal”. Washington DC: World Bank

관련하여, 세네갈 정부는 재경부 산하에 'Guichet Unique'(one-stop window)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의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 발급까지의 심사 과정 및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저개발구역 내 기업에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른 관세면제 및 세금감면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25)]

ECOWAS에 소속된 14개국 간의 순위와 비교할 때 세네갈은 가나(70위), 카보베르데(122위), 감비아(138위), 말리(146위), 코트디부아르(147위), 토고(149위), 베냉(151위)에 이어 8번째로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세네갈은 베냉,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과 더불어 2013/2014년 간 가장 지표가 개선된 10국 안에 들었으며, 이들 서아프리카 국가의 창업환경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4) 대외부채[26)]

세네갈은 2013년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s Agencies; ECA) 앞으로 단기 4천만 달러, 중장기 6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가 연체 중에 있으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다. 고채무빈곤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4년 8.5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 받았고,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8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는 등 두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이력이 있다.

25)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26) 한국수출입은행. 2014. 「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쌍둥이 적자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60.1%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전년대비 8.8%p 감소하는 등 외채상환 능력은 다소 취약하다. 그러나 외채의 80%가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환 압력이 크지 않아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5) FDI 현황

2013년 기준 투자유입액(Inward Investment Flow)은 2억 9,800만 달러, 누적투자액(Inward Investment Stock)은 23억 4,570만 달러로 GDP의 약 2%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해외직접투자(FDI)는 2006-2010년 간 평균 186백만 유로가 증가하였다.[27] 이는 2000-2005년 GDP 대비 FDI 평균인 0.8%에 비해 상향된 수치이지만, 사하라이남 중·저소득국가 평균인 7%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28]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세네갈의 FDI 유입액은 역내 16개 국가 중 11번째를 기록하는 등 규모 면에서 다소 작은 편에 속한다. 또한 세네갈의 FDI의 유입액은 2011년 3억 3,820만 달러에서 2013년 2억 9,830만 달러로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지역 평균 FDI 유입 추세와 유사하다.

한편 세네갈은 니제르, 토고, 기니 등 대규모의 투자를 받던 국가들의 투자 급감 기조와 달리, 일정 수준의 투자 규모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세네갈이 정치 안정성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여겨지는데서 기인한다.

세네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프랑스로 전체 투자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네갈 내 프랑스계 기업은 약 200여 개로 이는 전체 투자기업 중 약 25%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무역, 해운, 은행, 통신, 식품, 기계, 담배, 유통, 자동차, 의약, 관광, 보험업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데, 최근 민영화 된 국영 통신회사 Sonatel의 지분을 프랑스의 통신사 Orange가 보유하는 등 통신업에 대한 투자도 시작하였다.

---

27) Investment Map 홈페이지

28) IMF. 2015. “Senegal: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5/15”. Washington D.C.: IMF.

또한 프랑스 외에도 중국, 브라질, 인도 및 중동 신흥국가들의 투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농업, 식품가공업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여 세네갈의 현대화 및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자본 재구성에 기여하고 있다.[29)]

<표 2-15> 아프리카 역내 국가별 FDI 유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아프리카	48,020.9	55,180.2	57,238.8
서아프리카	18,649.0	16,575.1	14,202.8
나이지리아	8,914.9	7,127.4	5,609.0
가나	3,222.3	3,293.4	3,226.3
모리타니	588.7	1,383.5	1,154.1
라이베리아	508.0	984.6	1,061.3
니제르	1,065.8	841.3	631.4
시에라리온	950.5	548.5	579.1
말리	556.1	397.9	410.3
부르키나파소	143.7	329.3	374.3
코트디부아르	301.6	322.1	371.0
배냉	161.1	281.6	320.1
세네갈	338.2	276.2	298.3
토고	727.8	93.8	84.2
감비아	36.0	25.2	25.3
기니	956.1	606.5	24.8
카보베르데	153.2	57.3	18.7
기니비사우	25.0	6.6	14.5

자료: UNCTAD Statistics 홈페이지

29) KPMG. 2012. “Senegal Country Profile. 2012”. Swiss: KPMG International

4. 사회·문화 현황

가. 사회동향

1) 청년실업 문제[30)]

2011년 세네갈 2차 빈곤조사에 따르면 취업 연령에 있는 세네갈의 노동 인구는 9,302,096명으로 총인구의 64.8%이며 이 중 남성은 약 425만 명, 여성은 약 505만 명으로 여성이 전체 노동 인구의 54.3%이다. 또한 취업 인구는 약 408만 명 남짓으로 노동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인구는 48.8%로, 잠재적인 활동인구 100명 중 49명이 현재 취업 또는 구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노동시장 주요 지표

구분	다카르 도시		기타 도시 지역		농촌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노동 인구								
취업 연령	1,167,997	1,253,981	918,214	1,092,358	2,166,772	2,702,774	4,252,982	5,049,114
실업 인구	88,777	65,300	52,417	60,015	53,469	140,756	194,663	266,071
취업 인구	569,434	369,022	407,637	287,326	1,371,193	1,073,014	2,348,264	1,729,362
비취업 인구	897,468	1,183,732	819,359	1,114,368	2,110,968	2,793,118	6,370,722	7,086,651
비율(%)								
순 취업률	56.4	34.6	50.1	31.8	65.8	44.9	59.8	39.5
실업률	13.5	15.0	11.4	17.3	3.8	11.6	7.7	13.3
노동 비율	48.8	29.4	44.4	26.3	63.3	39.7	55.2	34.3

30)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구분	다카르 도시		기타 도시 지역		농촌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불완전 취업률	25.3	31.6	35.7	45.7	27.5	36.5	28.4	37.0
의존도	1.7	3.4	2.1	4.1	1.6	2.7	1.7	3.1
복합 취업	5.4	2.5	7.2	4.9	20.1	11.3	14.3	8.4

주: 노동 인구(actifs occupés)는 취업연령에 있으며 설문조사 전 주 최소 1시간 이상을 일한 자이며, 실업 인구(actifs chômeurs)는 국제노동기구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비취업 인구(inactifs)는 노동 인구의 생산 활동에 의해 부양되는 학생, 주부, 연금 수급자 등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1. “ESPS II”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역 간 편차를 모호하게 한다. Dakar와 빈곤율이 약 2.5배 차이가 나는 Kaffine(67.0%)과 Kédougou(62.7%) 지역은 Dakar(45.2%)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세네갈에서 빈곤이 가장 심각한 Kolda(59.7%)는 Kaffine과 Kédougou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Ziguinchor(37.7%)와 Matam(36.2%)으로 나타났다.

세네갈 노동인구 5명 중 1명은 전일제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은 65%이다.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77.5%(’07)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22.5%(’07)는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GDP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고 기후변화 및 국제곡물가격에 따른 변동이 잦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31]

31) CIA. World Factbook.

<표 2-17> 취업 연령층 활동 구분

(단위: %, 2011년)

구분	근로자 비율	재학 비율	유휴 인구 비율	Weighted Obs.
15-34세	44.0	19.0	37.0	4,439,256
35-59세	67.0	0.0	33.0	2,395,692
15-59세	52.0	12.0	36.0	6,834,948
남성	57.0	22.0	21.0	2,001,492
여성	32.0	17.0	51.0	2,437,763
도시	35.0	26.0	38.0	2,240,865
농촌	52.0	11.0	36.0	2,198,390

자료: World Bank. 2014. “Skills for Jobs and Competitiveness Project”

세네갈의 전체 취업률은 2005-2006년 45.1%에서 2011년 49.3%로 증가하여 동 기간 연간 114,000명이 새로 취업하였지만 같은 기간 연간 1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실업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역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세네갈의 실업률은 10.3%로 토고(6.9%), 부르키나파소(3.2%) 등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2)]

세네갈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기준 남성은 7.7%, 여성은 13.3%를 기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나눠 보면 15-35세 사이 인구에선 12.2%, 35-65세 인구에선 7.8%을 기록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의 장기 실업률은 대학 졸업생이 74%, 고등학교 졸업생이 52%, 기초교육 이수자가 62%, 교육이 전무한 인구가 41%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은 특히 높으며, 이는 2005년 16%에 비해 2011년 31%로 증가했다.[33)] 직장을 구하는 청년의 46%가 구직과 관련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관련교육의 공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4)]

3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3) 장기적 실업률은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Plan Sénégal Emergent)

34)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표 2-18> 공식부문 산업별 노동인구

(단위: 명, %)

경제활동 산업	취업 인구	
	인구	비율
농림/축산업	1,847,614	45.7
수산업	114,843	2.8
추출(채광, 채석)	67,427	1.7
식품가공	102,102	2.5
제조산업	388,322	9.6
물, 전기, 가스	12,619	0.3
건설 및 토공업	132,053	3.3
무역·판매	208,696	5.2
식당 및 호텔	48,347	1.2
교통 및 통신	121,811	3.0
은행 및 보험	17,687	0.4
금융기관	9,678	0.2
기타 시장 분야	15,529	0.4
가사	56,767	1.4
공공행정	164,630	4.1
사행정	197,505	4.9
국제기구, 대사관	9,152	0.2
기타	527,691	13.1
전체	4,042,473	100.0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1. “ESPS II”

비공식 부문에는 노동인구의 48.8%에 달하는 약 22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로써 고용 창출 계획의 중점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35] 특히 무역과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은 제조업 및 광업과 더불어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인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비농업 분야 직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비공식부문 일자리는 상근직(88.2%)과 계절직(11.8%)으로 나뉜다.

35) 세네갈 비공식부문 국가 설문조사(Enquête nationale sur le secteur informel au sénégal; 2011)는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통계관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결의안의 표준적 정의를 차용함에 따라, 비공식부문 노동자는 자영업자, 5인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 무보수 가족 근로자를 지칭함.

<표 2-19> 비공식부문 산업별 노동인구

(단위: 명, %)

산업 부문	남성		여성		전체	
	노동인구	비중	노동인구	비중	노동인구	비중
산업 및 건설업	538,381	29.5	112,697	28.6	651,078	29.4
생산업	16,112	0.9	2,712	0.7	18,824	0.8
식품업	104,478	5.7	84,814	21.5	189,292	8.5
기타 산업	167,455	9.2	24,975	6.3	192,430	8.7
건설 및 토목	250,336	13.7	196	0.0	250,532	11.3
상업	558,151	30.6	125,174	31.8	683,325	30.8
서비스	726,258	39.8	156,058	39.6	882,316	39.8
식당 및 호텔	17,460	1.0	28,749	7.3	46,209	2.1
운송	80,464	4.4	3,074	0.8	83,538	3.8
기타 서비스	628,334	34.5	124,235	31.5	752,569	33.9
총계	1,822,790	100	393,929	100	2,216,719	100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2) 사회적 갈등 양상

세네갈은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평화로운 편이나, 남부 까사망스(Casamance) 지역은 상위(Kolda주, Sédhiou주)와 하위(Ziguinchor주) 지역으로 나뉘며, 세네갈 북부 및 중부와는 달리 천수 저지대의 지리적 조건과 열대 사바나 기후가 특징이다. 또한 주로 디올라(Diola) 족이 거주하며, 대부분의 세네갈 인구가 이슬람교도인데 반해, 기독교 신자 또는 토속 신앙인이 다수이다.

까사망스는 세네갈 식민시대 중 일부분 불어권 서아프리카 총독의 관할 하에 세네갈과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1960년 독립 시점에 가까워서야 통합되었으며, 이와 같은 독립적인 통치와 상기의 지역적, 민족적, 종교적 요소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던 기니비사우나 감비아와 더 가까이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까사망스 지역 기독교계 반군 세력은 까사망스 민주세력운동(Mouvement des Forces Démocratiques de Casamance; MFDC)을 결성하여 1982년부터 분리 독립운

동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마키 쌀 대통령은 이러한 지역 갈등과 사회경제적 소외를 세네갈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분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 반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살리프 사디오(Salif Sadio)가 정부와의 진전을 희망하며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갈등이 안정화 될 전망이다.[36]

나. 문화적 특성

1) 종족구성 및 언어

세네갈 민족은 월로프(Wolof), 풀라(Pulaar), 세레르(Serer), 디올라(Diola), 만딩카(Mandink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비는 월로프족이 43.3%, 풀라족이 23.8%, 세레르족이 14.7%, 디올라족이 2.7%, 만딩카족이 3%, 소닌케족이 1.1%, 유럽과 레바논계 민족이 1%, 기타 종족이 9.4%이다.[37]

인구의 절반 이상인 월로프족과 풀라족은 대부분 세네갈의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며, 세레르 족은 북부와 중부 지역, 디올라 족과 만딩카 족은 남부 지역에 거주한다. 특히 만딩카 족은 인근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코트디부아르 등에 널리 퍼져있는 만데(Mandé)족의 일부이다.

세네갈인은 민족과 무관하게 집안 간 우애를 중요시하며, '환대'라는 뜻의 테랑가(teranga) 정서가 깊게 배어있다. 수도 Dakar에서는 월로프어가 많이 쓰이며 풀라족, 투클로르(Toucouleur)족은 풀라(Pulaar)어를 쓰며, 세레르족은 세레르어와 칸긴(Cangin)어를 사용한다. Casamance 지역의 수도인 Ziguinchor주에서는 기니비사우나 카보베르데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가 사용된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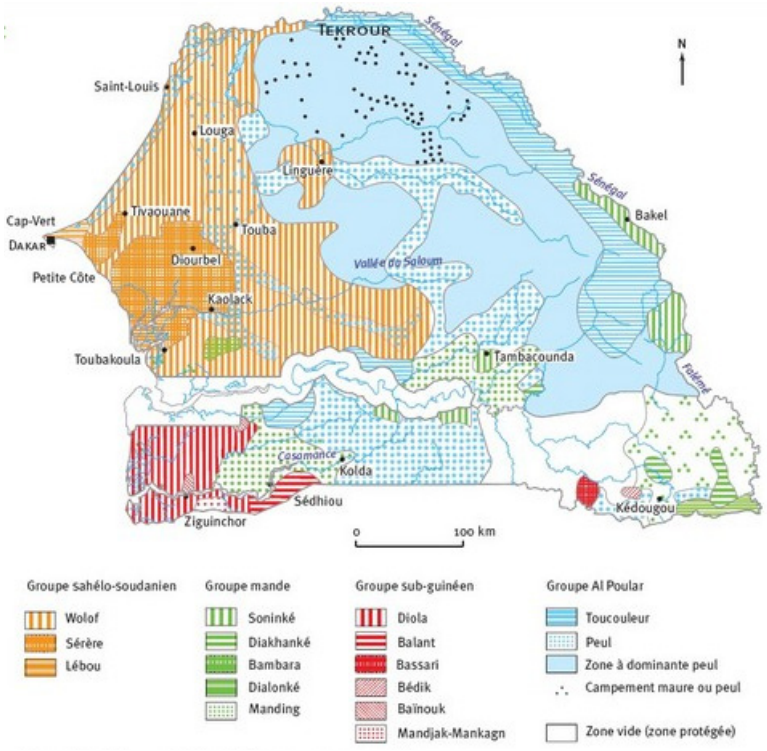
---

36)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37) CIA. World Factbook

38) KPMG. 2012. "Senegal Country Profile. 2012". Swiss: KPMG International

[그림 2-12] 세네갈 지역별 민족 분포



자료: Timera. 2009

2) 종교

종교는 이슬람교(9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로마 가톨릭교(5%)와 토착신앙(1%)이 있다.[39] 이슬람이 토속신앙이나 기타 전통에 잘 녹아들고 무슬림 당파(Muslim Brotherhood)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각 공동체의 리더인 마라부(Marabout)의 입김이 세다. 특히 1990년도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마라부의 지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슬람 공동체는 세네갈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가 이슬람교도이지만 성모승천일, 만성절, 부활절 등 천주교 기념일도 휴일로 지낸다.[40]

39) CIA. World Factbook(2008 est.)

40) Miller, Terry. and Anthony B. Kim. 2015.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1. 개발환경

가. 빈곤 현황

세네갈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169달러이며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다. 하루 소득 1.25달러 이하인 인구는 총인구대비 29.6%이다. 세네갈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2013년 기준으로 0.485로서 185개 국가 중 163위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41)]

2013년 기준 세네갈의 평균수명은 63.5세, 영아사망률은 천 명당 69명이다. 이처럼 높은 영아사망률은 말라리아, 미숙아, 급성호흡기 감염, 출산질식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2)] 1980-2013년까지의 세네갈의 HDI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수명은 14.6년 증가하였고 평균 취학기간은 2.1년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 증대되었다.

<표 2-20> 세네갈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추이

년도	기대수명	기대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1인당 GNI	인간개발지수
1980	48.9	3.6	2.4	2,136	0.333
1985	53.9	4.2	2.7	1,936	0.364
1990	57.2	4.6	3.0	1,789	0.384
1995	57.4	4.9	3.3	1,718	0.394
2000	57.8	5.4	3.7	1,878	0.413
2005	60.6	6.7	4.0	2,068	0.451
2010	62.9	7.9	4.5	2,159	0.483
2011	63.1	7.9	4.5	2,138	0.483
2012	63.3	7.9	4.5	2,146	0.484
2013	63.5	7.9	4.5	2,169	0.485

자료: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Senegal”. 재구성

41)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Senegal”. New York: UNDP

42) WHO. 2012. “Maternal and Perinatal Health Profile: Senegal”

<표 2-21>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 비교한 세네갈의 빈곤 관련 지수

지표	연도	세네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저소득 국가
인간개발지수(HDI)	2013	0.485	0.502	-
1인당 국민총소득(PPP $)	2013	2,169	3,152	5,966
기대수명(세)	2012	63	56	66
영아사망률(천 명당)	2013	69	97	14
영양결핍인구(%, 5세 이하)	2013	26.5	37.8	5.3(2010)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비율(%)	2012	51.9	60.1	90.5
향상된 식수원 사용 인구비율(%)	2012	60	34.3	100
평균 교육년수(년)	2013	4.5	4.8	-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2012	52.1(2011)	70.6	99.6
초등학교 등록률(%, gross)	2012	84	100	105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Data, 및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구성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세네갈의 MPI 값은 0.332으로,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의 59.8%이다. 도농 간 차이를 보면 도시 MPI 값이 0.142(해당 인구는 전체의 31.9%), 지방 MPI 값이 0.464(해당 인구는 전체의 79.3%)로 약 2.5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MPI 값을 보면 서부 지역이 0.188로 가장 낮고, 북부 지역이 0.347로 국가 평균값보다 경미하게 높았으며, 남부 지역(0.435)과 중부 지역(0.439)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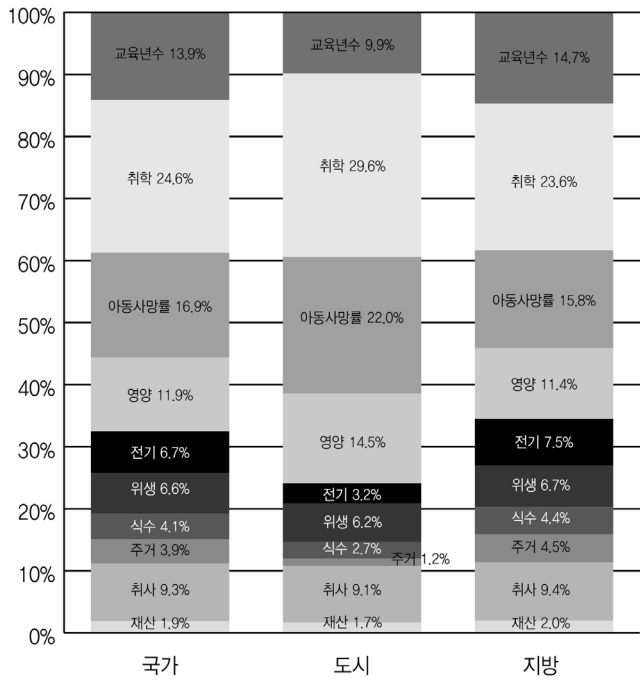
분야별 전체 다차원적 빈곤지수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교육 관련 지표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생활환경이 32.5%, 보건이 28.8%였다. 지역별로는 아동 사망률이 지방(15.8%)보다 도시지역(22%) 빈곤에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환경의 빈곤 기여도는 도농 간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으며, 전기와 식수의 빈곤 기여도는 도농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43] 한편 빈곤발생률 및 빈곤격차는 9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44]

43) 옥스포드 빈곤 및 인간개발 이니셔티브(OPHI)의 MPI 지수는 교육, 보건, 생활환경 등 세 가지 상위분야 하에 10개 지표를 사용하여 빈곤도를 측정하며, 위 분야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짐.

44) 빈곤발생률(incidence of poverty)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인구 또는 가구의 비율, 빈곤격차(poverty gap)는 빈곤하지 않은 인구를 빈곤선(poverty line) 0점에 놓았을 때에 빈곤층과의 평균 거리, 빈곤심각도(poverty

[그림 2-13] 분야별 전체 MPI 기여도

(단위: %)



자료: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2015. “Senegal Country Briefing”.재구성

빈곤격차는 Dakar에서 2001-2002년 10.2%에서 2011년 5.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 반해 지방에서는 동 기간 21.2%에서 18.6%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빈곤 심각도는 10년 간 큰 변동 없이 평균 9.1%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적 불균형은 특히 안전한 식수 및 보건시설, 교통인프라, 지역생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전력공급 등 기본 인프라 접근비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 빈곤이 극심한 지역은 Kolda, Kédougou, Sédhiou, Fatick, 그리고 Ziguinchor 등 남부 지역이다.

severity)는 빈곤격차를 제곱한 값으로 빈곤층 간 불평등을 측정하며, 절대적 빈곤에 초점을 맞춤.

<표 2-22>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단위: %, 1995-2011년)

빈곤지표	다카르	수도권	지방	국가
1994/1995				
빈곤 발생률	56.4	70.7	71.0	67.9
2001/2002				
빈곤 발생률	38.0	45.0	65.1	55.2
신뢰구간(95%)	[33.8-42.2]	[39.3-50.7]	[62.1-68.0]	[52.9-57.5]
빈곤격차	10.2	13.4	21.2	17.2
빈곤의 심각도	3.8	5.5	9.1	7.3
2005/2006				
빈곤 발생률	27.7	41.3	58.8	48.3
신뢰구간(95%)	[23.5-32.6]	[38.0-44.6]	[55.6-62.0]	[46.1-50.6]
빈곤격차	6.6	11.6	20.2	15.4
빈곤의 심각도	2.3	4.8	9.5	6.9
2011				
빈곤 발생률	26.1	41.2	57.1	46.7
신뢰구간(95%)	[20.1-32.1]	[36.9-45.5]	[53.5-60.1]	[44.1-49.3]
빈곤격차	5.8	13.1	18.6	14.5
빈곤의 심각도	2.1	5.9	8.7	6.6

자료: Groupe Consultatif. 2014. “Evaluation Quantitative du DSRP-II-Dynamique de la Pauvreté Monetaire”. Paris: Groupe Consultatif

<표 2-23> 세네갈 빈곤조사

(단위: %, 2013년)

지역	세네갈 빈곤조사(2005)			세네갈 빈곤조사(2010-2011)		
	발생률	빈곤격차	심각도	발생률	빈곤격차	심각도
Dakar	27.7	6.6	2.3	26.1	5.8	2.1
Ziguinchor	73.4	29.3	14.4	66.8	26.6	13.5
Diourbel	50.1	14.8	6.3	47.8	13.0	5.1
Saint-Louis	34.9	9.4	3.6	39.5	11.8	4.9
Tambacounda	76.9	34.9	20.4	62.5	21.7	9.9
Kaolack	52.0	15.2	6.2	61.7	19.5	8.1
Thiès	48.4	14.8	6.6	41.3	10.5	4.3
Louga	66.8	24.6	12.0	26.8	5.7	2.1
Fatick	66.1	22.9	10.9	67.8	21.7	9.5
Kolda	60.9	20.6	9.3	76.6	35.5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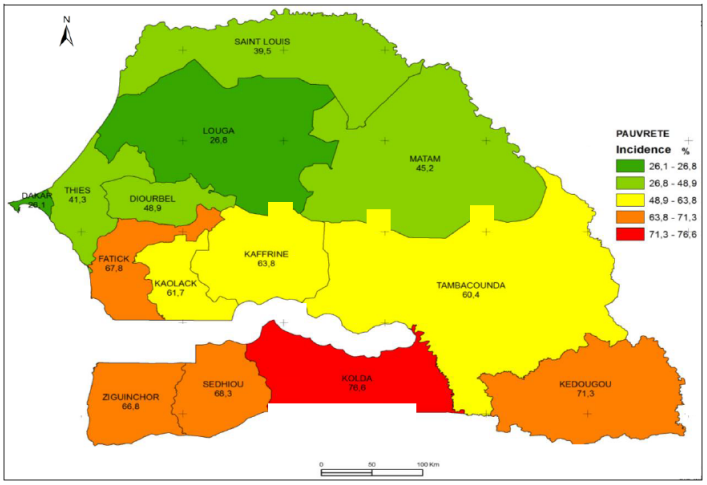
지역	세네갈 빈곤조사(2005)			세네갈 빈곤조사(2010-2011)		
	발생률	빈곤격차	심각도	발생률	빈곤격차	심각도
Matam	49.5	14.5	5.9	45.2	14.1	6.4
Kaffrine	-	-	-	63.8	21.2	10.5
Kédougou	-	-	-	71.3	27.4	14.1
Sédhiou	-	-	-	68.3	23.5	11.0
전체	48.3	15.4	7.0	46.7	14.5	6.6

주: 세네갈 빈곤조사(Enquête de Suivi de la Pauvreté au Sénégal), ESPS-I: 2005, ESPS-II: 2010-2011

자료: UNDP. 2013. “Rapport des Consultations Nationales sur L’Agenda de Développement Post 2015”. Dakar: EMAP

세네갈의 빈곤율은 북부와 중남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며, 2011년 기준 Dakar(26.1%) 및 Louga(26.8%)는 약 26%, 북부 지역의 Saint-Louis(41.3%), Thiès(41.3%), Matam(45.2%), Diourbel(48.9%)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중남부 지역 빈곤율은 모두 50%를 상회하였으며, 중부 지역은 Tambacounda(60.4%), Kaolack(61.7%), Kaffrine(63.8%)로 나타났고 특히 남부 지역 Ziguinchor(66.8%), Fatick(67.8%), Sédhiou(68.3%), Kédougou(71.3%)가 6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Kolda의 빈곤율이 76.6%로 세네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세네갈 빈곤율 지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나. MDGs 달성 의제 및 개발 현황

세네갈의 MDGs는 초등학교 등록률 등 기초사회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빈곤퇴치,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율 등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MDGs 목표 및 지역별 세부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4> 세네갈 MDG 경과 추세

목표	지표	진행 상황		목표치	변동 (%)	사하라 이남
		기준	최근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50% 감축	빈곤선이하 인구비율(%)	65.8 (1991)	29.6 (2011)	32.9	-55	48.4 (2010)
기아 비율 50% 감축	기아 비율(%)	24.5 (1991)	16.7 (2013)	12.25	-32	24.8 (2010-12)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초등학교 순취학률 (100명 당)	44.7 (1990)	73.3 (2012)	100.0	64	77.7 (2012)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초등학교 남/녀 등록 평등화	초등 남아 대비 여아 등록률	0.73 (1990)	1.08 (2012)	1.0	48	0.92 (2011)
입금노동 남/녀 비율 평등화	농업 외 임금노동 여성 고용율(%)	10.6 (2001)	10.6 (2001)	50.0	0	33.4 (2012)
국회 내 남녀의원 비율 평등화	여성의원의 단일 또는 하원의석 점유율(%)	12.5 (1990)	43.3 (2014)	50.0	247	22.9 (2013)
목표 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3분의 2 감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 당)	141.1 (1990)	55.3 (2013)	47.0	-61	92 (2013)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모성 사망률 4분의 3 감소	산모 사망률 (출산 10만 건당)	530 (1990)	320 (2013)	132.5	-40	510 (2013)
피임 및 산전관리 등 생식보건 증진	피임법을 실천하는 15-49세 여성 비율	7.4 (1993)	17.8 (2013)	100	141	25.7 (2012)
	4회 이상 산전 관리 받은 15-49세 여성 비율	28.8 (1993)	29.3 (2013)	100	2	25.1 (2012)

목표	지표	진행 상황		목표치	변동 (%)	사하라 이남
		기준	최근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HIV/AIDS 확산 중지	15-49세 HIV 감염률	0.09 (2001)	0.02 (2012)	0.045	-78	0.31 (2012)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산림 손실 복원 및 면적 확대	산림면적 비율(%)	48.6 (1990)	44.0 (2010)	-	-10	28.1 (2010)
식수 접근권이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비율(%)	59.9 (1990)	74.1 (2012)	79.9	24	64.0 (2012)
위생시설 접근권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비율(%)	35.1 (1990)	51.9 (2012)	67.5	48	30.0 (2012)
빈민가 거주인구 감축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70.6 (1990)	38.8 (2009)	-	-45	61.7 (2012)

주: 진행상황의 목표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 숫자는 년도를 말함. 초등학교 순등록율은 UNESCO Country Profiles 참조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 2014.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Senegal”

<표 2-25> MDGs 목표 및 지역별 세부과제

MDG 목표	지역별 세부과제
목표 1	- 토지관개 활동 필요 - 인프라, 현대적 장비, 상품 가치 공공 책정, 자금 조달 면에서 부족
목표 2	- 교육용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물자와 자질 있는 교사 부족 - 여아에 대한 폭력 지속 - 정부의 교육 분야 강화 의지와 전략을 토대로 협력 파트너 및 협의 메커니즘 존재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아의 취학 도모 가능성 존재 - 초등학교 졸업률은 Kolda(Dakar, Ziguinchor, Sédhiou)에서 100% - 초등학교 취학률은 Diourbel(Kaffrine) 지역에서 60% 미달하고, Tambacounda는 2011년에 72% 기록 - Diourbel 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 개입의지 부족
목표 3	- 여성 권익 향상에 비우호적인 전통 잔재 - 정보 전달 역부족, 전통 농업 생산 분야에 집중된 활동 - 여성 권익 강화 및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존재 -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의 형사재판화 - 사회적 발전 저해요소가 큰 지역은 Kaolack, Diourbel, Tambacounda, Saint-Louis, Kolda

MDG 목표	지역별 세부과제
목표 4,5,6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 프로그램, HIV/AIDS 검사 등에서 진전 - 바마코(Bamako) 이니셔티브나 재정·기술 파트너 개입 강화 - 가족계획 우선순위 정책 면에서 보건 분야 MDG 달성 향상 가능성 - 지속되는 파업과 낮은 급여로 인한 전문인력 및 감독 부족과 재취업 - 의료장비 부족 - 보건예산 증가 등 국가 개입 부족 - 사회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보장시스템 미비 - 취약한 감독시스템으로 인해 국민 보건기록 보존에 한계 - 아동사망률 감소 정도는 Saint-Louis가 타 지역에 비해 미흡 - 산모 출산 보조인력은 Kaolack, Kolda, Tambacounda 지역이 각각 65%, 33%, 32%로 부족 - HIV/AIDS는 Diourbel과 Kolda가 감염에 가장 취약 - Tambacounda 지역은 특히 물자보급 수단이 부족하고 보건이 취약
목표 7	- 환경보호를 위한 재조림 활동 및 법적 틀과 규정 마련 - 지역 이니셔티브는 있으나 프로젝트의 연속성 및 인프라 부족, 관리 시스템 부재의 문제가 잔존 - Saint-Louis를 제외한 지역에 배수 문제 - 배수시설 설치율은 Kolda 지역에서 감소
목표 8	- 공동 프로젝트 시너지 효과 부족 - Diourbel과 Tambacounda를 제외한 지역에 개발 협력 파트너 존재 - Kolda는 개발 프로젝트와 천연자원이 있으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파트너 간 시너지 효과가 부족 - Saint-Louis에는 지역대표 간 연대감이 존재하나 현지 수요와 파트너 간 관심 분야가 상이 - Kaolack은 파트너가 다양하나 체계화된 연맹 틀이나 전략이 부재하고 민간분야 개입 및 거버넌스 취약

자료: UNDP. 2013. “Le Sénégal que Nous Voulons: Rapport des Consultations Nationales sur l'Agenda de Développement Post 2015”. Dakar: Cabinet Etudes et Management de Projets

다. 분야별 개발 현황

1) 교육

세네갈의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은 2011년 기준 52.1%이다. 이는 2002년 39.3%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그 중 남성의 비율은 66.3%. 여성의 비율은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부터 24세의 청년층의 경우 문해율은 66%이며, 남성의 비율이 74%인데 반해 여성의 비율은 59%로써 성별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2-26> 세네갈 문해율

(단위: %, 2011년 기준)

연령	계	남성	여성
15-24세	66.0	74.0	59.0
15세 이상	52.1	66.3	40.4
65세 이상	25.1	43.7	8.2

자료: UNESCO. Country Profiles

2012년 기준 초등학교 순 등록률은 73.3%이며, 2002년 64.1%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45] 초등학교 이수비율은 2011년과 2012년 꾸준히 66%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등록률은 상승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인 77.7%('12)보다는 낮아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46] 세부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2013년 기준 초등교육 중도 하차비율은 약 9.8%를 기록하였다.[47]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2000년에 51:1이었는데 2011년엔 40:1로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신흥경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 15-25명과 비교할 때 교사 공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8]

중·고등학교의 등록률은 2011년 기준 41%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중·고등교육 졸업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대학진학 수요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듯 대학졸업생 수가 2010년 29,908명에서 2011년 30,564명으로 증가하였다.

45) UNESCO. Country Profiles

46) UN. 2013.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

47)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48) République du Sénégal. 2012.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2013-2017".

<표 2-27> 세네갈의 초등교육 등록률

구분	세네갈							사하라 이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총 등록률(%)								
계	80.6	84.4	84.9	84.6	84.4	83.5	83.8	101.8
여아	80.0	84.4	85.9	86.3	86.7	86.1	87.0	97.6
남아	81.3	84.3	84.0	82.9	82.2	81.0	80.6	105.9
순 등록률(%)								
계	71.4	72.6	74.2	73.8	73.4	73.3	73.3	77.7
여아	70.8	72.6	75.0	75.2	75.4	75.5	76.1	75.1
남아	72.0	72.6	73.3	72.4	71.4	71.1	70.6	80.6

자료: UNESCO. Country Profiles 홈페이지

<표 2-28> 세네갈의 중・고등 및 대학교육 등록률

(단위: %)

중·고등학교 등록률			대학교 등록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41.0	42.9	39.1	7.6	9.6	5.7

주: 중고등학교 등록률은 2011년, 대학교 등록률은 2010년 기준

자료: UNESCO. Country Profiles 홈페이지

학생들은 모든 지역과 교육단계를 아울러 대부분 프랑스 공립학교에 진학했으며(전체의 77.1%), 다음으로 사립학교에 많이 진학하였다(전체 19.7%). 특히 다카르 외 도시(83.0%)와 농촌지역(87.3%)에서는 공립학교 진학률이 더 높았다. 반면 지역사회학교나 기타 학교는 각각 전체의 0.6%, 2.6%%에 머물러 교육에서의 공립학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49)]

그러나 민간 투자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세네갈에서는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지방도시(Bambey, Thiès, Ziguinchor)에 새로운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akar의 대학에 지원자가 집중되고 있다. 전체 국공립 대학의 80%가 Dakar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수가 연간 대학진학 희망자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50)]

49) République du Sénégal. 2011. “ESPS II”.

<표 2-29> 교육수준별 초・중・고등학교 현황

수준	전체 학교 수	도시지역 학교 수	농촌지역 학교 수
유치원	2,823	1,591	1,232
초등학교	9,307	2,432	6,875
중학교	1,231	551	680
중고등학교	544	418	126
고등학교	130	105	25
전체	14,035	5,097	8,938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교육접근성은 특히 여성 및 탈리베(Talibé) 아동 등 소외계층에서 매우 낮다. 특히 탈리베(Talibé)는 이슬람 학교 다라(Daara)에서 마라부(Marabout)에게 코란(Quuran)을 배우는 아동으로써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다. 탈리베는 세네갈 내 약 5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60.6%)이 Kolda 등 빈곤지역에서 도시로 왔으며, 이외 기니비사우(26.3%), 감비아(7.4%), 기니(3.4%), 말리(1.7%) 및 모리타니아(0.6%)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

탈리베는 다라에서 종교학습과 아랍어 등을 중심으로 8년 과정을 마쳐야 하며, 기본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6년간의 세네갈 정규 교육과정과의 차이로 인해 일반 학생과 수학 등 과목에서 학습능력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탈리베는 마라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하루 수입 할당량을 채워야 하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보다 구걸을 하며 보낸다. 이러한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굶거나 폭행을 당한다. 이처럼 탈리베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박탈되고 인신매매의 위험이 도사리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아동 노동 및 육체적·정신적 학대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리는 탈리베의 구걸을 통한 고행이 겸손의 미덕을 배우는 방법이며 이슬람교도가 자선을 베푸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어 탈리베 문화가 더욱 고착화되었다. 또한 정부가 세네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무슬림 당파의 정치적 반발을 간과할 수 없어 관련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50)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공여주체와 정부는 프랑스어, 수학, 과학 등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교사 훈련 및 의료안전규정을 갖춘 현대적 다라를 개설·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라는 정부의 규제에 예속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등교육 접근성 및 고용시장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 소외 계층의 공식 교육 통합이 시급하다.

직업 및 기술교육, 비정규교육 분야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 및 기술교육 발전은 지역별 격차를 크게 보이고 있다. 직업 및 기술학교 등록학생의 대부분(62.5%)과 사립학교 등록생의 대부분(79.3%)은 Dakar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Louga, Matam, Fatick 지역에는 등록학생수가 매우 적다.[51]

특히 산업수요와 개발 정책 및 직업훈련 간 연결고리가 약하며, 노동연령 6.8백만 명 중 52만 명만이 직업 및 기술훈련을 받았고, 이 중 38만 6천명만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2011년 기준 15-59세 인구 중 직업 및 기술훈련을 받은 인구는 15.5%에 그쳤다.[52]

세네갈 직업학습공예부(Ministè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 l'Apprentissage et de l'Artisanat)는 15-24세 3백만 명 중 전체 기관에 걸쳐 16,000명만이 등록하여 대상 인구 중 0.5%에 겨우 미치는 청년에게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전체 노동인구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9.0%로 가장 적었다. 또한 농촌인구 비율도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전체의 44.32%에 못 미쳐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이수비율은 중학교 수준까지는 남성과 비등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45.7%로 감소하였다. 2011년 기준 교육수준별 실업률은 고등교육 이수자가 16%에 육박하여 전체 중 가장 높으며, 이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8.6%)에 비해 2배가량 높다.[53]

---

51) République du Sénégal. Plan Sénégal Emergent. 2014.

52) World Bank. 2014. “Skills for Jobs and Competitiveness Project Appraisal Document”.

53) AfDB. “Senegal Virtual University Project”.

세네갈의 교육수준별 노동인구와 국가 교육훈련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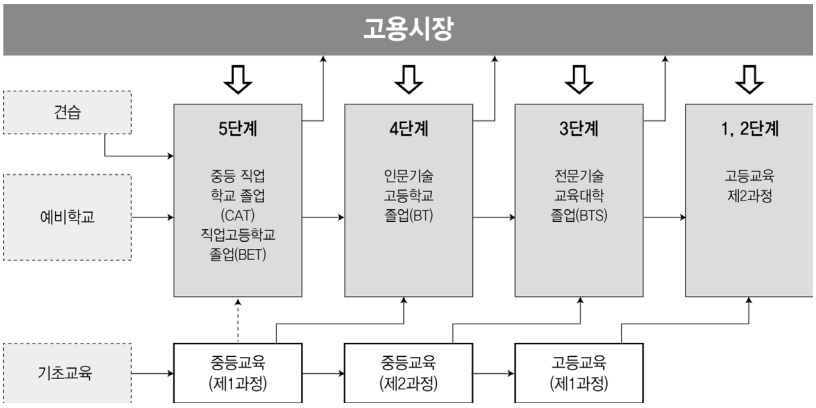
<표 2-30> 교육수준별 노동인구

(단위: 명, %)

교육 수준	노동인구	농촌인구 비율	여성 비율
유치원	199,024	40.40	52.4
초등학교	1,888,159	51.29	51.5
중학교	754,964	38.85	50.8
고등학교	277,045	14.57	45.7
전체	3,119,192	44.32	50.9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그림 2-15] 세네갈 국가 교육훈련체계



자료: UNESCO-UNEVOC. 2015. "World TVET Database - Country Profiles: Senegal"

세네갈 정부는 고용수요 충족과 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카르 인근 Diamniadio에 지식도시를 건립 중에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90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직업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건립을 통해 Cloud Computing Center 등 세네갈에 기 건립되지 않은 시설을 건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형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2) 농업

농업은 세네갈 GDP 총액의 13.7%('14)를[54]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35%('13)를 담당하며 전체 노동인구 중 77.5%('07)를 수용하는 등 국가 주요산업으로 꼽힌다. 세네갈의 경작가능 면적은 3.2백만 ha이며, 관개가능 총면적은 35만 ha이나 그 중 실제 관개지는 13만 ha이다. 또한 주요 쌀 생산지인 Senegal River Valley(Saint-Louis와 Matam) 지역은 관개 쌀을 수확하여 세네갈 전체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데 반해, 남부 Kolda와 Ziguinchor 등지는 전통적인 농법을 사용하는 천수 지역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27%에 그친다.

<표 2-31> 세네갈 국토 이용현황

(단위: 1,000ha, %)

구분	1990-2000년			2000-2012년		
	면적	이용률	연간증가율	면적	이용률	연간증가율
국토	19,253.00	100.00	0	19,253.00	100.00	0
농경지	3,005.18	15.61	-0.11	3,267.38	16.97	1.11
다년생작물 경작지	41.91	0.22	5.21	54.15	0.28	1.44
임야	9,123.18	47.39	-0.49	8,638.86	44.87	-0.49

자료: FAOSTAT

농업 분야는 강우량에 대한 의존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데,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의 시기가 연장되면 토양 내 탄소함량이 영향을 받아 광화작용이 가속화되며 홍수의 빈도가 늘어나 물 부족과 환경파괴가 야기되어 수확 및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는 농민 소득의 하락을 초래하여 심각한 빈곤에 노출시킨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건조한 기상조건을 심화시켜 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생물량과 물을 감소시켜 폐사율을 증가시킨다.

세네갈의 농업은 특히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분야로서 최근 가뭄과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합쳐져 2014/15년 농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지난 5년 평균에

54) 농업, 임업, 수렵산업 포함(Houeninvo et al. 2015)

비해 45% 감소하였다.[55] 세네갈은 28만MT('11)의 땅콩을 생산하는 등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10위의 땅콩 생산국이며, 동시에 땅콩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56] 이는 식민 시절부터 대규모 단일 경작을 시작한 이래 땅콩 경작에 주력한데서 기인하였다. 땅콩 외에도 쌀, 수수, 옥수수, 양파,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주 생산 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며, 소고기, 닭고기 및 양고기 등 육류도 일정량 생산하고 있다.

<표 2-32> 주 농업상품 생산량

(단위: 달러, MT)

	상품	생산액	생산량
1	땅콩(껍질)	285,485	672,803
2	쌀	173,102	630,654
3	소고기	126,229	46,728
4	수수	112,970	661,673
5	닭고기	80,671	56,635
6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74,896	125,000
7	토마토	66,522	180,000
8	양고기	57,057	20,955
9	우유	54,183	173,630
10	양파	44,107	210,000
11	염소고기	37,111	15,488
12	옥수수	32,175	240,878
13	사탕수수	29,553	900,000
14	계란(껍질)	22,712	27,384
15	수박	20,866	183,164

자료: FAOSTAT

세네갈은 쌀과 밀을 포함한 곡류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를 포함한 곡류의 수입량은 142만 6천 톤('11)으로 가장 높으며 정제된 백미는 80만 5천 톤('11)을 수입하는 추세이다. 밀의 국내 소비량은 2011년 44만 7천 톤이었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47만 톤을 수입하는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세네갈 주 수출

55) UN OCHA. 2015. Senegal: Humanitarian Overview.

56) Banco Espirito Santo. 2013. "International Support Kit of Opportunities Senegal". 발표자료

농수산 품목은 분쇄된 쌀이 약 11만 톤('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곡류를 제외한 품목 중에서는 수박이 1만 5천 톤 수출한 실적을 기록했다. 농산물 수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국은 말리로, 이는 대규모 분쇄 수출에서 기인한 결과라 보인다. 그 외에도 세네갈은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및 프랑스 등 다양한 유럽국가와도 교역하고 있다.

<표 2-33> 세네갈 농산물 무역 현황

(단위: kg, 달러, 기준: 2014년)

수입 품목		수입 대상국	
품목	수입량(kg)	대상국	실적(달러)
쇄미	1,106,161,394	인도	245,742,295
그로트	526,491,146	프랑스	144,041,300
메슬린	375,054,074	태국	99,063,604
옥수수(기타)	195,833,922	아르헨티나	38,534,292
밀(듀럼)	170,171,790	러시아	36,967,517
양파, 쪽파	122,415,454	브라질	30,657,474
감자(기타)	73,616,748	네덜란드	27,752,705
바나나	15,566,971	앤티가바부다	19,225,735
마늘	12,124,836	중국	18,436,464
당근, 순무	11,652,477	캐나다	16,735,934
수출 품목		수출 대상국	
품목	수출량(kg)	대상국	실적(달러)
쇄미	110,718,956	말리	34,663,448
수박	15,945,335	영국	24,009,464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14,063,897	네덜란드	21,404,612
토마토	13,015,698	스페인	16,061,435
메론류(수박 외)	12,619,615	프랑스	12,105,495
채소(기타)	11,479,116	기니비사우	5,761,939
콩(비그나, 파세러스 종)	9,928,975	이탈리아	5,376,270
양파, 쪽파	4,319,093	베트남	5,268,105
땅콩	2,617,772	중국	4,991,358
참깨	2,590,642	시에라리온	4,867,382

주: 농산물의 범주는 HS Code 상 04, 05, 06, 07, 08, 09, 10, 12 상에 포함하는 품목으로, 가공 및 조제품을 제외한 경종류에 국한함. 또한 품목은 6자리 코드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UN Comtrade Statistics

<표 2-34> 세네갈 쌀 수출 동향

(단위: kg, 달러, 기준: 2014년)

	수출 대상국	수출량	수출실적
1	말리	89,268,669	32,660,589
2	시에라리온	9,282,850	3,580,750
3	기니비사우	5,968,736	2,250,076
4	모리타니	3,497,760	1,486,359
5	기니	1,986,598	748,740
6	리비아	1,000,000	383,821
7	감비아	372,200	185,334
8	코트디부아르	10,881	19,410
9	프랑스	103	139
총계		111,387,797	41,315,219

주: 쌀(HS Code: 1006)의 전체 수출량으로 벼, 정미, 쇄미 등을 포함한 데이터임

자료: UN Comtrade Statistics

세네갈에서는 쌀이 주식이며 국민 1인당 연간 70kg의 쌀을 소비한다. 세네갈의 국내 쌀 소비량은 147만 톤('11)으로 약 140만 톤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으로 필요량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세네갈은 2011년 기준 약 120만 톤의 쌀을[57] 수입하고 40만 톤을 자체 생산하는 등 주식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강하다. 이에 따라 세네갈 정부는 연간 160만 톤을 목표로 2017년 까지 쌀 자립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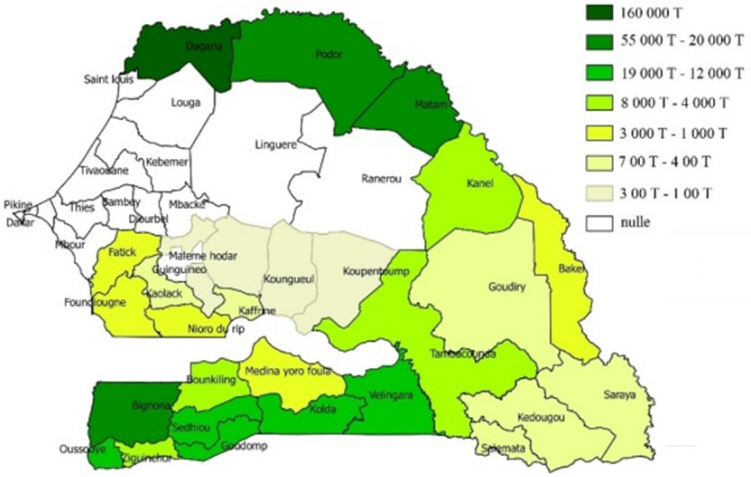
세네갈 쌀 생산은 대부분 소농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에 따라 생산량뿐만 아니라 농사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요 생산지는 북동부 Senegal River Valley의 Saint-Louis, Dagana, Podor, Matam 등지와 남서부 Fatick, Kolda 및 Ziguinchor 등 Casamance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 지역은 관개 저지대라는 환경적 특성과 보다 현대화된 농법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량을 갖는데 비해 천수지인 남부 지역의 경우 수동으로 쌀을 공정하는 등 노동집약적이고 낙후된 생산과정, 불충분한 투입요소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에 비해 제약요건이 많다.

57) 벼 수입량 기준으로, 정제된 백미는 80만 5천 톤 수입(FAO)

58) Groupe Consultatif de PSE. Partenariat Public-Privé: 18 projets phares. 2014. 및 FAO. Food Balance. 2011

[그림 2-16] 지역별 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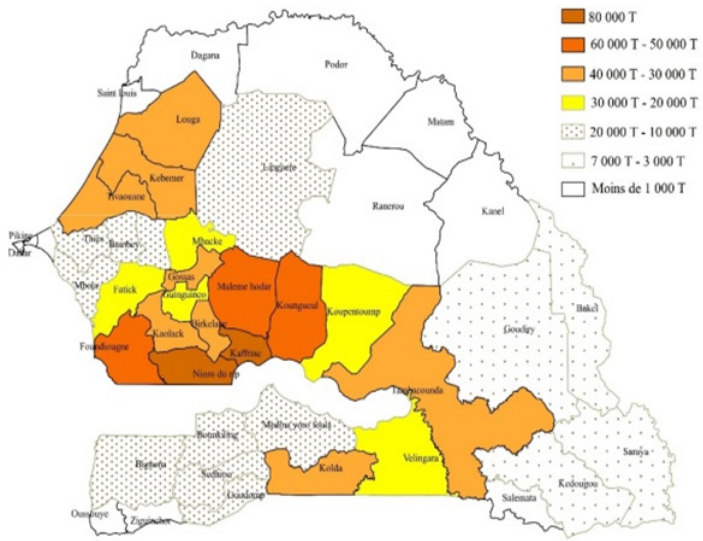
(기준: 2008-2012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ment rural. DAPSA”

[그림 2-17] 지역별 땅콩 생산량

(기준: 2008-2012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ment rural. DAPSA”

<표 2-35> 쌀 생산지 비교

구분	Saint-Louis 및 Dagana	Podor 및 Matam	Fatick	Kolda	Ziguinchor
쌀의 중요도	주식	주식	부식	부식	주식
농사 시기	6/8-10/12월 1/2-4/5월	6/8-10/12월	6/8-9/10월	7-10월	7-10월
품종 종류	다수확 품종 (개선)	다수확 품종 (개선)	현지 품종 (부분 개선)	현지 품종	현지 품종
농사 환경	관개 저지대	관개 저지대	천수 저지대	천수 저지대	천수 저지대 및 고지대
구획 규모	대(>1 ha)	중(>0.25 ha)	소(<0.1ha)	소(<0.1ha)	소(<0.1ha)
주요 재배자	남성	남성 및 여성	여성	여성	남성 및 여성
토지 조성	자동(기계)	자동(기계)	수동	수동	수동
비료 투여량	높음	높음	최소 수준	낮음	최소 수준
제초제 사용	흔함	흔함/전무	전무	전무	전무
수확	자동 및 수동	자동 및 수동	수동	수동	수동
탈곡	자동	자동 및 수동	수동	수동	수동
평균 수확량	>5MT/ha	>4MT/ha	1-2MT/ha	1-2MT/ha	1-2/MT/ha
이용목적	소비 및 판매	소비 및 판매	판매	판매	판매

자료: USAID. 2009. Global Food Security Response: Senegal Rice Study. Microreport #160

이에 따라 세네갈은 지역별로 생산량과 수확 후 관리 및 손실률은 물론 전반적인 가치사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네갈의 쌀 수확 후 손실률은 전반적으로 평균 11.9%에 달하며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쌀의 평균 수확 후 손실 규모는 Sédhiou(16,687톤), Saint-Louis(7,171톤), Ziguinchor(6,893톤) 지역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Kolda, Sédhiou, Ziguinchor 지역에서의 손실률이 약 2배 증가하였다.

<표 2-36> 세네갈 지역별 쌀 수확 후 손실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atick	-	-	-	11.0	11.0	11.0	11.0	11.0
Kaffrine	11.0	11.0	11.0	10.9	11.0	11.0	11.0	11.0
Kaolack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1.0
Kédougou	11.9	11.9	11.9	12.0	11.9	12.0	12.0	12.0
Kolda	12.1	12.1	12.1	12.1	12.1	12.1	11.5	23.0
Matam	11.2	11.2	11.2	11.2	11.2	11.0	11.4	11.3
Saint-Louis	11.5	11.5	11.5	11.5	11.4	11.5	11.2	11.5
Sédhiou	12.1	12.1	12.1	12.0	12.1	12.0	12.0	23.1
Tambacounda	11.0	11.0	11.0	11.2	11.0	11.0	11.0	11.2
Thiès	-	-	-	-	-	-	-	10.9
Ziguinchor	12.0	12.0	12.0	23.1	11.5	11.5	12.0	23.0

주: Dakar, Diourbel 및 Louga 지역은 데이터가 없으므로 제외

자료: African Postharvest Losses Information System

<표 2-37> 세네갈 지역별 쌀 수확 후 손실규모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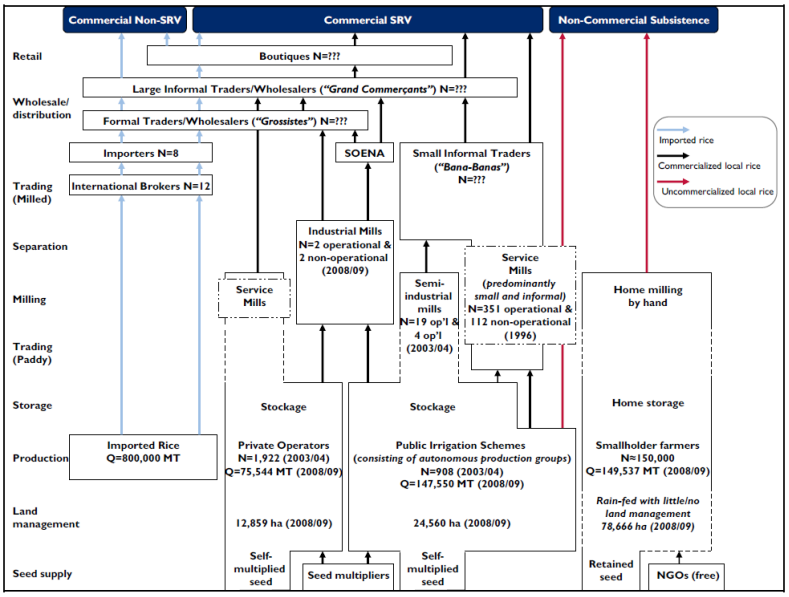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atick	-	-	-	402	399	400	402	400
Kaffrine	25	94	560	593	284	391	554	68
Kaolack	47	28	32	91	12	87	76	154
Kédougou	37	37	6	19	332	43	74	98
Kolda	1,877	1,286	933	4,399	5,065	5,018	1,300	11,356
Matam	2,308	2,589	2,302	2,980	2,933	2,844	3,219	3,273
Saint-Louis	3,224	1,172	1,167	4,503	5,837	3,359	1,881	36,224
Sédhiou	15,978	10,785	14,925	23,603	21,455	22,595	20,287	3,871
Tambacounda	84	520	74	1,151	297	292	299	304
Thiès	-	-	-	-	-	-	-	1
Ziguinchor	9,610	6,200	3,718	18,460	4,486	5,370	2,509	4,793

주: Dakar, Diourbel 및 Louga 지역은 데이터가 없으므로 제외

자료: African Postharvest Losses Information System

세네갈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주식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이지 않게 완전미보다 파쇄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별로 봤을 때 도시지역 소비자는 수입 파쇄미를 선호하고 Senegal River Valley 인근 준도시지역 소비자는 현지 품종에 우호적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파쇄미를 선호한다. 농촌지역 소비자의 경우 완전미를 선호하며, 전체 소비량 중 10%만이 수입품이다.[59] 농촌지역 저소득층 소비자는 미분류쌀(ungraded rice)을 선호한다. 또한 세네갈에서는 수입쌀과 현지생산 쌀의 유통경로도 상이하여 공급망의 분절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쌀이 도시 지역에서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정도만이 도시 및 준도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체계 뿐만 아니라 현지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마케팅이 불충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8] 세네갈 쌀 가치사슬 구조



자료: USAID. 2009. Global Food Security Response: Senegal Rice Study. Microreport #160

59)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3. Rebuilding West Africa's Food Potential: Policies and market incentives for smallholder-inclusive food value chains. "Smallholder Participation in Value Chains: The Case of Rice in Senegal".

쌀의 가치사슬 상 구조적인 한계점을 살펴보면 수직 연계(vertical linkage)라는 높은 수익성과 관개 쌀의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분절화 되어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고 비공식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대부분의 생산자가 자급자족을 위한 소농인 경우, 소규모의 간헐적인 생산을 하고 대규모 생산이나 상업화를 지향하지 않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수평 연계(horizontal linkage)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정 기능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으며 생산자들은 토지 관리, 관개 인프라 운영, 주요 투입요소 공동구매의 범주에서의 협력 및 수확 후 저장 및 가공, 마케팅 등의 부분에서 교류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60]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관련 선행연구(김관수 외, 2013)는 농업 기계화 및 인프라, 생산 요소, 신용 시장 확대 및 가격 안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수산업

수산업은 2012년 기준 세네갈 수출 총액의 12.5%에 달하며,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인구의 17% GDP의 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또한 연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중 평균 26kg를 공급하며 전체 식품 섭취량의 70%을 제공하는 등, 식량안보 및 영양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분야이다.[61]

전체 수출량 중 어류는 114,265톤으로 전체 수출 수산품 중 83%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적 가치 역시 어류가 120,717,257,000 CFA으로 71%를 차지하였다. 수산업 분야의 2013년 기준 전체 수출량은 137,569톤으로 전년 128,191톤 대비 7.3%p가 상승하였다. 그에 반해 수출의 상업적 가치는 2013년 170,612,580천 CFA로 2012년 168,117,150,000 CFA 대비 1.5%p 가량 소폭 상승하였다.[62]

2013년 기준 수산업 분야 수출 비중은 아프리카가 51%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아시아가 25%, 유럽이 23%, 미국이 1%였다. 지역별 수출 가치는 유럽이 43%로 가장 높

60) USAID. 2009. Global Food Security Response: Senegal Rice Study. Microreport #160

61) République du Sénégal. 2015.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Rapport d’analyse du secteur de la Pêche”.

62)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Resultats Generaux des Pêches Maritimes. 2013.

았으며, 이어서 아프리카가 30%, 아시아가 26%, 미국이 1%였다. 아프리카 대상 수출은 2012년 62,738톤에서 2013년 70,424.81톤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25%p 증가하였으며, 그 중 코트디부아르로의 수출이 33,803톤(48%), 말리로의 수출이 16,368톤(23%), 카메룬이 10,814톤(15%)이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2011년 36,328톤에서 2013년 31,202톤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기준 스페인이 12,481톤(40%), 이탈리아가 8,304톤(27%), 프랑스가 5,620톤(18%), 그리스가 2,254톤(7%)이었다. 아시아의 경우 최근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30,433톤에서 2013년 34,615톤을 수출하여 13.74%p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냉동갈치 수입량 27,033톤 중 42%인 11,449톤을 세네갈에서 수입하였다.[63]이와 같은 수출 증대는 황새치를 겨냥한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에 기인하며, 이에 따른 교역 확대국은 한국, 베트남, 중국, 대만 등이다.

<표 2-38>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천 CFA, 2013년 기준)

구분		수출량	상업적 가치
어류			
냉동 상태	완전한 상태	104,199	89,133,031
	조리된 상태	4,283	8,074,354
신선한 상태	완전한 상태	4,540	17,782,519
	조리된 상태	1,243	5,747,355
합계		114,265	120,737,257
갑각류			
냉동 상태	완전한 상태	5,882	19,328,607
	조리된 상태	525.13	1,843,756
신선한 상태	완전한 상태	0	0
	조리된 상태	1.03	11,539.40
합계		6,408	21,183,903
연체동물류			
냉동 상태	완전한 상태	9,496	17,496,811
	조리된 상태	2,069	5,475,465
신선한 상태	완전한 상태	88.14	303,466
	조리된 상태	7.02	34,378
합계		11,660	23,310,121

63) 해양수산부. 2015. 「서아프리카 세네갈과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구분	수출량	상업적 가치
가공 식품		
어유(fish oil)	303.58	322,901.62
어분(fish meal)	1,326	706,773
훈제(smoked)	0	0
건조식품(dried)	393.38	586,483
소금 첨가 건조식품(salted and dried)	962	974,447
절임(preserved)	2,251	2,790,694
합계	5,236	5,381,299
전체 수출 현황		
전체 수출 합계	137,569	170,612,580
2012년 수출 현황	128,191	168,117,150
전년 대비 변화	7.3%	1.5%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2013. "Resultats Generaux des Pêches Maritimes". 연구진 재구성

4) 보건의료

세네갈의 모성사망률은 1990년 당시 10만 명 기준 530명에 달하였으나 상당 부분 진전되어 2013년 동일 기준 대비 320명으로 약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평균치인 510명(2013년)에 비해 양호하나, 세계 평균 수치인 210명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인 조산원의 도움을 받은 출산 비율이 1999년 46% 대비 2010-2011년 평균 65.1%로 증가하였으며 산전검진 비율 또한 2007년 74%에서 2010-2011년 평균 93.3%으로 상승하는 등 안전한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성 사망률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9> 모성 사망률

지역	모성 사망률					변동 (%)	연 평균 변동(%)	달성 현황
	1990	1995	2000	2005	2013			
세네갈	530	510	480	420	320	-40	-2.2	충분한 진전
사하라이남	990	930	830	680	510	-49	-49	불충분한 진전
전세계	380	360	330	270	210	-45	-2.6	충분한 진전

주: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 수

자료: WHO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990년에 천명 기준 70.5명에서 2012년 43.9명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5세 이하 유아 사망률도 1990년에 천명 기준 141.1명에서 2013년 55.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네갈의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비 개선 폭이 컸으나, 여전히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심하다. 세네갈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 시간과 비용의 제약, 예방약 공급 중단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모성·영아 사망률의 효과적인 개선이 어려우며,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 인프라, 인력 양성, 의약품 및 관련 기자재 등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피임 시점부터 차이가 벌어져서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현대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여성 비율은 최상위층에서 22.9%이나 최빈곤층에서는 4.4%로 5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도시에서 20.2%였으나 지방에서는 6.5%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출산 시 전문 인력에게 도움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최상위층이 95.5%인데 반해 최빈곤층은 29.7%였으며, 도농 간 격차도 15.9%에 달하였다.

<표 2-40> 사하라이남 대비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단위: 천 명당)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사하라이남 남녀 평균								
남아	115.7	-	102.3	-	72.7	-	-	66.5
여아	98.7	-	86.9	-	60.7	-	-	55.2
세네갈 남녀 평균								
남아	76.0	-	75.0	-	52.0	-	-	48,0
여아	65.0	-	63.0	-	42.0	-	-	39.0
사하라이남 전체 평균								
하계	105.6	101.5	93.2	78.7	64.4	62.1	59.9	58.0
중간계	107.4	103.2	94.8	80.4	66.8	64.7	62.7	61.0
상계	109.5	105.3	96.7	82.4	70.2	68.5	66.9	65.8
세네갈 전체 평균								
하계	68.1	68.8	66.4	54.5	44.7	42.8	41.6	40.4
중간계	70.5	71.2	70.6	56.9	47.2	45.9	44.8	43.9
상계	72.9	73.8	73.6	59.4	50.5	49.7	49.0	48.6

자료: UNESCO

<표 2-41> 사하라이남 대비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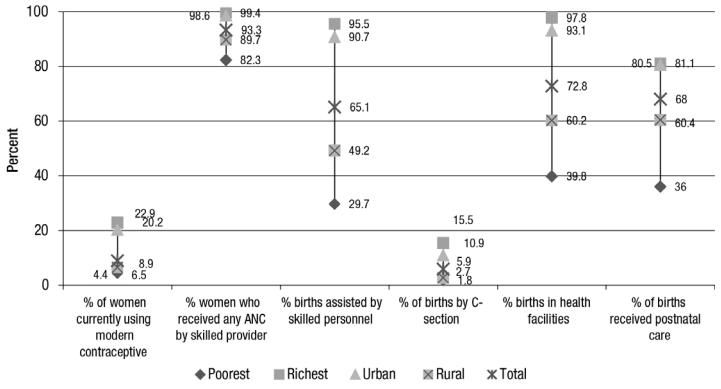
(단위: 천 명당)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사하라이남 남녀 평균								
남아	187.9	-	164.0	-	109.6	-	-	98.0
여아	169.4	-	147.4	-	96.9	-	-	86.0
세네갈 남녀 평균								
남아	148.0	-	143.0	-	71.0	-	-	60.0
여아	134.0	-	131.0	-	61.0	-	-	50.0
사하라이남 전체 평균								
하계	175.4	168.3	152.9	126.1	99.1	94.6	90.5	87.0
중간계	178.9	171.5	155.9	129.2	103.4	99.2	95.3	92.2
상계	182.7	175.4	159.6	132.9	109.8	106.5	103.5	101.4
세네갈 전체 평균								
하계	133.8	135.8	128.3	90.3	56.7	51.4	46.9	42.7
중간계	141.1	143.2	137.0	98.1	66.3	61.9	58.4	55.3
상계	148.7	151.3	146.4	106.3	77.5	74.6	72.5	71.2

자료: UNESCO

더불어 의료시설에서의 출산비율은 최상위층이 97.8%이나 최빈곤층은 39.8%으로 절반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도농 간 격차도 32.9%p였다. 이러한 불평등은 산후관리를 받은 영아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간 2배 이상, 지역 간 1.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산전관리를 받은 여성의 비율과 제왕절개를 이용한 출산비율에서는 소득수준 및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림 2-19]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의 공평성



자료: WHO. 2012. “Maternal and Perinatal Health Profile: Senegal”. 연구진 재구성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발한 에볼라 사태는 세네갈에도 일부 확산되었다. 세네갈은 2014년 8월 기니 출신 학생이 첫 감염자로 판명되며 서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 발병국이 되었으나, 정부가 해당 환자는 물론 환자의 지인 67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성공적인 치료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 2014년 10월 17일 에볼라 발병 종료 선언을 하였다.

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환자 및 지인의 치료와 추적에는 1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정부는 연구실과 시설 강화에 약 2백만 달러, 지역민 대상 지원활동과 감독조정 시스템에 약 3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64] 또한 세네갈은 기니 국경을 폐쇄하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발 항공과 선박을 금지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의 수출이 전체의 2% 남짓이기에 국경 폐쇄의 영향이 크지 않아 타 국가에 비해 에볼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거의 없었다.

5) 식수위생 현황

대부분의 가구는 개선된 식수원에의 접근성이 높다(전체 82%, 도시 91%, 농촌 71%). 그 중 수돗물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73%로 가장 보편적인 식수원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9%)이 가정 내 수돗물을 쓰고 있다. 기타 개선된 식수원은 전체 가구의 8%만을 차지한다.

또한 거주지에서 식수 접근이 가능한 가구는 도시가 79%인데 반해 농촌은 49%였다. 식수는 일반적으로 사용 전에 가공되지 않았으며(전체 76%, 도시 82%, 농촌 69%), 농촌에서 도시 대비 2배 이상 천으로 거르는 법을 사용하였다. 이외 여과법 사용은 매우 낮았다.

2014년 10월 기준 세네갈의 안전한 식수 접근 비율은 도시 지역이 98%, 농촌 지역이 84.1%로 도시 지역만 MDGs 목표인 89.9%을 상회하였다. 또한 위생시설에 대한

64) World Bank's Global Practice for Macroeconomics & Fiscal Management 2014.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14 Ebola Epidemic: Short and Medium Term Estimates for West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접근 비율은 도시 지역이 61.7%로 MDGs 목표인 52.7% 대비 9.0%p 높으며, 농촌 지역은 38.7%로 MDGs 목표 대비 14.0%p가 부족한 실정이다.[65]

<표 2-42> 식수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가구			인구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식수원						
개선된 식수원	91.2	70.8	81.8	90.8	71.5	80.8
가정/거주지 내 수돗물	73.2	42.1	58.9	76.1	45.8	60.4
대중 수돗물/식수대	11.8	19.9	15.5	10.5	17.7	14.2
펌프 우물/관정	0.3	5.0	2.5	0.2	4.8	2.6
보호되는 빈 우물	2.7	3.1	2.9	2.9	3.0	3.0
보호되는 수원	0.1	0.0	0.1	0.1	0.0	0.1
용기에 담은 생수	3.1	0.6	2.0	0.9	0.2	0.5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	8.5	29.2	18.0	8.8	28.5	19.0
보호가 미흡한 우물	7.3	24.9	15.4	7.7	24.5	16.4
보호가 미흡한 수원	0.0	0.2	0.1	0.0	0.1	0.1
저수탱크/소규모 수조 카트	1.1	2.9	1.9	1.0	2.8	1.9
지표수	0.0	1.3	0.6	0.0	1.0	0.5
기타	0.3	0.0	0.2	0.4	0.0	0.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식수 저장을 위한 소요 시간						
건물 내	79.2	48.8	65.3	82.1	52.3	66.7
30분 이하	16.2	34.0	24.3	13.4	31.9	22.9
30분 이상	4.5	16.6	10.1	4.4	15.3	10.1
DK 그룹	0.1	0.6	0.3	0.1	0.6	0.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식수 가공 수단						
물을 끓임	0.0	0.1	0.1	0.1	0.3	0.2
표백제 또는 염소 첨가	9.2	10.7	9.9	10.0	9.9	9.9
천으로 거름	10.0	24.2	16.5	10.1	24.1	17.3
타일, 모래, 기타 필터	2.1	0.4	1.3	1.8	0.3	1.0
기타	2.1	1.1	1.7	2.1	1.3	1.7
가공 안 함	81.9	69.3	76.1	82.0	69.7	75.6
적절한 방법 사용	2.1	0.4	1.3	1.8	0.3	1.0
유효	2,290	1,941	4,231	17,577	18,858	36,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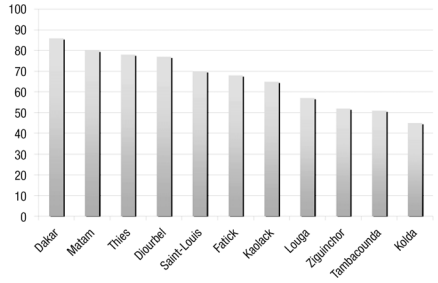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5. “Agenc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 Démographie. Enquête Demographique et de Santé Continue”

65) Jemima Sy, 2014. “Reform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enegal’s Rural Water Sector".(World Bank 발표자료)

세네갈의 지역별 안전식수에 대한 접근성은 다카르가 가장 높고 Kolda가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안전식수 접근불가 인구는 36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해안지역은 염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Fatick, Kaolack, Kaffrine, Diourbel 등 중부 지역 지하수는 높은 수치의 불소, 염화물, 철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질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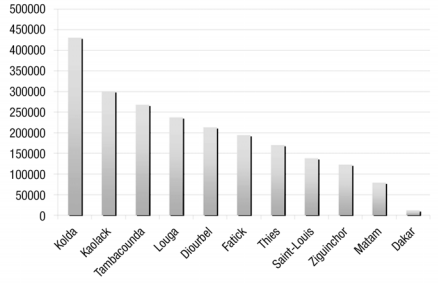
[그림 2-20] 지역별 안전한 식수 접근률

(단위: %, 2010년)



[그림 2-21] 안전한 식수 접근 불가 인구

(단위: 명,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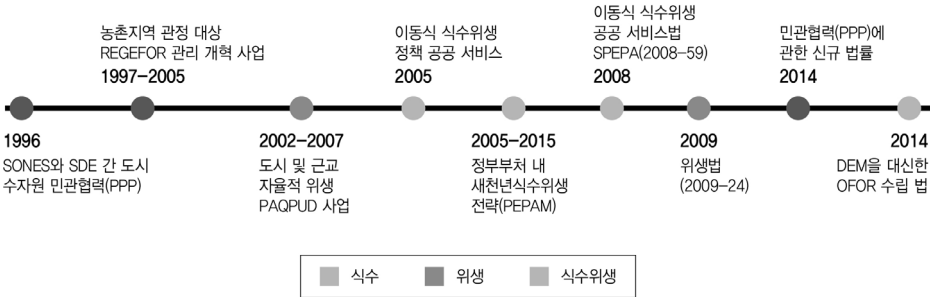
자료: UNDP. 2013. “Commercializing Communities: Transitions in Water Management in Rural Senegal”

세네갈에서는 2012년 정권교체 이후 수리위생부(Ministère de l'Hydraulique et de l'Assainissement)가 수자원을 관리하며, 농촌지역 수자원 총괄부서는 운영관리국(Direction de l'Exploitation et de la Maintenance; DEM)이다. 인프라 및 투자는 농촌수리국(Direction de l'Hydraulique Rurale; DHR)이 담당한다.

또한 세네갈 정부는 식수위생 분야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관리주체를 두고 있다. 도시 지역 수자원은 1995년부터 민간 기업이 관리하였으며, 현재 지주회사인 세네갈 공기업 SONES(Société Nationale des Eaux du Sénégal)와 민간운영기업인 SDE(Sénégalaise Des Eaux)가 관리한다. 위 회사는 세네갈 주요 도시의 물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며, SONES의 투자로 운영된다.

농촌 지역에서도 수자원 시장 중 미개발 자원의 연간 평균 수익은 116억 CFA(m3 당 251CFA)로 예상되어 수자원의 공급과 관리에서 민관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8년 이동식 식수위생 공공 서비스법(SPEPA)을 통해 민관협력(PPP)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지역 수자원 관리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그림 2-22] 수자원 관리법 및 프로그램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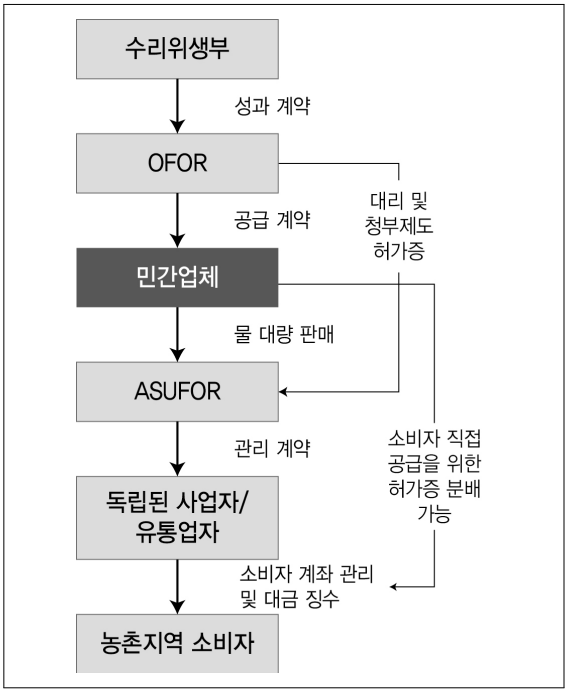


자료: Jemima Sy, 2014. “Reform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enegal’s Rural Water Sector”.(World Bank 발표자료). 연구진 재구성

농촌지역 수자원은 농촌관정분과(l'Office des Forages Ruraux; OFOR)라는 신규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운영관리국(DEM)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어 기업체로 발전된 공공 기관이다. OFOR는 수리위생부와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농촌 수자원 민관협력에 있어 정부의 공적계약 권한을 갖는다.

또한 농촌지역 관정 및 수동펌프 관리주체인 농촌관정이용자협의회(Association des Usagers des Forages Ruraux; ASUFOR)가 2010년 기준 전체 우물 중 70%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전체 1,273개 우물 중 121개(9.5%)가 오작동 하였으며, 특히 ASUFOR가 관리하는 우물 비율이 가장 낮은 Kédougou에서는 오작동 우물 비율이 47%, Kolda에서는 30%였다. 2013년 기준 ASUFOR를 통해 식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630만 명이나, 여전히 식수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는 129만 명이다.

[그림 2-23] 수자원 관리제도 프레임워크



자료: Jemima Sy, 2014. “Reform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enegal’s Rural Water Sector”.(World Bank 발표자료). 연구진 재구성

<표 2-43> 지역별 우물 및 ASUFOR 관리

지역	우물 수	ASUFOR 관리(개)	ASUFOR 관리(%)	오작동 우물(개)	오작동 우물(%)
Kaolack	83	78	94	3	4
Fatick	75	66	88	5	7
Kaffrine	150	117	78	8	5
Diourbel	115	96	83	8	7
Saint-Louis	118	88	75	14	12
Ziguinchor	51	27	53	7	14
Sédhiou	42	33	79	6	14
Matam	118	75	64	4	3
Kolda	60	27	45	18	30
Kédougou	17	5	29	8	47

지역	우물 수	ASUFOR 관리(개)	ASUFOR 관리(%)	오작동 우물(개)	오작동 우물(%)
Tambacounda	128	61	48	28	22
Louga	205	164	80	5	2
Thiès	111	75	68	7	6
전체/평균	1,273	912	68	121	13

자료: UNDP. 2013. “Commercializing Communities: Transitions in Water Management in Rural Senegal”

6) 산업에너지 및 인프라

세네갈의 전반적인 인프라 상황 역내 국가 대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지수(Afric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AIDI)상에서 세네갈은 21.66(’10)으로 아프리카 53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였는데, 2000년 당시 세네갈은 11.51점으로 역내 26위에 그쳤지만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승 기조를 이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네갈은 ICT 관련 지표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으나 교통 및 전력과 관련한 지표 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게 나타났다.[66]

<표 2-44> 세네갈 인프라 현황

지표		내용	비고
전력	전기 생산	3,014백만 kWH	2011년
	전기보급률	56.5%	
도로 철도	도로 총연장	14,958km	
	도로 포장률	35.5%	2010년
	승용차 수	16대/천 명	
	전체자동차 수	22대/천 명	2008년
	철도 총연장	906km	2000년
항공 항만	항공화물	4.6백만 톤	2012년
	항공승객	54만 명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43만 TEU	
통신	유선전화 가입자	2.5명/100명	
	이동전화 가입자	93명/100명	
	인터넷 사용자	20.9명/100명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구성

66) Ncube, Mthuli et al. 2013. “Afric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Tunis: AfDB.

나아가 세네갈은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상에서 2014년 기준 3.3점으로 114위를 기록하였으며, 환경이나 준비정도, 사용 등 지표에서 인근 코트디부아르와 부르키나파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영향의 경우 가나(101위)와 나이지리아(91위)보다도 높은 순위(85위)를 기록하였다.

<표 2-45> 서아프리카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 비교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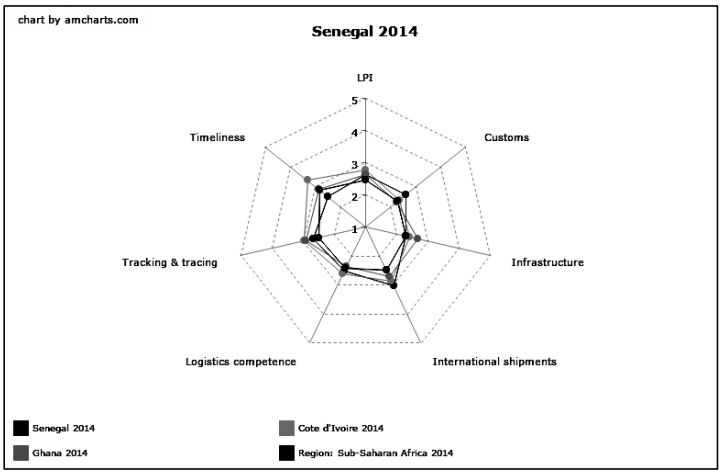
국가	NRI 2014		환경		준비정도		사용		영향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가나	96	3.65	48	4.23	109	3.88	100	3.34	101	3.12
나이지리아	112	3.31	109	3.54	119	3.31	105	3.17	91	3.23
세네갈	114	3.3	100	3.64	127	3.07	106	3.17	85	3.29
코트디부아르	122	3.10	125	3.35	136	2.65	119	2.93	116	2.85
부르키나파소	136	2.80	126	3.35	147	2.2	127	2.73	118	2.84

자료: Beñat Bilbao-Osorio, Soumitra Dutta, and Bruno Lanvin. 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 Rewards and Risks of Big Data”. Geneva: World Economic Forum

또한 세네갈은 북 대서양해와 맞닿아 있어, 해상운송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국가로, 2014년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로 본 세네갈의 물류성과는 2.62점으로 세계 101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평균 점수인 2.46점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역내 임해국인 코트디부아르(2.76), 가나(2.62)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서아프리카 국가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네갈의 국제수송 수준(3.03)은 가장 높았으나 소요시간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2.53)를 받아 물류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보였다.[67]

67) Jean-François Arvis et al.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그림 2-24] 세네갈 물류성과지수



자료: Jean-François Arvis et al.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한편 세네갈은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재부상 등으로 인한 서아프리카 지역 내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인근국과 아래와 같은 잠재적 협력 또는 경쟁 분야를 두고 있다.

<표 2-46> 서아프리카 지역 내 협력 및 경쟁국

국가	잠재적 협력 또는 경쟁 분야
협력국	
기니	- 서비스플랫폼(2030년까지 철광 개발에 100-150백만 달러 예상) - 항공 허브 및 산업 허브(건설, 주거, 농산업) - 서비스 허브(보건, 교육, 금융, 도소매)
모리타니아	- 서비스플랫폼(2020년까지 연간 철광 20백만 톤 및 금 개발 목표) - 천연가스 플랜트에서 잠재적 전기 수입 - 산업 허브(농수산업)
말리	- 석유 회랑(파이프라인) - 말리의 수출(면 및 기타 농산물) 및 수입(토지 복원) 물류 허브 - 산업 허브(금 및 면 가공, 비료 수출) - 항공 허브 및 서비스 허브
경쟁국	
코트디부아르	- FDI 유입 - 물류 허브(역내 최고 항만 및 말리에의 통로 제공 포부) - 항공 허브(공항 확장 및 항공도시 사업) - 서비스 허브(사회 본부, AfDB)

국가	잠재적 협력 또는 경쟁 분야
가나	- FDI 유입 - 물류 허브(역내 최고 항만) 및 항공 허브(역내 최고 공항) - 서비스 허브(영어권 국가)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7) 공공행정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세계은행이 2013년에 발표한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 의하면 세네갈의 거버넌스 수준은 215개의 측정대상 국가 중 중위권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의 질, 정치안정성, 정부행정 효율성 관련 백분위 점수는 각각 2.39%p, 1.9%p, 1.43%p 소폭 상승하여 타국 대비 상대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외 국민권리 보장 및 부패 통제와 관련 지수는 각각 0.07점, 0.02점이 개선되었으나 백분위 점수는 각각 2.37%p, 1.91%p 하향 조정되었다.

<표 2-47> 세네갈의 세계거버넌스지수

구분		국민권리 보장	정치 안정성	정부행정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 통제
2012	점수	-0.04	-0.12	-0.46	-0.10	-0.32	-0.30
	백분위	47.87	43.13	39.23	52.15	45.97	48.33
2013	점수	0.03	-0.09	-0.48	-0.05	-0.27	-0.28
	백분위	50.24	41.23	37.80	49.76	45.97	50.24

자료: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발표한 세네갈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여 43/100점으로 세네갈은 174개국 중 6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평균점과 동일한 값이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33/100점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이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50점에 미달하는 국가는 69%이며, 동 수치는 사하라이남 지역에서는 백분위 수 92%로 높은 편에 속한다.

8) 성 평등

세네갈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0.537(2013년)로 153개 국가 중 119위를 기록하며 성불평등의 심각성은 내비쳤다. 세네갈의 성불평등 현상은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을 제외하고 성생식보건, 인적역량개발, 경제활동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십만 명 출생 당, 370건의 모성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생아 천 명 출생 당 청소년 출산은 94.4건에 해당한다. 성인남성 15.4%가 중등교육을 이수한데 반해 성인여성의 비율은 7.2%만이 이수했으며, 노동시장에서 남성 참여비율이 88.0%인 반면 여성 참여비율은 65.9%이다.

세네갈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거쳐 나타나는 지역적불균형 뿐만 아니라 성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에 성주류화를 채택하였고, 국가개발과정에 있어서 남녀의 공평한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10년 세네갈 정부는 국회에서부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과정에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상원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헌법에 명시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며 선거 후보자의 이름이 남녀 상호 번갈아 배치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조직 내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표 2-48> 세네갈 성불평등지수 비교

구분	GII	GII 랭킹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국회여성 비율	중등교육 인구(%)		노동인구 비율(%)	
						여	남	여	남
세네갈	0.537	119	370	94.4	41.6	4.6	11.0	66.1	88.4
르완다	0.414	76	340	35.6	51.9	7.4	8.0	86.4	85.4
부르키나파소	0.609	131	300	117.4	15.3	0.9	3.2	77.5	90.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577	-	475	105.2	20.9	23.7	35.1	64.7	76.2
낮은 HDI 그룹	0.578	-	405	86.0	19.2	18.0	32.0	56.4	79.9

자료: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New York: UNDP

<표 2-49> 세네갈의 양성평등 관련 법

수준	종류	출처	내용
국회	쿼터제: 후보자 쿼터제	선거법	2010년 개정된 본 법안은 남녀평등을 강력히 하고자 시행되며, 실제 법안의 효력은 2012년부터 발생한다.
	불이행에 대한 제제조치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법에 따라 선거 절차상 불이익을 받는다.
	후보자 명단 배치		후보자 명단 상, 각 후보자의 이름은 남녀 번갈아 상호 배치한다.
상원	쿼터제: 후보자 쿼터제	선거법	2010년 개정된 본 법안은 남녀평등을 강력히 하고자 시행되며, 실제 법안의 효력은 2012년부터 발생한다.
		헌법	헌법 60조 1항: 상원의원의 2/5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헌법 7조: 의회의 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의원 및 후보자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불이행에 대한 제제조치	있음	
지방의회	쿼터제: 후보자 쿼터제	선거법	2010년 개정된 본 법안은 남녀평등을 강력히 하고자 시행되며, 실제 법안의 효력은 2012년부터 발생한다.
	불이행에 대한 제제조치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법에 따라 선거 절차상 불이익을 받는다.
	후보자 명단 배치	있음	후보자 명단 상, 각 후보자의 이름은 남녀 번갈아 상호 배치한다.

자료: Maraver, María Muñoz. and Dior Dassanou. 2011. “Reflexions on Gender Parity in Africa”. Dakar: UN Women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는데, 한 예로 농촌 지역 물 시스템을 관리하는 농촌관정이용자협의회(ASUFOR)에 엄격한 양성 대표제를 적용하여 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 내 이용자 대표단 2명과 공동부회장 2명 중 각각 한 명, 관리위원회 전체의 3분의 1이 여성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배수탑의 물 생산자도 여성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분야별 개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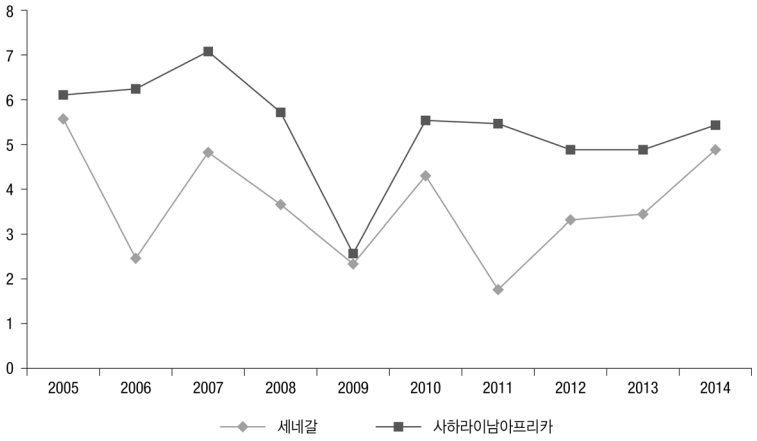
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세네갈 국가경제는 낮은 GDP 성장과 서비스 부문에의 집중, 낮은 투자율 및 저축률, 그리고 외부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와 빈곤 증대로 특징된다. 또한 공공투자 및 공무원 임금지출 과다로 인하여 GDP 대비 5%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의 미약에 따라 쌀, 원유, 식료품 등의 수입이 땅콩기름, 수산물, 비료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상회한다.

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2006-2013년 평균 3.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세네갈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국가적 개발 잠재성을 고려하여 연간 7% 이상의 성장률 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06-2013년 인구 성장률이 2.6%로 GDP 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2006-2011년 간 빈곤율 감소가 불과 1.6%p(48.3%에서 46.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림 2-25] 연간 GDP 성장률

(단위: %,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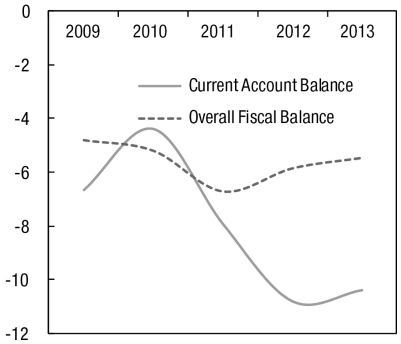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14. "Senegal Economic Update".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세네갈의 국가부채는 GDP의 5.4%로 높은 편이라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8]

세네갈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며, PSE를 수립함으로써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PSE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2015년 현재 5.4%에 달하는 정부 재정적자를 2018년까지 3.9%로 단계별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공부문 투자의 증대와 효율적 운용 그리고 공공 지출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림 2-26] 세네갈 쌍둥이 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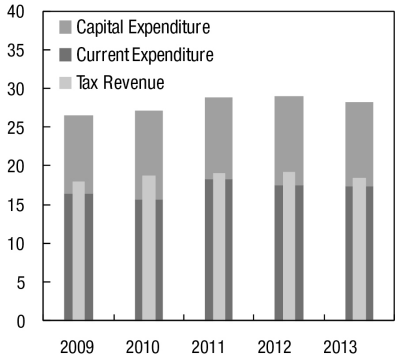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IMF. 2014. “Country Report: Senegal”

[그림 2-27] 세네갈 재정 현황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IMF. Country Report: Senegal. 2014

최근 세네갈의 총생산 활동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투자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69]

또한 통화 및 재정 정책과 개혁을 통한 성장이 빈곤 감축으로 이어졌으나 생산 부문에 에너지 등의 제약 조건이 잔존하고, 특히 자체 생산보다 유럽 등에서의 의존적 수입이 여전히 성장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네갈 정부는 쌀, 우유

68)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69) IMF. 2014. "Country Report: Senegal".

등의 농산품과 원유 수입을 줄이고 전기 보급을 개선하여 국가 재정적자를 해결할 계획이다.

나. 서비스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세네갈은 전체 GDP 중 서비스 부문(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매우 높으며, 여기에는 유통, 물류운송, 관광, 교육 및 보건 등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인력의 기능개발(skill development)이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교육 및 의료의 인적자본 투자와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해소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중점 분야 대상 정부지출은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2014년 예산에서 청년 고용을 비롯하여 인프라, 교육, 농업과 보건 등 분야는 전년 예산 비중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2-50>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변화

(단위: %, %p)

예산 분배	2013년 예산 비중	2014년 예산 비중	연간 변화율
교육	16.9	16.6	-0.3
고등교육	4.8	5.3	0.5
인프라 및 교통	8.3	7.9	-0.4
농업	6.3	6.1	-0.2
보건	5.9	5.4	-0.5
직업훈련	0.8	1.4	0.6
청년 고용	1.5	0.4	-1.1
외교	1.9	2.4	0.5
미할당 지출*	9.0	14.5	5.5

주: * common expenditure

자료: World Bank. 2014. “Senegal Economic Update”

다. 노동인구-산업구조 상의 불균형

세네갈은 전체 노동인구의 77.5%('07)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1차 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GDP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로 2014년 기준 13.7%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 세네갈은 이에 따라 고용생산성 부분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인 853보다 낮은 369를 기록함으로써, 농업 분야 내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농업 종사인구의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70] 2차 및 3차 산업 노동인구는 2013년 기준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설업의 대체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급감하였다.

<표 2-51> 산업부문별 노동인구

(단위: %, 2013년)

구분		2012	2013		변화	
고용	가중치	4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	전체
2차 산업	500	120	118	118	0.1	-1.6
산업	428	113	114	114	0.6	1.1
건설업	73	160	142	139	-2.1	-13.1
3차 산업	500	119	117	117	0.5	-1.2
서비스	407	118	115	116	0.6	-1.9
무역	93	121	123	123	0.3	2.2
전체	1,000	119	117	118	0.3	-1.4

자료: World Bank. 2014. “Senegal Economic Update”

라. 식수・교육・보건 등 인간기본욕구 접근성 관련 지역적 편중

세네갈은 인구분포, 경제활동, 사회 및 경제 인프라 등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Dakar와 중부 및 서부지역에 주요 경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식량문제와 빈곤도의 지역격차가 크다. 또한 사회 보건, 인적역량개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성불평등 또한 심각한데 특히 Dakar, Saint-Louis 등 도시지역과 Senegal강 및 Guiers호수 등 수자원 유역을 제외한 중부, 동부 및 남부 내륙지역은 식수공급, 기초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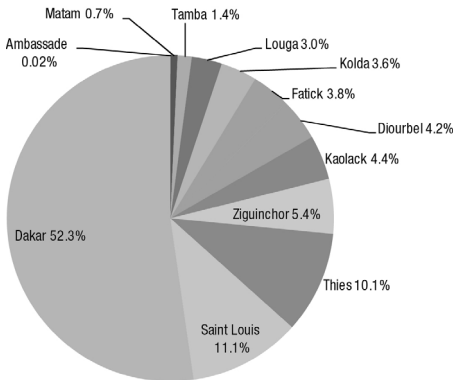
70) IFPRI. 2015. “2014-2015 Global Food Policy Report”. Washington, DC: IFPRI

세네갈의 빈곤은 단순히 재정적인 기준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으로서 교육, 식량, 보건, 식수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가 충족되지 않는 사회부문 개발의 격차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역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네갈에는 Kaffrine, Kédougou, Tambacounda, Kolda 그리고 Sédhiou처럼 수천 개의 마을이 식수, 도로, 학교,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다. 반면 Dakar를 포함한 수도권역에는 세네갈 국민의 25%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경제활동의 80%가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와 교육 등 기초 사회 서비스 예산 분배 비율 역시 50% 이상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정책을 다카르에 집중시킨 공공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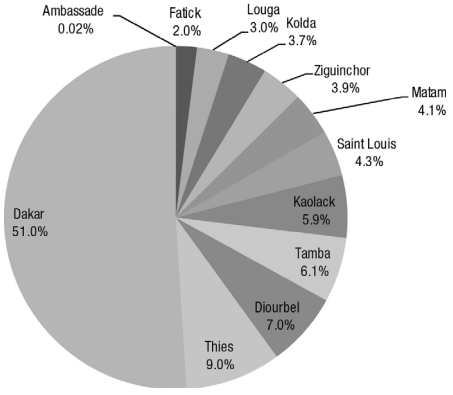
[그림 2-28] 지역별 의료 분야 예산 분배

(단위: %, 2009년)



[그림 2-29] 지역별 교육 분야 예산 분배

(단위: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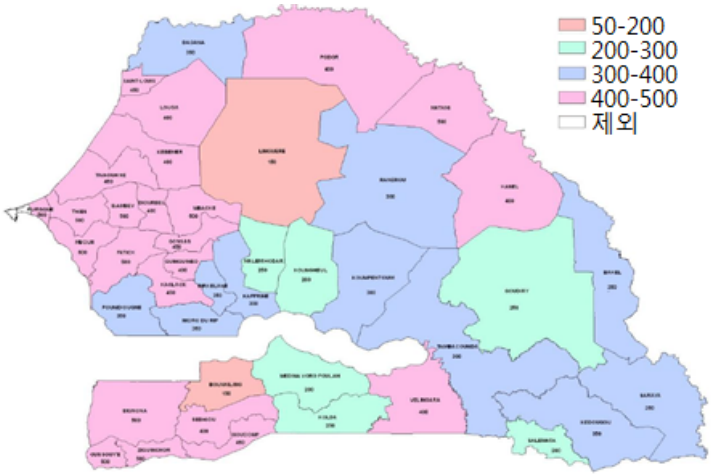
자료: IMF. 2013. “Inclusive Growth and Inequality in Senegal”

휴대용 식수, 기초 교육, 진료소, 사업장과 도로 등 5개 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포괄한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 종합 지수는 Louga주의 Linguère현과 Sédhiou주 Bounkiling현이 500점 만점에 15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Kolda주의 Médina Yoro Foulah현(200점)과 Kolda현(250점), Kédougou주 Salemata현(200점) 등이 다음으로 취약하였다.

71)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또한 Kaffrine주 Malem-Hodar현(250점)과 Kounghel현(250점), Tambadcounda주 Goudiry현(250점)도 500점 만점에 절반인 250점에 그치며 높은 지역 편차를 나타냈다.

[그림 2-30] 세네갈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 지도



주: 다카르주는 제외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마. 서아프리카 지역 내 ICT・교육・의료 허브 잠재성

세네갈은 역내에서 ICT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기본적인 통신환경이 우수한 편이며, 전통적으로 역내에서 교육 및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세네갈은 수도 다카르에서 30km, 신공항 부지인 Diass에서 10km 거리에 있는 Diamniadio에 최첨단 Digital 교육의료 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다.

세네갈은 불어권 아프리카 내 의료 교육기관과 종합기술교육 학교 유학 대상지이며, 특히 의약 및 3차 산업에서 가봉,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 국가와 모로코 등 북부 아프리카 국가와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또한 현재 1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도 증가 추세임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시장을 위해 ICT 분야 학생을 양성하고, 국내 시장을 위한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절 국가개발정책

1. 국가개발전략(NDS)

세네갈 정부는 2003-2010년간 '빈곤감소전략문서(PRSP)'를 추진하였다. 2003-2005년간 PRSP-1을 통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었고, 2006-2010년을 위한 PRSP-II로 MDG 달성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2003-2010년 경제사회개발 국가전략(SNDES)과 2011-2015년 국가경제사회정책(DPES)을 거쳐 현재 2014-2023년 세네갈 도약계획(Plan Sénégal Emergent; PSE)을 수립하였다. PSE는 세네갈의 모든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준이 되는 전략이다.

<표 2-52> 세네갈 도약계획 수립 배경

PRSP I (2003-2005)	⇨	PRSP II (2006-2010)	⇨	DPES (2011-2015)	⇨	SNDES (2013-2017)	⇨	PSE (2014-2023)

자료: 연구진 작성

가. 국가경제사회정책(DPES)

세네갈의 2011-2015년 '국가경제사회정책(Document de Politique Economique et Sociale; DPES)'은 2003-2010년 동안 이행된 2개의 빈곤 감소 전략에 기초를 두었다. DPES의 전략 목표는 다음 3개의 방향으로 요약된다.

① 경제적 기회와 부의 창출은 생산적 일자리 생산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
②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회적 보호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도모
③ 굿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 원칙 강화, 인권 향상 도모[72)]

72) DPES의 세부 분야별 전략 목표는 첨부# 참조

DPES는 경제와 사회분야의 개발에 우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었으며, 투자 촉진과 외부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굿 거버넌스와 MDG를 실현시킬 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DPES는 11개의 분야그룹(comité technique)과 5개의 지역별그룹(axes régionaux), 5개의 위원회(commissions d'acteurs)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위 그룹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활동하였다.

① 참여적 접근법(démarche participative)
② 광범위한 방향성에 대한 강한 동의
③ 젠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다분야적 접근(questions transversales)

나. 경제사회개발 국가전략(SNDES)[73]

세네갈은 2012년 11월 신흥경제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2013-2017년을 위한 '경제사회개발 국가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SNDES)'을 수립하였다.

SNDES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과제로 삼고, 공공재정의 회복, 국내 저축의 증대, 무역수지 및 국제수지의 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①성장과 빈곤, 불평등 지표 및 관련 목표 설정, ②장기적인 목표와 각 섹터별 전략 수립, ③전략 실행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74] SNDES의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전략 축으로 나뉜다.

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특구(SEZ)와 테크노 파크, 인큐베이터 등 경제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생산 활동 지역화
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 자본 개발
③ 거버넌스, 제도적 강화, 평화, 안보 및 정의의 구축으로 생산 및 사회개발 환경 조성

73) République du Sénégal.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2013-2017.
74) SNDES 세부목표는 [부록2] 참조

다. 세네갈 도약계획(PSE)

1) 배경 및 목표

세네갈 정부는 2014년 2월 세계은행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주관으로 세네갈 개발지원 '자문그룹(Groupe Consultatif)'회의(공여국회의 및 민간투자자포럼)를 개최하여, 20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2014-2023년 간 경제사회개발 청사진을 담은 '세네갈 도약계획(Plan Sénégal Emergent; PSE)'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2018년 5년 간 동 전략을 추진해 갈 구체적인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Plan d'Action Prioritaire; PAP)'을 수립하였다.

PSE는 2035년 신흥 경제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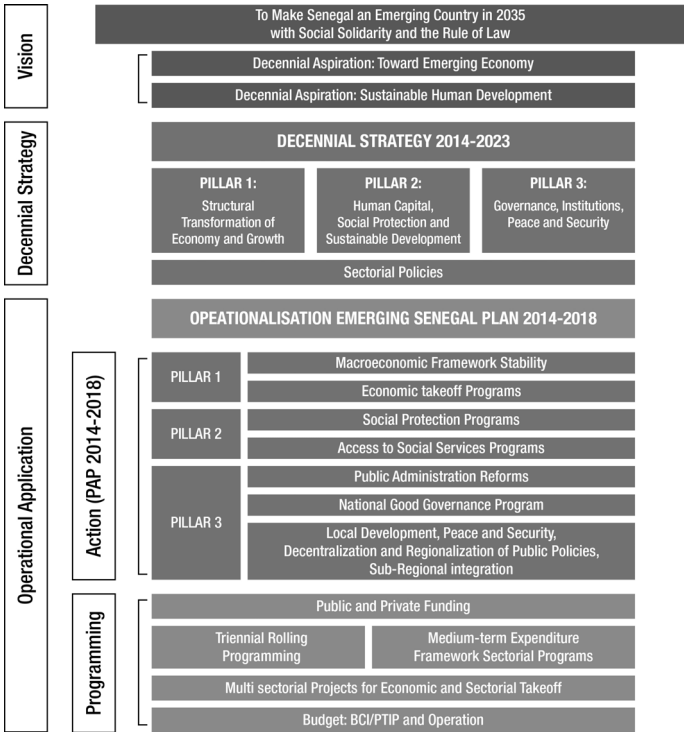
- Pillar I: 현재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개발 분야의 통합으로 경제의 구조적 개혁으로 부와 직업창출, 사회적 통합 이룩
- Pillar II: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불균형 해소, 자원의 보존과 신생지역의 지원 등
- Pillar III: 사회적 안녕과 발전 잠재력 구현을 위한 국가안보, 안정성 및 거버넌스 강화, 인권과 자유 보호

정부는 PSE에 따라 현재 연 4.6%의 경제성장률을 4년 이내 연 7-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4%에 달하는 정부 재정적자를 2018년까지 3.9%로 낮출 계획이다. PAP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개발협력파트너(PTF)로부터 당초 목표했던 62억 달러를 초과하여 총 77억 달러(3조 729억 CFA)에 달하는 재정지원 서약을 확보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PAP 예산 총 9조 6,857억 CFA 중 43.4%를 지원하고 공여주체가 40.4%, 민간 부문이 16.3%를 담당할 예정이다. PAP 예산은 첫 번째 축에 66.5%, 두

번째 축에 26.0%, 세 번째 축에 7.5% 배분되며 또한 산업별로는 1차 산업에 20.5%, 2차 산업에 19.0%, 3차 산업에 26.7%, 4차 산업에 33.8% 배분될 예정이다.

[그림 2-31] PSE의 구성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표 2-53> PSE 상의 발전 목표

2014년	2023년	변화
3-4% 연간 성장률	7-8% 지속가능한 성장	3-4% 증가
서비스가 성장의 70% 주도 (전기통신, 금융 서비스)	4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농업 및 식품, 주거, 광업, 관광업	분야 4개추가
1인당 100K CFA 수출	1인당 340K CFA 수출	3배 증가
공식 노동인구 250,000명 (전체 노동인구 중 6%)	공식 노동인구 -600,000명 (전체 노동인구 중 10%)	2.5배
3백만 명 재량소득 확보	6백만 명 재량소득 확보	2배
1인당 국내총생산 $1,000	1인당 국내총생산 $1,500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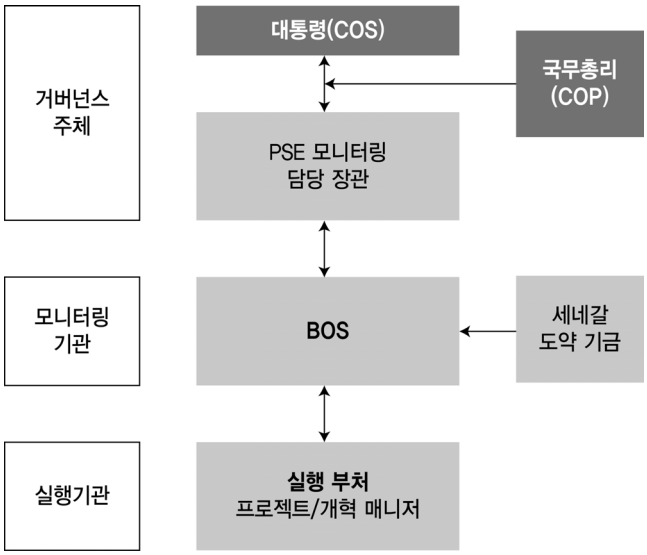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세네갈 정부는 PSE의 실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통령직속의 전략방향성위원회(Comité d'Orientation Stratégique; COS)와 국무총리 주재의 운영위원회(Comité de Pilotage; COP), PSE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국(Bureau Opérationnel de Suivi du Plan Sénégal Emergent; BOS) 그리고 각각의 실행부처를 두고 있다.

COS, COP 등 각 위원회와 PSE 모니터링 담당 장관은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을 하며, 모니터링 기관과 실행 기관을 총괄 조정·관리한다. 대통령이 의장인 COS는 국무총리와 경제재정기획부 장관 및 유관부처 장관과 분기별로 소집되며, PSE 실행의 첫 18개월 동안은 월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는 국무총리가 의장이며 경제재정기획부 장관과 안건에 따라 유관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월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BOS는 핵심 프로젝트와 주요 개혁 과제 이행의 모니터링과 지원을 담당하며 핵심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주간 단위로 체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각 프로젝트는 유관 부처 프로젝트 매니저가 총괄하여 관장한다.

[그림 2-32] PSE 실행 체계



자료: Bureau Opérationnel de Suivi du Plan Sénégal Emergent. Institutional scheme - PSE implementation.
재구성

2) 핵심 프로젝트 및 주요 개혁과제

PAP는 ①인프라, ②에너지, ③농업, ④교육 및 직업훈련, ⑤식수위생, ⑥보건 등 6개 핵심 분야 하에 27개의 핵심 프로젝트 및 17개의 주요 개혁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①거시경제적 안정성, ②경제 도약, ③사회적 보호, ④사회 서비스에의 접근성, ⑤공공행정 개혁, ⑥굿거버넌스, ⑦지역개발, 평화 및 안보, 분권화, 지역 통합 등의 세부목표로 나뉜다. 비즈니스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27건은 다음과 같다.

<표 2-54> PAP 핵심 프로젝트

전략 축	분야	프로젝트
고용 및 사회 통합	농수산업	- 고부가가치 및 축산 분야 사업 100-150건 - 곡물 회랑 3-4개 개발 - 가족농 지원 소규모 사업 150-200건 - 땅콩 산업 재구성 - 양식업 개발 - 수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3개
	사회적 주거 및 건설 생태계	- 사회적 주거 프로그램 - 건설 생태계(자재 및 인력) - 공예 개발 센터
	사회적 경제의 점진적인 현대화	- 예술 및 공예 분야 시범계획 - 소규모 관광업 분야 시범계획 - 상업 인프라
수출 및 FDI 동력	광업 및 비료	- 인산염 산업 개발 - 통합적 철 사업 재출범 - Faleme - 금 추출 촉진 - 전통적 광업 국가계획 - 지르콘 추출 촉진 - 지역 광업 허브
	지역 물류 및 산업 허브	- 통합 산업 플랫폼 2-3개 - 고부담 산업 통합 이니셔티브 - 통합 물류 허브(항만, Mali 통로, 플랫폼)
	지역 멀티서비스 및 관광 허브	- 디지털 경제 – 턴키방식 수출 서비스 구역 - 지역 본부 비즈니스파크 - 다카르 의료 도시 - 다카르 지역 벤치마크 캠퍼스 - 통합적 관광 개발 3-6건 - 지역 항공 허브 재출범

전략 축	분야	프로젝트
예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전환	- 통합 전기 구제 계획 - 탄화수소 공급 -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

자료: Republic of Senegal. “Senegal Emerging Plan. Presentation of the Portfolio of Flagship Projects and Reforms”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반이 될 주요 개혁과제 17건은 다음과 같다.

<표 2-55> PAP 주요 개혁과제

분야	프로젝트
Doing Business	- 세네갈 도약 기금 마련 - 투자매력도 상승 - 국영기업 최적화 - 특별경제구역 및 투자자 패키지 - 토지 공급 촉진 - 부동산업 도모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 광업 가치 극대화 - 비공식 부문의 사회적 보호 접근성 - 육로 운송 관리 체계
인프라	- 국가 인프라 통합 개발 계획
인적 자원	- 경제 수요와 고등교육의 일치 - 기술 및 직업 훈련 개발 - 계속적인 훈련 구성 및 촉진
디지털 경제	- ICT 확산 - "디지털 경제 위원회" 구축
경제 재정 조달	-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 - 주택융자 개발 - 저소득 가구를 위한 부담 가능한 금융

자료: Republic of Senegal. “Senegal Emerging Plan. Presentation of the Portfolio of Flagship Projects and Reforms”

2. 분야별 전략

세네갈의 국가개발계획의 틀로서 세네갈도약계획(PSE)이 채택이 된 후, 일부계획을 제외하고 6개 핵심 분야의 전략이 대부분 현재 수정 및 보완 작업 중에 있다. 이 중 PSE 이행에 중추적인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분야 국가개발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2-56> 세네갈 섹터별 전략 개요

섹터	전략	기간
교육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략계획(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QUET)	2013-2025년
농림수산	농업발전국가전략(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PRACAS)	2014-2017년
	수산 및 양식 분야 전략(Lettre de Politique Sectorielle des Pêche et de l'Aquaculture, LPS-PA)	2007-
보건의료	보건개발국가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	2009-2018년
	밀레니엄 식수위생프로그램(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PEPAM)	2005-2015년

자료: 연구진 작성

가. 교육 분야[75)]

세네갈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취학률 98%, 이수 비율 96%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3-2025년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략계획(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QUET)을 수립하여 국가개발계획인 PSE를 뒷받침하고 있다.[76)] 정부는 이 전략계획을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이루고자 하며 사회적, 지역적, 성별 그리고 교육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균등한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PAQUET은 다음과 같은 우선 실행 목표를 두고 있다.

① 보편적 교육권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기초교육 수립
② 민관협력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청년 및 성인 대상 직업 및 기술교육 제공
③ 교육 및 학습의 질 개선
④ 과학, 기술, 혁신(STI) 교육의 발전 촉진

75)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2013-2025".
76) 교육 및 훈련 10개년 계획(Programme décennal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2000-2011; PDEF)이 종료됨에 따라 2013-2025년을 망라하는 새로운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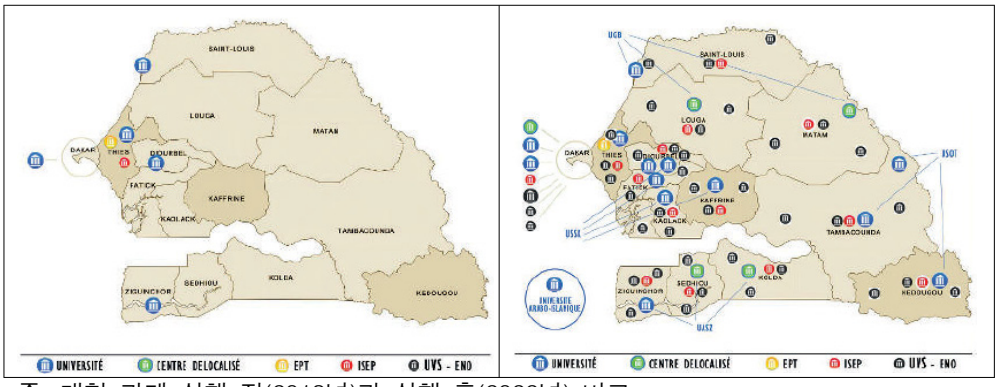
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관리 분권화 강화
⑥ 교육 부문 단기 및 중기 효율성 강화
⑦ 교사 및 교직원의 생산성 향상
⑧ 교육 시스템에서의 알파벳 표기를 넘은 국어의 점진적인 활용 개발

세네갈은 2005년 이후 매년 정부예산의 40%를 교육 분야에 배정하면서 특히 초등교육 등록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69.4%→82.5%)을 이루었으나, 도-농간 교육격차 감소, 남녀 아동 간 교육 불평등 문제, 교육의질 제고, 적정교사 수 확보 등 미결과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10대 개혁 과제를 두고 있다.

① 고등교육 기관 설립을 통한 대학교 확산 및 기존 대학 인프라 복원
②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교육 개발
③ 교육 및 연구에 ICT 기술 적용
④ 학생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⑤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대화 도모
⑥ 교육 및 연구 커리어와 행정, 기술 서비스 커리어 장려
⑦ 고등교육 및 연구 거버넌스 개선
⑧ 연구 및 이노베이션에 새로운 원동력 부여
⑨ “세네갈 유학” 레이블 홍보
⑩ 인적자원 개발 및 도약의 기반이 될 지식 생산을 위한 고등교육 및 연구에 투자

정부는 고등교육 과제 실행을 위해 세네갈 전역에 사이버대학(UVS, ENO) 지역학습관 50개를 설립하고 현재 Thiès에만 건립된 직업전문대학(ISEP)을 14개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그림 2-33] 세네갈 고등교육 10대 개혁 과제 실행 전후 비교



주: 개혁 과제 실행 전(2013년)과 실행 후(2022년) 비교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La Réforme en 10 points

나. 농업 분야

세네갈은 농업 분야에서 성장가속전략(SCA), 식량증산정책(GOANA), 국가농업투자계획(PNIA) 등 다수의 국가전략과 농림축산법(LOASP)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PSE 발표에 따라 농업 분야의 통합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해 기존 전략을 재구성한 농업발전국가전략(PRACAS)을 수립하였다. PRACAS는 2014-2017년 중기 개발정책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및 장기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표 2-57> 세네갈 농업발전국가전략 수립 배경

PRACAS(2014-2017)			
LOASP (2004-2024) ⇨	SCA(2005-2015)	GOANA(2008-2015)	PNIA(2009-2020)

자료: 연구진 작성

1) 농림축산법(LOASP)

세네갈 정부는 농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2004년 농림축산법(Loi d'Orientation Agro-Sylvo-Pastorale; LOASP)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2024년까지 농림축산 분야 개발의 틀로서 빈곤 감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실현, 그리고 토지개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6가지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자원 관리, 생산의 다각화, 농업훈련 등을 통하여 기후적, 경제적, 환경적, 보건· 위생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변화의 영향을 감소, 장기적으로 국가의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식량안보 개선
② 농촌인구의 소득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사회보호 체제 구축
③ 국토의 균형 잡힌 개발로 농촌지역의 인프라 접근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④ 토양의 비옥도와 지식개선으로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역량 제고
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⑥ 농업이 국가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 및 생산의 질적 향상

2) 성장가속전략(SCA) 및 식량증산정책(GOANA)

성장가속전략(Stratégie de Croissance Accélérée; SCA)은 2005년 수립되었으며, 농업 및 농산업, ICT, 관광업, 수산업, 양식업 등 다섯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SCA를 이행하여 주요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여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등 국부 증진에의 기여를 목표로 두었다.

또한 정부는 2008년 식량증산정책(le Cadre Intégré au Commerce et Grande Offensive Agricole pour la Nourriture et l'Abondance; GOANA)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주요 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 자급자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GOANA는 지역 차원에서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농업정책(ECOWAS Common Agricultural Policy; ECOWAP)과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ADP)의 목표와 일치한다.

3) 국가농업투자계획(PNIA)

세네갈은 2009년에 SCA, GOANA, LOASP 등 이전 전략에 근간을 두어 2018년까지 국가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의 중심이 되는 틀로서 국가농업투자계획(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을 수립하였다. PNIA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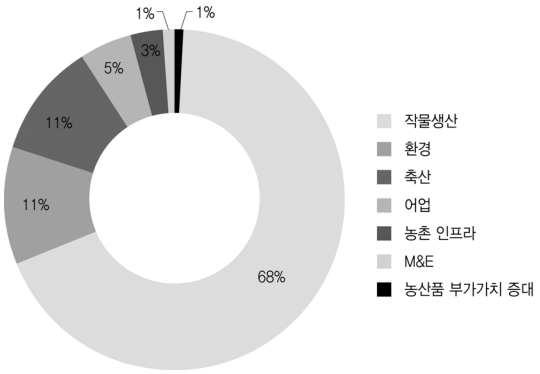
① 국가농업발전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de Développement Agricole)
② 세네갈 산림 실행계획(le Plan d'Action Forestier du Sénégal)
③ 국가축산개발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Elevage)
④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실행계획(le Plan d'Action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Pêche et de l'Aquaculture)
⑤ 범분야 프로그램(le Programme Transversal)
⑥ 조정·모니터링 및 평가(le dispositif de coordination et de Suivi-Evaluation)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예산은 1조 670억 CFA 프랑(전체 PNIA예산 중 79.3%)으로, 총 8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① 물 관리를 통한 기후 리스크 감소
② 기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③ 생산성 향상 및 전체 생산량 증대
④ 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⑤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⑥ 생산, 가공 및 마케팅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연구 강화
⑦ 다양한 참여자/이해당사자의 역량 강화
⑧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정과 관리

PNIA는 총 2조 150억 CFA 프랑의 예산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예산의 세부 구성을 보면 작물생산 68%, 환경 11%, 축산 11%, 어업 5%, 시장접근성 개선 및 농촌인프라 3%, 조정·모니터링 및 평가 1%, 농산품 부가가치 증대 1% 미만이다.

[그림 2-34] PNIA 예산 구성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lan d’Investissement 2011-2015”

세네갈은 PNIA 실행을 위해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신연맹(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NAFSN)'에 가입하였고,[77] 세네갈 국무총리의 주재 하에 세네갈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생산자조직, 개발협력 파트너 등으로 이루어진 'NAFSN 협력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78] 또한 PNIA를 통해 연간 농업성장률 7.2%를 달성하고, 빈곤율도 2020년에 18%까지 감소하여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계획이다.

특히 작물 생산 중에서는 쌀, 옥수수, 조의 생산량이 급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훈련, 교육, 투입요소 증대 등의 노력으로 2020년까지 농업생산의 상당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05/2006년 ha당 2.9톤이었던 쌀의 평균 수율(yield)을 2020년까지 124% 증대를 이룩하여 ha 당 6.7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7) NAFSN은 아프리카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로 결성되었음. 세네갈의 NAFSN Cooperation Framework는 2013년 11월 12일 수립되었다.
78) NAFSN. 2014. “First Progress Report – 2013/2014”.

<표 2-58> 국가농업투자계획 예상효과

	2005	2010	2015	2020
거시 경제적 효과(%)				
농업의 GDP 구성비	13.28	16.38	20.29	21.53
농업 GDP 성장률	1.20	5.00	7.43	6.62
곡물 보유 비율	42.00	53.18	125.83	186.37
빈곤발생률 변화				
국가 빈곤발생률	50.76	37.75	25.89	18.06
농촌 빈곤발생률	61.93	49.34	36.37	26.57
다카르 빈곤발생률	32.46	18.71	8.79	4.05
도시 빈곤발생률(다카르 제외)	38.81	25.36	14.53	9.02
수확량(kg/ha)				
수수/사탕수수	792	1,025	1,434	1,876
옥수수	2,796	1,856	2,691	3,622
쌀	2,960	3,232	4,838	6,680
땅콩	911	1,022	1,251	1,470
생산량(천 톤)				
수수/사탕수수	450	1,135	1,378	1,889
옥수수	401	545	687	1,061
쌀	202	715	1,251	2,138
땅콩	626	1,053	1,097	1,157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lan d’Invetissement 2011-2015”

4) 농업발전국가전략(PRACAS)

세네갈 정부는 PSE의 첫 번째 전략축(경제 구조 전환과 경제성장)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젝트와 주요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발전국가전략(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PRACAS)을 수립하여 국가 농업개발 정책을 재공식화 하였다. PRACAS는 2014-2017년 동안 ①농민교육과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가족농 현대화, ②환경 친화적 농산업을 바탕으로 한 농업 기업가정신 도모, ③기술 및 장비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 도모, ④취약계층 복원력(resilience)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표 2-59> PRACAS 목표 및 기대효과

생산 목표	전략 목표	비용	기대효과
쌀			
2017년까지 1.6백만 톤 생산 → 자급 달성	• 종자 생산 및 수확량 증대 • 고원 및 서부 지역 천수(rain-fed) 쌀농사 도모 • 리버 밸리 지역 관개 쌀농사 증대	4,247억 CFA	2012년 대비 기본 농작물 가격 통제를 통한 3,123억 CFA 외환 절감 효과
양파			
2016년까지 35만 톤 생산 → 자급 달성	• 종자 생산 • 비성수기 보호	2백9억 CFA	2012년 대비 92억 5천만 CFA 외환 절감
땅콩			
백만 톤 생산, 연간 수출량 10-15만 톤 달성 → 생산성 최적화	• 2년 내 종자 재고 재구성 • 종자 가치사슬 내 민간 주체와의 파트너십 개발 • 기계화 증대	920억 CFA	10-15만 톤 땅콩 수출을 통한 285억 CFA 외환 유입
원예			
수출량 15만 7천 톤 달성	• 지속가능한 농산업(PPP) 개발 지원 • 비수기 청과 생산, 가공, 마케팅 도모 • 토지관리 해결책 설계 및 이행	435억 CFA*	원예 수출을 통한 760억 CFA 외환 유입

주: * net of depreciation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2014. 재구성

위 전략 실행을 위해 전체 5,810억 CFA이 소요되며, 그 중 쌀 자급에 4,247억 CFA(73%), 땅콩 생산성 증대에 920억 CFA(16%), 비수기 원예에 435억 CFA(7%), 양파 자급에 209억 CFA(4%)이 배분될 예정이다.

세네갈 정부는 PRACAS 실행을 통해 655,838명의 직접 고용과 19,557명의 간접 고용으로 총 675,395명에 대한 고용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세네갈 정부는 농업 발전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14년 PRACAS를 통해 PSE의 우선실행계획(PAP) 10건을 실행할 예정이다. 우선실행계획에는 종자 센터 및 제분소 건립, 농기계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과 민간 주체가 각각 98,663CFA와 12,288CFA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2-60> 농업발전국가전략 우선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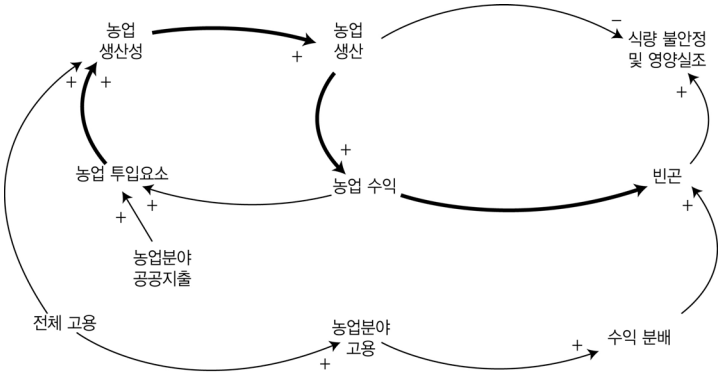
	단위		단가	총예산	공공	민간
땅콩 종자 지역 센터 10x5,000톤						
연구실	10	개	60.0	600	600	
가공센터	10	개	150.0	1,500	1,500	
창고	10x5,000	m^2	0.1	5,000	5,000	
2. 벼 저장 센터 - 쌀 경작지 3x5,000m^2						
창고	40x2,000	m^2	0.1	8,000	6,000	2,000
3. 비료 저장 지역 센터 - 쌀 경작지 3x5,000m^2						
창고	3x5,000	m^2	0.1	1,500	1,125	375
4. 벼 종자 센터 5개						
연구실	5	개	60.0	300	225	75
가공센터	5	개	150.0	750	563	188
창고	10,000	m^2	0.1	1,000	750	250
5. 양파 종자 증대 센터						
6. 농기계 대여 및 은행융자						
트랙터	200	개	30.0	6,000		6,000
경운기	500	개	1.0	500		500
콤바인	20	개	50.0	1,000		1,000
7. 신품종 쌀(Nerica) 증대: 5,000톤						
보증 종자	5,000	톤	0.5	2,500	2,500	
8. 쌀 관련 국토계획						
유역	20,000	ha	3.0	60,000	60,000	
남부 산악지역	10,000	ha	2.0	20,000	20,000	
9. 산업용 제분소						
산업 제분소	2	개	700.0	1,400		1,400
중간규모 제분소	5	개	100.0	500		500
10. 소규모 제분소 - 남부						
소규모 제분소	50	개	3.0	150	150	
우선실행계획 10건 투자금액						
전체 투자금액				110,950	98,663	12,288
			건축	80,000	80,000	0
건축 제외 전체금액				30,950	18,663	12,288

주: C.U 및 C.T 단위는 백만 CFA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2014. 재구성

세네갈 정부는 PRACAS 이행을 통한 주요 가치사슬의 생산성 증대가 전반적인 농업의 생산 증대를 불러오고, 나아가 디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수익 증대와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확량은 농업분야 고용과 더불어 전체 고용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전체 고용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또는 배분은 빈곤 감축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35] PRACAS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2014. 재구성

또한 PRACAS 이행을 통해 연간 직접고용으로 163,959개 및 간접고용으로 4,889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4-2017년 동안 697,396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표 2-61> PRACAS의 직간접적 고용 기대효과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평균
농업분야 직접 고용효과						
식량 농업	62,453	62,452	62,452	62,452	249,809	62,452
농산업 또는 수출	101,508	101,507	101,507	101,507	406,029	101,507
직접 고용효과 소계	163,961	163,959	163,959	163,959	655,838	163,959
주요 분야 간접 고용효과						
축산 및 수렵	3,039	3,038	3,038	3,038	12,153	3,038
채취 산업	369	369	369	369	1,476	369

구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평균
금속공학 및 주조업	267	267	267	267	1,068	267
의류 및 면화 제면	252	252	252	252	1.008	252
사업서비스	205	204	204	204	816	204
화학제품 제조	103	103	103	103	412	103
식품 가공	102	102	102	102	408	102
수선업	99	99	99	99	396	99
고무제품 제조	82	82	82	82	328	82
운송업	54	54	54	54	216	54
간접 고용효과 소계	4,891	4,889	4,889	4,889	19,558	4,889
전체	168,852	168,848	168,848	168,848	675,396	168,849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2014. 재구성

5) 수산 및 양식 분야 전략(LPS-PA)

수산분야 국가전략인 수산 및 양식 분야 전략(Lettre de Politique Sectorielle des Pêche et de l'Aquaculture; LPS-PA)은 2007년 PRSP II에 기반을 두어 수립되었다. 기존 주요 목표는 ①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복원, ②국내 수산물 수요 충족, ③수산업 자원 관리 및 영세어업 현대화, ④어업 및 가공 전문화 및 기술개발 도모, ⑤수산업 및 양식업 자금제도 개선, ⑥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이다.

현재 수산업은 PSE의 첫 전략 축인 고용 및 부 창출, 영양 및 식량안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①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리(남획 방지 규제 및 자원에의 접근성 관리), ②수산양식 발전, ③내수면 어업(in-land fisheries) 촉진, ④수산 인프라 현대화(저장, 가공) 등을 발전 목표로 두고 있다.

다. 보건 분야

1) 보건개발국가계획(PNDS)

세네갈 정부의 보건정책은 이용 가능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기조로 하고 있다. 또한 MDG의 보건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질병예방과 보건·위생에 대한 습관변화와 인식 제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2018년 보건개발국가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은 이전 1998-2007년 PNDS에 이어 수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① 2017년까지 0-11개월 영아 완전한 예방접종률 80% 달성
② 모성, 영·유아 및 청소년의 사망률과 발병률 감소
③ HIV/AIDS 발병자를 총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
④ 보건 분야 거버넌스 향상
⑤ 빈곤층 의료보험제도로 2017년까지 총인구의 62% 이상 의료보험 가입 달성

또한 PNDS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의 방향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표 2-62> PNDS의 전략적 방향

-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의 사망률과 발병률 감소의 가속화
- 건강 증진활동의 개선
- 질병 건에 대한 대처 강화
- 질병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의료 인적자원 개발
- 의료 서비스 운영, 설비 및 시설의 강화
- 의약품과 내·외과 의료품 공급 개선
- 정보시스템과 연구 강화
- 운영관리 증진
- 의료분야 재정 및 행정운영과 기획 역량 개선
-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 개선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2009-2018”

2) 밀레니엄 식수위생프로그램(PEPAM)[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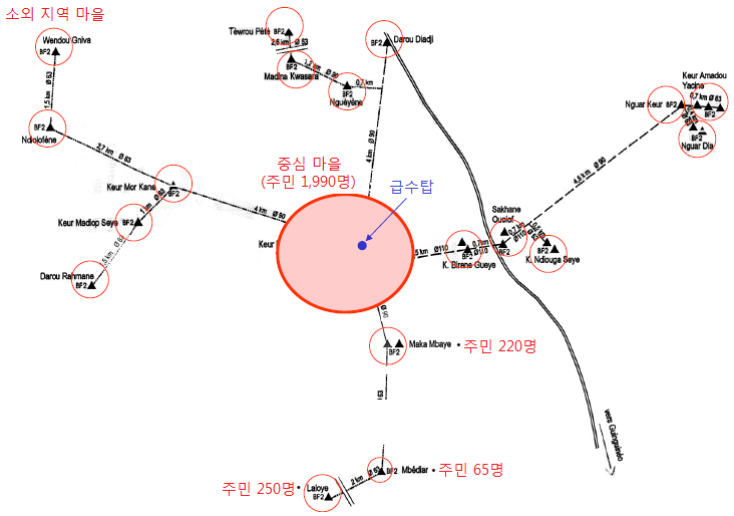
밀레니엄 식수위생프로그램(Programme d'Eau Po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lénaire; PEPAM)은 세네갈 정부가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하여 2005년에 수립한 프로그램으로써 식수위생 분야 이해관계자에게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PEPAM은 도시에서는 ①1.64백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상수도 연결을 제공하여 2015년까지 다카르의 접근률은 88%, 내륙 지역은 79% 달성(2002년에 각각 75.7%, 57.1%), ②1.73백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위생 시설에 접근 허용(2002년 56.7%에서 2015년 78%)이 목표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①2.3백만 명에게 추가적인 지속가능한 상수도 제공을 통한 접근률 향상(2004년 64%에서 2015년 82%), ②355,000개 농가에 가정의 배설물 및 중수 관리 방안 도입을 지원하여 접근률 향상(2004년 17%에서 2015년 59%), ③ 3,360개 위생 시설 구축을 통한 학교, 진료소, 시장, 버스 정류장 등 공공건물의 위생 시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네갈은 PEPAM의 프레임워크 하에 농촌 또는 소외 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multi-village 시스템을 두고 있다. 특히 식수위생 시설 관리에서의 문제점에 따라 마을 단위로 펌프를 설치하기보다 multi-village를 통해 다수의 마을과 상당한 인구를 이해관계자로 두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로 우물을 보다 낮은 가격에 운영·관리한다. 나아가 multi-village 시스템 하에서 학교, 보건소, 시장 등을 공유하는 중심 마을과 주변의 소외된 마을을 이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79)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eau por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énaire”. http://www.pepam.gouv.sn/ensemble/index.php?rubr=vue. 2015.05.12. 접속.

[그림 2-36] 세네갈 multi-village 구상



주: Ndiago 마을 예시

자료: World Bank. Multi-village: Presentation of a short study tour in Senegal of January 01

제3장

국제사회의 세네갈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국제사회 지원 동향

국제사회의 대 세네갈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11억 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총 ODA 규모 대비 2.2%에 해당하는 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표 3-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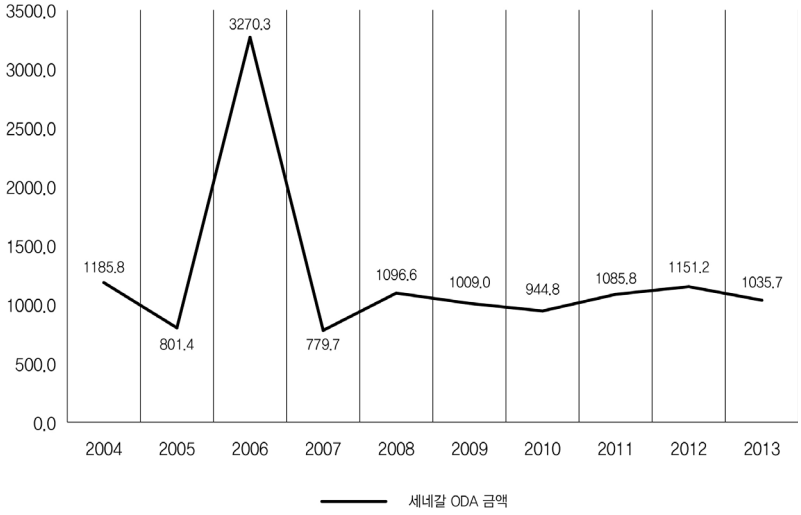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1	DR콩고	7,460	2,865	2,561	4,295	8.7
2	에티오피아	3,567	3,249	3,843	3,553	7.2
3	케냐	2,739	3,162	3,545	3,149	6.4
4	탄자니아	2,495	2,849	3,636	2,994	6.1
5	코트디부아르	1,550	4,686	2,085	2,774	5.6
6	사하라이남 지역	2,495	3,010	2,446	2,651	5.4
7	모잠비크	2,126	2,162	2,419	2,235	4.5
8	나이지리아	1,908	2,003	2,660	2,190	4.4
9	가나	1,860	1,901	1,410	1,724	3.5
10	우간다	1,603	1,682	1,821	1,702	3.4
11	남아프리카공화국	1,473	1,261	1,459	1,398	2.8
12	남수단	1,094	1,577	1,450	1,374	2.8
13	말리	1,294	1,047	1,420	1,254	2.5
14	부르키나 파소	1,039	1,220	1,088	1,116	2.3
15	수단	1,122	984	1,187	1,098	2.2
16	세네갈	1,086	1,151	1,036	1,091	2.2
17	르완다	1,271	897	1,085	1,084	2.2
18	잠비아	1,067	1,003	1,155	1,075	2.2
19	말라위	813	1,190	1,162	1,055	2.1
20	소말리아	997	911	875	928	1.9
기타 사하라이남		11,119	11,102	10,005	10,742	21.7
사하라이남 지역합계		50,179	49,913	48,347	49,479	100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최근 10년간의 대 세네갈 ODA는 평균 10억 달러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MDRI로 인하여 다자기구로부터 약 17억 달러를 지원받아 총 32억 달러의 대규모 부채탕감 지원이 있었다.

[그림 3-1] 세네갈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총 지출액 기준)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지난 10년간 지원형태별 추이를 살펴보면 무상지원이 전체 ODA 중 약 50%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던 세네갈은 IDA를 통해 2004년 고채무 빈곤국 외채탕감 프로그램(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I) 및 2005년 다자은행 부채탕감 프로그램(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각 8.5억 및 8억 달러 가량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보면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이 상위 공여국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공여기구는 세계은행(IDA), EU, AfDB 순이다.

<표 3-2> ODA 공여주체별 세네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3년 평균)

구분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DAC 회원국	1	프랑스	196.57	318.32	206.83	240.57	22.05
	2	미국	114.03	129.74	204.05	149.27	13.68
	3	일본	82.83	80.50	42.09	68.47	6.28
	4	캐나다	61.44	47.80	63.77	57.67	5.29
	5	독일	25.44	33.99	21.60	27.01	2.48
	6	스페인	36.84	13.15	20.40	23.46	2.15
	7	벨기에	25.10	17.83	24.03	22.32	2.05
	8	한국	8.71	31.68	17.25	19.21	1.76
	9	네덜란드	26.88	15.05	6.42	16.12	1.48
	10	룩셈부르크	13.95	16.67	14.42	15.01	1.38
	기타 DAC 회원국		1.38	1.67	2.61	1.89	0.17
	DAC회원국 합계		609.73	726.50	654.83	663.69	60.84
DAC 비회원국	1	쿠웨이트	11.95	2.92	15.69	10.19	0.93
	2	아랍에미리트	0.24	0.83	0.21	0.43	0.04
	3	에스토니아	-	-	0.04	0.01	0.00
	DAC비회원국 합계		12.20	3.75	15.94	10.63	0.97
다자 기구	1	IDA	179.44	146.43	140.24	155.37	14.24
	2	EU Institutions	121.63	106.59	72.15	100.12	9.18
	3	AfDF	95.15	54.13	65.74	71.67	6.57
	4	Global Fund	23.08	39.66	23.15	28.63	2.62
	5	GAVI	4.36	10.65	20.28	11.76	1.08
	6	UNHCR	-	13.09	16.71	9.93	0.91
	7	BADEA	8.91	12.16	7.60	9.56	0.88
	8	UNICEF	7.23	3.31	6.01	5.52	0.51
	9	WFP	2.66	9.30	3.04	5.00	0.46
	10	Isl.Dev Bank	-	11.82	-	3.94	0.36
	기타 다자기구		21.41	13.85	10.03	15.10	1.38
	다자기구 합계		463.86	420.99	364.95	416.60	38.19
ODA 총액			1085.78	1151.23	1035.73	1090.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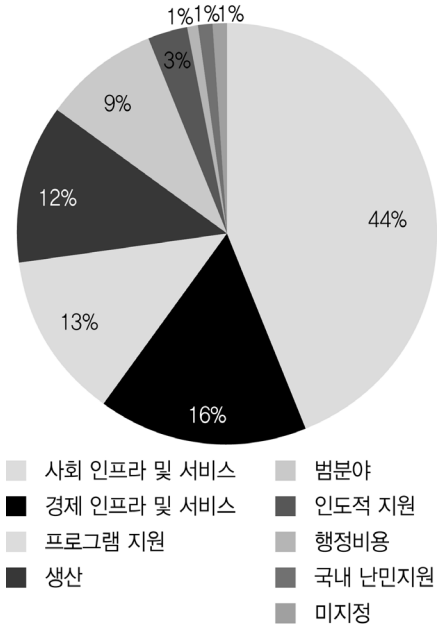
자료: OECD,DAC Statstics 재구성

나. ODA 분야별 지원 현황

세네갈의 분야별 ODA 지원 현황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44%를 차지하여 기초 사회부문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뒤를 이어 전체 ODA 규모 중 16%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프로그램 지원(13%), 생산분야(12%), 범분야(9%), 인도적 지원(3%)등 다양한 분야로의 ODA가 지원되었다.

[그림 3-2] ODA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2011-2013년 3년 평균)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표 3-3>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 부문

(단위: 백만 달러, 2011-2013년 3년 평균)

분야	금액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79.6
교육	157.4
보건	99.4
인구	43.8
물·위생	80.9
정부·시민사회	72.0
기타 사회 인프라	26.1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74.3
교통	114.4
통신	1.6
에너지	43.3
금융	10.2
비즈니스	4.7
생산	124.9
농업, 임업, 수산업	105.0
산업, 광업, 건설업	16.4
무역정책·규제	2.2
관광업	1.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세부적으로 보면, 최대 지원분야인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내에선 교육과 관련한 지원규모가 1억 5,700만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보건, 식수위생, 정부 및 시민사회로의 대규모 ODA 투입이 이루어지는 등 기초 사회 인프라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뤘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교통과 관련한 지원(1억 14백만 달러)이었으며, 생산 분야에서는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지원이 1억 5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표 3-4> 對 세네갈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준: 2011-13년 평균 Gross Disbursement)

구분		ODA 지원 총액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다부문・크로스 커팅
			총계	교육	보건	인구 생식	식수 위생	정부 시민 사회	기타	총계	교통 수송	통신	에너지	은행 금융	사업 기타	총계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무역 정책 규정	관광업	
1	프랑스	240.57	89.39	59.32	6.39	1.72	9.67	5.68	6.60	24.41	1.09	0.18	19.04	3.56	0.54	8.31	7.28	0.15	0.01	0.88	30.41
2	미국	149.27	69.57	12.94	25.17	18.54	5.61	5.96	1.35	19.16	18.69	-	-	0.14	0.33	38.71	37.67	0.16	0.89	-	13.57
3	일본	68.47	40.55	19.56	9.17	1.58	6.42	0.10	3.73	1.46	1.00	0.38	0.01	0.01	0.07	11.30	9.83	1.26	0.06	0.15	3.60
4	캐나다	57.67	35.43	26.36	5.85	0.25	0.20	2.54	0.23	2.47	-	0.21	0.03	1.69	0.55	17.01	15.62	1.34	0.00	0.04	1.65
5	독일	27.01	16.63	4.47	0.03	0.79	1.76	8.63	0.94	4.31	-	0.02	3.11	1.18	0.00	3.03	0.86	2.16	-	-	1.48
6	스페인	23.46	8.62	1.52	1.30	0.31	0.48	4.07	0.94	0.89	0.02	0.01	0.00	0.76	0.10	2.84	2.75	0.02	0.07	-	4.31
7	벨기에	22.32	11.75	1.71	3.68	0.11	4.56	1.33	0.37	1.78	0.54	-	0.02	1.22	-	3.98	3.74	0.14	0.10	-	2.72
8	한국	19.22	5.13	1.29	0.49	0.01	1.29	1.78	0.27	12.91	12.42	0.49	-	-	-	1.11	0.51	0.42	0.01	0.17	0.06
9	네덜란드	16.12	6.71	-	-	-	2.43	4.14	0.13	0.11	-	0.06	-	-	0.05	1.03	1.03	-	-	-	8.25
10	룩셈부르크	15.01	11.54	4.62	2.09	0.27	2.97	1.21	0.38	0.23	-	-	-	0.23	-	0.16	0.12	0.04	-	-	0.70
DAC 회원국		663.68	302.77	133.90	54.69	23.65	36.10	37.71	16.71	71.36	34.21	1.36	24.61	9.55	1.63	94.84	81.56	10.89	1.14	1.26	68.94
1	IDA	155.37	83.04	20.85	12.92	0.22	15.99	24.61	8.46	45.15	27.59	0.27	14.32	0.14	2.84	18.37	13.76	4.61	-	-	8.81
2	EU	100.12	22.53	0.19	-	0.68	14.41	7.20	0.05	26.18	23.53	-	2.30	0.09	0.25	1.82	0.32	0.40	1.10	-	11.51
3	AfDF*	71.67	13.96	1.02	1.91	-	10.71	0.31	-	18.84	17.00	-	1.84	-	-	8.65	8.65	-	-	-	3.19
4	Global Fund	28.63	28.63	-	12.63	16.00	-	-	-	-	-	-	-	-	-	-	-	-	-	-	0
5	GAVI	11.76	11.76	-	11.76	-	-	-	-	-	-	-	-	-	-	-	-	-	-	-	-
다자기구		416.60	176.60	23.36	44.65	20.12	44.76	34.29	9.42	93.49	70.75	0.28	18.70	0.67	3.09	29.64	23.25	5.28	1.10	-	32.80
총계		1090.91	479.58	157.43	99.36	43.76	80.88	72.01	26.13	174.30	114.41	1.64	43.31	10.22	4.72	124.90	105.05	16.35	2.24	1.26	101.77

* African Dev. Fund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및 생산 분야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다. ODA 형태별 지원 현황

전체 ODA 지원총액 중 예산지원은 18.32%(일반예산지원 11.42%, 섹터예산지원 6.9%)이였으며, 프로젝트 형태 사업은 65.41%였다. 공여주체 중 프랑스, 스페인, EU, AFDF는 일반예산지원을, 캐나다, 네덜란드, IDA, EU는 섹터예산지원을 하였으며, 예산지원 중 일반예산지원이 62.33%, 섹터예산지원이 37.67%였다. 예산지원은 프랑스가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여 전체 예산지원 금액 중 34.56%를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 형태 사업은 미국이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여 전체 프로젝트 금액 중 26.79%를 차지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2011-2013년 3년간의 지원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공여국 내 장학금 및 교육비용, 전문가 및 기타 기술지원과 같은[80] 인적 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형태를 활용하여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는 예산지원을 증액할 예정에 있는 EU 평균 지원액의 약 2배를 지원하는 등, 가장 많은 금액의 예산지원을 하였다. EU의 경우 예산지원 금액이 크게 늘지 않았고,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의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60%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IDA는 프로젝트 형태 사업 비중이 2011년 73.47%에서 2012년 79.29%, 2013년 87.93%로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예산지원 비중은 2011년 26.53%에서 2012년 20.71%, 12.07%로 감소하여, 해당 기간 프로젝트 형태 사업과 예산지원의 평균적인 비중이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편 AfDF는 2011-2013년 평균적으로 예산지원은 37.75%, 프로젝트 형태 사업은 62.27%로 타 기관에 비해 예산지원의 평균 비중이 높았으며, 2013년 예산지원이 전체 지원 금액의 59.04%에 달하기도 하였다.

공여주체별로는 주로 공공기관을 통한 전달이 67.8%로 가장 많으며, NGO·시민사회(11.9%), 다자기구(5.4%)가 ODA 전달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민관협력 파트너십(PPP)은 0.2%정도 진행되어 규모 면에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총 지출액(gross disbursement)은 12억 3,640만 달러('13)으로 이행 약속금액(commitment) 10억 3,572만

80) 각각 3년 평균 기준, 전체 금액 중 19.73%, 10.06%

달러와 비교할 때 83%가 이행되어 높은 책무수준을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세네갈의 수원 규모는 GNI대비 7-8% 정도로 세네갈 경제의 ODA 의존도가 높다.[81]

81) OECD DAC Statistics

<표 3-5>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對 세네갈 지원형태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준: 2011-13년 평균, Gross Disbursement)

국가/기관		ODA 지원 총액	예산지원			주요기금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술협력			장학금 및 교육비용			채무 구제	행정 비용	기타 비용		
			총계	일반 예산 지원	섹터 예산 지원	총계	NGO 민간 연구 기금	국제 기구 관리 기금	공동 기금 지금 지원		총계	전문가 파견	기타 기술 지원	총계	장학금 /직접 교육비	간접 연수 비용			총계	개발인 식증진	난민 지원
1	프랑스	240.57	69.06	69.06	-	1.30	0.01	-	1.29	72.57	35.23	12.61	22.62	47.47	1.72	45.75	11.44	3.48	0.02	0.02	-
2	미국	149.27	-	-	-	0.65	-	0.65	-	191.15	12.24	10.52	1.72	-	-	-	-	-	-	-	-
3	일본	68.47	-	-	-	4.31	0.65	3.66	-	59.78	4.07	4.07	-	0.31	0.31	-	-	-	-	-	-
4	캐나다	57.67	21.41	-	21.41	16.64	0.06	15.48	1.10	10.68	8.94	7.48	1.46	-	-	-	-	-	-	-	-
5	독일	27.01	-	-	-	0.5	0.5	-	-	24.34	1.77	0.20	1.57	0.85	0.21	0.64	-	-	-	-	-
6	스페인	23.46	2.68	2.68	-	0.67	0.01	0.66	-	17.92	1.77	1.52	0.25	0.01	0.01	-	-	0.26	0.16	0.10	0.06
7	벨기에	22.32	-	-	-	4.16	4.16	-	-	15.41	1.94	0.31	1.63	0.06	0.06	-	0.16	0.57	-	-	-
8	한국	19.21	-	-	-	0.17	-	0.17	-	16.13	2.67	2.26	0.41	0.26	0.26	-	-	-	-	-	-
9	네덜란드	16.12	5.10	-	5.10	-	-	-	-	10.92	0.09	-	0.09	-	-	-	-	0.01	-	-	-
10	룩셈부르크	15.01	-	-	-	-	-	-	-	12.73	0.45	0.45	-	-	-	-	-	1.83	0.01	0.01	-
DAC 회원국		663.69	98.25	71.74	26.51	32.13	7.27	22.41	2.46	392.83	72.38	40.75	31.63	49.24	2.83	46.41	11.60	6.96	0.29	0.18	0.10
1	IDA	155.37	41.90	-	41.90	-	-	-	-	113.47	-	-	-	-	-	-	-	-	-	-	-
2	EU Institutions	100.12	32.32	25.46	6.86	-	-	-	-	63.20	4.61	1.13	3.48	-	-	-	-	-	-	-	-
3	AfDF	71.67	27.04	27.04	-	-	-	-	-	44.63	-	-	-	-	-	-	-	-	-	-	-
4	Global Fund	28.63	-	-	-	-	-	-	-	28.63	-	-	-	-	-	-	-	-	-	-	-
5	GAVI	11.76	-	-	-	-	-	-	-	11.76	-	-	-	-	-	-	-	-	-	-	-
다자기구		416.60	101.58	52.82	48.76	-	-	-	-	310.08	4.72	1.21	3.51	-	-	-	-	0.23	-	-	-
총계		1090.91	199.83	124.56	75.27	32.14	7.27	22.41	2.46	713.53	77.10	41.96	35.14	49.24	2.83	46.41	11.60	7.19	0.20	0.18	0.10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6> 주요 원조기관별 對 세네갈 지원형태 변화추세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지원형태	프랑스			IDA			EU			AfDB			3년 평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예산지원	-	167.36	39.83	42.00	55.00	30.00	43.60	31.49	21.86	31.98	10.34	38.81	199.83
일반섹터지원	-	167.36	39.83	-	-	-	43.60	31.49	1.28	31.98	10.34	38.81	124.56
섹터예산지원	-	-	-	42.00	55.00	30.00	-	-	20.58	-	-	-	75.27
주요기금 및 특정목적 프로그램·기금	0.01	0.02	3.88	-	-	-	-	-	-	-	-	-	32.14
NGO, 기타 민간단체, 민관협력 및 연구기관 앞	0.01	0.02	-	-	-	-	-	-	-	-	-	-	7.27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목적 프로그램/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	-	-	-	-	-	-	-	-	-	-	-	22.41
공동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	-	3.88	-	-	-	-	-	-	-	-	-	2.46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88.57	59.34	69.81	116.30	210.60	218.50	76.07	66.88	46.64	63.17	43.79	26.93	713.53
기술협력	39.79	31.70	34.19	-	-	-	1.95	8.22	3.65	-	-	-	77.10
공여국 인력지원	14.24	10.71	12.88	-	-	-	-	3.38	-	-	-	-	41.96
기타 기술지원	25.55	20.99	21.31	-	-	-	1.95	4.84	3.65	-	-	-	35.14
공여국 내 장학금 및 교육비용	52.45	45.37	44.60	-	-	-	-	-	-	-	-	-	49.24
장학금 및 직접연수비용	0.05	0.71	4.40	-	-	-	-	-	-	-	-	-	2.83
간접 연수생비용	52.40	44.66	40.20	-	-	-	-	-	-	-	-	-	46.41
채무구제	12.52	10.79	11.00	-	-	-	-	-	-	-	-	-	11.60
행정비용	3.22	3.72	3.50	-	-	-	-	-	-	-	-	-	7.19
기타 공여국 내 비용	-	0.03	0.03	-	-	-	-	-	-	-	-	-	0.29
개발인식증진	-	0.03	0.03	-	-	-	-	-	-	-	-	-	0.18
공여국 내 난민지원	-	-	-	-	-	-	-	-	-	-	-	-	0.10
총계	196.57	318.32	206.83	158.30	265.60	248.50	121.63	106.59	72.15	95.15	54.13	65.74	1090.91

주: 3년 평균은 2011-2013년 전체 지원액의 지원형태별 평균임

자료: OECD/DAC Statistics. 재구성

라. 분야별 작업그룹 및 세부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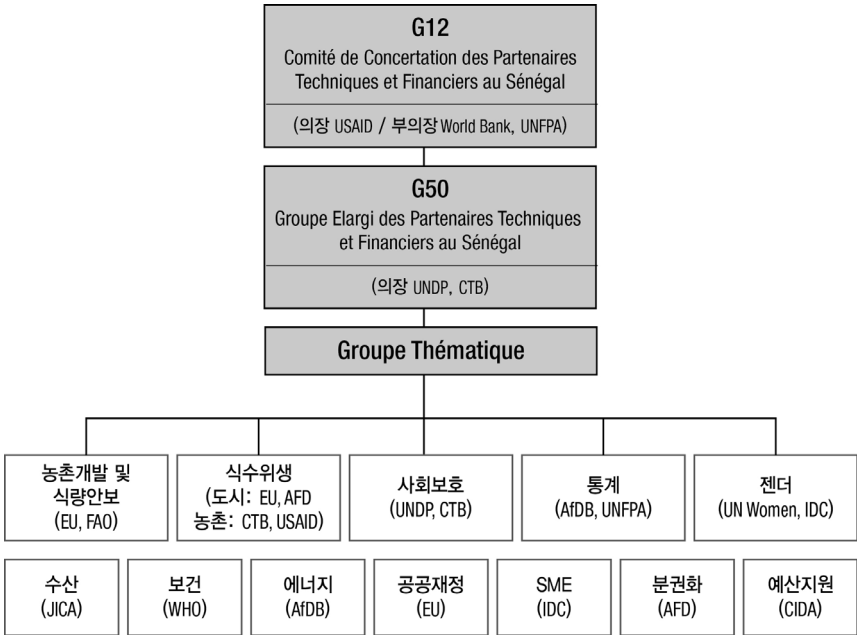
1) Donor Coordination 및 분야별 작업그룹

세네갈에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기술 및 재정 파트너(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PTF) 협의회를 통해 협력하며, 이는 전체 공여주체회의(Groupe Elargi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G50), 공여기관 사무국 회의(Comité de Concertation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CCPTF 또는 G12), 분야별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G50 회의는 공여체가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 벨기에와 UNDP가 공동 의장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 의장직 임기는 2년이다. G50의 사무국인 G12는 독일,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World Bank, UN Women, UNFPA, EU 등 12개 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USAID가 의장, World Bank와 UNFPA가 공동 부의장을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작업그룹은 1-2달 간격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야별 의장은 다음과 같다: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EU, FAO), 식수위생(도시: EU 및 AFD, 농촌: CTB, USAID), 수산(JICA), 보건(WHO), 사회보호(UNDP, CTB), 에너지(AfDB), 통계(AfDB, UNFPA), 공공재정(EU), SME(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분권화(AFD), 젠더(UN Women,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예산지원(CIDA).

[그림 3-3] 세네갈 Donor Coordination Framework



자료: 연구진 작성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작업그룹은 교육, 젠더, 공공행정, 통계, 까사망스,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환경 등이다. 반면 구성원도 적고 활동이 미미한 그룹은 소액금융, 소규모 지원 등 민간부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효율성에 따른 분야별 작업그룹 분류 기준

분류	기준
C1	그룹 구성원이 4명 미만
C2	Terms of Reference 보유
C3	연간 계획 또는 로드맵 보유
C4	연간 회의 최소 4회 진행
C5	매년 그룹 활동에 대한 보고서 발간
C6	여당과 연간 최소 1회 회의 진행
C7	연간 평가 진행 또는 분야 평가에 참여

항목	기준
항목1	좌측 기준 6-7개 부합
항목2	좌측 기준 4개 미만 부합
항목3	좌측 기준 0-3개 부합
항목4	무응답 그룹

자료: AFD. Classement des Groups Thématiques selon les Critères de Bon Fonctionnement.

<표 3-8> 효율성에 따른 분야별 작업그룹 분류

분야별 작업그룹	C1	C2	C3	C4	C5	C6	C7	항목
교육(7)	X	X	X	X	X	X	X	항목1
젠더(6)	X	X	X	X	X	X		
공공재정(6)	X		X	X	X	X	X	
통계(6)	X	X	X	X	X	X		
까사망스(6)	X	X	X	X	X	X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6)	X	X	X	X	X	X		
환경(6)	X	X		X	X	X	X	
보건(5)	X	X		X		X	X	항목2
도시 식수위생(5)	X			X	X	X	X	
분권화(4)	X	X		X		X		
사회보호(5)	X	X	X	X	X			
중소기업(5)	X	X		X	X	X		
예산 지원(5)	X	X		X		X	X	
에너지(4)	X	X		X		X		
농촌 식수위생(4)	X			X		X	X	
수산(3)	X				X	X		항목3
법(2)	X			X				
원조 효과성(2)			X		X			
무역원조(2)	X	X						
민간 부문(1)	X							
소액금융								항목4
소규모 지원								

자료: AFD. Classement des Groups Thématiques selon les Critères de Bon Fonctionnement

2) 교육 분야

공여국은 교육 분야에서 대부분 기초교육에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건립이나 대통령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으로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USAID는 초등학생 수학 및 독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Partenariat pour l'Amélioration de la Lecture et des Mathématiques; PALME)을 지원 중이며, JICA는 수

학,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Projet de Renforcement de l'Enseignement des Mathématiques,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PREMST)으로 초등교육부터 전문 직업까지 이어지는 수학 및 기술 교육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초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고등학교까지만 학생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고등교육 관련 분야별 작업그룹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사업 시행에 따라 AFD, World Bank 등 다수의 기관이 지원할 예정에 있다. 또한 직업훈련 관련 지원도 직업전문대학(ISEP) 사업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표 3-9> 공여주체별 교육 분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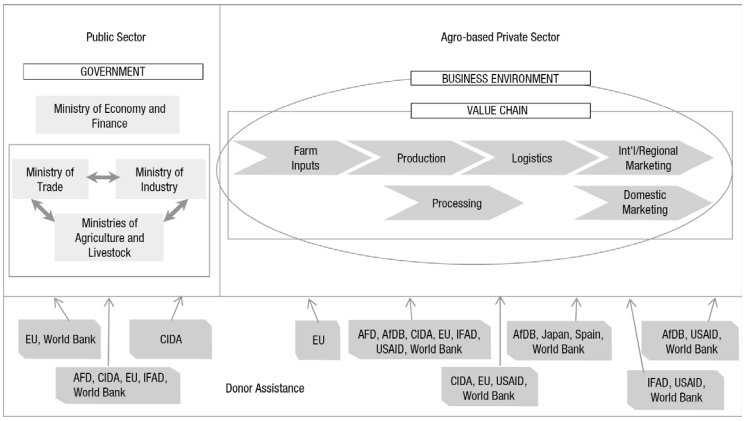
기관	중점지원 내용	지역
기초교육		
JICA	수학 부문 지원 선도 / 중학교 교실 건축	세네갈 전지역 / Thiès, Louga, Kolda
AFD	교육의 질 향상 및 중학교 건립	Dakar, Ziguinchor, Saloum, Kolda
CIDA	수학, 과학, 언어 등 교과서 및 커리큘럼 개발	세네갈 전지역
USAID	초등학교 독해능력 향상 및 중학교 건립	세네갈 전지역
WB	과학 및 수학강의	세네갈 전지역
고등교육		
USAID	농업 교육 및 연구(ERA)	Dakar, Thiès, Richard-Toll, Ziguinchor
AfDB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Dakar, Thiès, Saint-Louis, Kaolack, Ziguinchor
직업훈련		
AFD	직업전문대학(ISEP)	Bignona
CIDA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선 및 사업계획 개발	Diourbel, Fatick, Kaolack, Thiès
AfDB	ToT센터 설비 및 재건	Guerina, Thiès
WB	직업전문대학(ISEP) / TVET	Thiès, Diamniadio / Louga, Mbao, Diamniadio
협의체	Lux-Dev, ILO, UNIDO, UNDP가 TVET 공동지원	-

자료: 연구진 작성

3) 농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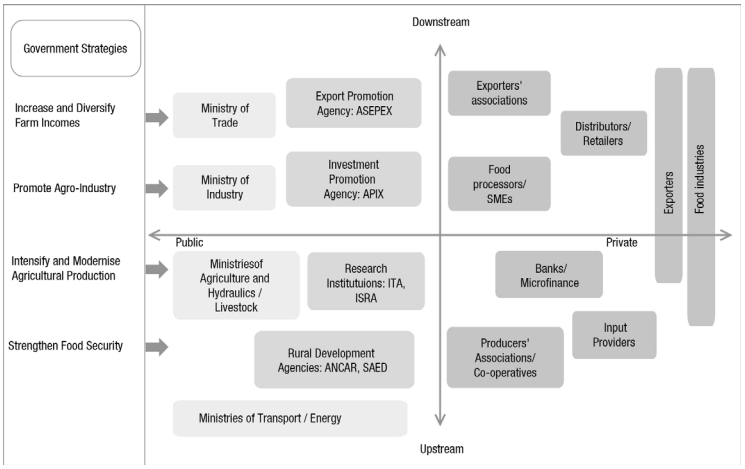
농업은 세네갈의 중점 분야임에 따라 다양한 공여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쌀과 관련해서는 AFD, JICA, World Bank 등이 관개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4] 농업 관련 공여기관 협력 분야



자료: OECD. 2009. “Senegal: Making Better Use of Agribusiness Potential”

[그림 3-5] 농업 및 농가공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자료: OECD. 2009. “Senegal: Making Better Use of Agribusiness Potential”

수산분야에서는 AFD, JICA, FAO 등이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세네갈 관할 해안은 물론 서아프리카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3-10> 공여주체별 수산 분야 지원

기관	중점지원 내용	지역
AFD	영세어업을 위한 부두 재정비 /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사회경제적 개발	Saint-Louis 및 서아프리카
USAID	지속가능한 어업 협동관리	Saint-Louis, Louga, Ziguinchor, Sédhiou 및 Grand/Petite Côte
JICA	가치사슬 개발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인프라 건축 / 영세어업 공동관리 / 지역 역량강화 및 삼각협력	Mbour, Dakar, Petite Côte 및 서아프리카
WB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 프로그램	세네갈 관할 해안
EU	지역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CSRP 회원국 7개국 및 전지역
FAO	양식업 지식 강화 / 수산분야 정책 검토 / 카나리아 해류 해양 생태계 보호	전지역 및 서아프리카

주: CSRP 회원국은 세네갈,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 비사우,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Matrice des Projets/Programmes et Financements - Groupe Thématique Pêche des Bailleurs. 재구성

4) 식수위생 분야

세네갈은 농촌지역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USAID, JICA, CTB, Lux-Dev와 World Bank, AfDB, EU, IsDB, UEMOA 등의 다자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3백만 CFA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촌 식수위생 부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인구 규모로는 4위이다.

세네갈 정부는 Multi-village 프레임워크를 통해 농촌 마을에 관정 1개를 설치하고 인근 5-10km 가구에 물을 공급하여 농촌 인구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KOICA에서는 1차 사업으로 Saint-Louis, Louga, Diourbel, Thiès 4개 지역에 관정 12개를 설치하였으며, 2차 사업을 통해 Saint-Louis, Louga, Thiès, Fatick, Kaolack, Tambacounda 등 6개 지역에 관정 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여주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AfDB가 식수위생 분야의 가장 큰 공여기관이며, JICA의 경우 1980년대부터 대부분 중부지역에서 협력해왔으며 현재 동부지역 Matam과 Tambacounda에서 JP14 하에 4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JICA는 전체 식수위생 인프라의 8%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를 실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 EU는 multi-village 50개에 태양열 착정을 지원하여 사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CTB는 Lux-Dev에서 자금을 받아 물 이송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3-11> 공여주체별 식수위생 사업 규모 및 수혜 인구

(단위: 백만 CFA, 명)

공여주체	사업 규모	수혜 인구
BADEA	6	72,000
벨기에	7	80,000
BCI	1	90,000
일본	6	90,000
EU	11	90,000
룩셈부르크	10	94,000
한국	3	100,000
UEMOA	6	100,000
IDA	7	130,000
미국	10	179,000
아랍권(BADEA, BID, FSD)	26	320,000
전체	92	1,345,000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Hydraulique et de l'Assainissement.

공여주체는 또한 PEPAM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 식수위생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공여주체의 관련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중 USAID는 식수위생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지역 내 식수위생 서비스 제공 역량 개선을 통해 다지고자 하며,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역량 지역 내 소규모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 및 ASUFOR의 역량을 강화하여 개선된 식수위생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표 3-12> 주요 공여주체 PEPAM 사업 요약

구분	USAID	World Bank	AfDB
사업기간 및 규모	2009-2014년 (21백만 달러)	2010-2015년 (56.56백만 달러)	2014-2018년 (39.49백만 달러)
사업지역	Casamance(Ziguinchor, Sédhiou, Kolda), Dakar 교외, Tambacounda	Saint-Louis, Matam, Bakel	농촌(Louga, Kaffrine, Tambacounda), 도시(Dakar, Ziguinchor)
사업요소	- 식수위생 서비스 및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 지속가능한 식수위생 서비스 수요 증대 - 지역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식수위생 인프라 재건 - 지역주도 통합 위생 도모	- 농촌지역 식수 접근성 향상 - 도시지역 식수 접근성 향상 - 농촌지역 위생 접근성 향상 - 도시지역 위생 접근성 향상 - 식수위생 분야 제도 및 역량강화	- 농촌지역 식수위생 접근성 향상 - 도시지역 위생 네트워크 재건 및 확대 - 위생 습관 개선 - 식수위생 분야 거버넌스 개선

자료: 연구진 작성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프랑스

1) 지원전략

프랑스는 공적개발원조의 역사가 긴 선진 공여국으로 2013년 기준 전체 ODA의 57%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17개국에 대해 지원하였다.[82]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은 아프리카에 세네갈, 아디스아바바, 요하네스버그 등 5-6개의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22개의 국가에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네갈에 대한 프랑스의 원조는 1946년에 시작되었으며 우선지원 대상 빈곤국(pays pauvre prioritaire)[83] 16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지원받고 있다. 현재 AFD 세네갈 사

82) AFD. 2014. “Rapport Annuel 2013”.

83) 프랑스는 16개 우선지원 빈곤국에 대해 AFD 지원액의 2/3 정도를 집중하고 있다. 16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지부티, 코모로스, 가나,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 Congo, 차드, 토고, 세네갈이다.

무소는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비사우도 겸임하고 있으며 연간 100백만 유로의 양허성 차관, 15백만 유로의 무상원조, 150백만 유로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체 포트폴리오는 40개 사업 600백만 유로 규모이며, 향후 300백만 유로 지출 예정이다.

프랑스와 세네갈의 협력은 양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 문서(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DCP)에 기반하며, 양국은 2013-2017년 기간에 대한 협력 전략을 설정하였다. 2013-2017년 DCP의 목표는 동 기간 전략인 SNDES 목표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 지원분야를 두고 있다.[84)]

① 지속가능한 개발(농업, 환경, 식수위생)
② 민주적 거버넌스(법치주의, 분권화, 안보, 밀매 방지, 시민사회)
③ 인간 개발(교육, 보건)

AFD는 DCP 실행 기간인 4년 동안 396백만-479백만 유로를 지원하며, 2017년 이후부터 전략은 EU 위원회와 회원국의 공동 프로그래밍의 일환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프랑스의 대 세네갈 지원 규모는 318백만 달러이며, 분야별 규모를 보면 교육·보건·인구(4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다분야(15%), 프로그램 지원(11%), 경제 인프라(10%) 순으로 지원되었다.

2) 지원 현황

AFD는 2009년부터 교육 부문에 2,9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다카르 교외에 교실 435개를 신축·복원하고 교육 시스템 관리·모니터링을 개선하여 기초교육의 등록율과 이수 비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13년 까사망스 지역 기초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네갈에 6백만 유로 무상원조를 4백만 유로 양허성 차관과 결합하여 지원하였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2개 프로그램에 대해 1,4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84) France Diplomatie. La France et le Sénégal.
http://www.diplomatie.gouv.fr/fr/dossiers-pays/senegal/la-france-et-le-senegal/. 2015.05.12. 접속

AFD는 EU 회원국 중에서 도시지역 식수위생 분야의 선두 공여국이며, PEPAM의 우선 투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AFD는 최근 다카르의 식수 공급 보장을 위해 10백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또한 Hann만 오염 방지에 32.5백만 유로, 생루이 Faidherbe 다리 복원에 12백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어 보건 분야에서는 2012년 모자보건에 14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2014년 까사망스 모자보건(Muskoka 이니셔티브) 사업과, 사회보호(사헬지역 보건 연대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요 분야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교육과 직업교육 증진[85)]

AFD는 2000-2012년 약 55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해왔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실 신축(700개), 개보수(100여개) - 약 4만여 명 학생 수용 규모
②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 프로젝트 500여개
③ 직업훈련교육 700여명

인프라와 도시개발 지원

AFD는 세네갈수도공사(la Société Nationale des Eaux du Sénégal; SONES)의 우선투자프로그램에 약 2천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Hann만(Baie de Hann)의 정화프로그램에 3천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또한 다카르의 도시권 개발과 도로건설, Saint-Louis의 다리 건설, Blaise Diagne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한 교통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 농촌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한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2011년 세네갈 정부의 전력재건프로그램의 일환인 전력발전소 재건에 6천만 유로의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

85) AFD. 2012. “l’AFD et le Sénégal: Un partenariat pour une croissance partagée et durable”.

민간분야 지원

프랑스는 세네갈의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는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거나, 기업의 대출을 위한 세네갈의 소액 금융 기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농촌개발

프랑스는 세네갈의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세네갈의 농업정책을 지원하였고, 최근 몇 년간 총 27백만 유로를 3,400ha의 농지 개간에 투입하고, 간선도로건설과 다리 건설 등 농촌 지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농업분야 관계자의 운영 역량 배양, 토지관리, 쌀의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농업분야의 역량강화에도 지원하였다.

<표 3-13> AFD의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유로, 2013년)

분야	프로젝트	예산
농업 및 식량안보	Appui à la diversification de l'agriculture irriguée et au développement de l'élevage à Podor(Podor 관개농업 다각화와 축산개발 사업)	30
인프라 및 도시개발	Prolongation de l'autoroute de Dakar (다카르의 고속도로 연장건설)	89
교육	Appui à l'amélioration de l'éducation de base en Casamance(Casamance의 기초교육개선 지원)	10
기타	Prêt de soutien budgétaire(예산지원)	60

자료: AFD. 2014. “Rapport Annuel”. 재구성

<표 3-14> AFD 포도르 관개개발 및 농촌경제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포도르 관개개발 및 농촌경제 지원사업(Appui à l'Agriculture Irriguée et au Développement Economique de Podor; AIDEP)
사업 기간	미정(2013-2014년 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예산	31.5백만 유로
사업지	포도르 지역 마을 10개: Aéro Lao, Dodel, Fanaye, Galoya Toucouleur, Gamadji Sarre, Guede, Mery, Médina Ndiatbe, Ndiayene-Pendao, Pété
수원 기관	세네갈 농업부 및 SAED, 포도르 지역 대표단
사업 목적	식량안보 개선 및 포도르 농촌 지역 경제개발
사업 구성요소	인프라 지원(70%), 기술 및 제도(14%) 지원
기대효과	- 직접 수혜 인구 126,000명, 가족농 23,700명 지원 - 개발 또는 보수된 관개지역 5,950ha 조성 - 곡물 생산성 개선(쌀 5,500톤, 옥수수 2,800톤)

자료: AFD. “Appui à l’Agriculture Irriguée et au Développement Economique de Podor Sommaire”. 재구성

나. 미국

미국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세네갈 사무소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 쌀 및 곡물 시장의 민영화와 금융 분야 주요 개혁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새천년도전기금(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40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축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로 복원 프로젝트와 관개 및 수자원관리 프로젝트 등 두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SAID는 현재 공여기관 사무국 회의(G12)의 의장 및 식수위생(WASH) 분야별 작업그룹의 의장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봉사단 360명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원전략

USAID는 세네갈 국가경제사회정책(DPES)에 명시된 요소들을 지원하며, 양국의 공동 목표는 세네갈 국민의 복지 향상이다. USAID의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6; CDCS)은 정부와 민간분야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세네갈 국민의 복지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DCS의 전체 총액은 500백만 달러이며, 중점분야는 ①보건(50%), ②경제성장(25%), ③교육(20%), ④,민주화 및 거버넌스(5%) ⑤정책대화(5%)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네갈의 국가개발전략과 USAID의 대 세네갈 지원 전략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표 3-15> 세네갈의 목표와 USAID 전략 일치

세네갈의 목표
1. 통합된 경제적 성장 2. 세네갈 시민의 건강 상태 향상 3.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공공행정의 관리에 시민 효과적 참여 도움
USAID의 전략 1 – 포괄적인 경제 성장
1.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효과적 이용하도록 지원 2. 이는 경제적 성장 기회와 부의 창출을 도움

세네갈의 목표
3. 관개시설을 지원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4. 시장 아울렛과 직업훈련을 도움
USAID의 전략 2 – 건강 증진
1. 기초 보건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증가 2. 산모지원 시스템, 가족계획, 모기장 지원, 보건 조직 구축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3. 훈련된 보건 관련 직원과 보건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혁 지원
USAID의 전략 3 – 국가 및 지역사회에의 시민 참여 도모
1. 두 번째 DPES의 전략의 성과도 보완 2. 읽기와 수학능력을 강화하며 초등교육에서 남녀 참여 비율 증가 3. 교육의 질 향상 4. 지역과 국가수준에서 공공행정의 관리에 시민의 참여 제고로 굿거버넌스 강화 5. 불법거래에 관여하는 세네갈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인권보호 지원

자료: USAID. “Senegal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6”. 연구진 재구성

2) 지원 현황

USAID는 지역 프로그램(사헬지역 40백만 달러, 인도주의 지원 연간 300백만 달러) 및 세네갈 국가 프로그램(연간 115백만 달러)을 통해 세네갈을 지원 중이다. USAID는 1992년까지 세네갈 정부에 예산 지원성(Grant) 원조를 해오다가 부채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비판 의견으로, 그 규모를 2/3까지 감소시키고, 현재 자체 조달 방식을 통한 기술협력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네갈에서는 정부부처 직접 환급 프로그램(Direct Reimbursement)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주요 사업인 보건 분야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3-16> USAID의 분야별 지원 내용

분야	내용
농업 및 식량안보	- 핵심 작물(쌀, 옥수수, 수수, 수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가치사슬 개선 - 생물 다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범분야적 지원 - 식생활의 다각화 및 건강한 식습관 증진 - 농업분야 고등교육 및 연구 지원 - 민간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 장려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증대 - 정책 수립 지원 및 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 역량 강화

분야	내용
교육	- 교육시설 개선 - 교사 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 - 여아,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 - 현지어 교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기초교육, 직업교육 지원 - 정부와 1:1 매칭으로 56개의 중학교 건립
보건	- 모자보건 및 영양 지원 - HIV/AIDS, 결핵 예방 교육 및 검진, 치료 지원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지원 -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프로그램 - 의료인력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가족계획 및 산전 건강관리 지원

자료: USAID. “Senegal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6”. 재구성.

보건 분야 지원 사업

USAID 지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건 중 가장 큰 요소인 지역 보건 프로그램은 보건 분소(health hut)를 통해 이루어지며, USAID는 1982년 세네갈에서 최초의 마을 기반 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3천개 이상의 분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resident’s Malaria Initiative)를 통해 세네갈 전역에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을 9백만 개 이상 제공하여 말라리아 감염률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2012년에는 지역 보건요원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신생아 치료 및 출산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보건 요원들은 11,500명의 신생아를 간호하고, 산후 관리를 위해 20,475명의 산모를 방문하였다.

<표 3-17> USAID의 세네갈 지역 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 특징	USAID 사업				
	CANAH	CANAH II	CAMAT	PSSC	PSSC II
사업 기간	1998-2002	2002-2006	2003-2006	2006-2011	2011-2016
USAID 재원	CSHGP	CSHGP	Mission	Mission	Mission
세부 분야	MCH	MCH	결핵/말라리아	통합	통합
사업 대상지	2개 지구	3개 지구	4개 지구	13개 지역 65개 지구	14개 지역 71개 지구

사업 특징	USAID 사업				
	CANAH	CANAH II	CAMAT	PSSC	PSSC II
표적인구	137,000명	163,393명	502,035명	3,369,633명 (전체 인구 중 >25%)	9,098,014명 (전체 인구 중 >70%)
보건 분소 및 봉사현장	분소 60개	분소 154개	-	분소 1,620개/ 703개 지역	분소 2,245개/ 1,969개 지역
도출점 및 특징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선정 및 연구, 보건 인력 훈련, 분소 마련	지역 의료 서비스 확장 및 지역 내 보건부 관계자와 협력	결핵, 말라리아, 영양 등 기 제공하였던 보건 서비스 및 지역 확장	기초 지역기반 MCH 표준화 및 국가 차원으로 규모 확대	도시로의 확대 및 제공 서비스 요소 추가, 지역 공동체 및 보건부에 분소 양도

자료: ChildFund. “Senegal Case Study: Scaling Up Community Health Services to the National Level through INGO Partnerships. 2014”. 재구성.

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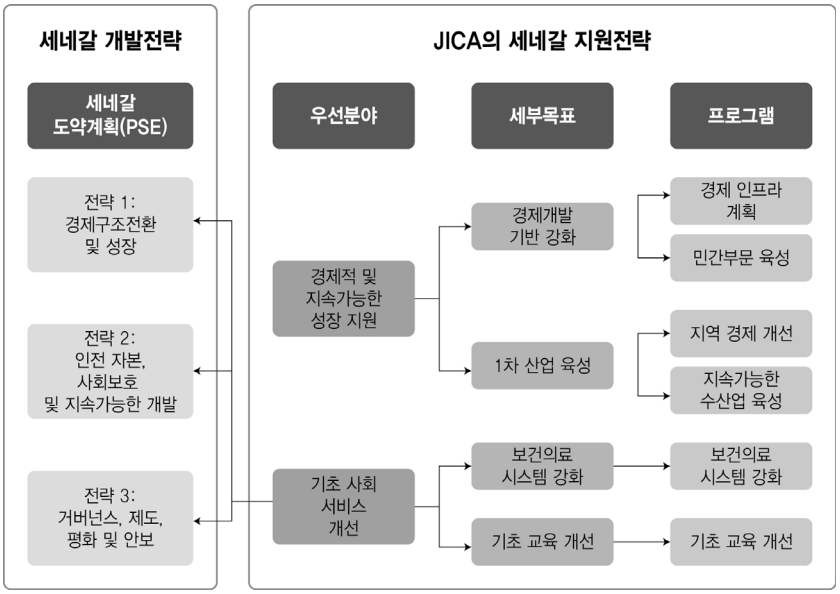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아프리카에 29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네갈 사무소는 세네갈 포함 7개국을 겸임한다. 코트디부아르 내전 이전에는 세네갈 사무소가 6개국을 겸임, 코트디부아르 사무소가 4개국 겸임하는 등 두 사무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네갈 사무소는 불어권 아프리카 내 지원규모 1위, 아프리카 내 지원규모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 사무소는 주변국에 사업 차원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본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였으나, JICA 본부와 일부 역할이 중복되어 현재 지역본부 기능은 많이 줄었다.

JICA 세네갈 사무소는 현재 교육, 보건,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5개 우선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분야별로 교육은 30%, 보건은 20%, 농업은 15% 비중을 두고 있다. 우선분야 중 하나인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프로그램은 최근 코트디부아르로 역내 민간부문 투자가 집중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범분야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1) 지원전략

JICA는 세네갈에서 4개의 전략을 통해 4개의 과제를 달성하여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발”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JICA의 세네갈 지원전략의 상위 목표는 경제 및 사회개발 간 균형 잡힌 원조를 통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성과 성장에의 기여이다. 이와 같은 JICA의 전략은 세네갈의 개발전략과도 일치한다.

[그림 3-6] 세네갈의 목표와 JICA 전략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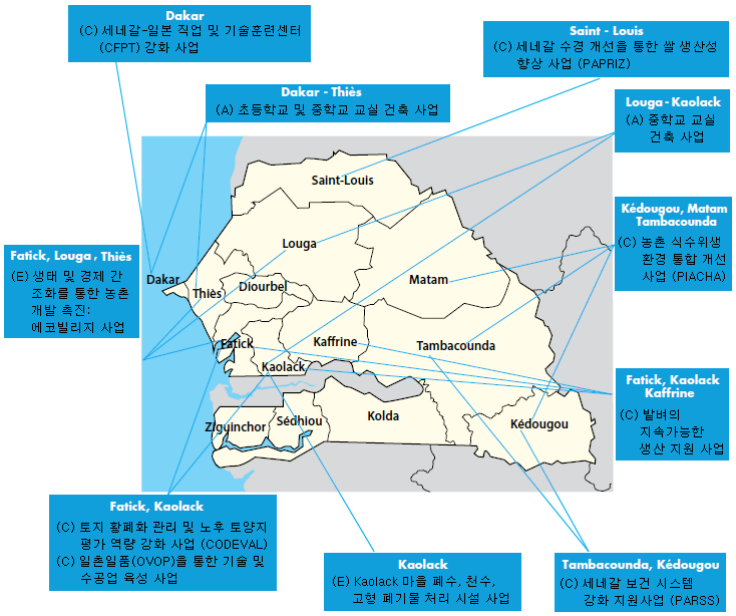


자료: JICA. “JICA au Sénégal”. 재구성

2) 지원 현황

JICA는 세네갈 전 지역에서 기술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PAES 2), 수학·과학·기술교육 사업(PREMST 2), 모자 및 신생아 보건 의료 강화 사업(PRESSMN)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으로 Saint-Louis, Matam, Fatick, Kaolack 지역 불우한 농민을 위한 식량안보 사업(KR 2)을 지원하고 있다. JICA의 주요 프로젝트 대상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 3-7] JICA의 주요 프로젝트 대상지



주: (A) 차환 불가능한 재정적 지원, (C) 기술협력, (E) 개발 관련 연구 및 개발계획을 위한 기술협력
자료: JICA. “JICA au Sénégal”. 재구성

JICA는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에 프랑스어 및 현지어 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선발 시 언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요구하며 언어 교육 보조금을 제공하고, 봉사단은 파견 전 최소 2달 반 동안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파견 후 1주간 프랑스어, 2주간 현지어 교육을 받는다. JICA의 봉사단원은 국가협력전략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및 분야에 도(都) 단위로 배치되며, 전문가는 중앙정부 등에 파견된다. 석사 급 인력은 주니어 전문가로 중앙정부에 파견되며, 이를 통해 세네갈 부처 내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JICA 및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로 세네갈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 50% 이상이 봉사단 출신이며, 사무소 차원에서 시니어 자문관과 봉사단 간 정기모임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경력을 개발토록 장려하므로, 봉사단원 파견 프로그램은 인력개발 센터의 역할을 한다.

JICA는 세네갈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협력관계가 오래되고, 기술협력에 강점이 있는 바,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불어권 아프리카 구급의료대원 대상 교육

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다카르에서 아프리카 15개국을 대상으로 전자 및 기계 분야 직업훈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JICA는 DR콩고에 직업훈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전문가보다 불어권 국가 경험이 많은 세네갈 전문가를 기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사무소 개소 시 기존 사무소의 현지 인력과 일본 직원을 몇 주에서 몇 달 단위로 파견하여 경험을 공유·검토하며 JICA 불어권 아프리카 사무소 간 현지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등도 개최하고 있다.

<표 3-18> J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인력양성사업 개요

사업명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간호사 및 산파 양성학교 교사 역량 강화 2차 연수 (Stage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s Enseignants des Ecoles d'Infirmiers et Sages-femmes des Pays Francophones d'Afrique Phase 2)
사업 기간	2013-2017년(5년)
사업 예산	-
사업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DR콩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토고 등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11개국
수원 기관	다카르 사회보건개발 국립학교(ENDSS)
사업 목적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보건분야 전문 교사 양성
사업 구성요소	기술협력: 간호 및 산파 양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교수법, 품질관리, 실험, 공중보건 등 5개 분야의 교수법 및 기술 이전
기대효과	- 인적자원 문제 해결방안 도출 - 유능한 보건 전문가 양성 - MDG 달성에 기여 - 삼각협력 및 일본-아프리카 협력 도모

주: JICA는 2008-2012년 ECOWAS 회원국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하여 세네갈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ction Sociale) 및 서아프리카 보건기구(Organisation Ouest Africaine de la Santé)와 협력함
자료: JICA. 재구성

라. 벨기에

벨기에개발협력청(Coopération Technique Belge; CTB)은 1968년부터 세네갈과 협력해왔으며, Kaolack, Diourbel, Fatick, Kaffrine 등 극빈지역의 농촌인구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CTB는 특히 식수위생과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TB는 2015년까지 지방의 식수 접근성을 82%까지 높이겠다는 밀레니엄 식수위생 프로그램(PEPAM)에 따라 식수위생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에서의 관정 구축 및 재건과 물 보급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빈곤 지역 의료 서비스를 통해 보건개발국가계획(PNDS)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초 의료 시설 복원, 1차 의료기관 서비스 확장, 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해 3개 지역 주민 2백만 명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 지원전략

CTB는 세네갈 협력지시프로그램(Programme Indicatif de Coopération 2010-2013; PIC)을 통해 국민의 복지 개선 및 소득·사회적 빈곤 감축이라는 상위 목표 하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Thiès, Diourbel, Fatick, Kaffrine, Kaolack 등 5개 지역에서 식수위생 기초 인프라 개선과 보건의료 강화 등을 통한 농촌 인구 건강 개선이라는 세부목표를 두어 특정 지역과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2) 지원 현황

CTB는 세네갈에서 공중보건(40%)과 농촌 식수위생 분야 기초 인프라(36%)를 각각 21백만 유로와 19백만 유로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 포트폴리오 중 5%인 2.5백만 유로를 기타 공여주체에 위탁하여 지원하는데 Lux-Dev와는 직업훈련 사업(2백만 유로), UNDP와는 기후변화대응 사업(50만 유로)을 진행하고 있다. 범분야 사업과 소액금융에 대한 지원은 각각 8백만 유로와 2백만 유로로써 전체 비중은 15%와 4%이다.

<표 3-19> CTB의 세네갈 주요 지원분야

(단위: 백만 유로, %, 2010-2013년)

지원분야	규모	비중
기초 인프라	19	36
농촌 식수위생	19	
보건의료	21	40
의료지역 지원	21	40

지원분야	규모	비중
위탁 지원	2.5	5
여성 직업훈련(Lux-Dev)	0.5	
기후변화 대응(UNDP)	2	
소액금융	2	4
출구전략	2	
범분야	8	15
연구 및 지식 사업	3	
장학금 사업	4	
소규모 사업	1	
전체	52.5	100

자료: CTB. “Programme Indicatif de Coopération 2010-2013”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World Bank

World Bank(세계은행)가 1994년 이래로 세네갈에 지원한 차관액(lending)의 약 25%는 11개의 정책 시행에 투입되었으며, 투자 개혁의 활동에 지원되었다. 특히 세네갈 정부의 민간분야 개발, 농업 분야, 에너지 분야, 무역, 공공 지출 관리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개혁에 직접 투입되었다. World Bank는 총 65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지역과 지역사회의 개발, 보건, 교육, 영양, 민간 분야, 에너지, 물 공급, 교통,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였다. IDA의 프로젝트는 에너지, 강 유역 관리, 투자 법, 메뚜기 박멸(locust eradication), 어업, 비행수단과 안전의 개발 측면에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지원전략

World Bank의 대 세네갈 지원은 국가 원조 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13-2017; CAS)에 따라 이행되며, 다음 4개의 주요 원칙을 통해 굿 거버넌스의 강화는 물론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의 법제화 및 이행을 이루고자 한다.

① 공공 자원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② 공공분야 책무성(accountability)강화
③ 사법 시스템 강화와 현대화
④ 민간 분야 거버넌스를 위한 메커니즘 강화

특히 각종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의 법제화 및 이행에 초점을 두고 세네갈 인구의 47%가 빈곤층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보호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세네갈 지원전략의 주요 전략 축(Pillar)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0> World Bank CPS의 기대효과

전략의 기반	기대효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회복력 강화	① 공공부문의 책임성 개선 ② 지속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③ 도시지역의 배수 및 홍수예방 개선 ④ Casamance 지역민의 취약성 감소
Pillar 1	
성장의 가속화와 고용의 창출	①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개선 ② 중소기업의 재원 접근성 개선 ③ 농업생산성 증대 및 마케팅 개선 ④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⑤ 전기 접근률 개선 ⑥ 도시지역 내, 도시 간 유동성 개선 ⑦ 노동인력의 기술 개선
Pillar 2	
서비스 제공 개선	① 교육의 질과 형평성 제고 ② 의료서비스 개선 ③ 사회보호망 접근성 개선 ④ 식수 및 위생서비스 접근성 개선

자료: World Bank. 2013. “Country Partnership Strategy(FY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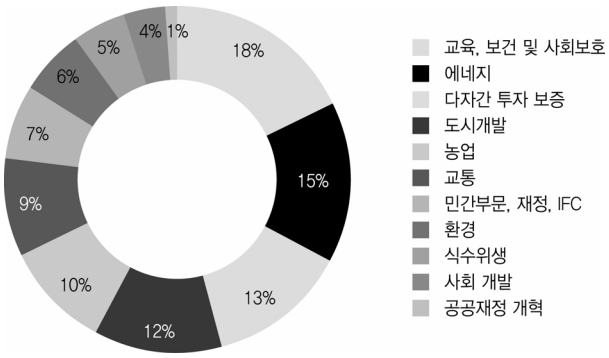
2) 지원 현황

World Bank는 세네갈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12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요 지원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현재 20개의 프로젝트가 농업, 농촌개발, 인프라, 환경, 교통, 인구/보건/영양, 사회적 보호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 정책 개혁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 성장방해 요소와 최근의 개혁 지원은 민간분야 개발과 인적자원개발에 관련
- 굿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IDA의 프로젝트가 이행
- 능력 배양과 사회적 서비스 개발
- 성 평등, 지역 불평등 균형 맞추기 같은 서비스 질 향상
- 교육 보건 서비스, 영양, 기초 인프라에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

World Bank의 2013년 세네갈에 대한 총 지원 중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에너지가 15%, 다자간 투자 보증(MIGA)이 13%로써 세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World Bank는 동년 기준 프로젝트 17건(국가 프로젝트 14건, 지역 프로젝트 3건, 무상원조 8건)을 진행하여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림 3-8] World Bank의 세네갈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 World Bank. “Une Vision pour un Sénégal émergent”

<표 3-21> World Bank의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Commitment)

분야	프로젝트	예산
농업	Senegal Sustainable and Inclusive Agribusiness Project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개발 사업; PDIDAS)	80
	Casamance Development Pole Project (Casamance의 개발축 프로젝트)	40
	Agricultural Markets and Agribusiness Development Project (농산물 무역 및 농산업개발 프로젝트)	60

분야	프로젝트	예산
	Community-base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ject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토지 운영 프로젝트)	6
교육	Senegal Quality and Equity of Basic Education (기초교육의 질적 개선 및 공평성 향상 프로젝트)	20
	Senegal Tertiary Education Governance and Financing for Results (고등교육 거버넌스 강화 프로젝트)	127
보건	Senegal Health and Social Financing (보건과 사회투자기금)	40
	Water and Sanitation Millennium Project (새천년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	55
공공 행정	Senegal Safety Net Operation (사회안전망 운영 프로젝트)	40.5
	Senegal Economic Governance Project (경제거버넌스 프로젝트)	8
에너지	Second Sustainable and Participatory Energy Management (PROGEDE II)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 II)	15
인프라	Transport & Urban Mobility Project (도시 교통 개선 프로젝트)	55
	Senegal Banda Gas to Power Guarantee (Banda 가스 생산 및 동력전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99
기타	Community Peacebuilding Initiatives in Casamance (Casamance의 평화재건 프로젝트)	3

자료: World Bank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개발 사업(PDIDAS)

World Bank는 포괄적인 농산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West Africa Farms의 비즈니스 모델[86]을 차용하였다. World Bank는 19억 CFA를 투자하여 관개 인프라 개발과 수자원 관리를 통한 기술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지역에 8-10m 운하 100개를 구축하고 Guiers 호수 5천 ha를 포함하여 총 만 ha를 관리할 계획이다.

86) 영국 기업 소유의 West Africa Farms는 세네갈 북부에 있는 3백 ha 규모의 농장이며, 인근 호수에서 운하 700여개로 물을 가져다 사용하여, 물 10만m^3, 토양 10만m^3를 관리하고 있다. 농장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은 유럽 및 아시아에 수출된다. West Africa Farms는 지역 주민에게 관개수를 공유하여 물과 현대식 기계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또한 6천만 CFA를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사회적 조건 개선에도 힘썼다.

World Bank는 PDIDAS를 통해 천 명이 소속된 마을 농민협회와 협력하여 소작농과 지역 주민에게 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채류 5천 톤 생산을 목표로 연간 1억 2,000만 달러 가치의 상업적 농산품을 생산하고, 일자리 9,500개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사업지 내 6개의 농업지가 있으며, 고구마, 카사바, 양파, 토마토, 가지, 수박, 피망, 감자 등을 생산하고(생산규모 순), 쌀 생산 잠재력을 실험할 예정이다.

PDIDAS는 민간 부문이 이끌고 있으나 지역과 공동체 리더(chief)로 구성되었으며, World Bank는 세네갈의 오랜 개발과제 중 하나인 토지 관리 개혁을 위하여 소작농의 토지이용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토지 귀속 사례를 수립할 방침이다.

<표 3-22> World Bank의 PDIDAS 사업 개요

사업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개발 사업(Projet de Développement Inclusif et Durable de l'Agribusiness au Sénégal)
사업 기간	2013.12-2019.12(6년)
사업 예산	8,600만 달러(WB 8,000만 달러 / 지구환경기금(GEF) 600만 달러)
사업지	세네갈 북서부 Saint-Louis와 Louga 9개 농촌 지역 (Ngnith, Diama, Ronkh, Mbane Fass Ngom, Ndiebène, Gandiole, Gandon, Keur Sarr, Syer)
수원 기관	농업농촌시설부(SAED)
사업 목적	상업적 농업 및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개발
사업 구성요소	- 민간 투자를 보장하여 공평한 토지 귀속 사례 개발 - 1만 ha의 새로운 관개면적을 이용한 생산 역량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업 및 가치사슬 개발에 소농을 통합 - 소농과 대규모 투자자 간 이해관계자를 지원하여 수익 창출 - 지속가능한 농촌지 관리 및 천연 자원 보존
기대효과	- 연간 1억2,000만 달러 가치의 상업적 농업 생산 - 9,500개 일자리 창출(이 중 6천개는 여성의 일자리) - Ngalam 유역 및 Guiers 호수 지역 내 농업생산 위한 1만ha 토지 개발

자료: World Bank. 재구성

직업 및 경쟁력을 위한 역량강화(TVET) 사업

World Bank는 AFD와 협력하여 원예, 양계, 관광 분야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TVET) 시스템 강화를 위해 종합 및 지역 센터를 구축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시설을 구비 및 재건하고, 프로그램 개혁 및 신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와 관리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관리툴 적용 방안을 개발할 예정

이다. 또한 다양한 졸업 자격증을 지원하여 청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을 도울 방안이다.

특히 World Bank는 AFD의 TVET 분야 전문성[87]과 기타 공여주체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지역 센터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훈련센터, 공립전문기술학교, 민간 기관 및 기타 기관과도 학력 향상 계약을 맺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해 Fonds Unique라는 체계를 두어 품질 검증과 훈련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표 3-23> World Bank의 TVET 사업 개요

사업명	직업 및 경쟁력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Projet d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pour l'Emploi et la Compétitivité au Sénégal)
사업 기간	2015.12-2019.08(6년)
사업 예산	76.50백만 달러(IDA 35백만 달러 / 세네갈 25백만 달러 / AFD 16.50백만 달러)
사업지	- 원예(종합센터: Louga, Tambacounda) - 양계(종합센터: Mbao, 지역센터: Dakar, Sédhiou, Bambey, Saint-Louis) - 관광(종합센터: Diamniadio, 지역센터: Saint-Louis, Ziguinchor, Dakar)
수원 기관	직업학습공예부(Ministè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 l'Apprentissage et de l'Artisanat)
사업 목적	- 원예, 양계, 관광 부문 직업기술 교육 및 훈련(TVET) 시스템 강화를 통한 해당 산업 청년 취직능력 향상
사업 구성요소	- 직업훈련의 질 및 적절성 향상 - TVET 부문 금융제도 개혁 - 시스템 관리, M&E, 사업관리 지원
기대효과	- 기술학교(Lycée Technique)가 제공하는 훈련의 질 향상 및 기술학교의 기술 및 과학교육 센터로서의 기능 향상 - 중등 직업학교 졸업(CAP), 인문기술고등학교 졸업(BT), 전문기술고등대학 졸업(BTS) 자격 보유 노동인력 제공을 통한 원예, 양계, 관광 분야 경쟁력 지속 -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 및 중고등교육 졸업자에게 노동시장 진출 기회 제공 - TVET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및 재정 계획 수립

자료: World Bank. 재구성

87) AFD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2000년대부터 TVET 분야를 지원해왔으며, 세네갈에서는 훈련과 청년고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5-2013년 동안 20.25백만 유로를 지원하였다.(World Bank. 2014)

나. European Union

1) 지원전략

10차 유럽개발기금

세네갈은 10차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2008-2013년)을 통해 2억 17백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무역 및 지역통합과 위생 분야 등 두 분야에 중점 지원되었다. 10차 유럽개발기금은 특히 DRSP II와 SCA의 이행을 위해 빈곤발생률 감소, 기초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완화, 취약계층 보호, 굿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장려 등을 목표로 두었다. 이 중 31%는 예산지원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같은 기간 식품가격 상승과 수출 이익 불안정으로 인한 역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3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또한 물, 에너지, 환경, 식량 안보, 평화와 안보 및 시민사회와 지방 당국 지원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6,000만 유로에 이르렀다.

11차 유럽개발기금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및 카리브, 태평양 지역 국가에 2014-2020년간 지원되는 11차 유럽개발기금의 일환으로 3억 4,700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유럽연합 대표부와 세네갈 경제재정부는 2014년 9월 15일 11차 유럽개발기금의 국가지시프로그램(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NIP)을 위한 신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NIP 1단계에 대한 협정이며, 2014-2017년 기간 동안 2억 유로가 지원되어 세네갈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NIP 2단계는 2018-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금액 147백만 유로는 세네갈의 새로운 개발전략에 맞추어 2016-2017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NIP 1단계는 세네갈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규정된 ①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②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개발, ③식수위생 등 세 가지 우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는 1단계 예산인 2억 유로를 세 분야에 각각 20백만 유로(10%), 105백만 유로(52.5%), 65백만 유로(32.5%)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지원 및 기타 지원에 각각 5백만 유로(2.5%)를 지원할 예정이다.

2) 지원 현황

주요 지원 사업

EU는 2000-2013년 동안 서아프리카 지역 연안을 따라 400km에 달하는 도로의 재건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세네갈 2번국도(Route Nationale 2) 중 116km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건되어 Saint-Louis와 Rosso 등 북부도시가 연결되었다. 또한 65km의 지방도로와 30km의 도시 도로가 복원됨에 따라 Saint-Louis와 Richard-Toll의 혼잡도가 완화되었다.

EU는 10차 EDF에서 농업이 중점 분야가 아니었으나 종자 관리를 지원하였고, 20-30년 전 6차 EDF를 통해 세네갈 강 양쪽에서 포도르 지역 사업을 진행하는 등 농업 분야를 꾸준히 지원하였다. 또한 현재 Nbour, Richard-Toll, Baké, Diourbel 등에서 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AfDB와는 Ziguinchor, JICA와는 Kaolack에서 유럽투자은행(EIB)과의 협력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표 3-24> EU 예산 내 회원국의 분야별 기여 현황

(단위: 백만 유로)

분야	BE '10-'13	DE '12-'15	ES '14-'17	FR '14-'17	IT '14-'16	LU '12-'16	NL '12-'14	FED '14-'17	BEI '14-'17	총계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11.0	-	33.0	75.0	18.0	-	-	90.0	30.0	257.0
경제개발	-	3.7	-	10.0	10.0	-	-	-	-	23.7
인프라 및 교통	-	-	-	80.0	-	-	-	-	70.0	150.0
에너지	-	39.5	-	120.0	-	-	-	15.0	69.0	243.5
보건	16.6	-	-	33.6	-	19.7	-	-	-	69.9
교육 및 직업훈련	2.0	-	-	36.3	-	28.4	-	-	-	66.7
식수위생	9.5	-	-	100.0	-	7.1	-	65.0	60.0	241.6
사회보호	4.4	-	-	-	11.0	-	-	-	-	15.4
분권화 및 지역개발	0.5	11.6	5.0	6.1	-	11.0	-	-	-	34.2
경제 및 민주 거버넌스	-	2.0	12.0	4.6	-	-	-	20.0	-	38.6
젠더	-	-	-	-	6.0	-	-	-	-	6.0
범분야	-	-	-	-	-	-	-	-	-	0.0

분야	BE '10-'13	DE '12-'15	ES '14-'17	FR '14-'17	IT '14-'16	LU '12-'16	NL '12-'14	FED '14-'17	BEI '14-'17	총계
시민사회	-	-	-	8.2	-	-	-	5.0	-	13.2
환경	-	-	-	4.6	-	-	13.0	-	-	17.6
기타	-	-	-	4.0	-	1.7	-	5.0	-	19.4
책정	52.5	57.0	50.0	482.4	45.0	67.9	13.0	200.0	229.0	1196.8

주: 순서대로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유럽연합, 유럽투자은행

자료: Union Européenn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14-2017(première phase)

<표 3-25> EU의 분야별 지원 내용

분야	지원 내용
농업	- 전략적 가치사슬 개발과 생산에 중점 - 위기 예방 및 대응 시스템과 연계하여 식량 안보와 영양 지원
식수위생	- 수도 다카르를 제외한 중소 도시에서 위생 사업 진행 - Tambacounda, Sédhiou, Kolda 등 남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 35-47개 구축 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완화 예정(27백만 유로) - 다카르에서는 유럽투자은행과 급수 설비 지원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 -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PEPAM에 협력 제안

자료: 현지조사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U는 독립 프로젝트 사업과 예산 지원을 모두 시행하나, 예산 지원을 현재 55% 수준에서 증대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지원이 인적 역량개발과 주인의식 도모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패가 적기 때문이라 밝혔다. 특히 인프라나 대규모 사업이 아닌 농업 등의 주요 분야 사업에서는 예산 지원 방침을 통해 섹터 평가, 중기 예산 계획 등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감안하여 추진 중에 있다.

EU가 제공하는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굿거버넌스 및 개발 계약(Good Governance and Development Contracts; GGDCs), 섹터 개혁 계약(Sector Reform Contracts; SRCs), 국가형성 계약(State Building Contracts; SBCs) 등 세 가지 형태이며, 특히 GGDC를 통해 국가 개발 정책 또는 개혁 전략을 지원하고, SRC를 통해 섹터 개혁과 서비스 제공 개선을 지원하며, 취약한 시기 또는 전환기를 돕기 위해 SBC를 지원한다.

EU의 모든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공공정책(국가와 섹터 전략 및 개혁), 안정적인 거시 경제적 프레임워크, 공공재정 관리, 예산 투명성 및 감독 등 4가지 부문을 평가,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의 연장을 결정한다.

<표 3-26> EU의 예산 지원 선정 및 평가 기준

구분	형성 단계	이행 단계
공공정책	빈곤 감축,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확실하고 타당한 국가 및 섹터 개발 전략이 있음	공공정책 및 전략 이행에서의 만족할만한 진전이 있으며 해당 전략 또는 후속 전략의 신빙성과 타당성이 지속됨
거시경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회복 또는 유지할만한 확실하고 타당한 프로그램이 있음	안정지향적인 확실하고 타당한 거시경제정책이 유지되거나 주요 경제수지 회복에서 차도가 있음
공공재정관리	공공재정관리를 개선하는 확실하고 타당한 프로그램이 있음	공공재정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이행에서 만족할만한 차도가 있음
예산 투명성	이전 또는 현 예산주기에서 예산 집행안 또는 제정안을 공포함	이용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포괄적이고 유효한 예산 정보 제공에 만족할만한 차도가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 Tools and Methods Series Working Document. “Budget Support Guidelines: Programming, Design and Management - A modern approach to Budget Support.”

최근 AFD, GIZ 등 EU 회원국 기관 간 협업이 늘고 있으며, EU는 이외에도 UNDP, UN Women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유럽권 공여국과의 협력 전례는 없으나, USAID와 운송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한 경험이 있다. EU는 2015년 3월 현재 공공재정(PFM) 작업그룹과 농업 및 식량안보 작업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다.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는 1972년부터 세네갈과 협력하였으며, 다분야에 걸쳐 총 66건의 사업에 대해 11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중 인프라 사업은 39.4%로 타 분야(사회 분야 21.3%, 지방 사업 18.7%)에 비해 지원 비율이 가장 높다. AfDB는 민간 부문에서도 4개 사업을 지원하여 2억 48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AfDB 세네갈 사무소는 세네갈을 포함하여 4개국을 겸임하며, 인프라, 거버넌스, 식수위생(PEPAM), 농촌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88] 또한 경제재정기획부 및 정부 유관부처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하여 모든 사업의 이슈를 논의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경제재정기획부 장관과는 연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세네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fDB는 나아가 다양한 공여주체와도 협력하여 서아프리카금융회사(Compagnie Bancaire de l'Afrique Occidentale; CBAO), JICA, 서아프리카 개발은행 등과 도로와 다리 건설을 지원 중이다. 또한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구축사업 협력을 위해 KOICA에도 PCP를 송부하였으며, 현재 대학 본부 1개와 지역 ENO 5개를 개설 중이므로 KOICA에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1) 지원전략

AfDB의 세네갈 2010-2015년 국가전략지침서(Country Strategy Paper; CSP)는 ①세계적인 경제 환경 조성, ②인프라 개발, ③가속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SP의 첫 번째 원칙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다각화 지원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AfDB는 경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삼고, 예산 지원 사업과 체제 구축을 지원하여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개선과 저조한 민간 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제약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 창구의 자원을 동원해 원예, 관광, 광업 등 경제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 및 지역 인프라 강화이며, 주목적은 교통, 에너지, 물과 위생 부분에서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fDB와 세네갈 정부는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SNDES 2013-2017)과 2012년 9월 10일 공표된 총리의 정책성명에 따라 2012-2015년 기간의 원칙을 조정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2015년 국가전략지침서 중간평가를 통해 포괄적 녹색 성장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으며, 수정된 주요 원칙은 ①경제 다각화와 지역 통합을 통한 포괄적 성장 지원과 ②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과 복원력의 지속가능한 관리이다. 또한 세네갈은 AfDB의 포괄적 및 녹색 성장과 고용 계획 시범국가로 선정되었다. AfDB는

88) 농촌 개발 분야에서는 PADERCA, PAPIL, PNDL 등의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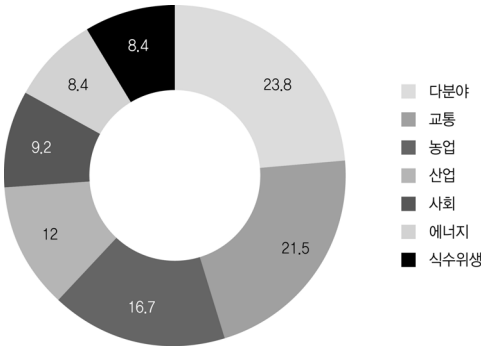
2015년 중 현 국가전략지침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6-2021년 전략에서도 AfDB 장기 전략(2013-2022년)을 참고하여 인프라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2) 지원 현황

세네갈에서 AfDB의 사업은 이는 다분야(23.8%), 교통(21.5%), 농업(16.7%)에 주로 지원되었는데, 2014년도 사업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인프라가 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식수위생(20%), 범분야(11%), 사회분야(9%)로 식수 위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Louga, Matam, Kaffrine 지역 식량안보 지원 사업(2013-2018)'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림 3-9] AfDB의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1972-2013년)



자료: AfDB "Un Aperçu des Interventions du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au Sénégal"

<표 3-27> AfDB의 분야별 지원 내용

분야	지원 내용
농업농촌	식량 및 영양 강화 사업(최근 승인되어 이후 20년 간 진행될 예정)
인프라	- Dakar-Diamniadio 도로, Blaise Diagne 신공항 등을 민관협력으로 지원 - 다카르 항과 발전소 지원 - 감비아강 수력발전소 담당부처인 OMVG와 협력하여 발전소 건립
식수위생	1차 PEPAM(5년), 2차 PEPAM(6년) 사업 완료하여 3차 PEPAM 진행

자료: 현지조사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3-28> AfDB의 2014년 세네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UC, %)

분야	프로젝트	예산	지출	지출률
농업 농촌	소규모 관개 지원 사업(PAPIL II 2011-2014)	8.40	7.15	85.1
	까사망스 개발 지원 사업(PADERCA 2005-2014)	20.00	17.78	88.9
	국가농촌개발프로그램 지원 사업 (PPC/PNDL 2013-2018)	15.00	0.20	1.4
	Guiers강 복원 사업(PREFELAG 2013-2018) - FAD	15.00	0.22	1.5
	- GEF	0.88	0	0
	Louga, Matam, Kaffrine 지역 식량안보 지원 사업 (2013-2018)	2.00	0.05	2.7
	- FAD - GAFSP	26.83	1.09	4.1
	소계	88.11	26.51	30.1
인프라	농촌 전화(Electrification) 지원 사업(2004-2015)	9.58	4.28	44.6
	Dakar-Diamniadio COMP 고속도로 건립 사업 (2009-2014)	45.00	43.59	96.8
	Dinguiraye-Nioro-Keur-Ayib 도로 건립 사업 (2014-2018)	23.77	0	0
	소계	78.35	47.86	61.1
식수 위생	농촌지역 식수위생 사업(PEPAM II 2009-2015)	30.00	24.70	82.3
	Ziguinchor 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및 복원 (FAE 2013-2016)	1.08	0.30	28.7
	식수위생 분야 지원 사업(2014-2018) - FAD	20.00	0	0
	- RWSSI	5.12	0	0
	소계	56.20	25.01	44.5
사회	청소년 및 여성 고용 지원 사업(PAPEJF 2013-2019)	21.19	0.21	0.9
	사이버대학 지원 사업(PAUVS 2013-2017)	3.38	0.08	2.2
	소계	24.57	0.29	1.1
범분야	포괄적 성장 및 경제 경쟁력 지원 사업(PACICE 2013-2014)	25.54	25.54	100
	민간부문 진흥 지원 사업(PAPSP 2012-2016)	4.04	0.79	19.5
	소계	29.58	26.32	89
총합		276.81	125.99	45.5

주: GEF는 Global Environment Fund, GAFSP는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RWSSI는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itiative

자료: AfDB. 2014. “Sénégal-Projet nationaux publics actifs au 30 septembre”

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1999년부터 세네갈을 지원하였으며 빈곤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빈곤 감축 및 부의 창출과 거버넌스 강화 및 참여적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1) 지원전략

UNDP는 2012년 수립된 2012-2016년 세네갈 국가전략실행계획(Plan d'Action du Programme Pays; PAPP) 하에 다음과 같은 우선 분야를 두고 있으며, 현재 승인된 예산은 13.5백만 달러이다.

① MDG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GPAO)
② 경제·사회개발 강화(PRODES)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PRODAC)

PAPP 전체 프로그램 이행에는 53,063,376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경제·사회개발은 46%(24,333,598달러), 거버넌스 개선은 35%(18,684,278달러), 기후변화 대응은 19%(10,045,500달러)이다. UNDP는 모든 프로그램에 젠더 평등, HIV/AIDS, 인권 등 범분야를 체계적으로 접목시킨다.

2) 지원 현황

UNDP 세네갈사무소는 공여주체들로부터 2012년 기준 12,724,000달러를 받았으며, 세네갈에 동년 9,925,000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주요 재원은 EU,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GEF, CTB, LuxDev, JICA이다.

마.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1) 지원전략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1977년부터 세네갈과 협력 관계를 맺어 농업생산 현대화, 수자원 관리, 불모지 복구, 천연자원 관리 및 복원, 제도적 지원, 여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 재난 위험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왔다.

FAO는 세네갈 경제재정기획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Cadre de Programmation par Pays 2013-2017; CPP)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다.

① 식량안보 거버넌스 강화 및 농산품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② 천연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③ 식량 및 영양 위기에 대비한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한 복원력 생성

CPP의 우선 분야는 ①PRACAS와 PSE의 우선순위, ②FAO의 서아프리카 2010-2015년 전략의 우선순위, ③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워크(UNDAF) 2012-2016년 우선순위, ④MDG와 일치하며, 특히 농업농촌 발전, 식량 안보와 관련한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범분야로서 젠더 기반 접근법, 청년 고용 촉진, 모니터링 및 결과중심 평가 등을 다루고 있다. CPP의 총 예산은 약 1억 1,865만 달러(5,932만 CFA)이다.

2) 지원 현황

FAO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빈곤 감축과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202건을 진행하여 총 118,825,184달러를 지원하였다. 사업 개수별로는 농업이 1위, 축산업이 2위, 환경이 3위, 해양수산이 4위이며, 사업 규모별로는 농업이 1위, 환경이 2위, 해양수산이 3위, 축산업이 4위이다. 전체 예산 중 50%는 농업에 지원되었으며, 환경에는 48%, 축산업과 해양수산에는 각각 1%가 지원되었다. 분야별 상세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29> FAO의 세네갈 지원 현황

(단위: 건, 달러)

분야	사업 개수	사업 규모
농업	136	59,025,461
축산업	31	875,109
환경	24	57,295,254
해양수산	11	1,629,360
전체	202	118,825,184

자료: FAOSTAT

FAO는 또한 참여형 접근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① 농업 분야 대화 창구(Fenêtre sur l'agriculture): FAO는 2014년 9월부터 농업 및 식량안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비공식적인 분야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의는 2-3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세네갈의 협력국, UN기관, 시민사회, 연구소, 농민협회, 언론,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가 모여 현재까지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복원력 및 복지, 청년 고용과 농업, 창고증권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② 남남협력: 세네갈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전문가 및 기술인 22인과 Kaolack, Louga, Saint-Louis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중국의 사회 개발 정책과 실행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식량안보, 농산품 가공시설 및 농업 전반에 있어서의 중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였다.

③ 브라질의 가정안보 보조금: 세네갈 정부는 가정의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키 위해 사회보호 정책을 수립하기로 공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소득 이전(social transfer)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사회보호, 식량안보, 영양 분야에서의 표적인구 구분법 등을 포함하여 브라질의 조건적 현금 이전 프로그램인 Bolsa Familia 이행 경험을 전수받았다.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가. 수원총괄부처와 프로젝트 점검회의 정례화

세네갈의 수원총괄기관은 경제재정기획부(MEFP)이며, 봉사단 및 연수생 파견 등 기술협력 담당 총괄기관은 대통령실 산하 기술협력국(DCT)이다. 각 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는 바, 사업구상 초기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공여기관과 수원부처 간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두 부처와 현지면담 과정에서 KOICA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우선 경제재정기획부의 경우, 분기별 정례회의 외에 정기적인 Project Progress Review Session을 제안하였다. 현재 해당부처는 JICA, AfDB 등 주요 양자 또는 다자기관들과 분기별 이슈점검 회의와 연례 성과평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바, KOICA와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분기별 이슈점검 회의는 MEFP가 좌장 역할을 수행하되, 진행되고 있는 원조사업 관련 수원부처 별 focal point가 참석하여 프로젝트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연례 성과평가회의는 MEFP 장관을 모시고 연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수원국의 피드백을 청취하는 자리이다.

기술협력국(DCT)의 경우, 초청연수/중장기자문단 파견/봉사단파견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역시 해당 인력의 파견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원부처와 함께 추진성과 등의 공유를 희망하였다. 이를 통해 KOICA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수원국 정부 내 상급 기관에 보고됨은 물론, 정부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공여기관별 특징을 고려한 협력기관 모색

세네갈에는 50여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이 활동 중이며, 그 중 AFD, USAID, JICA, World Bank, EU, AfDB 등이 주된 공여기관이다. 대부분의 방문기관에서 KOICA와의 협력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기관별 협력가능 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0> 주요 공여주체별 특징

공여주체	특징
공여국	
AFD	- 농업(포도르), 고등교육(ISEP), 보건(모자보건) 관련 협력기회 존재 - 한국의 분야별 작업그룹 미팅에 적극적인 참여 권고
USAID	- 최근 일부 부처와 Direct Reimbursement 형태의 지원 추진
JICA	- 세네갈 사무소가 불어권 아프리카 사무소들의 역량강화 담당 - 현지 체류인력 및 전문가의 50% 이상이 봉사단 출신 - 사업예산 확대와 불어/현지어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의 공급능력 확대 - 석사급 주니어 컨설턴트의 세네갈 중앙부처 파견을 통한 협력기반 강화 및 개발컨설턴트 육성
공여기관	
WB	- 향후 세네갈의 발전전망을 비관적으로 진단 - 농업(PDIDAS) 및 고등교육/직훈(ISEP) 관련 협력가능성 존재
EU	- 향후 예산지원 확대 추진 예정 - Multi-village 식수관정 50개 진행 예정 - 한국의 산업화 및 개발경험의 적극적인 공유와 전수를 권장
AfDB	- 사이버대학(UVS) 관련 Lead donor - 경제재정기획부 및 부처별 focal point와의 분기별 이슈점검 회의 진행 - 연례적으로 경제재정기획부 장관과 성과평가 회의 진행
FAO	- 참여형 접근법을 활용한 농업 분야 회의 개최 및 남남협력 진행

자료: 연구진 작성

다. Donor Coordination 참여 확대

세네갈에는 50여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이 활동 중이며, 그 중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과 22개에 달하는 분야별 작업그룹이 운영 중이다. 방문기관 대부분에서 공여기관 간 협력사업(Multi/bi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분야 Working Group에의 정기적 참여를 권고하였고, 특히 교육,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식수위생보건(WASH) 등의 분야별 작업그룹은 활성화 되어 있는 바, KOICA에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한-세네갈 협력현황

가. 양자관계 개요

세네갈은 한국과 1962년 10월 19일 수교하였으며 무역협정(1976년), 문화협정(1980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0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1985년) 체결 이후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개발협력과 관련해서도 청년봉사단 파견 각서(1997년)와 EDCF 차관협정(2008년)을 맺었다.[89]

한국과의 무역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져 양국 간 교역액이 2011년 8,400만 달러 규모에서 2013년 1억 3,700만 달러로 63%가량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정밀화학 원료, 표면활성제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어류, 수산가공품 및 연제품이다. 또한 삼성전자, 동원산업, 거광수산 등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2013년 기준 세네갈 내 한국 교민은 300여명이다.

<표 3-31>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62. 10. 19. 수교(북한과는 1972. 9. 11 수교)			
주요협정체결	경제기술협력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08)			
무역현황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백만 달러)	63	57	75	자동차, 정밀화학 원료, 표면활성제
수입(백만 달러)	21	40	62	어류, 수산가공품, 연제품
투자현황	2011	2012	2013	2013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1	_	11
천 달러	20	4,857	_	5,9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89)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 KOICA의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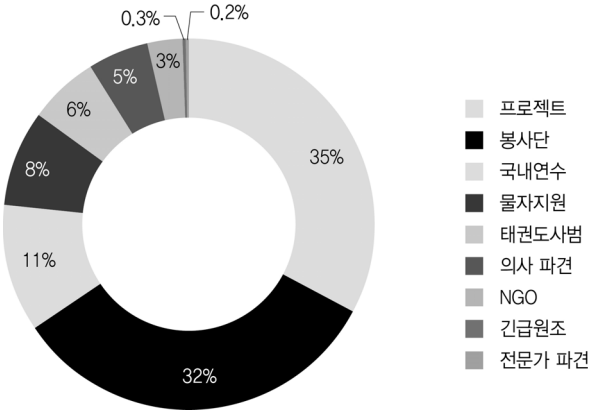
가. KOICA 대 세네갈 지원현황

KOICA는 2008년 개소 시 초청연수와 봉사단 파견에 주력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2건의 사업, 2014년 중 농업 사업 2건을 진행하였다. 2015년 중에는 직업훈련 학교 건립과 식수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협력분야는 농업농촌개발, 교육, 보건(식수위생), 수산, ICT 등이다.

KOICA는 세네갈 MDG 달성을 위한 기초사회 및 인프라 분야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1991-2013년간 지원 실적은 총 3,164만 달러이며 2007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9년-2012년까지 KOICA의 대 세네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0] KOICA의 세네갈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2009-2012년)



자료: KOICA 자료. 연구진 재구성

나. KOICA 주요 사업

1) 중점 분야 및 지원현황

KOICA의 세네갈에 대한 2013년 기준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2> KOICA의 2013년 세네갈 지원 현황

사업유형	사업명	인원	'13 예산
프로젝트	세네갈 식수개발사업(2010-2014/550만불)	-	1,722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2011-2014/490만불)	-	949
민관협력	세네갈 티에스 기초교육 개선 사업(2013-2015)	-	100
해외봉사단	세네갈 해외봉사단 파견	50	2,136
글로벌 연수	OAPI 지식재산제도교육	3	24.3
	의약품 안전(아프리카)	2	16.2
	개발협력정책(아프리카)	1	8.1
	양성평등정책	2	16.2
	무역진흥(아프리카)	5	40.5
국별연수	세네갈 관개 및 농업용 수자원 개발	15	130
	세네갈 교육인적자원양성	15	130
합계		93	5,272.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4. 「세네갈 가이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4년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분야 4개의 프로젝트형 사업이 있으며, 약 60여명의 해외봉사단파견과 약 5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가 있다.

<표 3-33> KOICA의 2014년 지원 대상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만 달러)	비고
교육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2011-2014/4년	490	계속
보건의료	식수개발사업	2010-2014/5년	550	계속
농촌개발	글로벌 새마을-농업생산성 증대사업	2014-2017/4년	300	신규
	글로벌 새마을-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2014-2017/4년	300	신규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4. 「세네갈 가이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다. 분야별 협력현황

1) 교육 분야

KOICA는 교육 분야에서 기존에 3개 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고등교육 분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등교육부가 제안한 사이버대학(UVS)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학습관(ENO), 교사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 ICT를 접목하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직업전문대학(ISEP) 사업

세네갈은 다카르에서 30km 떨어진 Diamniadio 신도시에 Knowledge City를 개발 중이며, 해당 지역에 과학 및 기술 분야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9일 Thiès에서 World Bank가 지원한 제1호 직업전문대학(Institut Supérieur d'Enseignement Professionnelle; ISEP)를 개소하였으며, KOICA에는 2개 공과(ICT, 자동차)의 6개 과정으로 40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기관을 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원토록 제안하였다. 정부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14개의 ISEP 건립과 학생 3천명 육성이며, 총 15개 과정 중 KOICA가 6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추후 multi/bi 협력을 통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어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하여 World Bank는 1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구축사업

세네갈 정부는 2012년 교육 접근성 향상 및 ICT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대학(Université Virtuelle du Sénégal; UVS) 지역학습관(Espaces Numériques Ouverts; ENO)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2개 층의 건물에 컴퓨터 약 200개를 두어 인터넷 연결을 활성화하여 e-learning을 장려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 7천명을 대상으로 ENO 11개를 운영하며, 세네갈 전역에 총 50개의 ENO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다카르 Super ENO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전문대학도 포함될 예정이며, 사이버대학 개발을 위한 전문가도 파견 예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AfDB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지원 중이며, 세네갈 정부는 2015년 1월 KOICA와 협의하여 2개의 ENO(Mermoz와 Diamnadio)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KOICA 지원여부는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정부는 9개 ENO 건립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 상태이다.

2) 보건의료 분야

KOICA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식수위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식수개발사업은 1차 사업을 완료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OICA는 또한 2014년 에볼라 대응을 위해 이동식 의료센터에 4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더 멋진 세상(NGO)과 모자보건 사업(220만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세네갈 보건부가 한국대사관에 암센터 건립 사업을 요청한 상태이나, 무상원조 형태로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아 EDCF 등 유상원조 형태로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KOICA 식수위생 2차 사업

KOICA는 2010-2014년 진행한 식수개발사업을 2015-2018년에도 2차 사업으로 이어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세네갈 정부는 한국에 Multi-Village 50개 구축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한 바, 10개 지원 합의가 완료되었다. 2차 사업은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식수 접근성을 우선시하되 세네갈 정부가 위생 및 지역개발과 연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식수용 관정 구축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구조 수립이 가능해지므로 지역기반 식수위생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3) 농업 분야

KOICA는 농업 분야에서 다가나지역 농업생산성 개선 지원사업(2007-2009년/150만 달러), 포도르 관개개발 사업(2008-2010년/180만 달러), 그랑디그뗄렐 관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사업(2009-2010년/150만 달러) 등을 지원하여 쌀·채소·과일 등과 관련한 관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농지 개발 및 인력 양성에 주력해왔다. 상기 3개 사업의 교훈 및 제안사항과 사후관리 또는 후속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34> KOICA 농업사업 평가 요약

구분	다가나지역 지원사업	포도르 관개개발 사업	그랑디그뗄렐 타당성조사
교훈	- 사업지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점 사전 파악 및 해결 필요 - 중요사업지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대상으로 관개시설 개선 - 사업의 홍보효과 미비 - 기술지원 분야 예산 축소 및 하드웨어 지원 확대 필요	- 관련기관 및 수혜자의 협력체계 및 의사소통 - 전문가의 경험 및 지역주민 협조의 중요성 - 농민 소득증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향후 생산-도정-저장 통합 지원 체계 검토 필요	-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지 중심의 기술 적용과 자조자립적인 농민 조직 결성, 적정 공법 적용 및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고려 필요
사후관리 및 후속사업 필요사항	- 논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에 있어 한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활용 가능 - 후속사업으로 소프트웨어적 영농기술 및 농민 조직강화 등 실질적인 지침 및 경험 전수 중요	- 관개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사업효과성 제고 및 유지를 위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 향후 관개사업 추진 시 예산 배분 검토 필요	-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해외 농장 개발을 희망하는 한국 민간 기업 또는 개인 중심 민간 개발 방식이 적정
제안사항	- 종합개발 계획 및 개발 잠재력 수립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 분야 구분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단·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의 사회, 기후, 영농 특성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 사업 면적 대비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 산정 및 확대 필요	- 기본 설계 시 국내 설계인력 투입 포함 및 관개개발 면적에 따른 사업기간 산정 필요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1. 「세네갈 다가나지역 농업생산성개선 지원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세네갈 포도르 관개개발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세네갈 그랑디그뗄렐 관개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기존 농업 사업 3건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관개개발 사업의 구성에 따른 예산 분배 검토, 통합적 지원 계획 검토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가나지역 농업생산성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형 농촌개발 모범사례를 적용하여 생산 및 소득증대, 빈곤퇴치, 인재양성, 생활여건 개선 등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적용토록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90]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016-2021년/850만 달러)은 포도르 강 유역 3개 지역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500 ha 관개개발, 양수시설, 창고 및 농기계 지원 등의 관개 인프라 개선과 주요 농산물 생산성 향상,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위 사업은 포도르 관개개발 사업의 구성과 동일하며, KOICA는 유사 사업(PDIDAS)을 진행 중인 World Bank와 세네갈 내 농업 전반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2015년 4월). 이를 통해 단일 사업 공동수행이 아니라 각 기관의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보완하는 구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세네갈 측은 농지 개발, 관개수로, 시범단지 조성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농업생산성 증대사업(2014-2017년/300만 달러)은 KOPIA에서 기 추진 중인 연구사업과 연계성이 높으며, 내냉성 벼 품종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해 해당 수원기관과 협의 중이다.

4) 수산 분야

KOICA는 수산 분야에서 해수양식장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조사에서 해수양식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전문가 조사단의 심층분석 결과 후보지역 선정과 비용, 현지 관리역량 등의 문제가 드러나 현재 KOICA는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 초청 연수만 진행 중이다.

해수양식장 타당성조사

KOICA는 Sine-Saloum의 서부 해안 대상 해수양식장 구축을 위하여 2009-2010년 중 1.6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해수양식장 타당성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식센터 시설, 기술연수, 양식대상어종 선종 등과 같은 조사를 하였다.

90) 한국국제협력단 농어촌개발팀 자료

글로벌연수(CIAT)

글로벌연수(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는 해양수산부 기술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4-2016년 간 진행되며, 한국 해외어업협력센터(Overseas Fisheries Cooperation Center; OFCC)에 세네갈 관계자 15명이 파견되어 다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2014년 10-11월 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하여 기자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4월에 연수를 진행하였다.

라. KOICA 향후 사업

세네갈에 대한 KOICA의 지원규모는 연간 7백만 달러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8백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KOICA는 기존 지원 방향에 따라 농업 농촌 분야에 주력하고 고등교육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중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과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구축사업 등 2건을 검토 중이다.

<표 3-35> KOICA의 향후 사업 계획

No.	구분	사업명	기간 및 규모	추진단계
1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2011-2014/490만불	준공 및 기술이전
2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2014-2017/300만불	'15 3분기 사업수행자 선정
3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2014-2017/300만불	
4	신규	직업전문대학(ISEP) 설립사업	2015-2019/900만불	'15.3 R/D 체결
5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2015-2018/500만불	'15.2 R/D 체결
6	예비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구축사업	2016-2019/550만불	'15.1 예비조사 실시
7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	2016-2021/850만불	'15.3 예비조사 실시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서아프리카팀 및 세네갈사무소 자료

한편 KOICA 2013년 무상원조사업 수원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세네갈의 종합 만족도 지수는 4.30점이며, 유형별로는 국별 초청 연수생이 4.57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봉사단 활동기관이 4.23점, 수원총괄기관이 4.0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유형 대비 만족도가 낮은 수원총괄기관의 세부항목을 보면 'KOICA 사업목표 달성', '협력국 현

안 문제 해결에 기여',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항목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91]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주요 사업

정부행정망 구축사업(2007년): 차관한도 25.0백만 달러

해상인프라 구축사업(2010년): 차관한도 48.79백만 달러

해양인프라 구축사업(MIEP)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세네갈 해양인프라 구축사업(Projet d'infrastructures et d'équipements maritimes; MIEP)은 Dakar와 남부 Casamance 지역을 연결하는 페리선박 2척과 페리선 접안시설, 냉동창고 등을 건설 및 지원하여 세네갈 소외지역의 경제발전과 지방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표 3-36> EDCF 해양인프라 구축사업 개요

차주	경제재정기획부(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
사업실시기관	해양수산부(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s)
차관 한도	48.8백만 달러(총 사업비: 61백만 달러)
차관 조건	연 0.01%, 상환기간 40년(거치기간 15년 포함)
차관 종류	개발사업차관
사업 범위	- 카페리선 2척(척당 트럭 13대 및 여객 210명 수송) - 항만시설 및 터미널 각 2개 신축 - 냉장/냉동창고 1개동 신축(100톤 저장 용량) - 입찰·구매 관리 및 시공감리 등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업 목적	- 감비아 국가의 영토를 사이로 분리되어 있는 Dakar 지역과 Casamance 지역을 해상수송으로 연결하여 세네갈 남부 낙후지역인 Casamance의 민심제고 및 지역발전 촉진 -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을 위한 중소형 수송선 확보 및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진행단계	'15년 3월 완공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세네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선박 출항식 대통령 행사로 개최」. 재구성

91) 한국국제협력단. 2013.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EDCF는 세네갈 Foundiougne와 Ziguinchor 지역 항 플랫폼과 항로 개선 및 세네갈-감비아 연결고리 구축을 위해 선박 2척을 지원하고, Ziguinchor 지역에 2천 톤 냉동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Foundiougne 부두 및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또한 N'dakhonga 항을 건립하였다. 한국에서 건조된 페리선박 2척(Aguene, Diambogne)은 각 최대 200만 명과 컨테이너 선적 13개를 운송할 수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운항을 시작하여 Dakar 및 Fatick주 Foundiougne 지역과 Casamance 제1도시 Ziguinchor를 연결할 예정이다. 세네갈은 이를 통해 양식업, 수산업 가공 및 냉동 보관시설 등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세네갈의 무역활동의 95% 이상이 해양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경제적으로 항만분야 발전이 긴요한 바, 본 사업을 통해 세네갈 항만운영 및 해양물류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선박 2척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Sine-Saloum 델타지역의 준설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시작할 예정이다.[92]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세네갈 센터는 세네갈 농업연구청(Institut Sénégalais de Recherches Agricoles; ISRA)과 협력하여 쌀, 땅콩, 양파 관련 연구를 지원 중이며,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는 아프리카에 17개 사무소를 두어 아프리카 종합 품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KOPIA는 4,700만 CFA 규모의 '땅콩 재배용 분지 내(총 면적 18,000ha) 고지대용 밭벼 생산량 증대 3개년 사업' 지원에 합의하여 2017년까지 160만 톤 쌀 생산 증산을 목표로 하는 세네갈 농업 정책에 부합하여 다양한 품종 재배, 우수 종자 및 생산기술 보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SRA는 동 사업을 통해 쌀 생산증대 뿐만 아니라 보관·운반 및 가공기술 향상 등, 양질의 쌀을 시장에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우수 양파 종자 보급을 통한 양파생산도 증대시킬 전망이다.[93]

92)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세네갈 경제소식. "EDCF 지원 해양인프라 구축사업(MIEP1) 선박 2척 다카르항 도착"
93)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2012년 수산 ODA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 對세네갈 지원규모는 88,976,000원으로서 '수산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자지원, 워크숍·포럼, 교육·훈련, 기술지원 4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관리선, 복사기 등 전산장비, 카메라, 프로젝터, TV 등의 지원물자를 추진하였으며, 세네갈 수역의 어장 청소 등 연안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 감척선박 1척을 세네갈 측에 공여할 계획이다.[94] 또한 2015년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 방한에서 '한-세네갈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2015년 6월)하여 해양수산 분야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연구협력, 해상감시시스템 구축, 공동사업 개발, 민간부문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95]

<표 3-37> 한-세네갈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 개요

협력 분야	상세 내용
해양수산 분야 협력	해양수산 분야의 정보 및 자료 교환
전문가 교류 등	공무원, 과학자, 연구원, 전문가 교류
협력채널 마련	해양, 수산 및 양식 개발 관련 훈련, 워크숍, 세미나 개최
연구협력 등	해양 및 양식 부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이용
해상인프라 구축	해상교통 관리, 해양오염 및 불법어업(IUU) 방지 관련 해상 감시시스템 구축, 수산연구소 설립 등
민간부문 협력	조업, 양식, 어류가공, 수산물 유동·마케팅, 기타 수산 관련 산업분야의 민간부문 협력 증진

자료: 해양수산부. 2015. 「서아프리카 세네갈과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재구성

94) 공여선박은 서부아프리카 감척선박(1척), 83톤급 원양트롤, 650마력, 선령 15년
95) 해양수산부. 2015. 「서아프리카 세네갈과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재구성.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제4장

KOICA의 세네갈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세네갈 국가의 특징

가. 경제사회적 개발과제

세네갈은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적 개발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 서비스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 노동인구-산업구조 상의 불균형
- 식수·교육·보건 등 인간기본욕구 접근성 관련 지역적 편중
- 지역 경제거점 구축 관련 인근국과의 경쟁 심화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현재의 재정지출 및 수출입 구조로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에 역부족이다. 주요 수출품은 땅콩, 수산물, 인산염 등 광물자원 또는 이의 1차적인 가공품이 대부분이며, 경제구조 상 원유,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 식료품 등의 수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재정지출 역시 IMF 권고에 따라 최근 교사 및 의사들의 보수 및 처우를 낮춘 결과, 해당 부문에서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단체로 노동쟁의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세네갈은 정체 GDP 중 서비스 부문(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매우 높아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및 인력의 기능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유통, 물류운송, 관광, 건설, ICT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양성하고 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이 부족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의 시급한 확충이 긴요하다.

노동인구-산업구조 상의 불균형

세네갈은 전체 노동인구의 77.5%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비해 GDP 비중은 13.7%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당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대 및 농업 종사자의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현재 세네갈의 고용생산성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인 853보다 낮은 369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수·교육·보건 등 인간기본욕구 접근성 관련 지역적 편중

세네갈은 인구분포, 경제활동,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Dakar와 중부 및 서부 지역에 주요 경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식량문제와 빈곤도의 지역격차가 크다. 또한 사회보건, 인적역량개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성불평등 또한 심각하다. 특히 Dakar, Saint-Louis 등 도시지역과 Senegal 강 및 Guiers 호수 등 수자원 유역을 제외한 중부, 동부 및 남부 내륙지역은 식수공급, 기초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지역 경제거점 구축 관련 인근국과의 경쟁 심화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내 물류·항공·자원개발·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가나 및 코트디부아르의 부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에볼라 사태로 인해 서구의 인력 및 자금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가 10년 내전을 극복하고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AfDB 본부의 복귀,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복귀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세네갈의 역내 물류·교통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기능 구축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론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정부의 확고한 개발의지 및 적극적 수원태세

마키 쌀 대통령과 현 내각은 위에 언급한 주요 개발과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2014년 2월 야심차게 세네갈 도약전략(PSE)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62억 달러를 상회하는 77억 달러의 재정지원 서약을 확보하였다. 2014년 7월 중에는 5억불의 국채 발행도 8:1의 경쟁률을 기록,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PSE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

다. PSE의 세부 내용 및 현 이행정도에 대해서는 대내외 기관별로 평가가 상이하나, 아직 전략실시 초기단계 이므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현지 정부 내 PSE의 모니터링 기관인 BOS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에게 PSE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바, PSE의 모니터링 및 조정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 교육, 보건의료, 식수위생 등 주요 개발분야 별로 PSE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방문 시 진행했던 미니포럼 및 부처별 미팅 과정에서 각 부처 고위인사가 PSE 및 분야전략의 핵심 내용의 전달과 함께 이에 근거한 KOICA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등, 정부 내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 서아프리카 불어권 개발협력의 중심지

세네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양자 및 다자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세네갈 사무소의 지원비중 및 지역 내 역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JICA 세네갈 사무소는 세네갈 포함 7개국에 대한 협력을 담당하며 불어권 아프리카 내 지원규모 1위, 아프리카 내 지원규모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USAID 및 World Bank 등은 세네갈 사무소에서 국가 프로그램과 지역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UNICEF 및 UNHCR은 세네갈에 국별 사무소와 지역사무소를 두어 지역HQ 기능을 두고 있다.

JICA의 경우, 세네갈 사무소에 축적된 운영 및 인적역량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사무소 신설 시 현지 파견을 통한 자문 등 신설 사무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년 간 세네갈 사무소를 통해 육성된 현지 전문가들을 여타의 불어권 국가에서 연수강사 또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여기관들이 세네갈을 기반으로 서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세네갈 지원 기본방향

앞에서 서술한 세네갈의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KOICA에서는 세네갈의 경제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을 협력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세네갈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증대사업 및 관련 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심각한 도농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의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아프리카 불어권 개발협력의 중심지인 세네갈이 최근 KOICA의 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됨을 고려, 향후 해당국 사무소를 불어권 아프리카의 대표 사무소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가. 경제발전 기반구축 지원

세네갈은 현재 마키 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다년 간 성장이 3-4% 수준에 머무르고 쌍둥이 적자 기조가 심해지며, 도농 간 격차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국가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농수산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GDP 비중이 60%에 달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PSE에서는 2035년 신흥경제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우선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3-4%에서 4-5년 내 7-8%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실행계획인 PAP 상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변화(Pillar 1)에 전체 예산의 66.5%를 배정하고 있다. PSE에서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농업 및 식품, 주택건설, 자원개발 및 관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KOICA에서는 농수산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와 관광, ICT,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

세네갈의 MDG 경과지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진학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전반적으로 MDG 목표 달성에 도달할 정도로 개선되었거나 사하라이남 평균치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면 해당 부문의 개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지표에 대한 도농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접근성 격차가 나타난다.

특히 Dakar와 Saint-Louis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동부 및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위생·교육·보건 등 기본인간욕구에 해당하는 주요 지표들에 있어서 상당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치인 빈곤도 역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OICA에서는 기초서비스에 대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친 빈곤적인 개발의 실현이 가능하다.

다.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로 육성

KOICA의 경우 지난 4-5년 간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DR콩고, 카메룬 등 불어권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 신규 사무소 개설이 이루어졌다. 최근 발표된 제2기 중점협력국 목록에서는 해당 국가들이 제외되었으며, 대신 세네갈이 유일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로서 중점협력국에 편입되었다. 제1기 중점협력국 운영과정에서 신규로 편입된 불어권 사무소인 DR콩고 및 카메룬 사무소 운영과정에서 모로코 및 세네갈 등 불어권 아프리카 협력추진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던 사무소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 전년도였던 2009년에 모로코와 세네갈의 무상원조 규모는 각각 270만 달러 및 563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반해 DR콩고 및 카메룬의 경우 각각 217만 달러 및 18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원역사 및 경험의 일천함, 내륙 지역의 각종 분쟁 및 치안불안 상황,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KOICA 차원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의 경우 세네갈 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언어권 주재원 사무소 혹은 신설 사무소에 대한 지원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지 인력을 관리자급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orld Bank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의 경우 현지 인력들이 Portfolio Manager 및 Economist 역할을 맡아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 불어권 국가에 지원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삼각협력, Budget Support 등 아직 KOICA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지 않은 협력방식(Modality)을 적용해 보는 시범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세네갈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원부처의 태세 및 적극성이 높은 바, 타 공여기관에서 추진하듯이 일부 분야에서 예산 지원(Budget Support) 또는 정부부처 직접 환급 프로그램(Direct Reimbursement) 방식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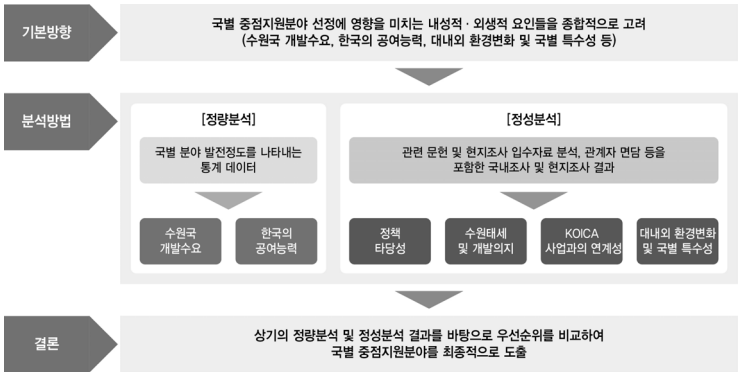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국의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선별·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KOICA의 사업분야[96]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산업에너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 이 중 인프라(교통, 통신 등)은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모든 분야 및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함께 고려하였다.

상기의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산한 분야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별 중점지원 분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96) KOICA 7대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성평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이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나. 정량분석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 활용된 정략분석 방법론은 아프리카 협력분야 선정 관련 기존 선행연구[97]에서 사용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적 협력분야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gap)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존 ODA관련 타 연구들과는 달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상기 6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분야별 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지수값은 벤치마킹 국가의 지수값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 격차 및 핵심 성장요인으로서의 잠재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역시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 차이를 분석했다.

97)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2) 분야별 지표 및 비교대상국 선정

박영호 외(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환경수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그리고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6개 분야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선정 근거와 각 지표별 자료 출처는 [표]와 같으며, 상세한 지표구성 및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분야	세부 지표	데이터 출처
교육	교육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GCI, HDI
보건의료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GCI, HDI, WHO
농림수산	관개화율, 농업 생산성과 경제 기여도	GCI, WDI, FAO
공공행정	정부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정성	GCI
산업에너지	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에너지 수급 환경	GCI, WDI, UNIDO
인프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급률 및 발전 정도	GCI, WDI, ITU

한편,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있기에, 분야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데이터를 같은 범위로 표준화하고 이를 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그 외 데이터들 역시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야별 발전정도는 수원국 대비 다음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상대적 발전 격차를 측정하였다. 세계 경제포럼(WEF)은 『세계경쟁력 지수(GCI)보고서』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국 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구분	1단계: 요소주도 경제단계	이행단계: 1단계 → 2단계 (1.5)	2단계: 효율성 주도 경제단계 (2.0)	이행단계: 2단계 → 3단계 (2.5)	3단계: 혁신주도 경제단계 (3.0)
국가 (예시)	방글라데시, 브룬디, 차드, 세네갈, 에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앙골라, 볼리비아, 보츠와나, 가봉, 온두라스, 몽골, 필리핀, 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자메이카, 요르단, 모로코, 페루, 태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브라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UAE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웨덴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4)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분석대상국가(발전단계)	비교대상국가(발전단계)
알제리(1.5)	이집트(2.0), 자메이카(2.0), 모로코(2.0)
모로코(2.0)	UAE(2.5), 터키(2.5), 오만(2.5)
튀니지(2.0)	UAE(2.5), 터키(2.5), 오만(2.5)
세네갈(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코트디브아르(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3) 수원국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우선 수원국 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벤치마킹 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1]을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때, 벤치마킹 대상국이 2개국 이상이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의 이질성에 따른 이상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발수요 지수값은 벤치마킹 대상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해당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N_{ci} = (\frac{G_{ci} - \overline{E_c}}{\sigma_c}) + 4$$

G_{ci} = 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대상국가 i분야 지수의 갭

$\overline{E_c}$ = $\frac{\text{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대상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갭의 합}}{\text{(협력가능 분야 개수)}}$

σ_c = 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국가 간 6개 협력가능 분야 갭의 표준편차

다음으로 한국 공여능력 지수값 산출을 위해, 연구대상국의 지수값과 한국의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2]를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여능력 지수값은 수원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는 분야별 한국의 상대적 공급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S_{ci} = (\frac{G_{c_i} - \overline{E_c}}{\sigma_c}) + 4$$

G_{ci} = 연구대상국와 한국의 i분야 지수의 갭

$\overline{E_c}$ = $\frac{\text{연구대상국와 한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갭의 합}}{\text{(협력 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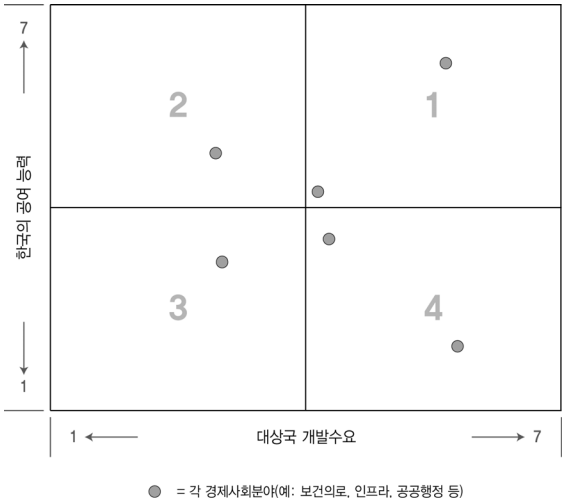
σ_c = 연구대상국와 한국 간 6개 협력가능분야 갭의 표준편차

4) 중점지원 분야 도출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중점지원 분야란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동시에 충족되는 영역으로, 상기 산식을 통해 산출된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 지수값과 한국의 공여능력 지수값을 동시에 비교하여 도출 가능하다. 이는 [그림 4-2]과 같은 사사분면 공간 배치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후 최종 중점지원 분야 선정 시 정성분석 결과와의 합산을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과 공여능력 지수값에 각각 가중치 50%를 곱해 합산한 최종 지수값 결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측정한다.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주: 제1사분면: 최적 개발협력 분야
제2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는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
제3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도 없으며 한국의 역량도 없는 분야
제4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 충족에는 필요하나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

다. 정성분석

1)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자료로 쓰인 분야별 데이터들이 과거 특정 시점에만 집중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을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수요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량분석을 통해서는 분야별 상대적 발전격차만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수요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연구대상국의 정책적 의지 및 수원태세, 실제 분야별 개발 수요와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헌조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및 개발의지 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분석만으로는 KOICA와 연구대상국 간의 기존 협력관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없다. 연구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협력관계 및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공여능력을 기검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향후 KOICA의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국의 개발의지나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와 별개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정세 변화 등 국별로 ODA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구대상국별로 고려한 특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연구대상국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알제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수요
모로코, 튀니지	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	사헬(Sahel) 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량분석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및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분석과의 결과 합산 및 편의를 위해 분야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우선 수원국 정책타당성은 국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야별 발전의 중요성 및 정책 반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KOICA 지원의 지속가능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NDS)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섹터별 전략, 지역협력기구 전략 및 정책적 담화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평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의 경우, 현지조사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부 부처별 실제 지원요청 여부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KOICA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 추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와의 사업 연계성은 기존 지원현황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점을 매겼다.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의 면담과 입수자료를 통해 분야별 기진행 사업 및 예정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된 분야를 분석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검증된 분야도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및 KOICA 사업과의 연계성과는 별개로, ODA 사업 진행 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 및 특수 요소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 중점지원 분야 도출

상기 4개에 대한 분야별 점수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 국별 연구진이 리커트 5점 척도[98]를 사용하여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더불어 각 지표마다 본 연구에 고려해야할 필요성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과소·과대평가의

98)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척도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채택된 방법이며, 1점(매우 낮음)과 5점(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성을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표별 평점 및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점수를 결과로서 도출하고, 분야별로 최종 값을 비교하여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아래 <표 4-5>는 정성분석에 사용된 지표 및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분석 지표	가중치
국가발전계획(NDS) 및 정책과의 부합성(정책 타당성) - 국가발전계획(NDS) 및 주요 현안 - 섹터별 전략 - 지역협력기구 전략	0.25
해당부처 지원요청 및 수원태세 정도(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 결과	0.1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 기존 지원현황 - 향후 지원계획	0.40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예: 알제리-북아프리카 민주화, 국내기업 진출수요 튀니지/모로코-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사헬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0.20

라. 종합결과 분석 및 중점지원 분야 최종 도출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정량분석의 경우 결과 값이 1-7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으나, 정성분석의 경우 결과 값이 1-5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등 척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두 분석 결과를 종합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 값을 각각 5점 기준으로 표준화[99]하였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간 가중치는 각각 30:70으로 산정하여 합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량분석이 과거의 한 시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 데 반해, 현지 방문을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실제적인 수요, 기존 KOICA 추진사업 및 계획과의 연계성, 국별 특

99) 7점 기준의 값을 α라고 했을 때, 산식(2α+1)/3을 통해 5점 등간척도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수성 등 현지의 최신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의 특성 상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 활용 시, 분야별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 지수값이 산출되며, 이를 비교하여 분야 간 우선순위를 도출해낼 수 있다.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분야별 최종 지수값=(분야별 정량 표준지수*30%)+(분야별 정성 표준지수*70%)

2. 분석 결과

가. 정량분석 결과

수원국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순이었다. 산업에너지의 경우, 제조업 기술수준,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에너지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이 벤치마킹 국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여능력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순이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기술수준, 발전량 등이 세네갈 대비 상대적으로 타 분야 발전차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국 개발수요도 높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는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인프라 그리고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정량분석 결과

구분	정량 분석				30%
분야/지표	정량 지표		총계		우선순위
	수원국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능력	평점	표준화지수 5점 기준	
교육	3.79	4.03	3.91	2.94	4
보건의료	4.63	4.16	4.40	3.26	2
농림수산	2.34	3.89	3.12	2.41	5
공공행정	3.64	2.17	2.91	2.27	6
산업에너지	4.97	5.40	5.19	3.79	1
인프라	3.44	4.72	4.08	3.05	3

자료: 연구진 분석

나. 정성분석 결과[100]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와의 사업연계성 및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별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과 농림수산 분야가 공동 1위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점, 주무 부처인 고등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원태세, 향후 예정사업으로 직업전문대학 설립사업과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 지역 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수요 흡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되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농촌부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 및 협력의사, KOICA에서 최근 10년 내 그랑디그뗄렐, 포도르 등 다양한 관개개발 및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을 고려 중인 점, 사헬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와 함께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되었다.

100)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정성분석의 근거는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 현지 조사 과정에서 보건부 및 수리위생부 등 유관부처 고위급의 적극적인 자세, 기존 KOICA의 식수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후속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 및 염수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과 Post 에볼라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역량강화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순위로 선정되었다.

<표 4-7> 정성분석 결과

구분	정성 분석						70%
분야/지표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총계		우선 순위
					평점	표준화 지수	
	25%	15%	40%	20%		5점 기준	
교육	5	5	5	3	4.6	4.60	1
보건의료	3	4	4	5	3.95	3.95	3
농림수산	5	5	5	3	4.6	4.60	1
공공행정	2	2	1	1	1.4	1.40	6
산업에너지	3	2	1	1	1.65	1.65	5
인프라	4	2	1	1	1.9	1.90	4

자료: 연구진 분석

다. 종합분석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친 종합결과를 보면 교육이 1순위, 농림수산이 2순위, 보건의료가 3순위로 중점 협력분야가 도출되었다.

<표 4-8> 종합분석 결과

구분	최종종합 100%	
분야/지표	최종종합 (정성:70%+정량:30%)	우선순위
교육	4.10	1
보건의료	3.74	3
농림수산	3.94	2
공공행정	1.66	6
산업에너지	2.29	4
인프라	2.25	5

자료: 연구진 분석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 교육

세네갈에서 교육 및 훈련을 다루는 부처는 세 곳으로서, 초중등 교육을 다루는 교육부와 고등교육을 다루는 고등교육부, 직업훈련을 다루는 직업학습공예부로 나눠진다.

<표 4-9> 교육 관련 유관부처

교육부	고등교육연구부	직업학습공예부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REPUBLIQUE DU SENEGAL Un Peuple - Un But - Une Foi 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DIRECTION DES BOURSES	
- 미취학 아동, 초등, 중등교육 총괄 - 교육시설 인프라 관리 - 학사일정 및 교육비 관리	- 공립/사립 고등교육 기관관리 및 자금지원 - 과학기술 연구 및 지원 - 관련 공공정책 수립	- 직업 및 기술훈련 제공 - ToT를 통한 교사 양성 - 공예 관련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연구부, 직업학습공예부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최근 20여 년간 세네갈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교육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및 노동인구 구조개선

세네갈의 실업률은 10.3%로서 역내 국가보다 높은 상황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도 높은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전체 노동인구의 약 50%만이 고용상태이며, 이마저도 비공식부문의 비율이 50%에 달해 직업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 전체 노동인구의 약 77%가 종사함에 따라 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의 노동인력 전환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교육의 농촌지역 접근성 강화

세네갈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등록률은 사하라이남 평균 수준이나 중·저소득국 평균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네갈에서는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육 접근성이 급격히 감소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심하게 취약하다. 또한, 고등학교 및 국공립 대학의 대부분이 Dakar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중등 및 고등교육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STEM 교육역량 강화

세네갈은 기존 프랑스의 인문학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보다 자연과학 및 기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중등-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위 네 가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공간, 기자재, 커리큘럼, 교사, 교보재 등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비율 제고

세네갈 내 여성의 노동인구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의 51%가 경제활동 및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구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남성의 유휴인구 비율은 21%),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참여율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세네갈 정부는 위와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략계획(PAQUET)을 수립, 교육의 질 향상과 보편적인 기초교육의 제공, 수요기반의 직업기술교육 제공, 및 교육 분야 거버넌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초교육 10년 의무화,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교육 및 독해능력 강화, 수요 기반의 직업훈련 실시를 우선 실행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세네갈 정부는 현재 수도 Dakar 인근 도시인 Diamniadio에 ICT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교육의료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수요, 개발정책 및 직업훈련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 산업의 고용수요를 충족하며, 특히 세네갈이 불어권 아프리카 교육중심지였던 역사를 기반으로 프랑스-모로코-세네갈로 이어지는 불어권 아프리카 유학도시를 건설하여 국내는 물론 지역 내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다카르 지역 종합 캠퍼스를 설립하여 캐나다 McGill 대학은 물론 Accor 등과도 협력하여 관광 및 자원개발 학사 및 석사 과정, 의과 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다카르의 열대 전염병 관련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UCAD 내 의학 및 약학대학 학생의 55%는 외국인(2004년 기준)이며, 세네갈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19.4%는 모로코에서, 15.7%는 모리타니, 6.7%는 코트디부아르 출신(2006년 기준)으로 세네갈의 교육경쟁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표 4-10> UCAD 내 외국인 학생 비율

UCAD 학부/학과	비율
의학, 약학, 치과 학부	55.0
과학 및 기술학부	12.0
법학 및 정치학부	11.0
예술 및 인문학부	8.0
경제 및 경영학부	8.0
과학기술전문학부	3.0
컴퓨터공학 및 기술학부	1.0
사서, 기록학, 문헌학부	1.0
국가 교육 및 스포츠 기술원	1.0
교사연수원	1.0

자료: Direc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2004

<표 4-11> 對 세네갈 유학생 출신지역 비중

출신지역	비중
모로코	19.4
모리타니아	15.7
코트디부아르	6.7
부르키나파소	6.6
콩고	6.3
배냉	5.7
가봉	5.3
카메룬	5.2
토고	5.1
차드	3.3
기니	2.5
말리	2.2
중앙아프리카	1.3
튀니지	1.2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2006

세네갈 정부는 또한 PSE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산업 수요와 고등교육을 연계하고, 직업기술훈련 개발을 도모하며, 평생훈련을 조직 및 장려할 방침이다.

<표 4-12> 세네갈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핵심 개혁과제

구분	산업수요-고등교육	직업기술훈련 개발	평생훈련 도모
주요 이해 관계자	공공주체 - 고등교육부/직업훈련부 - 훈련기관 보유 부처 (보건부, 농업농촌부) - 고등교육기관 민간주체 - CNPS, CNES, MDES, UNACOIS 등 사회적 파트너 및 상공회의소 공여주체 - -World Bank, UNDP, UNIDO, IDB, OIF, AFD, CIDA, AfDB, JICA	공공주체 - 고등교육부/직업훈련부 - 훈련기관 보유 부처 (보건부, 농업농촌부) - 고등교육기관 민간주체 - CNP, CNES, MDES, UNACOIS 등 사회적 파트너 및 상공회의소 공여주체 - World Bank, UNDP, ILO, UNIDO, IDB, OIF, AFD, CIDA, Lux-Dev, AfDB, JICA	공공주체 - 고등교육부/직업훈련부 - 훈련기관 보유 부처 (보건부, 농업농촌부) - 고등교육기관 - FONDEF, ONFP 민간주체 - CNP, CNES, MDES, UNACOIS 등 사회적 파트너 및 상공회의소 공여주체 - World Bank, UNDP, ILO, UNIDO, IDB, OIF, AFD, CIDA, Lux-Dev, AfDB, JICA
목표	- 2014년까지 산업 수요와 고등교육 연계 방안 확정 - 2016년 학년도까지 목표 체계(target structure) 시행 - 5년 이내 졸업생 취업률 2배 증대	- 2014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2017년 학년도 시행 - 2020년까지 훈련생 40만 명으로 증가 - 2020년까지 직업기술 훈련 이수생 연간 3만 명 달성	- 2014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2016년 시행 - 2014년까지 FONDEF를 상임 기관으로 임명하는 관리 체계 시행
상세 내용	- 산업별 고용수요 파악 - 진로 개발 시스템 검토 - 직업기술훈련과 대학 과정 간 연계성	- 산업별 고용수요 파악 - 정량적인 직업기술 개발 계획 및 정성적인 직업 기술훈련 개발	- 산업별 고용수요 파악 - 평생 훈련 프로그램 확대 - 평생 훈련 및 관련 자격 증명 권장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Senegal Emerging Plan. Presentation of the portfolio of flagship projects and reforms. 연구진 재구성

KOICA는 이러한 세네갈 교육부문의 과제 및 해당 정부의 수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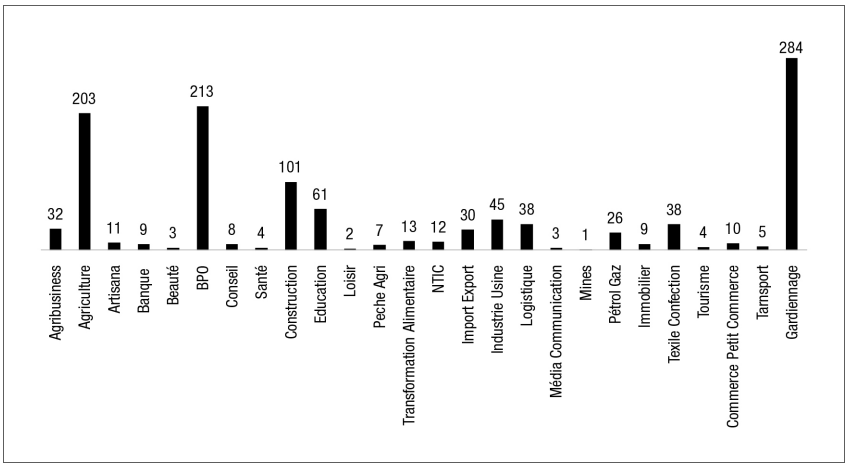
- 고학력 청년실업 완화 및 노동인력 구조개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사업
- 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
- 중등교육 부문의 STEM 교육역량 강화사업
- 여성 및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활성화사업

가. 고학력 청년실업 완화 및 노동인력 구조개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사업

현재 세네갈에서는 전체 구직자의 50% 이상이 15-35세의 젊은 인력이며, 역시 구직자의 50% 이상이 교육 및 훈련의 경험이 전무 하다.[101]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 고등학교 이수자의 실업률(16%)이 교육 미이수자(8.6%) 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고용수요의 경우 2009-2013년 기준 공식 부문에서 잠재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농업, 수출입, 보안 서비스였으며, 고용의 대부분(섬유 및 의류 100%, 보안 서비스 99%, 농업 97%, 건설 94%, 관광 92%, 교육 78%)이 시간제이거나 계절에 따른 일시 고용직으로 주기적인 변동이 있었다. 직종별 잠재적 고용수요로는 숙련된 농림수산업 종사자(19%), 서비스 및 판매직(16%), 전문직(14%)이 가장 유망하며, 모든 산업분야를 아울러 경력, 직무 및 생활기술, 학위요건이 민간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역량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잠재적 고용수요에 따른 산업분야



자료: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9. Private Sector Demand for Youth Labour in Ghana and Senegal. “Ghana and Senegal Study Findings”. Geneva: ILO

10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9. Private Sector Demand for Youth Labour in Ghana and Senegal. “Ghana and Senegal Study Findings”. Geneva: ILO.

또한 농업, 건설, 수출입, 섬유, 보안 서비스, 교통 등 육체적인 노력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직원을 선호하는 반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는 나이가 많은 직원을 선호하였다. 나아가 IT 역량의 경우 컨설팅 및 ICT 분야에 국한되어 중요도를 보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내부적으로 습득 가능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해 능력은 석유 및 가스 산업과 BPO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학위요건은 순차적으로 광업, 금융업, 보안 서비스, 교육, 부동산, 컨설팅, BPO, ICT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 역량은 미디어 및 통신, 보안 서비스, 공예, 부동산,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되고, 경력의 경우 광업, 섬유 및 의류, BPO, 보안 서비스에서 핵심 역량으로 요구되었다.

<표 4-13> 산업별 핵심 역량

Sectors	Age	Gender	Personal status	IT capabilities	Literacy	Numeracy	Vocational	Life skills	Leadership Skills	Years of experience	Degree requirements	Interview skills
Advisory/ Consulting	0.03	0.03	0.02	0.19	0.04	0.04	0.13	0.07	0.08	0.14	0.14	0.02
Agribusiness	0.05	0.04	0.02	0.04	0.09	0.03	0.09	0.11	0.11	0.13	0.11	0.13
Agriculture	0.11	0.09	0.02	0.03	0.05	0.07	0.10	0.12	0.10	0.10	0.07	0.08
Artisan	0.06	0.05	0.04	0.02	0.04	0.06	0.18	0.18	0.06	0.08	0.02	0.03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0.04	0.02	0.01	0.06	0.05	0.03	0.07	0.09	0.06	0.17	0.20	0.11
Beauty	0.03	0.08	0.02	0.01	0.03	0.03	0.15	0.14	0.02	0.12	0.00	0.16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0.00	0.00	0.00	0.05	0.10	0.04	0.09	0.07	0.04	0.23	0.14	0.05
Construction	0.10	0.04	0.03	0.05	0.07	0.05	0.12	0.11	0.05	0.17	0.13	0.06
Education	0.07	0.02	0.02	0.08	0.07	0.04	0.13	0.10	0.05	0.15	0.16	0.06
Entertainment	0.09	0.05	0.03	0.04	0.04	0.02	0.16	0.17	0.04	0.03	0.03	0.06
Fishing	0.09	0.03	0.04	0.05	0.05	0.04	0.11	0.09	0.07	0.17	0.08	0.06
Food Processing	0.08	0.06	0.03	0.07	0.07	0.04	0.11	0.09	0.16	0.15	0.08	0.06
Health	0.09	0.05	0.02	0.04	0.06	0.04	0.10	0.14	0.07	0.12	0.14	0.08
ICT	0.03	0.03	0.02	0.19	0.04	0.04	0.13	0.07	0.08	0.14	0.14	0.02
Import/Export	0.11	0.04	0.02	0.04	0.05	0.05	0.10	0.09	0.08	0.15	0.09	0.10
Industry/ Manufacturing	0.08	0.05	0.02	0.04	0.07	0.05	0.11	0.13	0.09	0.12	0.12	0.07
Logistics	0.05	0.05	0.03	0.05	0.07	0.04	0.12	0.13	0.07	0.13	0.13	0.05
Media and Communications	0.01	0.02	0.01	0.06	0.05	0.02	0.24	0.12	0.09	0.06	0.12	0.07
Minin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4	0.22	0.11
Oil & Gas	0.32	0.01	0.02	0.03	0.12	0.03	0.09	0.11	0.04	0.09	0.04	0.02
Real Estate	0.06	0.02	0.03	0.05	0.06	0.04	0.17	0.12	0.06	0.14	0.15	0.06
Textiles and Garment Making	0.10	0.04	0.02	0.02	0.06	0.06	0.08	0.12	0.04	0.24	0.03	0.13
Tourism	0.03	0.01	0.01	0.06	0.07	0.02	0.14	0.13	0.07	0.14	0.08	0.11
Trade/Retail	0.08	0.03	0.03	0.05	0.05	0.05	0.07	0.10	0.05	0.16	0.06	0.19
Transportation	0.11	0.04	0.02	0.04	0.07	0.06	0.07	0.07	0.07	0.14	0.12	0.07
Security Services	0.20	0	0	0	0	0	0.22	0	0	0.20	0.18	0.20

자료: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9. Private Sector Demand for Youth Labour in Ghana and Senegal. “Ghana and Senegal Study Findings”. Geneva: ILO

이러한 세네갈 고용수요 및 정부의 서아프리카 교육 허브(Hub) 구축 비전을 고려하였을 때, KOICA에서는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및 노동인력 구조개편을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통부문(농업, 수산업)의 현대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ICT, 건설, 관광, 의료, 무역 등)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직업전문대학(ISEP) 사업은 세네갈 정부의 고등교육 역점 사업으로서 전국 14개의 ISEP 건립을 통하여 세네갈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인근 불어권 아프리카의 산업인력 양성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현재 KOICA에서는 Diamniadio 신도시에 건설될 Knowledge City 내 45억 CFA를 투입하여 2개 공과(ICT, 자동차)의 6개 과정으로 40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ISEP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사업 추진 시 모로코, 알제리 등 불어권 아프리카 내 KOICA에서 지원한 자동차 정비, ICT, 전자, 기계, 멀티미디어 등의 직업훈련 공과와 관련해서는 해당국 기관의 커리큘럼 및 교사들을 활용한 삼각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ICA에서는 인근 불어권 국가의 신규 직업훈련사업 추진 시 기 지원한 세네갈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교사들을 전문가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KOICA에서도 중장기적으로 ISEP 사업을 인근 불어권 국가와의 삼각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14> KO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직업훈련 사업

(단위: 만 달러)

사업명	사업요소 및 관련 직종	기간	예산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 기자재 공여 -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04-'05	54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 초, 중고등교육 과정에 ICT 활용 - 교사 대상 ICT 활용교육 연수 제공 - 전 학년 교육과정 e콘텐츠 개발	'08-'10	300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 지원사업	- 기계,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실습동 건축 - 관련 공과 이론 및 실습교육 진행, 교재 개발 -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10-'13	600
알제리			
알제리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 자동차 정비, 컴퓨터, 전기/전자 관련 교육훈련 기자재, 교보재 지원 - 시설개보수,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04-'06	100

자료: ODA Korea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Thiès에 제1호 ISEP을 개소한 바 있으며 AFD와 함께 2005-2013년 직업훈련 및 청소년 고용 관련 정책 지원 사업(20.25백만 유로)을 추진 중인 바, KOICA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세계은행이 Diamniadio에 들어설 ISEP 사업에 KOICA와 함께 co-financing partner로 참여함에 따라,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기획, 현지 조사, 공과 설계 및 커리큘럼 제작, 교사양성, M&E 등 사업의 주요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제1호 ISEP 개소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또한, AFD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산업별 훈련 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PPP 모델을 설정, 훈련센터의 거버넌스 내 민간부문 출신 이사장을 두고, 프랑스 내 유사 산업과의 제휴 협정을 통해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AFD의 경우에도 향후 Bignona 지역에서 ISEP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KOICA 사업 추진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

나. 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

세네갈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등록률은 각각 41.0% 및 7.6%로서 사하라이남 평균 수준이나, 중·저소득국 평균인 65%, 23%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102] 또한,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심하게 취약하다. 전체 고등학교의 80%가 도시에 소재해 있고 또한 국공립대학의 80%가 Dakar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세네갈 정부는 2012년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 및 ICT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대학(Université Virtuelle du Sénégal; UVS) 지역학습관(Espaces Numériques Ouverts; ENO)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ENO를 통해 영문학, 사회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및 경영학, 응용수학 및 컴퓨터 공학 등의 과목을 제공하며, 추후 세네갈 및 아프리카 문화 관련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ENO는 Dakar, Guédiawaye, Thiès, Mbour, Diourbel, Kaolack, Saint-Louis, Podor, Ziguinchor, Kolda, Bignona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하여 KOICA에서는 2개의 ENO(Mermoz와 Diamnadio) 건립에 대한 지원을 세네갈 정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인 상황이다.

KOICA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세네갈의 중등 및 고등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고등학교 130개교 중 농촌지역에 25개교만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대학 역시 전체의 80%가 Dakar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네갈의 지역별 중고등학교 등록률을 살펴보면 Kaffrine(9.6%), Louga(10.8%), Diourbel(11.0%), Matam(13.6%) 지역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기준

<표 4-15> 지역별 중·고등학교 등록률

(단위: Gross Enrollment Rate, %)

지역	등록률
Dakar	45.5
Ziguinchor	84.9
Diourbel	11.0
Saint-Louis	36.8
Tambacounda	15.5
Kaolack	21.0
Thiès	30.7
Louga	10.8
Fatick	28.7
Kolda	24.1
Matam	13.6
Kaffrine	9.6
Kédougou	20.8
Sédhiou	30.0
전체	32.7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1. “ESPS II”

AfDB는 동 분야의 Lead Donor로서 Dakar, Thiès, Saint-Louis, Kaolack, Ziguinchor 등 5개 지역에서 ENO 개소를 지원한 바, KOICA는 해당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중등교육 부문의 STEM 교육역량 강화사업

세네갈 교육부는 중등교육 기관의 STEM 교육역량 확충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표 4-16> 교육부의 STEM 관련 요청사업 개요

구분	중등교육 수학·과학·기술 교육 개선을 위한 디지털자료사업	ICT를 활용한 중등교육 품질 및 관리개선사업	지역고등학교 건립 및 기자재 지원사업	태양에너지 기반의 과학기술블록 및 중학교 건립사업
사업 목적	중등교육 수학, 과학, 기술, 철학 등 과목의 디지털 자료 개발 및 개선	ICT 활용을 통한 중등교육의 질 및 관리 역량 향상	고등학교 환경과 접근성 개선 및 과학교육 개발	과학기술 교육 도모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 기간	2015-2019년	3년	3년	2015-2017년
사업 예산	4.1백만 유로 (1.4백만 유로는 정부자금)	12.7백만 유로	13.4백만 유로	11.1백만 유로
세부 내용	- 해당 과목 동영상 강의 제공 - 수학경시대회 등 관련 평가회 기획 - 수학, 과학 및 기술 교육기자재 제공	- 1000개의 중고등학교에 전산기자재 지원 - 교육부 관계자 ICT 훈련 모듈 개발 - 인적자원 및 기관 관리 시스템 도입	- 20개 고등학교 및 과학실 건립 - 기 설립되어 있는 30개 학교·과학실에 기자재 지원	- 과학기술블록 5개 건립 - 인근 학교 26개 건립 및 시설지원 - 태양광 구조 건립
기대 효과	STEM 교육 지원 및 교육부문 ICT 활용 방안 제언	중고등학교 ICT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관리 강화	고등학교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과학교육 기반조성	과학기술 네트워크 조성·확장을 통한 중등교육의 도농격차 해소
관련기관	World Bank	USAID	-	USAID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구성 요소의 적절성, 한국의 공급능력 및 비교우위, 예산수립의 효율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선고려 사업으로 "ICT를 활용한 중등교육 품질 및 관리개선사업"을 추천한다. 해당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양자 및 다자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표 4-17> 교육부의 STEM 요청 사업 평가

사업명	사업추진가능성 분석	사업 추천순위
중등교육 수학·과학·기술교육 개선을 위한 디지털자료사업	- 한국의 e-learning 추진경험 활용 가능 - 불어권 커리큘럼 수립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함 - JICA(수학), World Bank(과학), CIDA(커리큘럼)와 협력 가능	2
ICT를 활용한 중등교육 품질 및 관리개선사업	- 한국의 중고등학교 정보화 교육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경험 활용 가능 - 향후 여타 불어권 아프리카로 사업 확장성 존재 - USAID와 중등교육 정보화 관련 협력 가능	1
지역고등학교 건립 및 기자재 지원사업	- 고등학교 도농 간 접근성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존재 - 건축 및 기자재 중심의 단발성 지원 - World Bank 등과 과학실 관련 협력 가능	3
태양에너지 기반의 과학기술블록 및 중학교 건립사업	- 한국의 과기고 설립 및 운영경험 활용가능 - 건축 및 기자재 중심이며, 태양광 설비에 따른 난이도 존재 - USAID, World Bank 등과 협력 가능	4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8> 공여주체별 교육 분야 지원

기관	중점지원 내용	지역
기초교육		
JICA	수학 부문 지원 선도 / 중학교 교실 건축	세네갈 전지역 / Thiès, Louga, Kolda
AFD	교육의 질 향상 및 중학교 건립	Dakar, Ziguinchor, Saloum, Kolda
CIDA	수학, 과학, 언어 등 교과서 및 커리큘럼 개발	세네갈 전지역
USAID	초등학교 독해능력 향상 및 중학교 건립	세네갈 전지역
WB	과학 및 수학강의	세네갈 전지역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USAID	농업 교육 및 연구(ERA)	Dakar, Thiès, Richard-Toll, Ziguinchor
AFD	직업전문대학(ISEP)	Bignona
CIDA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선 및 사업계획 개발	Diourbel, Fatick, Kaolack, Thiès
AfDB	ToT센터 설비 및 재건	Guerina, Thiès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ENO)	Dakar, Thiès, Saint-Louis, Kaolack, Ziguinchor
WB	직업전문대학(ISEP) / TVET	Thiès, Diamniadio / Louga, Mbao, Diamniadio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여성 및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

세네갈의 여성 및 탈리베(Talibé) 아동 등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들을 정규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간 교육 접근성의 격차는 세네갈 교육부에서 1995년 Fatick 포럼 이후 본격적으로 젠더 불평등 문제를 다룬 이후 상당부분 감소되었다. 특히 6학년 등록률은 여학생이 51.4%, 남학생이 48.6%로 변화했으나 중등 교육부터는 교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조혼제도가 성행하고 있어 여전히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탈리베의 인권문제 및 열악한 교육환경도 심각한 상황이다.

KOICA가 여성 및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유사 경험이 풍부한 공여기관 및 NGO와의 협력방식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UNESCO는 2012-2014년 간 세네갈의 7개 지역(Dakar, Diourbel, Fatick, Kédougou, Matam, Saint-Louis, Tambacounda) 내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4만 명의 여아와 여성을 대상으로 문해율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ICT를 활용하여 1)프랑스어 또는 현지어 문해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2)신문해학습자(neo-literate)의 훈련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3)소득창출을 위한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P&G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또한 USAID는 Plan International과 협업하여 Louga와 Dakar지역 다라에 공식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4년차의 사업을 통해 108개 다라가 사업에 등록되었으며, 약 5천명의 탈리베 아동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6-12세 사이 탈리베 아동은 코란 과정과 더불어 프랑스어와 수학 기초과정도 함께 교육받고 있으며, 공식 교육을 받기에 나이가 많은 탈리베들은 기초과목을 대신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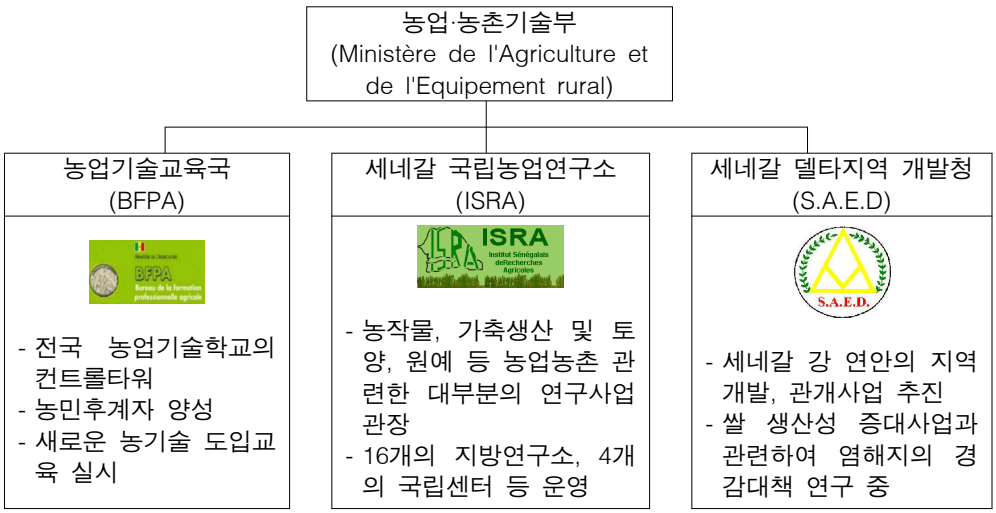
2. 농림수산

농업 및 수산분야는 세네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뿐더러 식량안보 및 영양과 직결되는 분야임에 따라 국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쌀과 양파의 자급, 농업 인력의 양성, 기계화 확산, 가치사슬 개선 및 수출확대 등을 정부의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KOICA에서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지원해 온 바, 해당 부문에 대한 지원을 심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산 부문의 경우, 수출기여도가 높고 자국과 인근국의 단백질 섭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측 원양 어업지로서의 중요성 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향후 KOICA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농업/농촌개발

세네갈의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주요 부처에는 농업·농촌기술부와 가축·축산물부가 있으며, 유관기관으로는 농업기술교육국, 국립농업연구소, 델타지역 개발청 등이 있다.

<표 4-19> 농업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



자료: 농업·농촌기술부, 농업기술교육국, 국립농업연구소, 델타지역 개발청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농업은 세네갈 GDP의 15.8%, 수출의 35%, 노동인구의 77.5%를 차지할 만큼 세네갈 경제 내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부문이다. 전체 경작가능 면적은 3.2백만 ha이며, 이 중 Senegal River Valley를 중심으로 한 관개가능 총면적은 35만 ha이나 실제 관개지는 13만 ha에 달해 관개지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여력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네갈 정부는 농업분야전략인 PRACAS에서 2017년까지 쌀과 양파의 자급, 땅콩 및 원예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출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벼 저장센터 건립, 벼 종자센터 건립, 농기계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우선실행계획(PAP) 10건을 실행할 예정이다.

세네갈 농업부문의 현황 및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관개 및 농지개발
  전통적으로 가뭄이 많고 수자원이 부족하여 북부 Senegal River Valley를 중심으로 관개 및 농지개발의 필요성이 높음
- 주요 품종의 종자개발 및 생산성 증대
  쌀의 경우, 내냉성 및 내염성 종자 생산과 북부, 서부 지역에서의 수확량 증대
  양파의 경우,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을 통한 수확량 증대
  땅콩 및 원예의 경우 생산량 증대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 가치사슬 개선 및 농산업 개발
  주요 품종의 수확 후 관리 기술·유통체계 낙후에 따라 수확 후 손실이 매우 높으며, 특히 쌀의 경우 가치사슬의 수직연계 및 수평연계가 분절화 되어 있어 산지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정도만이 도시 및 준도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
- 농업인력 기술양성
  전국의 16개 농업기술학교에서 농업기술교육을 수료하는 15-25세의 청소년들이 연간 35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농민들의 농업기술 교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수용할 농업생산 인력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농기계 확산

  전국에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가 2003년 기준 700대에 불과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파종 및 수확을 하고 있는 바, 북부 관개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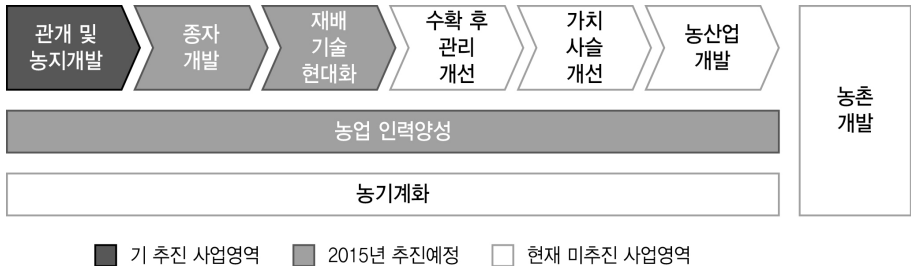
- 농촌개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주택, 식수위생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 관개용수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개발 필요

KOICA는 2008-2013년 총 6년간 다가나 농업생산성 개선 사업, 포도르 관개 개발사업, 그랑디그뗄렐 관개개발 타당성 조사사업 등 세 개 사업을 세네갈 북부 지역에 집중 지원, 농업생산량 증대 및 쌀 수입량 경감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KOICA에서는 그동안의 관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PRACAS 상 주요 품종인 쌀과 양파의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현대화를 위한 생산성증대 사업, 농업인력의 기능양성을 위한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Senegal River Valley 내 쌀 및 양파의 수확 후 관리 및 가치사슬 개선과 농산업 개발, 농기계화, 농촌개발 부문까지 아우르는 “Senegal River Valley 종합 농업/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을 제안한다.

[그림 4-4] KOICA 세네갈 농업부문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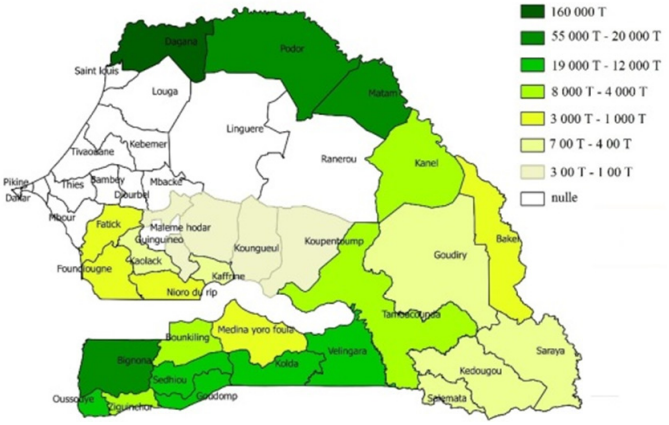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분석

Senegal River Valley 지역은 관개 쌀을 수확하여 세네갈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천수 지역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27%에 그치고 있어 KOICA에서는 Senegal River Valley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5] 지역별 쌀 생산량

(단위: 2008-2012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ment rural. DAP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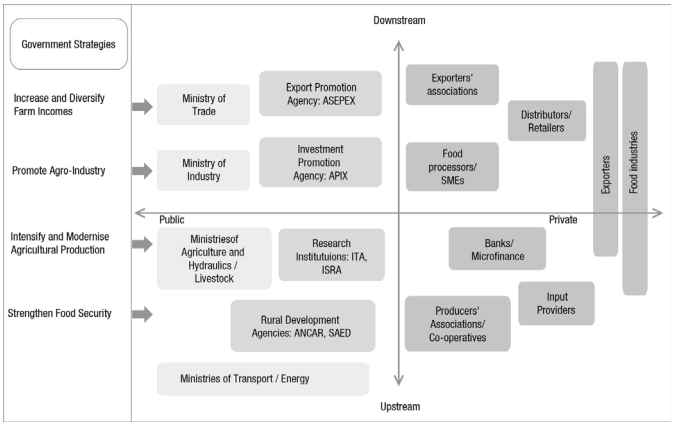
<표 4-20> 쌀 생산지 비교

구분	Saint-Louis 및 Dagana	Podor 및 Matam	Fatick	Kolda	Ziguinchor
쌀의 중요도	주식	주식	부식	부식	주식
농사 시기	6/8-10/12월 1/2-4/5월	6/8-10/12월	6/8-9/10월	7-10월	7-10월
품종 종류	다수확 품종 (개선)	다수확 품종 (개선)	현지 품종 (부분 개선)	현지 품종	현지 품종
농사 환경	관개 저지대	관개 저지대	천수 저지대	천수 저지대	천수 저지대 및 고지대
구획 규모	대(>1 ha)	중(>0.25 ha)	소(<0.1ha)	소(<0.1ha)	소(<0.1ha)
주요 재배자	남성	남성 및 여성	여성	여성	남성 및 여성
토지 조성	자동(기계)	자동(기계)	수동	수동	수동
비료 투여량	높음	높음	최소 수준	낮음	최소 수준
제초제 사용	흔함	흔함/전무	전무	전무	전무
수확	자동 및 수동	자동 및 수동	수동	수동	수동
탈곡	자동	자동 및 수동	수동	수동	수동
평균 수확량	>5MT/ha	>4MT/ha	1-2MT/ha	1-2MT/ha	1-2/MT/ha
이용목적	소비 및 판매	소비 및 판매	판매	판매	판매

자료: USAID. 2009. Global Food Security Response: Senegal Rice Study. Microreport #160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민간주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West Africa Farms 등 민간 농산업자가 관개개발, 식수 및 용수제공, 보건소 건립 등 선순환적인 농업·농촌개발 사례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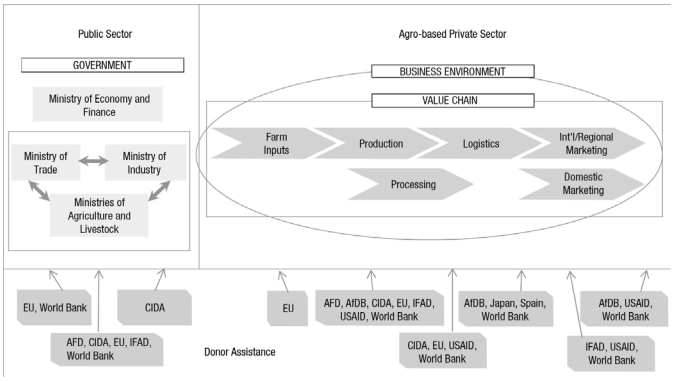
[그림 4-6] 농업 및 농가공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자료: OECD. 2009. “Senegal: Making Better Use of Agribusiness Potential”

농업 가치사슬 별 협력 가능 공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그림 4-7] 농업 관련 공여기관 협력 분야



자료: OECD. 2009. “Senegal: Making Better Use of Agribusiness Potential”

나. 수산

수산 부문은 수출기여도 및 세네갈 및 인근 아프리카 국민들의 단백질 보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및 EDCF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산분야의 경우, 미니포럼 및 부처 방문을 통해 확인된 KOICA와의 협력 희망분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리 – 한국의 주요 어종인 갈치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자문 등
- 수산양식 발전 – 민물양식 및 해수양식에 대한 기술이전 등
- 내수면 어업 촉진 – 어선, 어망 등 장비 현대화 등
- 수산인프라 현대화 – 냉동창고 및 가공센터 건축, 가공기술 이전 등
- 인력양성 및 수산부 기획·평가 역량강화 – 수산인력 양성 및 수산부 역량강화

이 중, 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세네갈 정부와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15.6.4)를 체결, 감척선박 1척을 제공하여 불법조업 감시 및 연안환경 보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양식과 관련하여 KOICA에서 해수양식 타당성 조사(’09-’10)를 실시하고, 수산분야 중장기 자문단 파견 및 국내 해양수산부에서의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민물양식(틸라피아, 메기 등) 관련 지원은 가능하나 해수양식을 위한 기술이전을 제공하기에는 대상지 환경이 적절하지 않고, 현지 인력의 기술 및 관리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수산인프라 현대화는 EDCF에서 지원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여타 부문에 대한 지원은 국내 해양수산부 및 EDCF에서 지원 중이기 때문에 KOICA에서는 “수산인력 양성 및 수산부 기획·평가 역량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네갈의 수산부문 주요 교육훈련기관으로는 다음이 있다.

- Institut Universitaire de Pêche et Aquaculture(IUPA)
- Université Gaston Berger(UGB)
- Ecole Nationale de Formation Maritime de Dakar(ENFM)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Technique en pêche et Aquaculture(CNFTPA)

수산 부문과 관련하여 기획·평가 역량 강화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개발컨설팅(DEEP)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수산물 수출활성화 및 마케팅강화 방안
- 수산연구소 설립 및 역량강화 방안
- 해양자원 정보수집 및 관리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EDCF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또는 기획·평가 역량강화 등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세네갈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양성 후 fish bank를 통한 지속성 있는 자원관리 기술지원, 민물 및 해수 양식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부문의 협력 가능한 양자 및 다자기관과 해당 기관의 유사 경험은 다음과 같다.

<표 4-21> 공여주체별 수산 분야 지원

기관	중점지원 내용	지역
AFD	영세어업을 위한 부두 재정비 /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사회경제적 개발	Saint-Louis 및 서아프리카
USAID	지속가능한 어업 협동관리	Saint-Louis, Louga, Ziguinchor, Sédhiou 및 Grand/Petite Côte
JICA	가치사슬 개발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인프라 건축 / 영세어업 공동관리 / 지역 역량강화 및 삼각협력	Mbour, Dakar, Petite Côte 및 서아프리카
WB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 프로그램	세네갈 관할 해안
EU	지역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CSRP 회원국 7개국 및 전지역
FAO	양식업 지식 강화 / 수산분야 정책 검토 / 카나리아 해류 해양 생태계 보호	전지역 및 서아프리카

주: CSRP 회원국은 세네갈,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 비사우,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Matrice des Projets/Programmes et Financements - Groupe Thématique Pêche des Bailleurs. 재구성

3. 보건의료

세네갈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라 모자보건, 전염병, 식수 및 위생분야의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농 간격차가 높은 수준이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표 4-22> 보건의료 분야 주요 한계점 및 향후 도전과제

구분	한계점	도전과제
공중보건	- 의술 부족 (보건소 직원은 관련 훈련 미비) -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 보건소 직원 훈련 개발 및 의료장비 강화 - 부처 및 공여주체 간 협력 강화
진료소 및 보건소	- 의술(의사, 산파) 및 장비 부족 -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 의료 인력의 균등한 지역 배치 - 의료장비 등 자원 증대
병원	-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 수요 및 실적에 맞는 관리 및 재정지원 취약	- 지역 불평등 해소 - 활동 및 실적에 맞는 지원 - 관리 강화(예. 계약)
민간 부문	- 다카르 또는 Thiès 등 도시에 편중	- 민간부문 개발 장려(특히 2차 기관) - 재정적 접근성 도모
의료 장비	- 의료 장비 취약 (예. 전국에 스캐너 총 8개) - 의약품 미비(특히 농촌 지역) - 위조품 팽배	- 의약품 유통 경로 개선 - 의료품 관리 강화 - 횡령 및 부패 방지
관리 및 재정	- 치료 접근성에 한계 - 과도한 관리비(전체 예산 중 13%) - 의료 인력: 취약한 훈련 및 지역 불평등 - 전략적인 관리의 조직화 불충분	-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 개발 - 관리비 감축 - 훈련 확장 및 지역 불평등 해소 - 시스템의 전략적인 관리 강화
모자보건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 - 의약품 미비(특히 농촌 지역) - 기초 보건인력 부족	- 의료 인력의 균등한 지역 배치 - 기초 인프라 마련 및 인력 양성 - 의약품 및 관련 기자재 확풍
식수위생	-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 일부 지역 수질 문제	- 지역 불평등 해소 - 기후변화 및 염수화 대응 방안 마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3. Document Sectoriel. “Plan Sénégal Emergent. Santé”

특히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와 염수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도농 간 격차의 해소 등의 해결이 중요하며, 해당 부문의 경우 KOICA 기존 식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심화·확대발전이 가능하다.

모자보건 및 기초 보건인력의 양성 역시 세네갈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서 특히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개선과 이를 위한 간호사·산파 등 기초 보건인력의 양성에 KOICA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지역공동체(Community)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

세네갈은 물부족 국가로서 특히 북부 사헬(Sahel) 지대는 강수량 부족으로 식수 및 용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부 지역과 까사망스 강은 염수침입으로 인해 염수화가 진행되고 농촌 지역 지표수가 한정적이다. 또한 홍수, 화학물질 농축 등으로 인한 오염과 지하수 수질 및 위생 관리, 지속가능한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특히 도농 간 식수 및 위생 접근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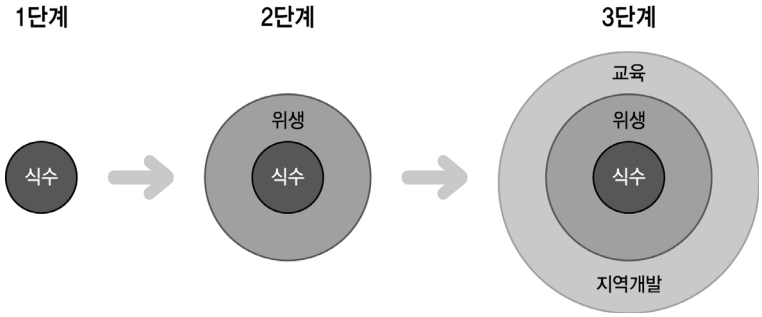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네갈 정부는 Multi-Village System을 도입하여 농촌마을에 관정 1개를 설치하고 인근 5-10km 가구에 물을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식수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총 14,000여개 마을에 2015년까지 300개의 관정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에 부응하여 KOICA에서는 1차적으로 Saint-Louis, Louga, Diourbel, Thiès 등 4개 지역에서 관정 12개를 설치하였으며, 2차 사업을 통하여 Saint-Louis, Louga, Thiès, Fatick, Kaolack, Tambacounda 등 6개 지역에 관정 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부처인 수리위생부와 논의 결과, 1)Multi-village System하 신규 관정설비 확충, 2)관정을 중심으로 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 부가가치 증대의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식수(1단계) → 식수+위생(2단계) → 식수+위생+교육/지역개발(3단계)' 형태로 각 단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커뮤니티(Community)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빈곤도 및 식수위생 접근성을 기준으로 '서부+북부(1단계) → 서부+북부+중부+동부(2단계) → 서부+북부+중부+동부+남부(3단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World Bank의 경우, 사전수요 분석을 통해 시장, 지역공동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 선출 지도자, 지방행정 공무원, 민간부문 관계자, NGO 관계자, 소액금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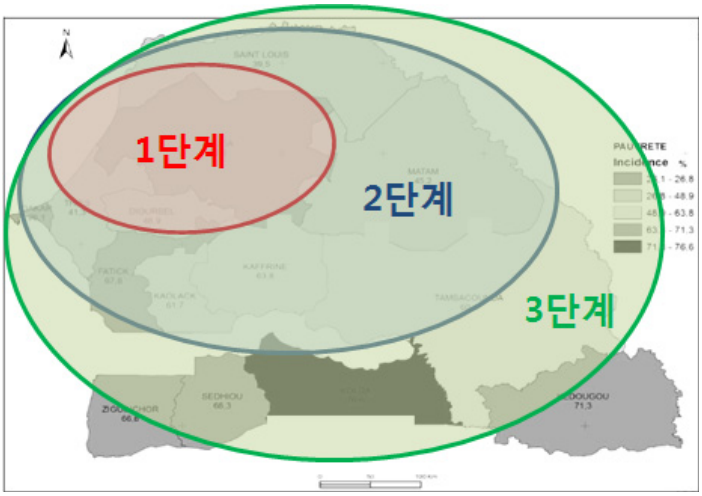
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규모의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Participatory Local Development Project, 2006-2012년)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공동체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을 확대·시행할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8] KOICA 식수위생 사업 단계별 구성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9] KOICA 식수위생 사업 단계별 확장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모자보건 및 기초 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

세네갈의 경우, 전반적인 모자보건 지표의 개선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동부 및 남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모성사망률 및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네갈의 영아사망률은 도시지역에서 30%인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46%이며, 이러한 격차는 생후 5년 사망률에서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도시 44%, 농촌 77%). 세네갈 전 지역 중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부이다. 영아사망률은 또한 산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 4-23> 세네갈 지역・교육・소득별 영아사망률

구분	신생아 사망률	생후 2달 사망률	영아 사망률	생후 4년 사망률	생후 5년 사망률
거주 지역					
도시	15	15	30	14	44
농촌	25	21	46	32	77
지방					
북부	25	15	40	15	54
서부	15	13	28	16	43
중부	21	19	40	28	66
남부	27	29	57	46	100
산모의 교육 수준					
교육 전무	24	19	43	29	70
초등	17	13	31	10	41
중고등 또는 이상	7	23	30	23	53
경제적 지위					
최빈곤	23	24	48	44	89
빈곤	24	22	45	27	71
중간 소득	25	19	44	25	68
중상층	20	15	36	16	51
고소득	10	10	20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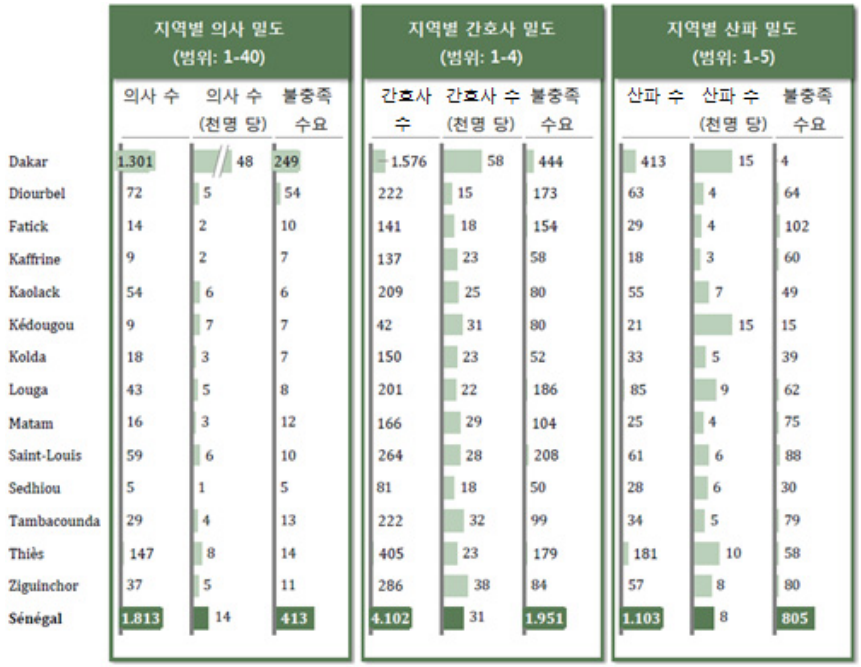
주: 신생아 사망률은 생후 1달, 영아 사망률은 생후 1살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생후 2달 사망률은 신생아 사망률과 영아사망률 간 차이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5. “Agenc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 Démographie. Enquête Demographique et de Santé Continue”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 코트디부아르 UNFPA 협력사업과 같이 현지 경험이 풍부한 공여기관 또는 NGO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 보건의료 인력 또한 Dakar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간호사 및 산파의 경우 Dakar를 포함, Saint-Louis, Louga, Thiès, Diourbel, Fatick 등 인구가 밀집된 북부 및 중서부 지역에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4-10] 지역별 의료 인력 밀도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3. Document Sectoriel. “Plan Sénégal Emergent. Santé”

보다 체계적으로 기초 보건인력(간호사 및 midwives)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인력 양성기관(ENDSS)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JICA에서는 2008-2012년 기간 중 세네갈 보건부(MHSA), 서아프리카 의료기구(West Africa Health Organization, WAHO)와 함께 간호 및 산파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베냉,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코트디부아르, DR콩고,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세네갈의 국가적 과제, KOICA의 기본 협력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협력 프레임워크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4-11] KOICA-세네갈 간 협력 프레임워크

KOICA는 세네갈의 경제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을 목표로, 농수산 및 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도농 간 사회경제적 격차해소를 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접근성 개선 및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1)직업교육훈련 강화사업, 2)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 3)중등교육 STEM 교육역량 강화사업, 4)여성 및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활성화사업을 제시하였고, 현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과의 협력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직업전문대학의 삼각협력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세네갈 북부지역의 종합 농업/농촌개발을 목표로 기존의 농지확보를 위한 관개개발, 쌀과 양파의 생산성 증대 및 농업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가치사슬 및 마케팅 개선, 농촌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Agro-business 기반의 성장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 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EDCF 및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수산부의 기획평가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관련 인프라 및 기술수준 개선에 따라 해수양식 기술이전 사업 등을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농촌지역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1)지역공동체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 2)모자보건 및 기초 보건인력 양성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후속연계 사업의 경우 KOICA 단독의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되, 모자보건 및 보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공여기관 또는 NGO협력 사업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농촌지역 거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와 쌀, 채소 등 국가적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지원이 긴급히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수 공급을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농산물 수출가능성을 높여 해당 부문의 국가경제 기여도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기관설립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청년실업 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세네갈의 역내 교육거점 도시 구축을 지원, 지역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서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고급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치와 외교적 리더십 등으로 인해 불어권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개발 계획과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된다면 세네갈의 경제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구조, 농업 및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인구와 산업구조 상의 불균형, 식수·교육·보건 등 사회개발 접근성 관련 도농 간 격차 등 국가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인근 코트디부아르가 내전 이후 안정화 되면서 지역 내에서 빠르게 물류 및 경제거점의 위치를 회복함에 따라 세네갈의 경제 도약계획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과 세네갈 양국 간 외교 및 경제관계는 확대심화 기조에 있다. 2015년 6월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수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약속하였으며, PSE 상 핵심사업인 항만, 공항, 도로 등의 공공 및 PPP사업에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KOICA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경제외교 관계 및 해당국의 지역 내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난 3월 세네갈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의 개발환경 및 과제와 국제사회의 지원활동 특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정량지표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성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적인 협력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별 목표, 중점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KOICA는 중점분야로 도출된 교육, 농림수산 및 보건의료 부문의 사업을 중심으로 농수산 및 산업발전 기반 구축과 도농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분야의 사업들은 세네갈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과제에 대해 KOICA가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

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KOICA는 서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중심지인 세네갈의 핵심 과제 해결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발전 기반구축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외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 제언

지난 4-5년 간 KOICA의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제1기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었던 DR콩고, 카메룬 등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신규 사무소 개설이 이루어졌다. 최근 발표된 제2기 중점협력국 목록에서는 해당 국가들이 제외되었으며, 대신 세네갈이 유일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로서 중점협력국에 편입되었다.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원역사 및 경험의 일천함, 내륙 지역의 각종 분쟁 및 치안불안 상황,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KOICA 차원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의 경우 세네갈 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어권 아프리카 대표 사무소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언어권 주재원 사무소 혹은 신설 사무소에 대한 지원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지 인력을 관리자급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orld Bank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의 경우 현지 인력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경제전문가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JICA의 경우에는 불어권 아프리카 사무소 중 가장 역사가 긴 세네갈 사무소가 인근 신규 불어권 사무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세네갈과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총괄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관련 수원총괄부처인 경제재정기획부(MEFP)와는 기존의 분기별 정례협의를 확대시켜 여타의 공여기관이 진행하듯 부처별 사업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프로젝트 경과보고회의(Project Progress Meeting) 개최를 제안한다. 또한, 연례적으로 재정부 장관을 카운터파트로 하는 성과평가회의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은 기술협력국(DCT)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봉사단/자문단/연수생 파견부처와 함께하는 경과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급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와 수원국 국민 일반에 대한 홍보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네갈에서는 공여국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KOICA가 적극적으로 Multi/bi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점지원 분야인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관련 분야별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아직 해당국 수요에 비해 분야별 작업그룹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World Bank, AfDB, AFD 등과 함께 동 그룹의 창설을 주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삼각협력, 예산지원(Budget Support) 등 아직 KOICA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지 않은 협력방식(Modality)을 적용해 보는 시범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세네갈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원부처의 태세 및 적극성이 높은 바, 타 공여기관에서 추진하듯이 일부 분야에서 예산지원 또는 정부부처 직접 환급 프로그램(Direct Reimbursement) 방식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의 전문가 및 사업수행기관(개발 컨설팅업체 등)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JICA에서 추진하듯이 불어 및 현지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불어가 가능한 주니어 컨설턴트를 시니어 컨설턴트와 함께 파견하는 방안, 사업 추진 시 수원국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네갈 JICA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의 50% 이상이 불어권 아프리카 봉사단 출신이라는 점은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관수 외. 2013.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전략지역 심층연구 13-31

기획재정부. 2015. 「세네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선박 출항식 대통령 행사로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박영호 외.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세네갈 경제소식. "EDCF 지원 해양인프라 구축사업(MIEP1) 선박 2척 다카르항 도착"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연구』.서울: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2014. 「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5.『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해양수산부. 2015. 「서아프리카 세네갈과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국제협력단. 2011. 「세네갈 다가나지역 농업생산성개선 지원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1. 「세네갈 포도르 관개개발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1. 「세네갈 그랑디그뗄렐 관개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4. 「세네갈 가이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국외 문헌>

AFD. “Appui à l'Agriculture Irriguée et au Développement Economique de Podor (AIDE/Podor) Sommaire”.

____. “Classement des Groups Thématiques selon les Critères de Bon Fonctionnement”.

____. 2012. “l'AFD et le Sénégal: Un partenariat pour une croissance partagée et durable”.

____. 2014. “Rapport Annuel 2013”.

AfDB “Un Aperçu des Interventions du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au Sénégal”.

_____. “Senegal Virtual University Project”.

_____. 2014. “Sénégal-Projet nationaux publics actifs au 30 septembre”.

African Union. “Country Profile: Senegal”. Addis Ababa: African Union.

ANSD. 2014.

Banco Espirito Santo. 2013. “International Support Kit of Opportunities Senegal”.

Beñat Bilbao-Osorio, Soumitra Dutta, and Bruno Lanvin. 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 Rewards and Risks of Big Data”. Geneva: World Economic Forum.

Bertelsmann Stiftung. 2014. “BTI 2014 — Senegal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Bureau Opérationnel de Suivi du Plan Sénégal Emergent. Institutional scheme - PSE implementation.

ChildFund. 2014. “Senegal Case Study: Scaling Up Community Health Services to the National Level through INGO Partnerships”.

CTB. “Programme Indicatif de Coopération 2010-2013”.

Direc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2004.

Direction de la recherche. 2006.

EIU. 2015. “Country Profile: Senegal”.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uropean Commission. 2012. Tools and Methods Series Working Document. “Budget Support Guidelines: Programming, Design and Management - A modern approach to Budget Support”.

FAO 2013. Rebuilding West Africa's Food Potential: Policies and market incentives for smallholder-inclusive food value chains. “Smallholder Participation in Value Chains: The Case of Rice in Senegal”.

FAO, IFAD and WFP. 2014.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 Rome: FAO.

Gassama, Khadidiatou. Toussaint Houeninvo. and Bakary Traoré. 2014. “Senegal 2014”.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Groupe Consultatif. 2014. “Evaluation Quantitative du DSRP-II-Dynamique de la Pauvreté Monetaire”. Paris: Groupe Consultatif.

Groupe Consultatif de PSE. 2014. Partenariat Public-Privé: 18 projets phares. 및 FAO. 2011. Food Balance.

Houeninvo et al. 2015. “Senegal 2015”.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IFPRI. 2015. “2014-2015 Global Food Policy Report”. Washington, DC: IFPRI

ILO. 2009. Private Sector Demand for Youth Labour in Ghana and Senegal. “Ghana and Senegal Study Findings”. Geneva: ILO.

IMF. 2013. “Inclusive Growth and Inequality in Senegal”.

IMF. 2015. “Senegal: Selected Issues. Country Report No. 15/15”. Washington D.C.: IMF.

Jean-François Arvis et al.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Jemima Sy, 2014. “Reform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enegal's Rural Water Sector”.

JICA. “JICA au Sénégal“.

Joi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tmosphere and Ocean, “Sahel Precipitation Anomalies 1900-2013“. Sahel Precipitation Index, (20-10N, 20W-10E), 1900-October 2013, 2013.11.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KPMG. 2012. “Senegal Country Profile. 2012”. Swiss: KPMG International.

Maraver, María Muñoz. and Dior Dassanou. 2011. “Reflections on Gender Parity in Africa”. Dakar: UN Women.

Miller, Terry. and Anthony B. Kim. 2015.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NAFSN. 2014. “First Progress Report – 2013/2014”.

National Agency for Civil Aviation and Meteorology of Senegal, WFP et al. “Climate Risk and Food Security in Senegal: Analysis of Climate Impacts on Food Security and Livelihoods”.

Ncube, Mthuli et al. 2013. “Afric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Tunis: AfDB.
OECD. 2009. “Senegal: Making Better Use of Agribusiness Potential”.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2015. “Senegal Country Briefing”.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Data Bank. OPHI, University of Oxford, January.
République du Sénégal. 2013. Document Sectoriel. “Plan Sénégal Emergent. Santé”.
République du Sénégal. 2011. “ESPS II”.
Republic of Senegal. “Senegal Emerging Plan. Presentation of the Portfolio of Flagship Projects and Reforms”.
République du Sénégal.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2009-2018”.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2013-2025”.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d'eau portable et d'assainissement du Milénaire”.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lan d'Investissement 2011-2015”.
République du Sénégal. “Programme Triennial des Investissements Publics”.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La Réforme en 10 points.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Matrice des Projets/Programmes et Financements – Groupe Thématique Pêche des Bailleurs.
République du Sénégal.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2013. “Résultats Généraux des Pêches Maritimes”.
République du Sénégal. 2012.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2013-2017”.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ment rural. DAPSA”.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lan Sénégal Emergent”.
République du Sénégal. 2014. “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République du Sénégal. 2015. “Agenc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 Démographie. Enquête Demographique et de Santé Continue”.

République du Sénégal. 2015. “Ministère de la Pêche et de l’Economie Maritime. Rapport d’analyse du secteur de la Pêc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3. “Franco-Senegalese Relations 2000-2012”. South African Foreign Policy and African Drivers Programme. SAIIA Occasional Paper No. 133.

UN OCHA. 2012. Overview: Impact of Floods. West and Central Africa.

_____. 2013. Aperçu des Besoins Humanitaires 2014.

UN Statistics Division. 2014.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Senegal”.

_____. 2014. Vol.1 of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New York: UN.

UN. 2013.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

Union Européenn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14-2017 (première phase)

UNDP. 2013. “Le Sénégal que Nous Voulons: Rapport des Consultations Nationales sur l'Agenda de Développement Post 2015”. Dakar: Cabinet Etudes et Management de Projets.

_____. 2013. “Commercializing Communities: Transitions in Water Management in Rural Senegal”.

_____. 2013. “Rapport des Consultations Nationales sur L'Agenda de Développement Post 2015”. Dakar: EMAP.

_____.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New York: UNDP

UNICEF. 2013. “Monthly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Senegal”.

UNRIC. “The movement Y'en a marre – “we've had enough””.

USAID. 2009. Global Food Security Response: Senegal Rice Study. Microreport #160

_____. “Senegal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6”.

WHO. 2012. “Maternal and Perinatal Health Profile: Senegal”.

World Bank. “Une Vision pour un Sénégal émergent”.

_____. 2013.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Y 2013-2017)”.

_____. 2014. “Senegal Economic Update”.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4. “Doing Business 2015: Country Profile Algeria”.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4. “Skills for Jobs and Competitiveness Project”.

_____. 2014.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14 Ebola Epidemic: Short and Medium Term Estimates for West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Multi-village: Presentation of a short study tour in Senegal of January 01.
WFP. 2013. Climate Risk and Food Security in Senegal: Analysis of Climate.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http://global.korcham.net/
세네갈 정부. http://www.gouv.sn/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http://sen.mofa.go.kr/korean/af/sen/main/index.jsp
프랑스 외교부. http://www.diplomatie.gouv.fr/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사무소. http://koicasenegal.org/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
CIA. World Factbook: http://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FAOSTAT. http://faostat.fao.org/
Havest Choice: http://apps.harvestchoice.org/mappr/
Investment Map: http://www.investmentmap.org/
KOTRA Global Window: http://www.globalwindow.org/
Nations Online Project: http://www.nationsonline.org/
OECD/DAC. http://www.aidflows.org/
OECD/DAC Statistics: http:// www.oecd.org/dac/stats/
Open Data for Africa: http://opendataforafrica.org/
UNCTAD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
UNESCO. Country Profiles http://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regions.aspx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세네갈

부 록

[부록 1] 정량분석 방법의 분야별 지표 및 지표 출처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교육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Internet access in schools	
	Availability of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Extent of staff training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Mean years of schooling	Human Development Index
	Expected years of schooling	
보건 의료	Tuberculosis cases/100,000 pop.*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HIV prevalence, % adult pop.*	
	Business impact of HIV/AIDS	
	Infant mortality, deaths/1,000 live births*	
	Life expectancy/years*	
	Density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HO
	Density of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per 1,000 population	
	Health expenditure, public(of GDP)	World Bank
	Mortality rate, under-5(per 1,000 live births)	
	Maternal mortality ratio (national estimate, per 100,000 live births)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Hospitals per 10,000 population	
	Improved water source, rural (% of rural population with access)	
	Improved water source, urban (% of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농림수산	GCI Agricultural policy cost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3)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 Total L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achinery & Equipment area of Agricultural area	
	Agriculture, value added(of GDP)	World Bank
	Fertilizer consumption(per hectare of arable land)	
	Cereal yield(kg per hectare)	
공공행정	Property right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iversion of public funds	
	Public trust in politicians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Judicial independence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s.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Business costs of terrorism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Organized crim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Ethical behavior of firms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0-10(best)*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산업에너지	산업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UNIDO(2010)
		Share of Medium and High-Tech Activities in Total MVA	
		Industry, value added	World Bank
	에너지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Electricity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1)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2010)
		Alternative and nuclear energy	
인프라	교통 인프라	Quality of road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Quality of railroad infrastructure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Airtransport, registered carrier departures worldwide	World Bank
	통신 인프라	Fixed telephone lin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 ICT Indicators(2013)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Internet users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부록 2] 이전 국가개발전략 세부 분야별 전략목적

<표 1> DPES 세부 분야별 전략목적

분야	전략목적
거시경제	거시경제 안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불평등과 빈곤 감소
에너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통 서비스와 인프라	항구, 철도, 도로 인프라 발전
미시 경제	다양하고 적합한 서비스와 상품의 제공 지속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증가
축산	동물과 관련된 제품 수준 향상
어업과 양식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서식지 형성
농업관련 수력	농업을 위한 지하수 활용
산업	국가 산업의 발달 촉진
관광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 구조화
문화	문화상품의 질 향상과 상품의 다양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발달 도모
무역	국제시장과 지역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수단 촉진
교육	초등교육의 의무화, 국가언어 교육과 문맹률 감소 고용시장에서 전문적 교육인 교육,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
건강과 영양	유아·산모사망률, 발병률 감소 보건 분야의 수행력 향상 질병에 대비하는 수단 향상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
식수와 배수	식수로의 접근성 향상(농촌 지역으로) 충분한 양과 수질의 향상 농촌과 도시지역으로의 배수시설 향상
천연자원의 관리와 환경	환경의 질 감소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비 천연자원의 파괴에 대비
고용	공공분야와 비·공식분야에서 고용률 향상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에서 취약한 그룹에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마련 경제적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강화
예산과 재정개혁	예산 지침의 강화
사법	사법 효율성 강화
행정 지방 분권	지속가능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감 강화와 지방 공무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Document de Politique Economique et Sociale 2011-2015. 재구성

<표 2> SNDES의 세부 전략

Pillar I: Growth, Productivity and Wealth Creation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체제	고용 증진
민간부문 개발	생산 분야 개발
에너지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농촌경제 종합개발	농업분야 관리 시스템 개선
농업 생산증대 및 생산성 향상	축산분야 생산증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분야 관리 역량 강화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어업 및 양식업의 생산증대와 생산성 향상
관개 농업 향상	식량 안보 개선
산업 경쟁력과 농식품 가공 증진	광업 분야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
기타 서비스 분야 및 생산 분야 증진	관광업 질적 개선
수공예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술 활동 지원
스포츠와 관련 활동 증진	무역 상품과 서비스 역량강화, 제도적 역량강화
주도적인 경제외교 개발	지역적 통합
국제사회에의 국민 참여와 지식 교류 증대	R&D 증진
Pillar II: Human Capital, Social Pro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인구 및 인적자원	인구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개발
교육	보편교육 확대, 교육의 질적 증진, 문맹퇴치 및 국어 증진, 직업기술교육 강화와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증진
보건	보건서비스 질적 및 접근성 개선, 질병 예방 및 방제 강화, 모자 보건과 영양 개선, 보건 시스템 개선
식수 및 위생	식수접근성 증대 및 위생 개선, 수자원 관리 지원, 식수와 위생 분야 거버넌스 증진
주거환경	도시지역 공간적 개발 및 관리 개선, 홍수 방지,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거버넌스 개선
사회적 보호	노동자 및 퇴직자의 사회적 보호 개선,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비공식분야와 취약계층의 사회보호 확대
위기와 재난예방 및 관리	재해 예방 및 감소, 재해 관리 역량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경감, 자연자원 관리 역량 강화, 녹색경제 증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지 않은 농촌 생태계 구축
Pillar III: Governance, Institutions,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보의 강화: 지속가능한 평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안전보장군 지원 확대	
공공재정 관리 개선,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 경제 거버넌스 개선	
법치, 인권, 정의의 증진	성평등 증진
공공행정 개혁 및 강화	토지계획, 지역개발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2013-2017. 재구성

[부록 3] 세네갈 정성분석 상세결과

지표	분석 내용	결과
[교육]		4.6
정책타당성 (25%)	- 교육전략(PAQUET)에 따라 기초 및 고등교육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통한 보편적 교육 달성 목표 - 대통령 이니셔티브 STEM에 따라 중고등교육 강화 - 교육 및 직업훈련은 PSE의 우선실행계획 핵심분야에 포함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교육부 차관 및 고등교육부 차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의 적극적인 면담 참여 및 자료 제공 - IC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교육정보화 추진 의지 확인 - 교육부는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및 과학·기술학교 건립, 초등학교 인프라 지원, 초등학교 교육정보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교육 장비 지원 희망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3개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08-09/200만 달러) 추진 -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11-15/490만 달러) 추진 - 민관협력으로 티에스 기초교육 개선사업(13-15) 진행 - 향후 직업전문대학 설립사업(15-19/900만 달러),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사업(16-19/550만 달러) 등 고등교육 분야로 지원 확대 예정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및 에볼라 사태에 대한 영향력 없음 -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회복으로 지역 내 산업기술인력 양성수요 흡수 가능	3
[보건의료]		3.95
정책타당성 (25%)	- 보건전략(PNDS)에 따라 사망률 감소 및 질병예방에 집중 - 식수위생프로그램(PEPAM)에 따라 식수위생 접근률 향상 - 식수위생 및 보건은 PSE의 우선실행계획 핵심분야에 포함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보건부 차관 및 수리위생부 차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의 적극적인 면담 참여 - 보건부는 지원이 확정된 사업 이외에도 보건인력 양성 지원 및 신규사업으로 암센터 건립 요청	4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식수개발사업(10-15/550만 달러) 추진 - 에볼라 대응 이동식 의료센터(14/40만 달러) 추진 -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15-18/500만 달러) 예정 - 민관협력으로 모자보건 사업(220만 달러) 예정	4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및 염수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따라 식수 접근성 향상 및 도농 간 격차 완화 필요 - 에볼라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차단했으나 국가전반의 보건시스템 재정비 및 서아프리카 지역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5

지표	분석 내용	결과
[농림수산]		4.6
정책타당성 (25%)	- 농업전략(PRACAS)에 따라 쌀, 양파, 땅콩, 과채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우선실행계획 10건 실행 예정 - 수산전략(LPS-PA)을 PSE 첫 pillar에 부합하여 수산물 관리, 양식 및 내수어업 발전 및 인프라 현대화 추진 - 농업은 PSE의 우선실행계획 핵심분야에 포함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농업농촌부 차관 및 해양수산부 국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의 적극적으로 면담 참여 및 자료 제공 - 농업농촌부는 지원이 확정된 사업 이외에도 신규사업으로 농촌개발 지방정부 재정비 및 역량강화, 농촌 인프라 현대화, Casamance 논밭 재구성 등 지원 요청 - 해양수산부는 인프라 현대화, 역량 강화 등 지원 요청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포도르 지역 관개개발사업(08-10/180만 달러) 지원 - 세네갈 그랑디그뗄렐 관개개발 F/S(09-10/180만 달러) - 농업생산성 증대사업(14-17/300만 달러) 지원 -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14-17/300만 달러) 지원 - 수산 분야는 해수양식장 타당성조사(07-10/1.6백만 달러) - 향후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16-21/850만 달러) 지원 검토 중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및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해결 필요 - 에볼라 사태 및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영향력 없음	3
[공공행정]		1.4
정책타당성 (25%)	- PSE의 세 번째 pillar에서 거버넌스 및 제도 역량 강화 추진 - PSE의 우선실행계획 세부목표에 공공행정 개혁, 굿거버넌스 및 지역개발과 통합 포함	2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유관부처와 면담 부재 - 수원 총괄부처인 경제재정기획부에서 디지털 예산 회계(DBA), 종합조세제도(ITS),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 조세재정 부문 현대화 지원 요청	2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기 추진 사업 및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및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영향력 없음	1

지표	분석 내용	결과
[산업에너지]		1.65
정책타당성 (25%)	- 에너지는 PSE의 우선실행계획 핵심분야에 포함되어 통합 전력 규제 계획, 탄화수소 공급,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 관련 핵심 프로젝트 진행 예정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유관부처와 면담 부재 - 생산 부문 에너지 제약 조건 완화 및 에너지원 다각화 등의 수요 확인	2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기존 사업 및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및 에볼라 사태에 대한 영향력 없음 - 코트디부아르의 경제회복으로 인한 역내 경제 및 물류 거점지 이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떨어짐	1
[인프라]		1.9
정책타당성 (25%)	- 인프라는 PSE의 우선실행계획 핵심분야에 포함되어 국가 인프라 통합 개발 계획 관련 핵심 개혁과제 및 지역 물류 및 산업 허브, 지역 멀티서비스 및 관광 허브 육성 관련 핵심 프로젝트 진행 예정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유관부처와 면담 부재 - 행정, 물류, 정보화 기능이 포함된 서아프리카 신지식도시 Diamniadio 및 Blaise Diagne 신공항 개발 중	2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기존 사업 및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역학관계 변화)	- 기후변화 및 에볼라 사태에 대한 영향력 없음 - 코트디부아르의 경제회복으로 인한 역내 경제 및 물류 거점지 이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떨어짐	1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5-12-169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세네갈

발 행 2015년 8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넷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